

yearly *Fund Review* 2001

2002. 2

해 외 편

yearly *Fund Review*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초에 발간됩니다. 그러나 yearly *Fund Review*의 어떤 내용도 특정 증권이나 펀드의 매입·매도 추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성 책임자: 연구위원 고광수 ☎ (02)3771-0633

내용 문의: 연구원 박기홍 ☎ (02)3771-0635

기타 문의: 연구조원 황은미 ✉ em425@ksri.org

한국증권연구원 홈페이지: www.ksri.org

서 언

저희 증권연구원은 2001년 1월부터 전자 매체를 통해 월간으로 발행하던 *Fund Review*를 2001년 6월 4일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6월호부터는 인쇄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 *Fund Review*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 경과되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Fund Review*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하면서, 증권연구원은 향후에도 신속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아 *Fund Review*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1년의 *Fund Review* 발행 과정에서 수집되었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 *yearly Fund Review 2001*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의 펀드산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그래프와 제도 변경 사항, 월간 자료에서 누락되었던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부득이 국내편과 해외편으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국내편을, 2월에는 해외편을 발간합니다.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독자들에게 본 자료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의 작성 책임을 맡았던 본원의 고광수 박사, 매일 매일의 작성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던 박기홍 연구원, 도안 및 편집에 정성을 다하였던 황은미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Fund Review* 도안과 초창기 편집을 담당하였던 김혜성씨, 최근의 해외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준 강창윤 연구원, 신속한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실 및 세종아트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02년 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목 차

I	수탁고 동향	국내편 별권 발간
II	제도 동향	국내편 별권 발간
III	펀드산업 현황	국내편 별권 발간
IV	해외 수탁고 동향	

수탁고 동향 목차

수탁고 동향 요약

1. 주요국 수탁고 동향	IV-1
장기 수탁고 추이	IV-1
2001년 수탁고 추이	IV-2
GDP 대비 수탁고 장기 추이	IV-3
2001년 말 GDP 대비 수탁고	IV-3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장기 추이	IV-4
2001년 말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IV-4
채권 발행잔고 대비 채권형 수탁고 장기 추이	IV-5
고객 유형별 현황	IV-5
펀드 수 추이	IV-6
펀드 평균 규모 추이	IV-6
2. 미국 수탁고 및 퇴직자산 동향	IV-7
2001년 뮤추얼펀드 수탁고 추이	IV-7
뮤추얼펀드의 미국 가계 소유 비중	IV-7
1990년 대비 2000년 고객 유형별 현황	IV-7
ETF 수탁고 장기 추이	IV-8

Closed-end Fund 수탁고 장기 추이	IV-8
2001년 Unit Investment Trust 수탁고 추이	IV-8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퇴직자산 장기 추이	IV-9
전체 뮤추얼펀드 자산 중 퇴직자산 비중	IV-9
전체 퇴직자산 중 뮤추얼펀드 투자 비중	IV-9
401(k) plan 투자 자산 규모 장기 추이	IV-10
401(k) plan 자산에서 투자된 뮤추얼펀드 비중	IV-10
401(k) plan의 평균 자산 배분 비중	IV-10
3. 기타 주요국 수탁고 동향	IV-11
2001년 영국 수탁고 추이	IV-11
2001년 일본 수탁고 추이	IV-11
2001년 캐나다 수탁고 추이	IV-12
2001년 이태리 수탁고 추이	IV-12

V 해외 펀드산업 현황

해외 펀드산업 현황 목차

1. 1월	V-1
2. 2월	V-17
3. 3월	V-35
4. 4월	V-57
5. 5월	V-79
6. 6월	V-103
7. 7월	V-127
8. 8월	V-157
9. 9월	V-187
10. 10월	V-211
11. 11월	V-241
12. 12월	V-277
◆ 2001년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자료 모음	V-309

IV

해외 수탁고 동향

해외 수탁고 동향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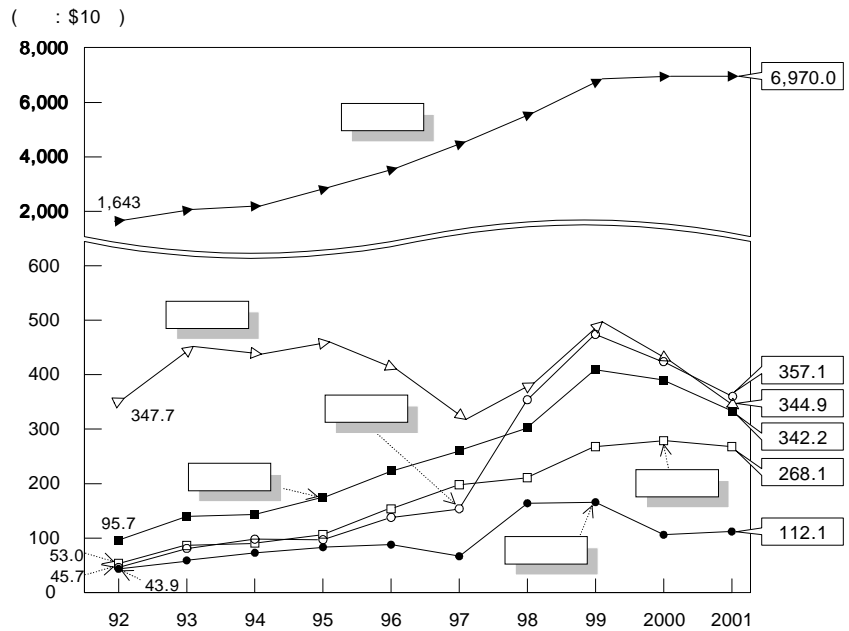
1. 주요국 수탁고 동향	IV-1
장기 수탁고 추이	IV-1
2001년 수탁고 추이	IV-2
GDP 대비 수탁고 장기 추이	IV-3
2001년 말 GDP 대비 수탁고	IV-3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장기 추이	IV-4
2001년 말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IV-4
채권 발행잔고 대비 채권형 수탁고 장기 추이	IV-5
고객 유형별 현황	IV-5
펀드 수 추이	IV-6
펀드 평균 규모 추이	IV-6
2. 미국 수탁고 및 퇴직자산 동향	IV-7
2001년 뮤추얼펀드 수탁고 추이	IV-7
뮤추얼펀드의 미국 가계 소유 비중	IV-7
1990년 대비 2000년 고객 유형별 현황	IV-7
ETF 수탁고 장기 추이	IV-8
Closed-end Fund 수탁고 장기 추이	IV-8
2001년 Unit Investment Trust 수탁고 추이	IV-8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퇴직자산 장기 추이	IV-9
전체 뮤추얼펀드 자산 중 퇴직자산 비중	IV-9
전체 퇴직자산 중 뮤추얼펀드 투자 비중	IV-9
401(k) plan 투자 자산 규모 장기 추이	IV-10
401(k) plan 자산에서 투자된 뮤추얼펀드 비중	IV-10
401(k) plan의 평균 자산 배분 비중	IV-10
3. 기타 주요국 수탁고 동향	IV-11
2001년 영국 수탁고 추이	IV-11
2001년 일본 수탁고 추이	IV-11
2001년 캐나다 수탁고 추이	IV-12
2001년 이태리 수탁고 추이	IV-12

해외 수탁고 동향 요약

- 북미와 유럽의 펀드 수탁고는 최근 10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 비해 아시아권의 성장은 저조하였음
 - 미국은 주식시장의 견실한 성장과 연금시장의 확대가 뮤추얼펀드의 급성장을 촉진하였음
 - 일본은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탁고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임
- 미국의 GDP 대비 수탁고는 1992년 말에 26%에서 2001년 말에는 68%로 급증하였고, 일본을 제외한 캐나다, 영국, 이태리, 한국은 모두 25% 이상이 되었음
 - 한국은 수익증권 성격을 가지는 은행신탁을 포함할 경우 GDP 대비 수탁고가 42%가 되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고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미국은 80%가 가계이고, 일본은 81%가 개인이며, 영국은 77%가 소매로 나타나 기관의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비중이 27%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고객 구조를 보임
- 펀드의 평균 규모 측면에서도 미국이 \$8,380억으로 가장 큰데 비해, 한국은 \$170억으로 미국의 2% 수준에 불과하며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작은 수준임
- 미국은 뮤추얼펀드 산업과 연금 산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왔음
 - 전체 뮤추얼펀드 자산 중 퇴직자산의 비중이 1990년 말에 19%에서 2000년 말에는 35%로 증가하였음
 - 전체 퇴직자산 중 뮤추얼펀드 비중도 1990년 말에 5%에서 2000년 말에는 21%로 증가하였음
 - 전체 401(k) plan 자산 중 뮤추얼펀드 비중은 2000년 말에 45%를 기록하였음

1. 주요국 수탁고 동향

장기 수탁고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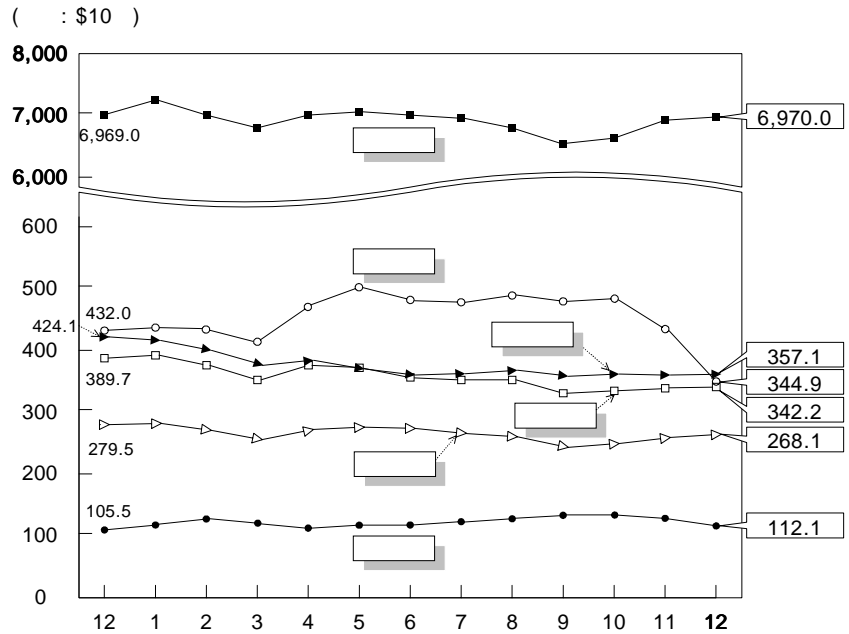


자료: 「투신」 최근호, www.kitca.or.kr,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일본 투신」 최근호,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www.bok.or.kr, http://koexbank.co.kr

- 미국 뮤추얼펀드는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음
 - 주요 요인은 주식시장의 견실한 성장과 연금 시장의 확대임
 - 미국 뮤추얼펀드 수탁고는 절대적 비중이 매우 큰 상태이며, 뮤추얼펀드 제도 자체도 전세계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수탁고 성장에 비해 아시아 지역은 저조한 성장을 기록
 - 이탈리아의 수탁고는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큰 성장율을 보여 7.81배로 증가하였음
 - 영국과 카나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음
 - 일본은 지난 10년간 수탁고의 성장이 거의 없었으며, 최근의 수탁고 하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한국은 최근의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1.5배 이상의 수탁고 증가를 보였음

2001년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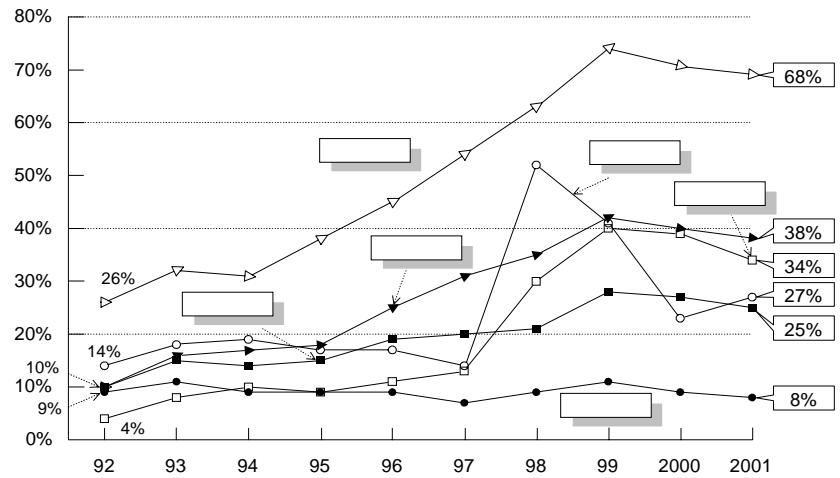


자료: www.kitca.or.kr,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http://koexbank.co.kr

- 지난 1년간 미국 뮤추얼펀드의 수탁고는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음
- 이태리, 영국, 카나다, 한국은 2001년 동안 수탁고 급등락이 없었지만, 일본은 10월 이후 급락하였음
 - 이태리, 영국, 카나다는 지난 1년간 약간의 수탁고 감소만이 있었음
 - 한국은 \$66억의 수탁고 증가를 경험
 - 일본의 수탁고 급감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함
 - 특히, 미국 엔론사와 아르헨티나 채권을 많이 보유했던 MMF의 수탁고 격감이 전체 수탁고에 큰 영향을 주었음

GDP 대비 수탁고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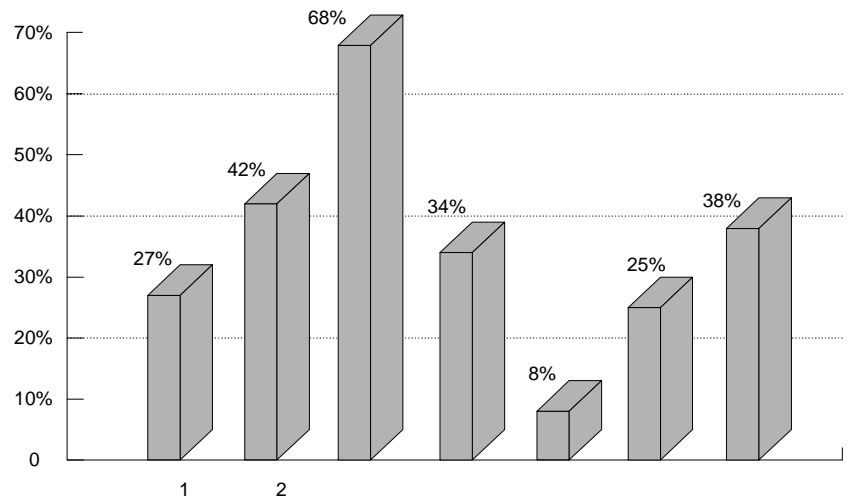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수탁고 추이의 변동성이 매우 컸음



자료: 「월간 국제통계」 최근호, www.bok.or.kr, 「투신」 최근호, www.kitca.or.kr,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일본 투신」 최근호,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http://koexbank.co.kr>

2001년 말 GDP 대비
수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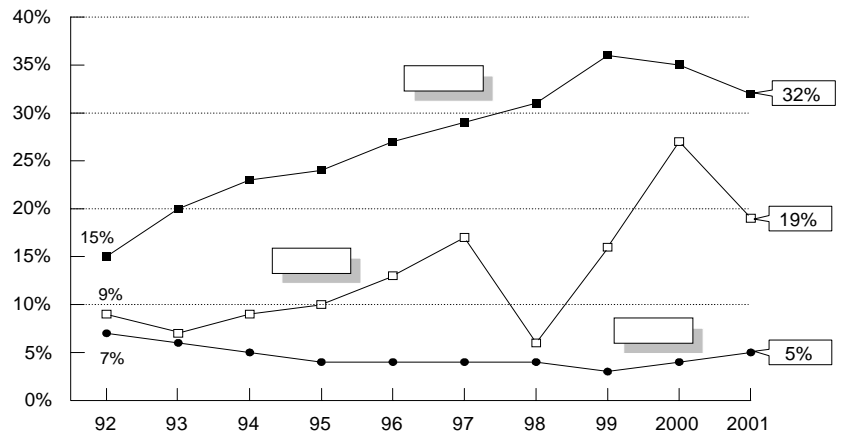
○ 한국은 6개국 중 GDP 대비 수탁고 비중이 4위임
- 수익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은행신탁까지 포함할 경우 GDP 대비 수탁고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음



* 한국1은 투자신탁 수탁고이며, 한국2는 은행신탁까지 포함했음

자료: 「월간 국제통계」 최근호, www.kitca.or.kr,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http://koexbank.co.kr>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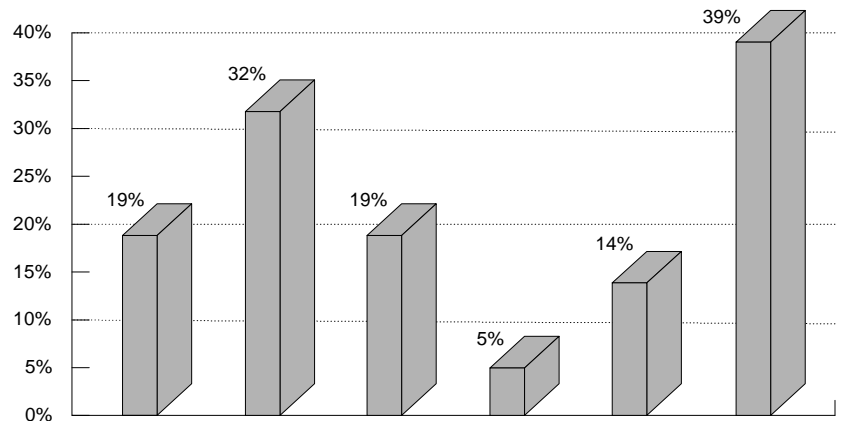


- * 주식형 수탁고 비중은 순수 주식형과 혼합형 수탁고를 합계한 것임
- * 주식 시가총액은 뉴욕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만 고려했음

자료: 「주식」 최근호, 「증권시장」 최근호, www.nyse.com,
www.tse.or.jp, www.kitca.or.kr, www.ici.org,
www.toushin.or.jp

2001년 말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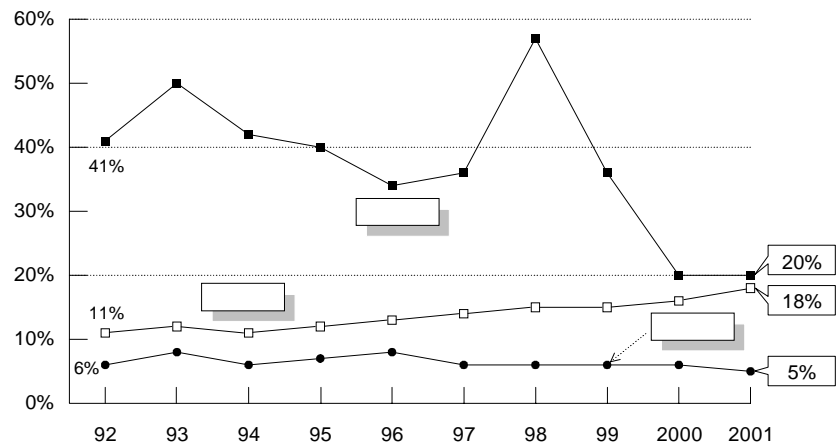
- 한국의 시가총액 대비 주식형 수탁고 수준이 19%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순수 주식형의 비중이 매우 작음
- 주식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 주식 시가총액은 각 국의 대표적 거래소만 고려했음
- * 영국 및 카나다는 펀드 수탁고가 섹터별로 집계되어 있어 주식형 펀드의 성격을 가진 섹터를 합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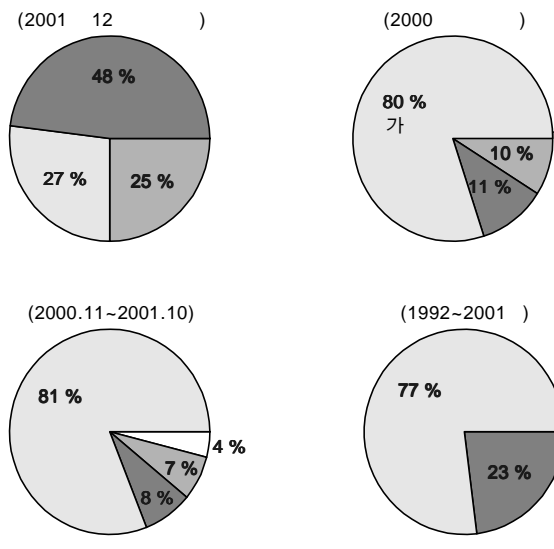
자료: 「증권시장」 최근호, www.nyse.com, www.tse.or.jp,
www.londonstockexchange.com, datastream,
www.borsaitalia.it, www.kitca.or.kr, www.ici.org,
www.toushin.or.jp, www.investmentfunds.org.uk,
www.ific.ca, www.assogestioni.it

채권 발행잔고 대비
채권형 수탁고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 채권형 펀드 범주에는 채권형 펀드와 MMF가 포함됨
 자료: 「주식」 최근호, 「증권시장」 최근호, www.bondmarkets.com,
 「일본 투신」 최근호, 「투신」 최근호, www.kitca.or.kr,
 www.ici.org, www.toushin.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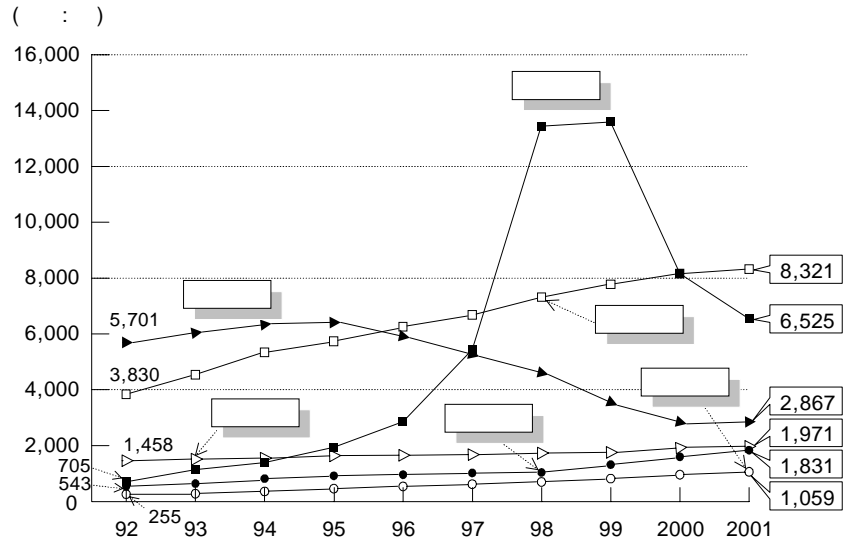
고객 유형별 현황



- * 미국 자료에서 가계는 개인 계좌에서 보유된 뮤추얼펀드, 종업원 퇴직연금, IRAs, 변액연금 등을 포함한 자료임
- * 한국과 미국은 전체 수탁고 중 각 부문별 비중임
- * 일본 자료는 계약형 공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 상황에서 단위형 주식형 펀드와 공사채형 펀드의 2000.11~2001.10월 동안 자료를 합계하여 각 부문별 비중을 계산했음
- * 영국 자료는 1992~2001년 동안 순매출액을 합계한 자료를 기초로 각 부문별 비중을 계산했음
- * 계산 오차로 인해 전체 비중의 합계가 100% 초과 또는 미만이 될 수 있음

자료: 2001 Mutual Fund Fact Book by ICI,
 「투신」 최근호, 「일본 투신」 최근호,
 www.investmentfunds.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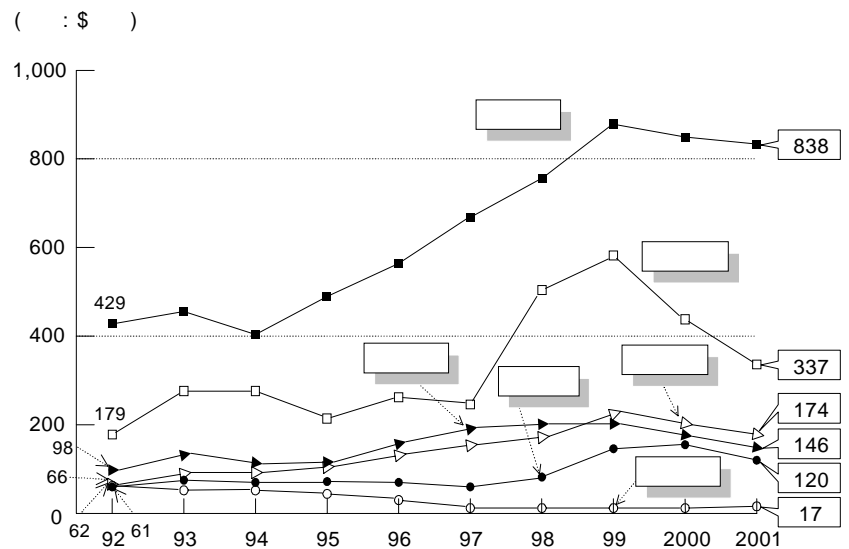
펀드 수 추이
(연 말 기준)



자료: 「투신」 최근호,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일본 투신」 최근호,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펀드 평균 규모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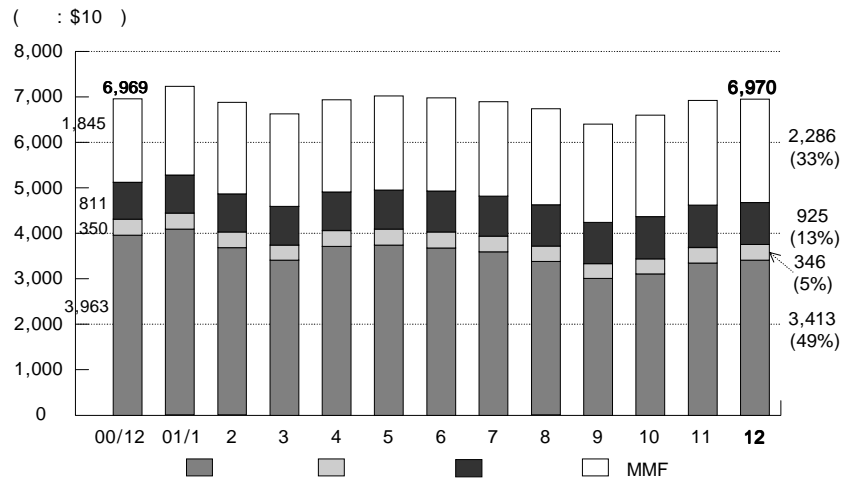
- 한국의 평균 펀드 규모는 지난 10년간 크게 축소되어 \$1,700만에 불과함
 - 비교 대상 6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수준에 해당함



자료: 「투신」 최근호, 「투자신탁 가격정보」 각호, www.kitca.or.kr, www.ici.org, www.investmentfunds.org.uk, 「일본 투신」 최근호, www.toushin.or.jp, www.ific.ca, www.assogestioni.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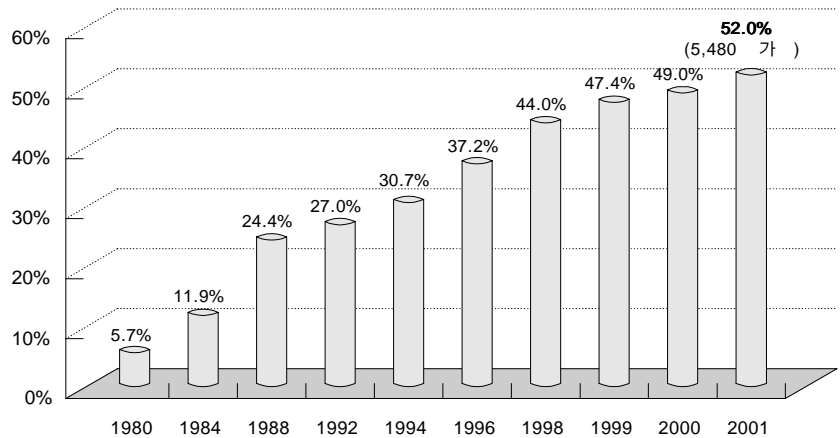
2. 미국 수탁고 및 퇴직자산 동향

2001년 뮤추얼펀드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자료: www.ic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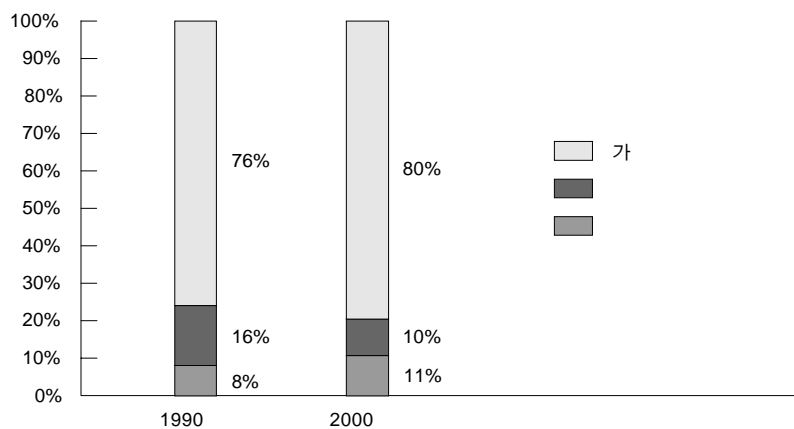
뮤추얼펀드의 미국 가계 소유 비중 (연 말 기준)



* 2001년 자료는 2001년 5월 말 자료이며, 순수한 가계의 비중만을 나타냄

자료: 2001 Mutual Fund Fact Book by ICI

1990년 대비 2000년 고객 유형별 현황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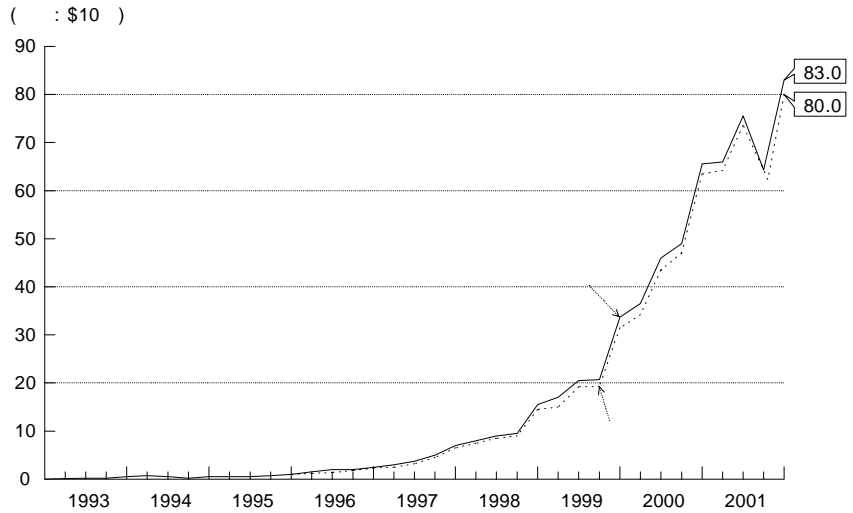


* 계산 오차로 인해 전체 비중의 합계가 100% 초과 또는 미만이 될 수 있음

* 미국 자료에서 가계는 개인 계좌에서 보유된 뮤추얼펀드, 종업원 퇴직연금, IRAs, 변액연금 등을 포함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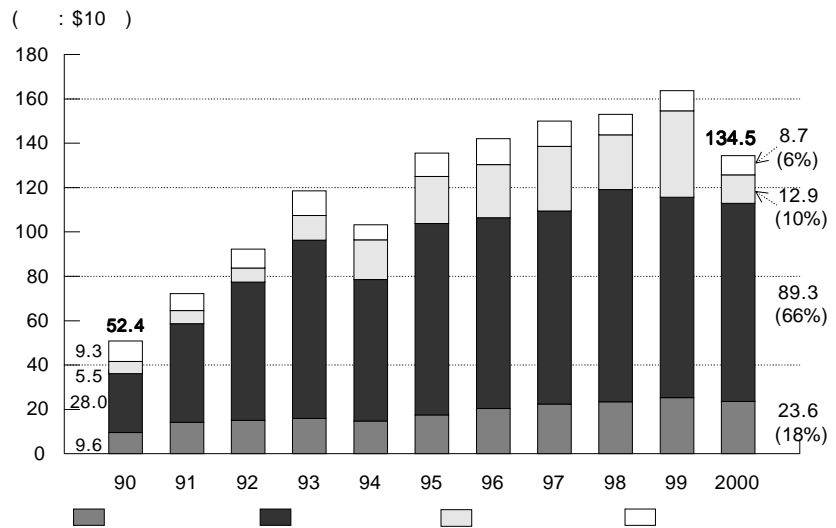
자료: 2001 Mutual Fund Fact Book by ICI

ETF 수탁고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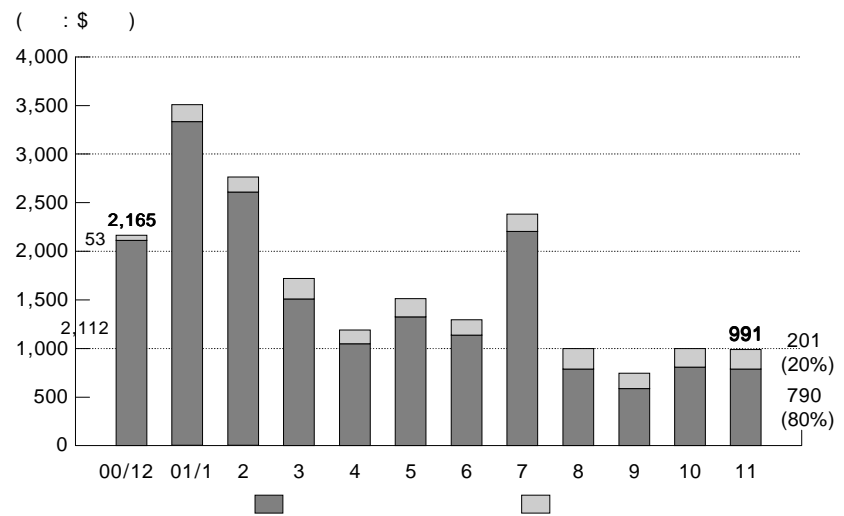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Closed-end Fund 수탁고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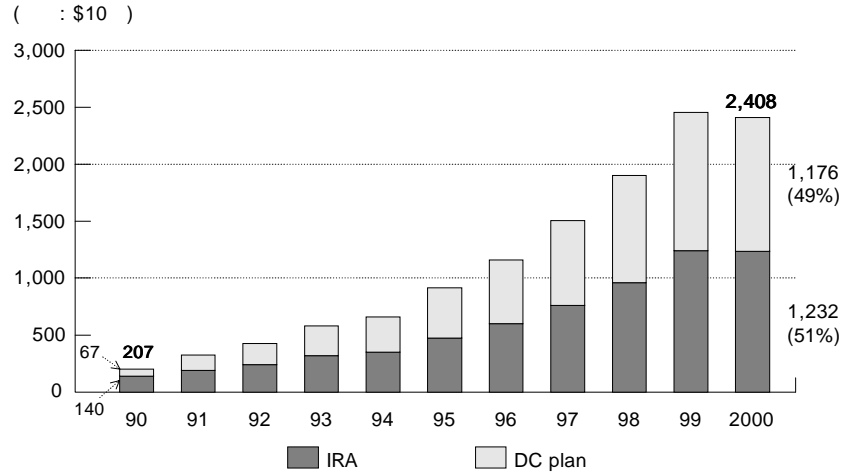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2001년 Unit Investment Trust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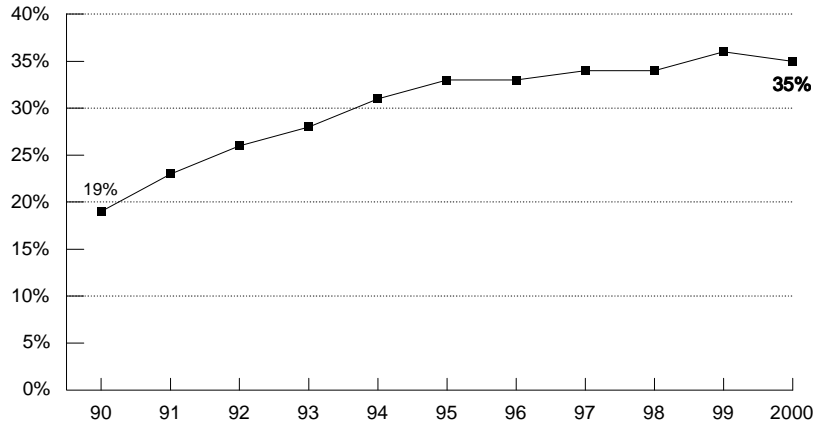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퇴직자산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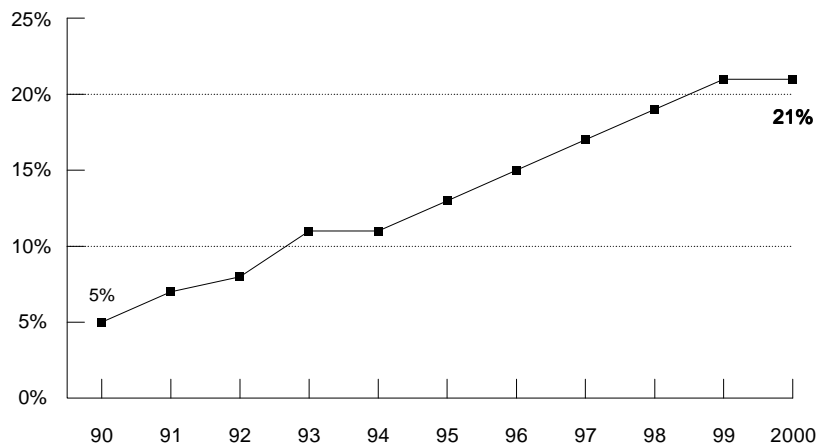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전체 뮤추얼펀드 자산 중
퇴직자산 비중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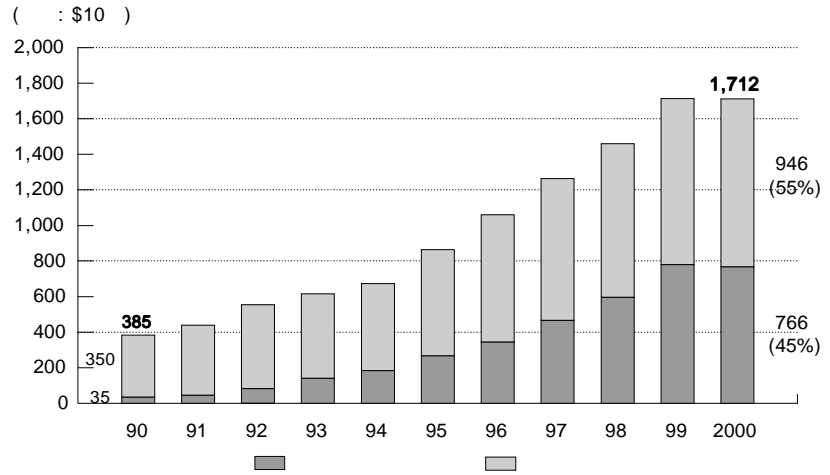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전체 퇴직자산 중
뮤추얼펀드 투자 비중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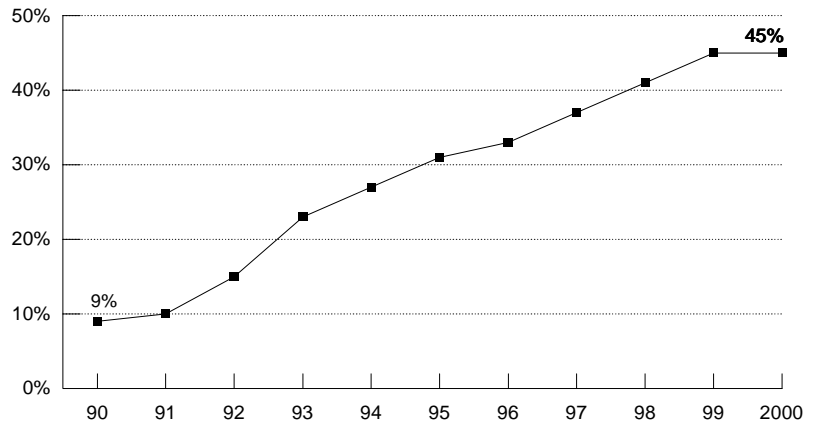
자료: www.ici.org

401(k) plan 투자 자산
규모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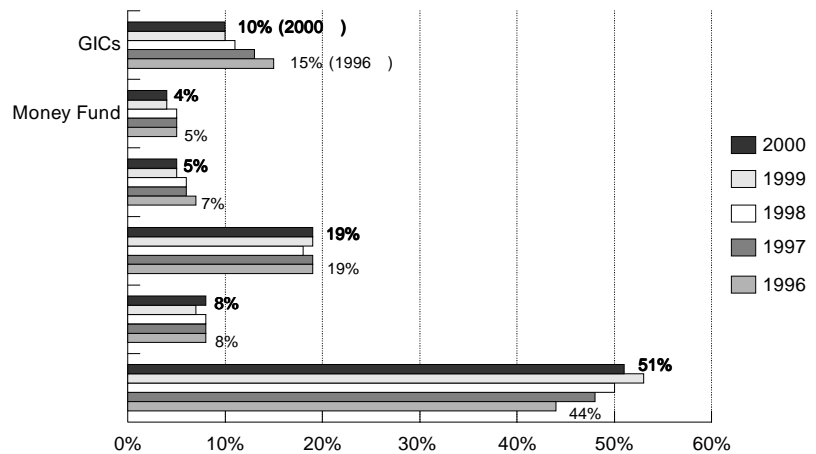
자료: 2001 Mutual Fund Fact Book by ICI

401(k) plan 자산에서
투자된 뮤추얼펀드 비중
(연 말 기준)



자료: www.ici.org

401(k) plan의 평균 자산
배분 비중 (연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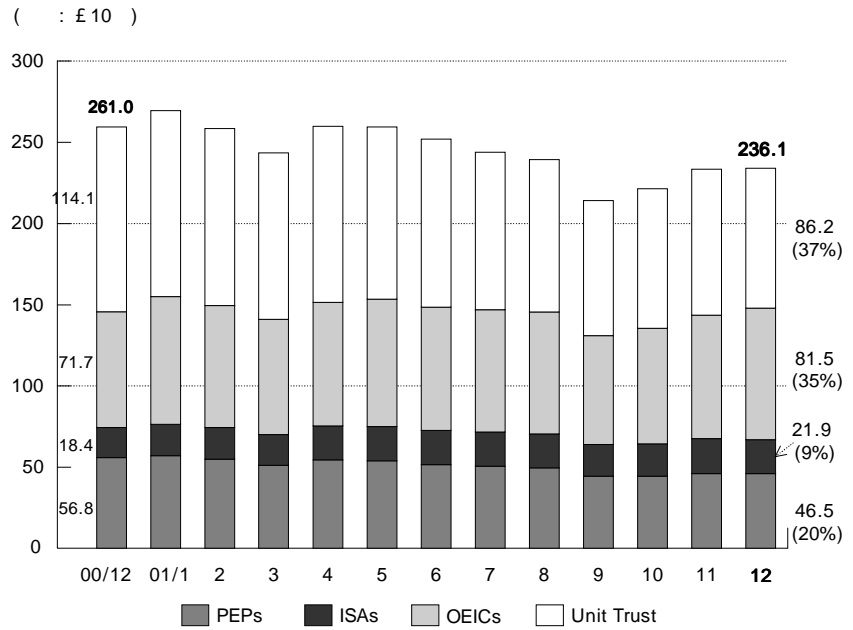


* GIC는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의 약어로 계약 기간 동안에 보장된 수익을 제공하는 보험사 상품임

자료: www.ic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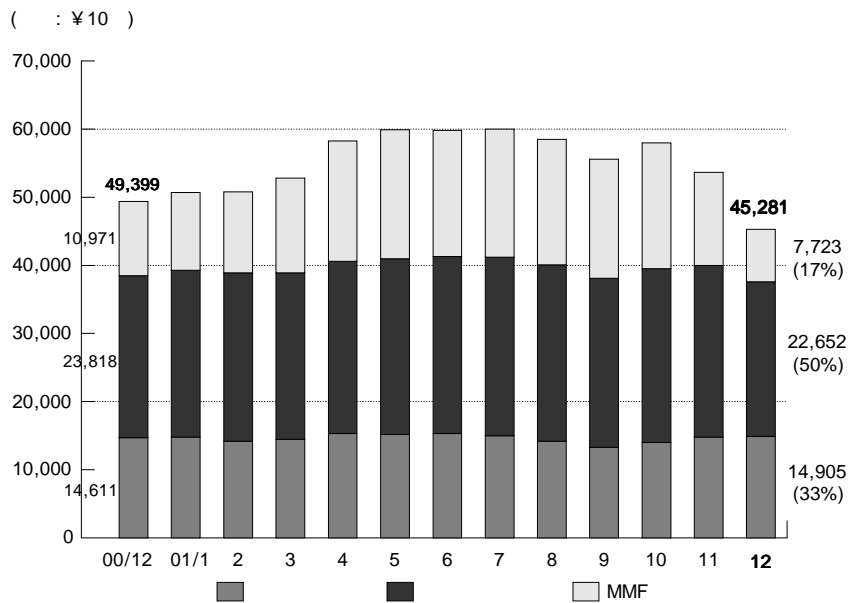
3. 기타 주요국 수탁고 동향

2001년 영국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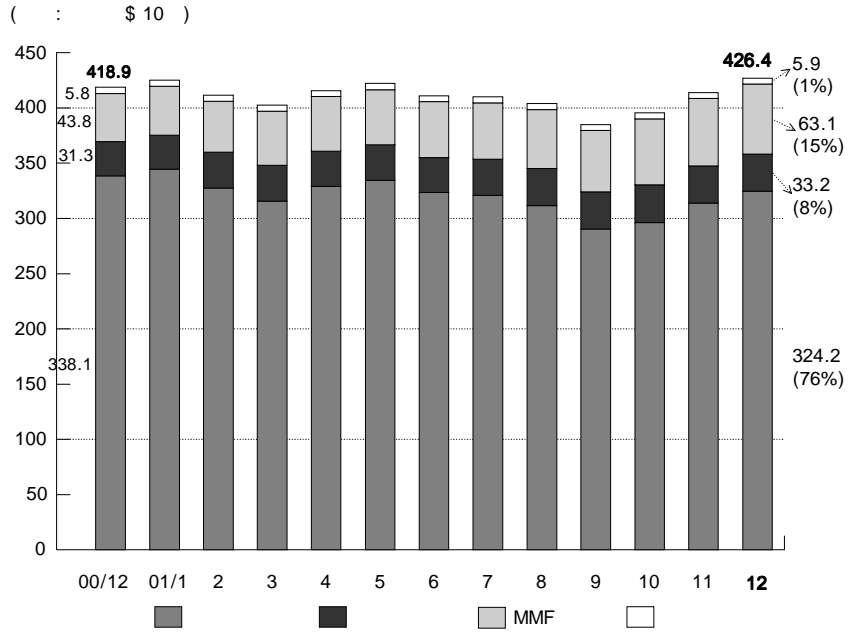
자료: www.investmentfunds.org.uk

2001년 일본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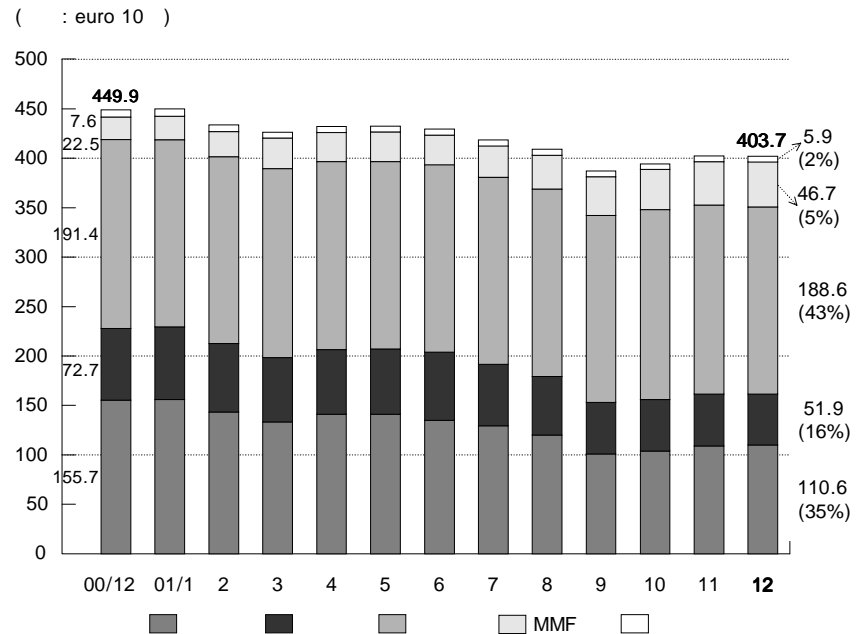
자료: www.toushin.or.jp

2001년 캐나다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자료: www.ific.ca

2001년 이태리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자료: www.assogestioni.it



1월

January

10대 해외 기사

1. 뮤추얼펀드 독립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SEC 규정 승인
(미국, 5일)
2. 뮤추얼펀드 명칭에 대한 엄격한 새 규정을 적용하는 SEC
(미국, 17일)
3. 고객 펀드를 MM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CFTC
(미국, 18일)
4.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실태 조사
(미국, 22일)
5. 뮤추얼펀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채택한 SEC
(미국, 26일)
6. 소매 판매가 진행되는 유럽에서의 헤지펀드
(유럽, 8일)
7. UCITS 약관 제안에 동의한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
(유럽, 16일)
8. 비거주자 중개 대리인에 관한 법안에 대해 논쟁 중인
프랑스 의회 (프랑스, 9일)
9. 외국인 주식 소유 비중 한도 폐지
(대만, 10일)
10. 연금펀드의 자국내 펀드 투자 허용
(칠레, 15일)

◆ 1월 해외 목차 (1/1-1/10)

1/1 (MON)	신 정
1/2 (TUE)	○ 침체된 증시를 극복하기 위한 펀드 운용의 여러 전략들 소개 (미국)
1/3 (WED)	○ 인도 투자자들의 수정된 투자 전략 (인도)
1/4 (THU)	○ Regulation F-D로 인해 리서치 부문을 강화하는 뮤추얼펀드 회사 (미국)
1/5 (FRI)	○ 펀드 투자자를 위한 뮤추얼펀드 독립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SEC 규정 승인 (미국)
1/6 (SAT)	
1/7 (SUN)	
1/8 (MON)	○ 소매 판매가 진행되는 유럽에서의 헤지펀드 (유럽)
1/9 (TUE)	○ 비거주자 중개 대리인에 관한 법안에 대해 논쟁이 진행 중인 프랑스 의회 (프랑스)
1/10 (WED)	○ 대만 외국인 소유 비중 한도 폐지 (대만)

◆ 1월 해외 목차 (1/11-1/20)

1/11 (THU)	○ 위축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펀드 (아시아)
1/12 (FRI)	○ 2000년은 영국 펀드 산업의 슬럼프 시기 (영국)
1/13 (SAT)	
1/14 (SUN)	
1/15 (MON)	○ 칠레 연금펀드의 자국내 펀드 투자 및 뮤추얼펀드의 자국내 상품 개발 허용 계획 (칠레)
1/16 (TUE)	○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 UCITS 약관 제안에 동의 (미국)
1/17 (WED)	○ 뮤추얼펀드 명칭에 대한 엄격한 새 규정을 적용하는 SEC (미국)
1/18 (THU)	○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거래법 규정 (Commodity Exchange Act Rule) 1.25의 수정안을 채택 (미국) ○ 증시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본의 투자신탁 (일본)
1/19 (FRI)	○ 대형 뮤추얼펀드 관련 회사들의 펀드에 대한 웹포털 계획 공개 (미국)
1/20 (SAT)	

◆ 1월 해외 목차 (1/21-1/31)

1/21 [SUN]	
1/22 [MON]	○ ICI에서 확정각출형 연금 상품의 퇴직시 지급 선호 방식 및 사용 실태 조사 (미국)
1/23 [TUE]	휴 일
1/24 [WED]	구 정
1/25 [THU]	휴 일
1/26 [FRI]	○ SEC 뮤추얼펀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채택 (미국) ○ 미국과 아시아의 이자율 하락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세계)
1/27 [SAT]	
1/28 [SUN]	
1/29 [MON]	○ 펀드 산업 올해 초의 수익률 상승에 따라 지난해 손실 일부 상쇄 (미국) ○ ICI는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요청으로 미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개선안 제공 (미국)
1/30 [TUE]	○ 제너스의 CEO인 Thomas H.Bailey의 Janus 보유주식 50%를 매각할 예정 (미국 1/30)
1/31 [WED]	○ 벌처펀드의 전성 시대인 미국 (미국)

◆ 2001년 1월 2일 화요일

○ 침체된 증시를 극복하기 위한 펀드 운용의 여러 전략들 소개 (미국)

- 90년대 계속되던 증시 호황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 침체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용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음
 - 시장 인덱스를 이끌어가는 주식 위주로 투자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인덱스 수익률을 얻으면서 약세장을 견디려는 전략
 - 기술주 등 특정주식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현재의 하락장에서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 분산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
 - 현재의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장기 성과를 고려하여 과거 고성장을 이루었던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펀드 고유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도록 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월 3일 수요일

○ 인도 투자자들의 수정된 투자 전략 (인도)

- 지난 해의 증시 침체로 인해 인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및 분산투자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음
 - 펀드평가사인 Value Research에 따르면 다양한 주식 편입비율을 가진 78개의 뮤추얼펀드 중 69개가 두자리 수의 손실율을 기록했으며, 손실을 기록한 69개 중 15개가 -40%를 기록
-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들은 기존 포트폴리오 자산을 재구성하려 하고 있으며, 분산투자의 원리를 따르려는 경향을 띄고 있음
-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인도의 소프트웨어 분야가 건실하고 잠재력이 있으므로 침체된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주식 부문에 현재의 투자 비중이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난 해 1/4분기 동안 뮤추얼펀드 유입액 중 소프트웨어 부문이 37%를 차지했으나, 연말이 되면서 줄어들어 26%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1월 4일 목요일

- Regulation F-D로 인해 리서치 부문을 강화하는 뮤추얼펀드 회사 (미국)
 - Regulation Fair Disclosure Rule이 발효되면서 뮤추얼펀드 회사는 Wall Street에 근거를 둔 증권회사에서 제공되는 분석자료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리서치 부문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해 10월에 애널리스트와 같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완전한 정보를 동시에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Regulation Fair Disclosure Rule이 발효된 상태임
 - 이로 인해 뮤추얼펀드 회사는 리서치 부문을 강화하여 자사의 조사분석 능력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통해 투자자인 고객에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1월 5일 금요일

- 펀드 투자자를 위한 뮤추얼펀드 독립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SEC 규정 승인 (미국)
 - 현재 적용되는 법안에서는 뮤추얼펀드 이사회에서 적어도 40%의 독립이사 비중을 요구하지만, 새 규정은 2002년 7월 1일까지 대다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독립이사가 될 것을 요구함
 - ICI에 의하면 현재 독립이사의 실제 비중이 50% 이상임
 - 이사들은 인수사 또는 운용사와 관계가 있어서는 안되며 뮤추얼펀드 주식의 5%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유지함
 - 새 규정에서는 독립이사들이 다른 독립이사의 선정 및 추천을 하며 독립이사들이 고용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가 투명함을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규정을 통해 펀드의 투명성은 물론 이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것이며, 이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 (자료: Dow Jones Newswires, www.cnnfn.cnn.com)

◆ 2001년 1월 8일 월요일

- 소매 판매가 진행되는 유럽에서의 헤지펀드 (유럽)
 - 유럽의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을 지닌 투자안을 선택하려는 유럽인들에게 헤지펀드의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가 기대되고 있음
 - 잘 분산투자되어 전통적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시장의 동요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증시침체시 효과적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음
 - Morgan Stanley, Dresdner RCM, KBC bank 등이 2001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헤지펀드에 투자할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며, 주로 Private Banking 고객들을 겨냥한 상품을 준비 중임 (자료: www.globalfundnews.com)

◆ 2001년 1월 9일 화요일

- 비거주자 중개 대리인에 관한 법안에 대해 논쟁이 진행 중인 프랑스 의회 (프랑스)
 - 법안의 주요 골자는 프랑스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를 위해 수탁회사가 중개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것임
 - 등록된 중개 대리인은 발행회사의 요청으로 비거주하는 주주 명단을 제공토록 요구되어짐
 - 만약 위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5년간 투표권 및 배당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
 - 지금까지 일부 수탁회사들은 대리 투표 행사 및 대리 서명을 거부해 왔으나 수탁자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 법안을 제기했음 (자료: ICI)

◆ 2001년 1월 10일 수요일

- 대만 외국인 소유 비중 한도 폐지 (대만)
 - 2000년 12월 30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대만 회사 주식 지분의 50% 소유 한도 규정을 폐지하였음
 - 개인이든 다수 외국 투자자들의 합산이든 상관없음
 - 자격이 부여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총액으로 US\$6억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쿼터제가 있으나 투자기준이 맞으면 쿼터제의 한도 금액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ICI)

◆ 2001년 1월 11일 목요일

- 위축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펀드 (아시아)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에 있어 투자자의 환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투자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94년의 경우 아시아 펀드 (일본 제외)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투자가 전체 투자 비중의 2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불과 4% 정도로 감소됨
 - 지난 해 동남아 각국의 주가지수를 살펴보면, 태국의 방콕 SET 지수는 -44%,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지수는 -39%, 말레이시아의 마닐라 지수는 -30%로 나타나 빈약한 펀드 성과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됨
 - 이와 함께 정치 혼란, 합리적이지 못한 기업 규제, 동남아 자국내 환율 하락, 취약한 경제 상황 등이 가중되어 동남아시아 펀드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월 12일 금요일

○ 2000년은 영국 펀드 산업의 슬럼프 시기 (영국)

- 펀드평가사인 Lipper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Unit Trust 및 OEIC의 수탁고가 3.29% 감소
 - Unit Trust의 수탁고는 1994년 이후 첫 감소되었음
 - 그러나, 영국에 투자된 펀드들은 기술주 비중 (전체 펀드의 4.4%)이 작은 대신 높은 성과를 올린 금융주 (전체 펀드의 23.3%)의 비중을 늘려서, 다른 지역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구경제 주식 투자에 비중을 둔 탓에 유일하게 2.27% 상승
 - 2000년은 성장을 위해 배당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신경제 주식에 비해 구경제 주식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
- 일본 중소기업에 투자한 펀드는 38.4%의 최악의 손실을 기록 (자료: www.ftyourmoney.com)

◆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 칠레 연금펀드의 자국내 펀드 투자 및 뮤추얼펀드의 자국내 상품 개발 허용 계획 (칠레)

- 지금까지 칠레 연금펀드는 해외 펀드 투자에만 국한시켜온 상태이며, 이 계획으로 인해 사적 연금 펀드산업 규모 (US\$350억)의 1/10에 불과한 자국내 초기 뮤추얼펀드 (US\$35억) 산업을 자극시킬 것으로 예상
- 연금펀드의 분산투자 및 뮤추얼펀드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칠레 자본시장의 성장을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www.globalfundnews.com)

◆ 2001년 1월 16일 화요일

○ UCITS 약관 제안에 동의한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 (유럽)

- 지난 해 5월 20일 The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승인된 UCITS 약관에 대한 두 개의 제안 중 UCITS 펀드 투자 형태의 융통성을 제공하자는 첫 번째 제안이 먼저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에 의해서 동의됨
 - 운용사의 초기 설정 자본금 (Euro125,000), 운용사에 대한 권한 위임 허용, 투자 설명서의 간소화 문제 등 운용사의 영업 및 인가를 위한 두 번째 제안은 3월에 개최되는 스톡홀름 회의 전인 2월 중순까지 토의를 마감할 계획
- 첫 번째 제안의 내용 및 변경사항
 - UCITS 약관상의 자산 분할 요건을 충족시킨 non-UCITS 펀드에 투자가 가능함
 - UCITS 펀드는 다른 하나의 UCITS 펀드 또는 non-UCITS 펀드에 자산의 25%까지 투자 가능하며 (기존 10%), non-UCITS 펀드에 3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UCITS에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UCITS 또는 non-UCITS 펀드에 투자를 금지함
 - EU 회원국가의 인덱스 펀드는 하나의 발행기업에 펀드 자산의 20%까지 투자가 허용되나, 특정 주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예외적 시장 상황일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한도를 확대함 (자료: ICI)

◆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 뮤추얼펀드 명칭에 대한 엄격한 새 규정을 적용하는 SEC (미국)

- 새 규정에 따르면 펀드의 특성을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펀드의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 자산의 80% 이상을 운용하도록 함
 - 가령 "European Stock Fund " 또는 "Government Securities Fund" 등과 같은 펀드 명칭이 사용될 경우 해당 증권에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현재는 65%로 적용되고 있음
- 곧 공포될 새 규정은 펀드에 제시된 명칭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하자는데 취지가 있음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805 규정을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함
 - 문제가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대신에 펀드의 명칭을 바꿀 것으로 생각함 (자료: www.work.com)

◆ **2001년 1월 18 목요일**

○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거래법 규정 (Commodity Exchange Act Rule) 1.25의 수정안을 채택 (미국)**

- 채택된 수정안에 의하면 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s)과 결제회사가 고객의 펀드를 MM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2000년 2월 12일부터 발효됨
- 그 외 주요 내용들
 - NRSRO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에 의해 이미 평가된 펀드를 제외하고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MMF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요건을 제거함
 - FCM, 결제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의해 발행된 증권에 투자된 MMF라면 단 하나의 MMF에도 투자가 가능함
 - MMF는 투자회사로써 SEC에 등록해야하고, 투자자들에게 MMF로써 제공지도록 명시되어야 함
 - 등록된 운용사를 MMF에 허용된 스폰서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함
 - FCM 또는 청산회사의 보관계정에 있는 펀드의 소유지분 관련 기록을 요구함
 - 다음 영업일 오전 9시까지 순자산가치가 계산되는 MMF에 투자가 허용됨
 - MMF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는 하루만에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FCM이 자금수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어짐 (자료: ICI)

○ **증시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본의 투자신탁 (일본)**

- 지난 9개월 동안 증시 침체로 인해 지난 연말에는 19개월만에 처음으로 수탁고의 자산가치가 ¥49.4조 (\$4,248억)까지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1.95조 (3.8%) 감소
 - 그 하락분의 대부분은 주식형 펀드로 전년도에 비해 ¥1.09조 (6.9% 감소) 하락하여 ¥14.61조를 기록함
-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형 펀드는 ¥5.02조의 자본손실을 기록
- 그러나, 투자신탁으로 자금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본의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고 함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 대형 뮤추얼펀드 관련 회사들의 펀드에 대한 웹포털 계획 공개 (미국)

- Fidelity Investments, Franklin Resources Inc., Putnam Investment,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등 미국 4개 대형 뮤추얼펀드관련 회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고객 계좌 데이터 및 운용사를 위한 펀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음
 -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의 뮤추얼펀드 이전 단위인 PFPC 플랫폼을 확장하여 뮤추얼펀드 계좌 정보, 펀드거래 관련 고객 서비스 등을 한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one-stop access) 을 구축할 계획임
 - 이 웹포털은 3분기쯤에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PFPC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100개의 펀드 패밀리로부터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이 웹 포털은 위 4개 회사와는 독립적인 관리점을 가질 것이며, 이 포털을 사용하는 운용사는 아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임
- 웹포털의 기능
 - 운용사들은 고객들의 소유지분 및 매입, 교환, 환매 등을 알 수 있으며 고객의 계좌 설정, 주소이전, 배당옵션 변경 등의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 IC에서 확정각출형 연금 상품의 퇴직시 지급 선호 방식 및 사용 실태 조사 (미국)

- 59½세부터 70½세가 되는 해의 4월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는 연금 (pension)의 지급 방식은 일시금 지급 (lump-sum distribution), 이연 지급 (deferral of distribution), 연금 지급 (annuity payment), 분할 지급 (installment payment) 등이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각각 47%, 26%, 23%, 10%의 비중을 차지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퇴직했으며, 퇴직전 확정각출형 연금 상품에 활발히 참여한 659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대상 구성원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로 인해 총 100% 비율을 초과하게 됨
- 일시금 지급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 중 8%만이 지급액 전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92%는 일부만 사용 (26%)하거나 전액 재투자 (66%)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250,000 이상 일시금 대상자들은 75%가 모두 재투자했으며, \$10,000 미만인 경우 43%가 모든 지급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재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투자를 결정한 일시금 대상자 92% 중 81%가 IRA로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
 -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부터 퇴직시 설정된 IRA는 주식 및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43%, 채권 및 채권형 뮤추얼펀드에 14%, 유동자산에 17%, 기타에 26%로 분산 투자되었음 (자료: ICI)

◆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 SEC 뮤추얼펀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채택 (미국)

- SEC는 뮤추얼펀드의 세전 수익률 공시를 없애자는 제의를 수정하여 1년, 5년, 10년의 단위 기간 동안 세후 수익률을 공시하자는 규정을 채택
- 세전·세후 수익률이 표준화된 표로 제시되어야 하며, 세전 수익률, 배당 지급시 세후 수익률, 배당 지급 및 환매시 세후 수익률 등 3가지 형태로 공시되어야 함
- 위의 채택된 규정 및 수정안은 2001년 4월 16일에 발효될 예정
 - 투자설명서의 경우 2002년 2월 15일, 광고 및 판매 전단의 경우 2001년 10월 1일 이후에는 이 채택된 규정 및 수정안을 준수해야 함 (자료: ICI)

○ 미국과 아시아의 이자율 하락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세계)

- 미국과 아시아의 이자율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는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반면 현금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고무
 - JF 자산운용사는 아시아 주식시장이 올 1분기에 상승이 기대되나 채권과 현금은 투자자들을 더 이상 유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Scudder Investment Asia는 미국 이자율의 하락이 아시아 이자율을 하락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의 방향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추정
- Dow Jones Newswires는 16명의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에 대한 추천 내용을 조사하였음
 - 1월에 대한 조사에서 펀드매니저들은 주식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반면 현금과 채권에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추천
 - 가장 큰 변화는 채권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자는 12월과는 달리 1월은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추천
 - 유럽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상당한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추천
 - 미국은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불확신, 빈약한 기업 이윤, 국내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추천
 - 아시아에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추천했으며,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정치적 불안 등을 이유로 주식의 투자 비중을 줄이도록 추천

－ 조사자료 (자료: Dow Jones)

	1월	12월	11월		1월	12월	11월
세계 투자 비중				아시아 주식 투자 비중			
현금	-0.75	-1	+0.5	호주	-0.75	+0.25	-0.25
채권	-0.5	+0.25	0	중국	+1.75	+2	+2
주식	+1.75	+1.75	+0.5	홍콩	+2.5	+2.25	+1.75
세계 채권형 펀드				인도네시아	-3.5	-3.5	-3.25
아시아 (일본 제외)	-0.5	-0.75	-0.5	일본	-1.5	-0.25	-0.75
유럽	+1	+1	-0.5	말레이시아	-3.25	-2.25	-1.5
일본	-2.25	-1.75	-1.75	뉴질랜드	-0.75	-0.25	-1
emerging markets (아시아 제외)	-1.75	-0.5	0	필리핀	-2.75	-2.75	-2.25
북미	+0.75	+0.50	+2.25	싱가폴	+1.75	+1.25	+0.75
세계 주식형 펀드				한국	+1.5	+1	-0.25
아시아 (일본 제외)	+1	+0.75	0	대만	-0.5	-0.75	+1
유럽	+2.25	+1.75	+1.5	태국	-2.25	-2.25	-2
일본	-1.75	-0.25	-0.25	남부 아시아	-1.25	-1	-0.25
emerging markets (아시아 제외)	-0.25	0	0				
북미	-0.75	-0.75	-1.25				
기준 수치 설명							
-6	매우 과소 투자 비중			+2	약간 과대 투자 비중		
-4	과소 투자 비중			+4	과대 투자 비중		
-2	약간 과소 투자 비중			+6	매우 과대 투자 비중		
0	중립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 펀드 산업 올해 초의 수익률 상승에 따라 지난해 손실 일부 상쇄 (미국)

- － 지난 해 기술주 등 고전을 면치 못했던 펀드 수익률이 올해 들어와서 손실의 일부분을 회복하는 추세를
 - 펀드평가회사인 리퍼사에 따르면 지난 해 평균 34%의 손실율을 기록하던 기술주가 올해 들어와서 평균 9.1%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힘
 - 그외 통신주, 이머징마켓주,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등이 2001년 초에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남
 - 가령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지난 해 63%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들어 43%의 상승을 기록함
-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올해 초의 펀드 수익률 상승이 지난해 손실을 회복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펀드수익률이 늘 반전에 반전을 거치는 전환 주기가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이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설명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ICI는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요청으로 미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개선안 제공 (미국)

- ICI는 칠레가 뮤추얼펀드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회사의 활동을 허용했지만, 명백히 시장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의 미비를 지적
- ICI는 외국회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에 유리함을 주장 (자료: ICI)

◆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 제너스의 CEO인 Thomas H.Bailey의 Janus 보유주식 50%를 매각할 예정 (미국 1/30)

-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뮤추얼펀드회사인 Janus의 설립자이자 CEO인 Thomas H.Bailey는 그의 제너스 보유 지분을 12%에서 6%로 낮추고 Stilwell Financial사에 매각할 예정
 - 이로써, Stilwell사가 보유한 Janus의 지분은 88.7%가 될 것임
- Mr.Bailey의 제너스 주식 매각 후 Mr.Bailey가 받는 금액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6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 벌처펀드의 전성 시대인 미국 (미국)

- 둔감해진 미국 경제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업의 부채에 투자하는 벌처펀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
 - 벌처펀드 투자자들은 재무곤경기업의 부채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부채의 가치가 상승시 되팔아 이익을 얻는 펀드로써 부채는 은행대출, 회사채, 공급자의 부채 형식 등으로 취급됨
- 헤지펀드, 사모펀드(private-investment funds), 투기성을 띤 기관펀드 등이 주로 재무곤경 기업의 부채에 투자함
 - 뉴욕 Financial-Research사에 의한 Managed Account Reports에 따르면, 약 1,500여개 헤지펀드 중 단 24개 펀드가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보편화된 상태는 아님 (자료: Dow Jones Newswires)



2월

February

10대 해외 기사

1. 해외펀드에서 부각되는 통화 헤지 문제
(미국, 5일)
2. ICI 및 EBRI의 401(k) 통계자료 조사
(미국, 7일)
3. ETF의 통계량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ICI
(미국, 8일)
4. 미국 의회에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ICI
(미국, 13일)
5.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생펀드의 비용 삭감
(미국, 19일)
6. 영국의 펀드시장의 온라인 기능 강화
(영국, 28일)
7. DC plan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일본, 27일)
8. 중국 국내 투자자의 B class 주식 투자 허용
(중국, 21일)
9. 홍콩 정부는 새로운 연금제도인 CSPF 계획 발표
(홍콩, 9일)
10. 새로운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될 싱가포르
(싱가폴, 2일)

◆ 2월 해외 목차 (2/1-2/10)

2/1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펀드산업에 대한 침체 요인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아시아) ○ Stilwell Financial 사의 공격적 인수·합병 선언 (미국)
2/2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될 싱가포르 (싱가폴)
2/3 (SAT)	
2/4 (SUN)	
2/5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펀드에서 부각되는 통화 헤지 문제 (미국)
2/6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뮤추얼 펀드 회사인 Janus의 감원 조치 (미국)
2/7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I 및 EBRI의 401(k)의 통계자료 조사 (미국)
2/8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 (Exchange-Traded Fund)의 통계량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ICI (미국)
2/9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정부는 새로운 연금제도인 CSPF 계획 발표 (홍콩)
2/10 (SAT)	

◆ 2월 해외 목차 (2/11-2/20)

2/11 (SUN)	
2/12 (MON)	○ 위험이 증가된 미국 정부 채권 펀드 (미국)
2/13 (TUE)	○ ICI, 미국 의회에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촉구 (미국) ○ 불안한 중국 시장을 기피하는 펀드매니저 (중국)
2/14 (WED)	○ 「2001 경쟁력있는 시장 감시 법 (S.143)」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ICI (미국) ○ 유럽에서 브랜드 네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 (미국)
2/15 (THU)	○ ABN Amro의 Behavioral Finance Fund의 소개 (미국)
2/16 (FRI)	○ Fidelity의 "Stock Baskets" 상품 재구성 (미국)
2/17 (SAT)	
2/18 (SUN)	
2/19 (MON)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생 펀드의 비용 삭감 (미국)
2/20 (TUE)	○ 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중국 Construction Bank, J.P. Morgan Chase & Co.의 상호 협력 계약 체결 (중국)

◆ 2월 해외 목차 (2/21~2/28)

2/21 [WED]	○ 중국 국내 투자자의 B class 주식 투자 허용 (중국)
2/22 [THU]	○ 중국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위험 부담 고조 (중국)
2/23 [FRI]	○ 사내 종업원의 지분을 줄이는 Janus (미국)
2/24 [SAT]	
2/25 [SUN]	
2/26 [MON]	○ 미국 뮤추얼펀드회사인 Janu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고조 (미국)
2/27 [TUE]	○ DC plan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일본)
2/28 [WED]	○ 영국의 펀드시장의 온라인 기능 강화 (영국)

◆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아시아 펀드산업에 대한 침체 요인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아시아)

- 아시아에서는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불신이 높아 대만 27%, 싱가포르 52% 등, 주로 간접 투자인 펀드에 투자하여 저축률이 낮은 미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음
- 최근 아시아에서 펀드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젊은 층이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의 부재를 인식
- 아시아 투자자들은 높은 펀드 수수료 지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펀드 초기 판매수수료가 5%이며, 연간 운용 비용이 1.5%임에 비해 미국은 펀드의 1/3이 no-load fund이며, 연간 운용 및 광고 비용이 1.3%에 불과함
 - 현재 대만이나 일본의 피델리티에서 판매 수수료를 예전에 비해 3%로 인하하였으며, 아시아의 가장 큰 판매회사인 시티뱅크에서 no-load fund를 개발 중에 있음
- 아시아는 미국인들처럼 자금을 펀드로 옮길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이 바뀌고 있음
 - 미국에서 펀드 발달의 주 요인이었던 세제혜택을 부여한 연금제도 등이 몇몇 국가에서 개발을 추진중이며 이미 싱가포르 및 홍콩의 CPF, MPF 등이 제도화되었음
 - 현재 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투자 방법인 부동산, 금, 은행저축 등이 최근 몇 년간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간접투자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Stilwell Financial 사의 공격적 인수·합병 선언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회사인 Janus의 주요 주주이며 작년에 설립된 금융서비스 회사인 Stilwell Financial사는 공격적으로 전략적 partnership·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거의 인수·합병의사보다 강력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지난 주 Stilwell은 제너스의 사장인 토마스 베일리가 자신이 보유한 제너스 주식을 Stilwell에 매도한 이후, Stilwell이 제너스 주식 88.7%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거래대금은 \$6.1억에 달한다고 밝힘
- Stilwell은 2000년 동안 \$684억 순 현금 흐름(1999년의 경우 약 \$550억)을 달성했으며 이 자산의 대부분은 제너스 펀드에 투자되었음 (자료: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2일 금요일

○ 새로운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될 싱가포르 (싱가폴)

- 싱가포르 재무부는 사회가 노령화되어 감에 따른 새로운 자발적 퇴직 연금제도가 오는 4월 1일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 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사용자의 적립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민권자, 영구 거주자 및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SRS (Supplementary Retirement S초튼)라 불리는 새 저축 제도는 강제성을 띤 CPF (Central Provident Fund)를 보충
 - CPF는 현재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각출이 20%, 사용자의 각출이 16%임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면 20%로 인상)
 - 4개의 지역은행이 운영자로 선정되어 관리와 보관 역할을 담당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2월 5일 월요일

○ 해외펀드에서 부각되는 통화 헤지 문제 (미국)

-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낸 해외펀드의 성공 요인 중에 통화가치 변동성에 대한 헤지 행위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AFE지수는 작년에 14.17%가 떨어졌으나 통화 헤지를 한 경우 손실율이 단 4.38%의 하락에 그침
- 그러나, 통화 헤지를 위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모든 해외펀드의 매니저에게 필수적인 고려 요인이 될 수는 없음
- 결국 해외펀드 펀드매니저의 통화 헤지는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특정 통화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해외 주식의 리스크와 변동성에 균형을 갖춘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6일 화요일

○ 미주 뮤추얼 펀드 회사인 Janus의 감원 조치 (미국)

- 감소한 전화 주문량과 둔감해진 자산 성장을 이유로 전 직원의 16%에 해당하는 468명의 서비스센터 인력을 감축했음
 - 이는 최근 몇 달 동안의 저조한 투자 성과와 메릴린치, 베어스턴, 푸르덴셜 증권사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회사들의 비용 절감계획이 나온 이후의 후속 조치임
 - 제너스 내의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 하락과 지사인 덴버, 보스턴, 텍사스의 서비스센터 전화 주문량의 감소가 주된 이유
- 제너스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이 전자메일이나 웹사이트 이용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회사와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음
 - Stilwell의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스에 직접 투자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3년 전 56%에서 33%로 줄어든 반면, 대규모 기관, 해외 고객, 운용사 및 제너스를 뮤추얼펀드 운용사로써 간주하는 뮤추얼펀드회사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7일 수요일

○ ICI 및 EBRI의 401(k)의 통계자료 조사 (미국)

- ICI 및 EBRI (The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401(k) plan의 통계자료를 수집·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했음
- 자산 배분이 연령층에 따라 달라지는데, 99년 말에 주식형 펀드 53%, 사용자 주식 19%, GICs(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 10%, 혼합형 펀드 7%, 채권형 펀드 5%, MMF 4% 및 기타 펀드 1%에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됨
 - 20대의 경우 주식형 펀드 63%, GICs 4%, 채권형 펀드 4%를 투자하는 반면, 60대는 주식형 펀드 44%, GICs 19%, 채권형 펀드 7%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젊은층일수록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간 \$20,000~\$40,000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식형 펀드에 62%를 투자하며, 연간 \$100,000 이상 근로자는 주식형 펀드에 76%를 투자를 하는 등 급여가 높을수록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99년 말 현재 평균 계좌잔고 (Account Balance)는 \$55,502이며, 계좌잔고의 18%가 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됨
 - 401(k) 참여자 42%의 계좌잔고가 \$10,000 미만이며, 15%가 \$100,000를 초과함
 - 계좌잔고가 \$10,000 미만인 자는 주로 직업 보유기간이 단기이며 젊은층인 반면, 계좌잔고가 \$100,000 이상인자는 직업 보유기간이 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룸
 - 적어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60대 근로자의 경우 평균 계좌잔고가 \$198,595 (약 2억4천만원)이며,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40대는 \$96,250 (약 1억2천만원)
- 99년 말 현재 대출의 자격이 있는 참여자 중 18%만이 대출잔고를 기록
- 401(k) plan은 90년대 들어 평균 17% 증가해왔으며, 자산이 약 \$1.7조에 해당하며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자료: ICI)

◆ 2001년 2월 8일 목요일

○ ETF (Exchange-Traded Fund)의 통계량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ICI (미국)

- ICI는 미국 SEC에 등록되어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투자상품 ETF의 폭 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힘
 - ETF는 SEC에 등록되어 있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개방형, Unit Investment Trust가 있으며,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하루안에 거래되는 투자상품이지만 뮤추얼펀드로 광고될 수는 없음
- ETF의 발행과 유통
 - 기관투자자들의 특정 증권들을 ETF에 위탁하고 그 위탁의 댓가로서 일정량의 ETF 주식을 제공받게 됨
 - ETF 주식을 제공받은 기관투자자들은 거래소 내에서 매매하며, 위탁된 증권에 해당하는 ETF 주식을 ETF에 환매함으로써 위탁된 증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소매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주식 매매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ETF 주식을 거래소 내에서 매매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ETF로부터 직접 기관투자자들이 위탁한 증권을 환매 혹은 구매할 수 없음
- ETF의 통계량 (2000년 말 현재 기준)
 - 2000년 말 현재 ETF 전체 자산이 \$656억이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80개 (99년 말 기준 30개에서 대폭 증가되었음)의 ETF가 거래되고 있음
 - 80개의 ETF 중 55개 ETF가 미국내 주가지수를 따르며 그 자산이 \$635억을 기록함
- ETF의 팽창
 - 2월 초에 American Stock Exchange (이하 ASE)는 지난 해 창설된 범유럽 증권거래소인 Euronext에 ETF를 함께 상장시킬 계획을 발표
 - 최근에 ETF를 도입한 NYSE는 Tokyo Stock Exchange와 Deutsche Borse에 ETF를 함께 상장시킬 계획임
- ETF는 유동성 및 세제혜택의 부여 등으로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체 투자상품으로 평가됨 (자료: ICI (2/8) 및 Dow Jones Newswires (2/13))

◆ 2001년 2월 9일 금요일

○ 홍콩 정부는 새로운 연금제도인 CSPF 계획 발표 (홍콩)

- 홍콩 정부는 조직의 요구를 충족하고 공무 수행의 원활화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공무원 연금제도인 CSPF (Civil Service Provident Fund)이 계획을 발표
- 홍콩 정부는 CSPF와 관련하여 2가지 대안을 제시
 - 첫 번째는 균일 납부비율 (uniform contribution rate) 방식으로 MPF와 유사하게 종업원이 급여의 5%를 각출하고, 정부가 종업원 급여의 17%를 각출하는 방식
 - 두 번째는 누진적 납부비율 (progressive contribution rate) 방식으로 종업원이 입사 후 급여의 5% 각출을부터 시작하여 근속기간 21년 이후에는 25%로 증가
 - 60세 퇴직시에 종업원은 월 급여의 거의 85배 정도를 받을 수 있음
- CSPF가 채택된다면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해 6월 이후 입사한 공무원 300명이 이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될 것임
 - 현재의 공무원과는 관계가 없을 것임 (자료: Februar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2월 12일 월요일

○ 위험이 증가된 미국 정부 채권 펀드 (미국)

- 97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 채권펀드에 1년에서 5년 만기 재무성 채권이 75%를 차지했으나 최근에 그 수치가 32%로 떨어짐
- 줄어든 재무성 채권의 비중은 준 정부기관인 Fannie Mae, Freddie Mac과 같은 agency 채권에 의해 충당될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 채권펀드의 위험성이 증가될 전망
 - 물론, agency 채권도 현재까지 재무성 증권 만큼이나 안전성을 입증했으나 정부 상환보증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채무불이행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13일 화요일

○ ICI, 미국 의회에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촉구 (미국)

- ICI는 부시행정부의 감세안을 고려하여 미국인들의 퇴직저축을 장려하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요청했으며 의회로 하여금 Portman/Cardin bill을 지지하도록 촉구했음
- Portman/Cardin bill의 주요 내용
 - 직장의 이동에 따른 퇴직연금 혜택의 연계 (portability)
 - 91년에 정해진 IRA의 각출 한도 \$2,000에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감안한 금액인 \$5,000으로 높임
 - 401(k), 403(b), 457 plans의 각출 한도를 \$10,500에서 \$15,000으로 높임
 - 퇴직저축 제도를 일찍 가입할 수 없었던 50대 및 노령층에 대한 기회 제공 (자료: ICI)

○ 불안한 중국 시장을 기피하는 펀드매니저 (중국)

- 한 유명 펀드매니저는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20년이 걸린다고 언급
- 이것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돼 있는 B급 주식을 다루고 있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많은 상장 기업의 기업공개와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적지 않은 위험이 시장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 「2001 경쟁력있는 시장 감시 법 (S.143)」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ICI (미국)

- ICI가 지지하는 S.143의 주요 내용
 - 증권 등록 및 거래에 대한 비용 삭감
 - SEC의 직원 급여를 올려 다른 금융 규제기관 수준으로 향상
- ICI는 S.143이 SEC에 의해서 징수되는 증권 등록 및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SEC의 징수금액을 적정 예산에 상응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규제감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 (자료: ICI)

○ 유럽에서 브랜드 네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 (미국)

- 유럽에서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유럽 기관에 소속돼 있는 9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3개의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가 유럽에서 뮤추얼펀드 상호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Fidelity Investments, Chase Fleming Asset Management,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등의 브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Merrill Lynch의 경우 영국의 Mercury Asset Management를 인수하였으며, J.P.Morgan & Co.와 합병 전인 Manhattan Corp.의 경우도 영국의 Fliming Investment Management를 인수하여 Chase Fleming Asset Management사로 개명된 것을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Fidelity의 경우 광고, 투자 세미나, 또는 다른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는 등 지난 5년간 \$1억을 지출하여 유럽 전역에 자체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네임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유럽에서 뮤추얼펀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브랜드 네임 인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15일 목요일

○ ABN Amro의 Behavioral Finance Fund의 소개 (미국)

- 아시아에서 Japan Behavioral Finance Fund가 설립될 예정임
- Behavioral Finance Fund란 펀드의 운용에 있어 인간의 비이성적인 투자행위를 전제하고 비이성적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게 되는 기법임
 - 비이성적 투자행위란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쓸모 없는 주식을 소유하는 등 사후적으로 비합리적인 투자행위를 지칭함
 - 예상치 못한 정보 (특히, 안 좋은 뉴스에)에 대한 과민반응 (overreaction)과 주가가 정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과소반응 (underreaction)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
- 지금까지 설정돼 있던 The Ratio Invest Fund, The European Behavioral Finance Fund 등은 다른 펀드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임
- Behavioral Finance Fund 관계자는 만약 많은 투자자들이 이 Behavioral Finance Fund의 개념을 파악한 뒤 그들의 투자에 적용시킨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주장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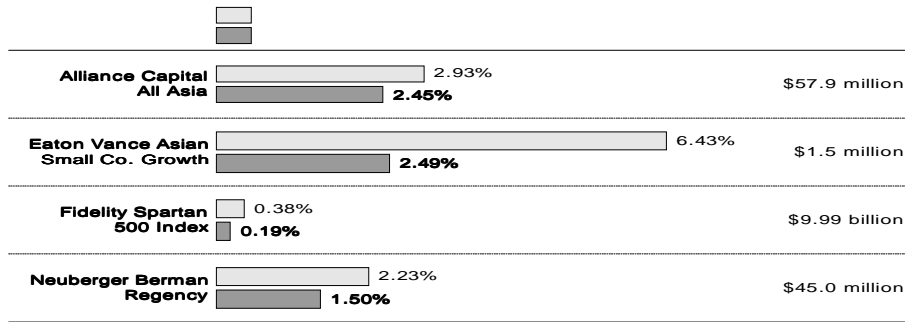
○ Fidelity의 "Stock Baskets" 상품 재구성 (미국)

- 12년 전 Fidelity Investments에 의해 도입되었던 "Stock Baskets" 상품을 The Boston Mutual-fund Company가 재 도입함에 따라 Fidelity가 재구성하고 있음
- 새로운 "Stock Baskets" 상품 구성
 - 1개의 basket은 1개의 산업부문을 나타내며, 1개의 basket 내에 5~50개 주식이 포함되어 고객에게 5~10개의 basket을 제공하게 됨
 - 각 basket 내 초기에 구성된 주식은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구성되며 투자자들은 basket 내 주식 보유분을 조정할 수 있음
-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Stock Baskets"의 특징은 basket 내 보유 주식의 매매시점을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손익의 실현시점을 투자자들에게 맡기는 것임
 - 전체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 지난 해의 경우 개별펀드가 세금이 부과되는 자본 이득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투자자에게는 마이너스 수익률과 함께 세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19일 월요일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생 펀드의 비용 삭감 (미국)

- 최근에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들은 신규 펀드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들이 보조금으로 제공함
 - 지난 3분기의 경우 주식형 펀드의 40%, 채권형 펀드의 52%가 실제 펀드 비용보다 낮은 펀드 비용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점차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임
- 실제 펀드 비용보다 낮은 펀드 비용을 요구하는 신생 펀드가 늘어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펀드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감축했던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임
 - 가령, Neuberger Berman's Century Fund의 경우 감축된 펀드 비용의 회복이 되는 금액은 대략 \$1억 정도라고 언급
- 보조금 형식으로 수수료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 놓으면 나중에 주주총회에서의 동의 없이 수수료를 다시 인상시킬 수 있음
- 신생펀드에 대한 비용 감소 현황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20일 화요일

○ 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중국 Construction Bank, J.P. Morgan Chase & Co.의 상호 협력 계약 체결 (중국)

- 신화뉴스에 따르면 월요일 (19일) 뮤추얼펀드의 운영과 설립을 위해 중국 Construction Bank와 J.P. Morgan Chase & Co.가 상호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음
- 최근 이와 비슷한 협정들이 있었으며 이는 중국이 주식시장에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뮤추얼펀드 설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추정됨
 - 현재 중국에선 폐쇄형 펀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계약하에 J.P. Morgan Chase & Co.는 Construction Bank에게 펀드 프로그램, 인력 훈련, 고객 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을 도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 중국 국내 투자자의 B class 주식 투자 허용 (중국)

-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거래가 허용되었던 B class 주식을 국내 소매 투자자들에게도 허용할 것임을 지난 월요일 (19일) 발표했다
- 이에 따라 B class 주식의 주가가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달 \$10억 미만의 거래량에 불과했던 B class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국내 투자자의 B class 주식 거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B급 지금까지도 주식시장 거래량의 80%가 국내 투자자 비중이었음
 - 현재 A class 주식시장의 PER는 약 60이며 B class 주식시장의 PER는 15이나 국내 투자자에게 B class 주식 투자의 허용으로 B class 주식시장 PER가 쉽게 30으로 오를 전망
- 이는 지난 해 중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표된 바와 같이 A class 주식시장과 B class 주식시장의 통합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함
- 중국 당국은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외국 투자자들의 A class 주식시장 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 중국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위험 부담 고조 (중국)

- 명료하지 못한 정부 정책 결정과 겉으로만 규제 완화를 떠들어대는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중국 전문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가령, 지난 해 11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 China Mobile, China Unicom에 대해 두 회사의 이익을 삭감하게 될 새로운 요금제도를 언급하였으며, 그 파장으로 인해 일주일 후 두 회사의 주가가 20%나 떨어진 사태가 발생했음
 - 통신부 장관이 그 제도 계획의 공식적인 부인을 발표했으나 이미 늦었으며 사태 발생 한달 전의 시가에서 약 \$120억 정도가 하락했음
- WTO 가입이 임박한 중국에 대해 불가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펀드매니저에게는 중국의 투자 위험에 대한 노출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23일 금요일

○ 사내 종업원의 지분을 줄이는 Janus (미국)

- Janus는 Janus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45억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종업원의 지분율을 6%에서 2.4%로 줄일 예정임
- Janus의 모회사인 Stilwell도 Janus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약 2%인 \$2억 정도를 Janus 투자 매니저로부터 구입할 예정임
 - 따라서, Janus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다른 핵심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절반 이상이 Janus나 그의 모회사인 Stilwell에 의해 매입될 전망
-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주식이 증가했으나, 우수한 포트폴리오 스페셜리스트가 회사를 떠나거나 투자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26일 월요일

○ 미국 뮤추얼펀드회사인 Janu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고조 (미국)

- 98·99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뮤추얼펀드 회사인 Janus는 나스닥 시장의 침체 후, Janus 펀드의 환매 및 자금회수가 가속화되고 있음
- 투자자들이 Janus를 불신하게 되는 Janus사내 조짐
 - 지난 해의 펀드 수익률 저조 및 올해 들어 -7.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있는 Janus 주식형 펀드의 성과 결과
 - Janus의 핵심 고위 직원들의 자사주 매각 소문
 - Janus의 설립자이자 CEO인 Mr.Bailey의 Janus 소유지분의 50%를 Janus의 모회사인 stilwell에게 매각함에 따른 소유지분 축소
 - 2월 들어 전체 직원의 16% 감원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2월 27일 화요일

○ DC plan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일본)

- DC plan을 포함하는 연금들에 일본 정부가 특별 법인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장기적 측면에서 연금산업을 불안하게 함
 - 자산 기준으로 1.173%의 세금 부과 계획 (2003년에 도입 가능)은 일본의 연금 개혁을 지연시키고 연금 펀드산업을 어렵게 함 (자료: Februar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 영국의 펀드시장의 온라인 기능 강화 (영국)

- 펀드 슈퍼마켓인 Investment Funds Direct는 3월 초에 온라인 영업을 재개하여 3월 말까지 투자자의 펀드 매매와 전환 등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경우 이 회사의 온라인 시설을 통해 부가적인 수수료 없이 7개 펀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Investment Funds Direct는 95개 운용사의 1,300여개의 펀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운용수수료는 자산의 0.5~1.75%이며 선취 판매수수료는 2.5% 이하임
- Investment Funds Direct는 이를 계기로 고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자료: www.globalfundnews.com)





3월

March

10대 해외 기사

1. 4월부터 미국 뮤추얼펀드에 공시되는 세후수익률
(미국, 5일)
2.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보험업자
(미국, 16일)
3. 논의되기 시작한 인덱스의 세후수익률 공시 문제
(미국, 29일)
4. 'Folios'가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되도록 SEC에
건의한 ICI (미국, 30일)
5. 정상급 해외 은행들의 아시아 수탁회사 시장 선점 경쟁
(아시아, 1일)
6. 중국 첫 뮤추얼펀드 운용사로 Huaan 펀드 운용회사 지정
(중국, 26일)
7. CSRC에 의한 중국 펀드매니저들의 징계 조치
(중국, 26일)
8. 태국 SEC는 퇴직저축 제도를 위한 뮤추얼펀드 설립 승인
(태국, 13일)
9. 재무적 어려움에 있는 태국 기업들을 위해 투자하는 미국 펀드
(태국, 20일)
10.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는 기관투자자들
(호주, 5일)

◆ 3월 해외 목차 (3/1-3/10)

3/1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급 해외 은행들의 아시아 수탁회사 시장 선점 경쟁 (아시아) ○ MPF 제도를 검토한 MPFA 이사회 (홍콩)
3/2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본토의 증권사와 제휴 관계를 맺는 독일계 회사인 Commerzbank (중국)
3/3 (SAT)	
3/4 (SUN)	
3/5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는 기관투자자들 (호주) ○ 4월부터 미국 뮤추얼펀드에 공시되는 세후수익률 (미국)
3/6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 Myner의 영국 연금 산업에 대한 논평 (영국)
3/7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기여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주식 (유럽) ○ ANZ는 세계적 펀드 운용회사와 제휴할 계획을 발표 (오세아니아)
3/8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추얼펀드 소유자의 환매비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미국)
3/9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과적인 미국 뮤추얼펀드 온라인 서비스 (미국) ○ 새로운 Multisector Fund를 설정하는 SG (싱가폴)
3/10 (SAT)	

◆ 3월 해외 목차 (3/11-3/20)

3/11 (SUN)	
3/12 (MON)	○ 일본 대규모 증시기금 조성 (일본)
3/13 (TUE)	○ 태국 SEC는 퇴직저축 제도를 위한 뮤추얼펀드 설립 승인 (태국) ○ 중국 China Galaxy Securities Co.와 Schrodgers의 전략적 제휴 결정 (중국)
3/14 (WED)	○ ETF를 활용한 새로운 뮤추얼펀드 구성 (미국)
3/15 (THU)	○ 주식시장 침체로 시련을 겪고 있는 미국 펀드 운용회사들 (미국)
3/16 (FRI)	○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보험업자 (미국) ○ 치열한 경쟁 상태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Unit Trust company (말레이시아)
3/17 (SAT)	
3/18 (SUN)	
3/19 (MON)	○ 어려운 투자 선택에 직면한 미국 투자자들 (미국)
3/20 (TUE)	○ ICI, 2000년 12월 31일 현재 SIMPLE IRA plans의 자료 공시 (미국) ○ 재무적 어려움에 있는 태국 기업들을 위해 투자하는 미국 펀드 (태국)

◆ 3월 해외 목차 (3/21-3/31)

3/21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추얼펀드로 자금을 동하는 아시아 투자자들 (아시아) ○ Unit Investment Trusts의 1999년 말 및 2001년 2월 통계 현황 (미국)
3/22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 Fund를 위한 금광회사의 노력 (아시아)
3/23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하게 상승한 Japan Fund (일본)
3/24 (SAT)	
3/25 (SUN)	
3/26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RC에 의한 중국 펀드매니저들의 징계 조치 (중국) ○ 중국 첫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사로 Huaan 펀드 운용회사 지정 (중국) ○ 폐지되는 미국 뮤추얼펀드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 (미국)
3/27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월 ISA로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7% 하락 (영국)
3/28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I,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지지 (미국) ○ 홍콩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매니저들의 오해 (홍콩)
3/29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되기 시작한 인덱스의 세후수익률 공시 문제 (미국)
3/30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I는 'Folios'가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되도록 SEC에 건의 (미국)
3/31 (SAT)	

◆ 2001년 3월 1일 목요일

○ 정상급 해외 은행들의 아시아 수탁회사 시장 선점 경쟁 (아시아)

- 금세기 들어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은 그들의 상품 판매 및 향후 지역 고객들에게 직판을 하려는 계획에 따라 수탁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중국 본토의 은행과 제휴를 맺기 시작했음
- 그러나, 아시아의 펀드산업이 발전하면서 수탁회사 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최근 수탁회사의 기능을 갖춘 정상급 외국계 은행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들도 해외 은행들에 의해 선진 지식을 제공받고, 기술적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어 환영하는 편임
- 아시아에서 수탁회사의 활동을 통해 수탁회사 시장의 선점 및 그들의 소프트웨어 판매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그들 은행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MPF 제도를 검토한 MPFA 이사회 (홍콩)

- 지난 12월에 시작된 MPF (Mandatory Provident Fund)의 현황에 대해 토의하고자 3월 1일 MPFA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의 이사회가 소집됨
- 2000년 12월 1일에서 2001년 2월 28일 사이 MPFA는 MPF 관련 165개의 불편사항을 접수했음
 - 불편사항은 주로 긴급 연락망의 빈번한 두절, 등록 및 각출에 관한 최근 정보 제공 실패, 불만족스런 중개 서비스, 각출에 대한 교육 제공 실패 중임
 - MPF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고려하면 불편사항 접수는 적은 편임
- 이사회는 MPF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직 시행착오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서비스 감독과 가입자 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 (자료: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 2001년 3월 2일 금요일

○ 중국 본토의 증권사와 제휴 관계를 맺는 독일계 회사인 Commerzbank (중국)

- 독일계 자산운용사인 Commerzbank Asset Management Asia Ltd.는 중국 본토의 증권회사인 China Southern Securities Corp.와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밝힘
- 이 제휴 협정의 일환으로 Commerzbank는 제휴 관계를 맺은 중국 증권사의 직원에 대해 외국의 자산운용 시스템을 훈련시킬 계획임
- Commerzbank는 이 제휴 관계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의 강한 영업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미국이나 유럽 은행이 중국의 자산운용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것과 달리 Commerzbank는 증권사를 그 대상으로 한 이유는 중국 증권사의 질 높은 인력 등의 심도 깊은 자원의 이용을 위한 것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5일 월요일

○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는 기관투자자들 (호주)

- 주로 개인투자자들에 주도되던 헤지펀드 시장에서 최근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 하강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큰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음
 - 3년 전 개인 80%, 기관 20%의 비중을 차지하던 헤지펀드 시장에서 최근 개인과 기관이 50%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의 붕괴와 전세계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작년부터 헤지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헤지펀드는 leverage effect와 단기매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시장 침체기시 장기매매 전략을 지닌 일반 펀드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
- 기관투자자들은 헤지펀드를 통한 펀드내 변동성을 줄이고, 그들의 전통적 자산 구성과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헤지펀드 등은 market neutral convertible arbitrage와 같은 전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위험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헤지펀드 등은 5~20% 사이의 꾸준한 수익률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4월부터 미국 뮤추얼펀드에 공시되는 세후수익률 (미국)

- 미국 SEC 법은 지난 1월에 모든 뮤추얼펀드에 세후수익률을 공시하기로 했으며, 이 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확한 세금 효과를 인지하게 되어 펀드 구성의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 그러나, 세후수익률 계산 방식이 구체화되거나 단일화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6일 화요일

○ Mr. Myner의 영국 연금 산업에 대한 논평 (영국)

- 펀드매니저이자 Gartmore 펀드운용회사의 사장인 Paul Myner는 그의 저서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he UK: A Review」에서 영국 연금산업에 대한 비평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
- 영국의 연금 산업은 과거 10년 동안 연 13%의 훌륭한 수익률을 창출했지만, 이로 인해 과거의 투자 전략에 집착한다면 다가올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음
- 영국 연금산업에 대한 Paul Myner의 권고안
 - 대부분의 펀드 구성 및 성과 지표는 index-based benchmark를 사용하나, 주요 지수들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 지수를 통해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지수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
 - 자산 편입 대상에 기업 공개 전 주식 (private equity), 헤지펀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펀드매니저가 단기 성과의 결과로 인해 해고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운용상 손익의 범위를 넓히도록 용인되어야 함
 - 내부통제 (compliance) 기준이 자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수익자 (beneficiary)를 위해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탁회사의 보고, 설명 및 합리적 해명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 Financial Times)

◆ 2001년 3월 7일 수요일

○ 국제적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기여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주식 (유럽)

-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 그 이유는 국제적인 대규모 기업들은 비슷한 세계 시장 영역에서 국제적 경제 상황에 서로 연동하여 움직이므로 분산투자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
 -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벤처캐피탈 회사에 의한 자금의 지원으로 부양된 소규모 회사들은 국제적인 대규모 기업들의 상황에 동조되지 않기 때문
- 유럽의 경우 지난 2000년에는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 가치가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으며, 최근 유로화의 안정에 힘입어 유럽의 소규모 기업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ANZ는 세계적 펀드 운용회사와 제휴할 계획을 발표 (오세아니아)

-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 (이하 ANZ)는 하반기부터 정상급의 세계적 펀드 운용사와 제휴하여 국내 및 국제 펀드 운용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언급
 - 이러한 계획은 성장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산업부문 선택의 전문화를 위한 ANZ 전략에 따른 것임
- 고객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폭 넓은 자산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ANZ는 벌써 호주의 Equity 부문을 세계적 펀드 운용회사인 Allianz Asset Management에게 위탁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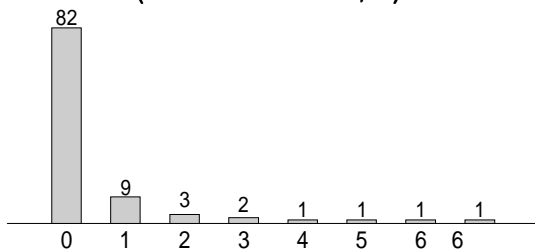
◆ 2001년 3월 8일 목요일

○ 뮤추얼펀드 소유자의 환매비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미국)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소유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이 부족한 이유로 환매비율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추정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이하 ICI)에서 환매비율이 통상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소유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여러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Equity Ownership in America의 조사 자료
 - 주식형 펀드를 소유한 가계의 82%가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2번 이상 환매를 한 경우는 9%에 불과함 (<그림 1> 참조)
 - DC Plan 내에서 주식형 뮤추얼펀드 소유주 중 89%가 환매를 하지 않았음 (<그림 2> 참조)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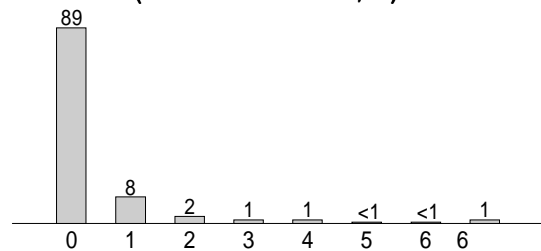
(: 1998.2~1999.1, %)



: Equity Ownership in America,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and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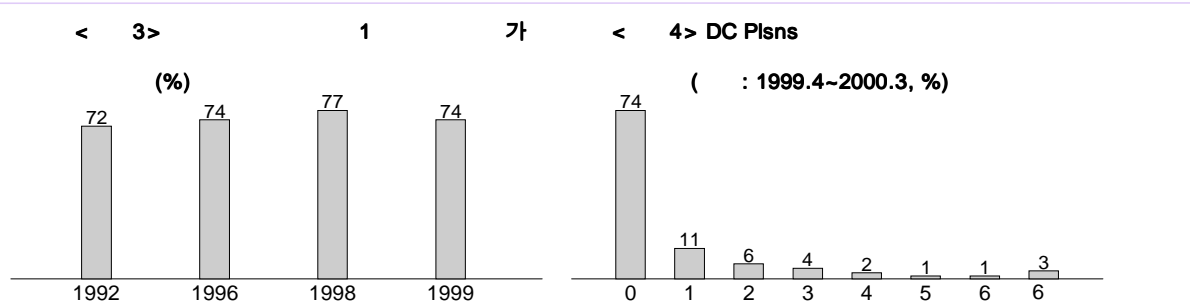
< 2> DC Plans

(: 1998.2~1999.1, %)



: Equity Ownership in America,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and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1999

- 사용자 후원 퇴직 연금제도 (Employer-Sponsored Retirement Plan)를 제외한 뮤추얼펀드 환매 행위의 경우
 - 각 특정 연도 (1992, 1996, 1998, 1999년) 이전 1년 동안 뮤추얼펀드의 소유주 중 약 3이 환매를 하지 않았음 (<그림 3> 참조)
 - DC Plan을 제외한 뮤추얼펀드의 소유주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 동안 74%가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6번 이상 환매를 한 경우는 불과 3%에 불과함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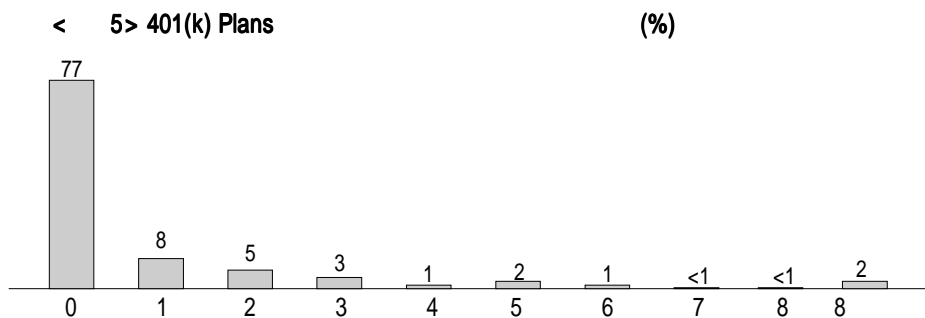


: Profiles of Mutual Fund Shareholders,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1992, Mutual Fund Shareholders, The People Behind the Growth,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1996, Profile of Mutual Fund Shareholders,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1999, "Mutual Fund Shareholders' Use of the internet." Fundamentals,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00

: "Mutual Fund Shareholders' Use of the internet." Fundamentals,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July 2000

— 사용자 후원 퇴직 연금제도 (Employer-Sponsored Retirement Plan) 내에서 뮤추얼 펀드 환매 행위의 경우

- 401(k) Plan 참여자 중 3이 참여 이후, 자산 구성에 변화를 가지지 않았으며, 2번 이상의 자산 구성에 변화를 시도한 참여자는 15%에 불과함 (<그림 5> 참조)
- 자산 구성의 변화는 환매가 일어난다고 전제함
- 주식형 펀드 보다는 채권형 및 MMF 펀드에서 환매가 보다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



: 401(k) Plan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ributions, and Account Activity,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00

-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뮤추얼펀드 소유주 대부분이 환매하는 빈도가 드물다고 판단되며, 활발히 환매를 하는 소유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극히 낮음
- 따라서, 활발히 환매하는 소수의 뮤추얼펀드 소유주의 데이터로 인해 환매비율이 왜곡되어 제시되므로 환매비율이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소유기간 등의 투자 행태를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자료: ICI)

◆ 2001년 3월 9일 금요일

○ 비효과적인 미국 뮤추얼펀드 온라인 서비스 (미국)

- 대부분의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투자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컨설팅 회사인 Kasina LLC에 따르면, 200개의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뮤추얼펀드 회사의 연구에서 84%가 웹사이트나 e-mail로 질문을 접수했으며, 단지 46%만이 모든 종류의 e-mail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 연구 방법
 - 쉬운 질문, 어려운 질문, 외국어 (스페인어)로 쓰여진 질문 등 세 종류의 e-mail로 구분한 뒤, 각각의 회사에 세 종류의 질문을 월요일과 금요일에 보냄
- 연구 결과
 - 쉬운 질문의 경우 월요일에 보낸 e-mail은 79%, 금요일은 74%의 응답율을 보임
 - 어려운 질문의 경우 월요일에 보낸 e-mail은 73%, 금요일은 67%의 응답율을 보임
 - 외국어로 쓰여진 질문의 경우 월요일에 보낸 e-mail은 60%, 금요일은 50%의 응답율을 보임
 - 월요일에 보낸 세 종류의 e-mail에 모두 답변을 한 회사는 전체 회사의 51%이며, 금요일은 43%에 불과함
- Pioneer Investments사의 경우 사이버 캐릭터를 이용하여 투자 관련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여 투자 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기도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새로운 Multisector Fund를 설정하는 SG (싱가폴)

- 최근 SG Asset Management는 소매 투자자들을 겨냥하여 세계 기술 (global technology) 부문, 보건-의료 (health-care) 부문, 금융 (finance) 부문 주식 관련 펀드인 Dynamic Trisector Fund를 설정했음
 - 이 펀드는 위 세 부문 시장에 각각 자산의 20~30%씩 배분하게 됨
- 위 세 영역이 모두 강한 수익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장 사이클에 각각 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가령, 기술 부문 주식의 성과가 낮을 때, 보건-의료 부문 주식의 성과가 높으며, 국제 금융주들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3월 12일 월요일

○ 일본 대규모 증시기금 조성 (일본)

- 일본의 자민·공명·보수 연립여당은 3월 9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주식 매수 기관들이 담보로 안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 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의 출자 등으로 주식 매수기관을 설립하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칠 예정인 것으로 추측됨
-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까지 주식 매도 대금의 1%를 양도세로 징수하던 것을 매도이익 2백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엔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 주기로 했음
-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고 도심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음 (자료: 중앙일보)

◆ 2001년 3월 13일 화요일

○ 태국 SEC는 퇴직저축 제도를 위한 뮤추얼펀드 설립 승인 (태국)

- 태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태국 SEC)은 퇴직저축 제도를 위한 뮤추얼펀드 설립을 승인함
- 태국의 퇴직저축 제도를 위한 뮤추얼펀드의 제도적 특징
 - 이 펀드의 가입자는 적어도 연간 소득의 3%를 각출해야 하며, 그 금액은 최소 5,000바트 (\$115)임
 - 최소 1년에 1번 이상 각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함
 - 가입자가 55세 이후부터 상환이 가능함
 - 300,000바트까지 비과세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중국 China Galaxy Securities Co.와 Schroders의 전략적 제휴 결정 (중국)

- 베이징에 근거를 둔 China Galaxy Securities Co.와 영국계 투자회사인 Schroders는 펀드 운용상의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결정했음
 - 이들은 직원 교육, 금융상품의 설계 및 조사, 고객 서비스, 마케팅, 투자 및 위험 관리, 정보기술 제공 등의 부분에서 협력할 계획임
 - 이들은 합작 투자로 펀드 운용회사 설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WTO 가입을 앞둔 중국의 투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및 유럽계 기업들의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보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 ETF를 활용한 새로운 뮤추얼펀드 구성 (미국)

- 미국의 몇몇 자산운용사들은 ETF (Exchange-Traded Funds)의 특징을 활용하여 기존의 뮤추얼펀드에 ETF를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발매 중임
- ETF가 지난 장점 및 특징
 - ETF는 Index 펀드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5개 ETF 중 28개는 대규모 Index에, 나머지 27개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산업의 Index에 연동하고 있음
 - Lipper사에 의하면 ETF의 수수료는 0.09~0.5% 사이이며, 이는 인덱스 뮤추얼펀드가 평균 0.9%, 주식형 뮤추얼펀드가 1.5%인데 비해 저렴한 편임
 - ETF는 현물 주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아 기존 뮤추얼펀드에 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음
 - 뮤추얼펀드가 증가로 거래되는 것과는 달리, ETF는 24시간 거래가 되도록 준비 중임
 - 기관투자자는 ETF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주식을 분할하여 시장에서 매각하는 대신 그 주식을 현물로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ETF는 이러한 점에서 재정거래에 쉽게 이용 가능함
 - 기존 뮤추얼펀드에 ETF를 편입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제고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3월 15일 목요일

○ 주식시장 침체로 시련을 겪고 있는 미국 펀드 운용회사들 (미국)

- 금년 들어 S&P 500 Stock Index가 9.3%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가 18.5%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은 펀드 운용회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주식시장의 침체는 펀드 운용회사들의 신탁재산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형 펀드에서 수수료가 낮은 채권형 펀드나 MMF 등으로 이전하는 성향을 띄게 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됨
 - 올해 들어 펀드 운용회사의 주가가 Stilwell Financial은 27%, Alliance Capital Management Holding L.P.는 13%, Amvescap PLC는 24%, T.Rowe Price Associates는 17% 하락했음
- 향후,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경우 펀드 운용회사들은 지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원 등 비용 감축을 위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전망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16일 금요일

○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보험업자 (미국)

-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이하 State Farm)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보험회사로 지난 1월부터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음
 - State Farm은 현재 4개 주에서 한정된 금액의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및 MMF를 포함하여 10개의 펀드가 있음
 - 이 뮤추얼펀드는 State Farm 운용회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 State Farm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치열한 경쟁 상태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Unit Trust company (말레이시아)

- 보험회사에 Unit Trust 관련 보험상품의 허용 및 2003년 Unit Trust company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외국계 기업의 자국내 진출로 말레이시아 Unit Trust company들의 입지가 약화될 전망
- 따라서, 합병 등의 방법으로 Unit Trust company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 현 말레이시아 Unit Trust company들은 수탁고 1억 ringgit (\$2,630만) 이하 중소형 회사의 난립으로 경쟁력이 상실돼 있는 실정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3월 19일 월요일

○ 어려운 투자 선택에 직면한 미국 투자자들 (미국)

- 87년 이후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접어 들게되자, 8,800만 미국 뮤추얼펀드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산 배분을 구성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
- 개인 투자자들의 유형별 전략
 - 주식시장의 하락을 계기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여 향후 강세장을 대비한 적극적인 매입 전략을 구사하는 개인 투자자들
 - 지난 해 동안 손실을 경험한 이후,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형 펀드나 MMF로 투자대상을 전환하는 개인 투자자들
 - 침체된 현 상태가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에 취득한 투자종목을 보유하며 기다리기로 결정한 개인 투자자들
- 시장이 2년만에 처음으로 Dow Jones 공업평균지수가 10,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장을 경고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전략 설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20일 화요일

○ ICI, 2000년 12월 31일 현재 SIMPLE IRA plans의 자료 공시 (미국)

- ICI는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인 SIMPLE (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을 IRA로 설정한 SIMPLE IRA plans의 자료를 공시했음
- 자료 내용
 - 2000년 하반기 (2000년 7월 이후) 동안 SIMPLE IRA plans의 수 및 참여자의 수가 각각 14%, 12% 증가했으며,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SIMPLE IRA의 자산은 9% 증가했음
 - 2000년 전체로 볼 때 SIMPLE IRA plans의 수 및 참여자의 수는 각각 34%, 36% 증가했으며,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SIMPLE IRA 자산은 47% 증가했음
- 이 조사 자료의 표본 대상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아 대표성을 띄기는 어려우나, 1999년 말에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SIMPLE IRA 자산 \$60억의 65%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ICI)

○ 재무적 어려움에 있는 태국 기업들을 위해 투자하는 미국 펀드 (태국)

- 미국 투자 회사인 Cerberus Group은 태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을 위해 일본 은행들과 함께 \$1.5억의 펀드를 구성하고 운용할 계획임
 - Cerberus가 \$0.87억, Shinsei Bank of Japan이 \$0.37, 일본 정부 소유인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이 \$0.25억을 투자할 예정임
- 미·태 상공회의소의 주선으로 추진된 이 계획은 펀드의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태국내 파트너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21일 수요일

○ 뮤추얼펀드로 자금을 이동하는 아시아 투자자들 (아시아)

- Citigroup Inc.에 의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에서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은행에서 뮤추얼펀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됨
 - 이 현상은 미국의 투자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1994년과 1999년 동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뮤추얼펀드 및 주식의 자금 유입 규모는 각각 세 배, 두 배인 반면, 은행은 단지 50%의 증가에 그침
 - 동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관리된 투자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연금 등)는 두 배로 증가했으나, 개별적 직접 투자는 자산 규모의 50% 증가에 그침
- 아시아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자금을 관리했으나, 주식시장 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인 뮤추얼펀드로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Unit Investment Trusts의 1999년 말 및 2001년 2월 통계 현황 (미국)

- ICI에서 집계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Unit Investment Trusts가 지난 2월 동안 \$35.2억의 수탁고를 증가시켜 총 \$78.2억임
 - 주식형의 경우 2월 동안 \$34억을 증가시켜 수탁고가 \$75.5억이 됐으며, 비과세 채권형은 2월 동안 \$7,820만을 증가시켜 수탁고가 \$1억8,380만을 기록
 - 과세 채권형은 2월 동안 \$4,150만을 증가시켜 수탁고가 \$8,750만을 기록
- 1999년 말 Unit Investment Trusts의 자료
 - 10,418개의 trust가 시가총액으로 \$946억을 기록
 - 비과세 채권형은 8,924개로 시가총액이 \$255.6억을 기록하였으며, 409개의 과세 채권형은 시가총액 \$42.8억을 기록하였음
 - 1,085개의 주식형은 시가총액 \$647.6억을 기록 (자료: ICI)

◆ 2001년 3월 22일 목요일

○ Gold Fund를 위한 금광회사의 노력 (아시아)

- 금광회사는 이미지 변신 및 합병을 통해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 또는 Gold Fund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 하고 있음
- 올해 들어 Gold Fund는 뮤추얼펀드 중 최고 수익을 내고 있으나, 주식시장 침체하에 투자자들의 인식 결여로 Gold Fund에 대한 집중 수요가 일어나지 않음
- Gold Fund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과거 자료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Gold 뮤추얼펀드는 현재 약 \$11.3억의 자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35.6억이 하락했음
 - S&P Micropal Database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Gold Fund는 53%의 가치 하락으로 주식형 펀드 범주에서 가장 나쁜 성과를 기록
 - 모조품 생산자들에 의한 값싼 가짜 보석의 대량 판매로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금의 수요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음
- Gold Fund의 유용성
 - Gold Fund는 일반적으로 금 가격의 변화에 3~4배까지 움직이므로 금 가격의 Leverage Effect를 원하는 투자자들이나 주식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위한 투자에 적합함
 - 특히, 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전통적 의례에서 금의 수요가 꾸준한 상태이므로 아직 Gold Fund의 시장 형성에 가능성이 기대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23일 금요일

○ 유일하게 상승한 Japan Fund (일본)

- Lipper사에 따르면 3월 22일 마감장에서 미국의 평균 주식형 펀드가 4.7% 하락한 반면, Japan Fund는 5.2%의 유일한 상승을 기록
- 3월 22일 일본의 벤치마크 주식 인덱스가 거의 7.5% 상승했음
 - 이는 일본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대규모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것임 (자료: www.usatoday.com)

◆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 CSRC에 의한 중국 펀드매니저들의 징계 조치 (중국)

-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CSRC)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유명 펀드 운용회사 30명의 임원을 해고 및 징계 조치했음
 - CSRC의 조사는 사실 간행지인 Caging magazine에 의해 출간된 펀드 운용회사의 부패 관련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실시되었음
- CSRC의 조사에서 유명 10개 펀드 운용회사에서 2개 회사만이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Boshi Fund Management의 경우 1만건 이상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음
- 이러한 CSRC의 강력한 조치는 펀드산업의 장기 개혁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자료: Financial Times)

○ 중국 첫 뮤추얼펀드의 운용사로 Huaan 펀드 운용회사 지정 (중국)

- 중국 당국은 중국의 \$7,600억 저축에 대한 투자 선택을 넓히고자 뮤추얼펀드를 도입하고 그 첫 운용사로 Huaan Fund Management Co.를 지정함
 - 상하이에 본사를 둔 Huaan은 50억 위안의 수탁고를 기록하는 2개의 폐쇄형 펀드를 판매하고 있음
- Huaan에 이어 Fullgoal, Nan Fang 등 몇몇 운용사들이 뮤추얼펀드 도입을 위해 CSR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개방형의 승인으로 중국 금융회사들과 펀드에 대한 선진 운용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며 중국 진출을 기다려 왔던 외국 금융회사들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됨
 - Fleming Investment Management Ltd.의 경우 Huaan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했으며, 판매 및 운용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 Bank of Montreal은 Fullgoal의 뮤추얼펀드 설립을 돕고 있으며, Commerzbank AG는 Nan Fang의 펀드 파트너임
- 33개의 폐쇄형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중국은 WTO 가입 시기에 즈음해서 새로운 뮤추얼펀드의 도입으로 초기 펀드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www.bloomberg.com, Dow Jones Newswires)

○ 폐지되는 미국 뮤추얼펀드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 (미국)

- 펀드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226개의 기록적인 수의 뮤추얼펀드가 폐지되는 현상이 발생
 - 폐지된 뮤추얼펀드의 절반이 채권형 펀드이며, 1/3은 해외 펀드임
- Wiesenerger의 펀드 애널리스트인 Mr.Shaalan은 높은 펀드 폐지율의 이유로 투자자들의 성급한 투자 행태 (impatience)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검증 기간이 줄어든다는 의미
 - 높은 성과를 달성한 99년도 이후, 보다 높은 기대를 했던 투자자들은 증시 침체로 펀드가 기대 이하의 성과에 머무르자 높은 수익률을 쫓아 펀드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임
- Wiesenerger에 의하면 폐지되는 펀드 중 채권형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주식형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13.74%인데 반해, 채권형은 6.54%에 불과하여 작은 수익률에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
- 한편, 펀드는 일반적으로 \$2천5백만~\$5천만의 자산 규모를 달성해야만 수익성이 생기므로 운용사의 경우 수년 내에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에 관계없이 펀드를 폐지하기도 함 (자료: Financial Times)

◆ 2001년 3월 27일 화요일

○ 지난 2월 ISA로 유입되는 자금이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7% 하락 (영국)

- 영국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해 2월 한 달 동안 Individual Savings Accounts (이하 ISA)에 투자하는 자금이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7% 하락했음
 - Association of Unit Trust and Investment Funds (이하 AUTIF)에 따르면 지난 해 2월의 경우 ISA 유입자금이 £10억3천만이었으나, 금년 2월은 £6억4천6백8십만임
 - 지난 1월의 경우도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20% 줄어들었음
-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가 종료되는 4월 5일 이전에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의해 2, 3월에 ISA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은 편임
 - 그러나, 금년 들어 FT-SE All-Share Index가 11%나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의 침체와 뚜렷한 호재가 없다는 것이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됨 (자료: www.bloomberg.com)

◆ 2001년 3월 28일 수요일

○ ICI, 포트폴리오 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지지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이하 ICI)는 포트폴리오 투자 프로그램이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하에 등록되어 규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도록 SEC에 간청서를 제출했음
 - 간청서에 포트폴리오 투자 프로그램상의 주식 제공이나 매매가 증권법 (Securities Act) 하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ICI의 주장은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에게 허용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임
 - ICI는 비전통적 뮤추얼펀드 유형의 금융상품인 변액연금이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되어 SEC 투자자 보호 규제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자료: ICI)

○ 홍콩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매니저들의 오해 (홍콩)

- 펀드매니저들은 세계 증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투자자들로 인해 스스로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함
- Investec Asset Management Asia Ltd.의 임원인 Mr. Aldcroft는 수익률에 집착하는 사람들 중 경험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
 - Mr.Aldcroft에 의하면 투자 수익률에 집착하면서도 경험있는 투자자들이 홍콩의 6백8십만 인구 중 5%에 불과하며, 반면에 대략 18%는 한두 번 정도 투자 경험이 있는 초보 투자자임을 강조
 - 따라서, 펀드매니저들이 5%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만을 의식해서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
- 2000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인 MPF가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홍콩에서는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지만 보수적 수익을 실현하는 100% 원금 보장형 펀드인 Investec International Guaranteed Fund가 등장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3월 29일 목요일

○ 논의되기 시작한 인덱스의 세후수익률 공시 문제 (미국)

- 지난 1월 미국 SEC에 의해 제기된 뮤추얼펀드 세후수익률 공시에 대한 문제가 인덱스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SEC는 뮤추얼펀드의 세후수익률 공시 발표시 인덱스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하지만, 인덱스는 여러 다른 뮤추얼펀드의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며 비교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뮤추얼펀드와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현재 몇몇 인덱스를 발표하는 회사에서 인덱스의 세후수익률 공시에 대한 문제를 준비 중에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3월 30일 금요일

○ ICI는 'Folios'가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되도록 SEC에 건의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이하 ICI)는 'Folios'가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취급 및 규제되도록 할 것을 SEC에 건의함
 - 'Folios'란 투자자가 투자 종목을 직접 수십 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다 투자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는 신형 펀드 상품임
 - 'Folios' 투자자들은 매일 2차례의 정해진 시간 (오전 10시15분과 오후 2시45분)에 종목을 매수·매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거래수수료를 물지 않으며 연간 거래수수료도 적은 편임
- ICI의 건의서에서 'Folios'가 1940년 투자회사법과 1933년 증권법하에 등록 및 규제될 것을 주장
 - 광고 규제, 공시 요건의 충족, Self Dealing에 대한 규제, 거래 및 판매수수료의 제한 등이 주된 내용임
- 그러나, 'Folios'를 취급하고 있는 Foliofn 관계자는 'Folios'는 뮤추얼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선택 및 구성하므로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 현재 SEC 관계자들은 'Folios'가 시장에서 적절히 규제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연방 증권법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자료: www.bloomberg.com)



4월

April

10대 해외 기사

1. 인덱스펀드를 외면하기 시작한 투자자들
(미국, 2일)
2. IRA와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미국
(미국, 16일)
3. 영국 정부는 Pension Fund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영국, 12일)
4. Dresdner Bank를 인수하는 Allianz
(독일, 6일)
5. 새로운 연금 법안 도입을 제기한 독일 정부
(독일, 10일)
6.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헤지펀드
(아시아, 12일)
7. 일본 세제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역외펀드
(일본, 11일)
8. 폐쇄형 펀드에 대한 면제 정책 연장
(중국, 20일)
9. HSBC에서 노령화된 사회를 겨냥한 새로운 펀드 설립
(홍콩, 11일)
10.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Guaranteed Fund
(홍콩, 18일)

◆ 4월 해외 목차 (4/1-4/10)

4/1 (SUN)	
4/2 (MON)	○ 인덱스펀드를 외면하기 시작한 투자자들 (미국)
4/3 (TUE)	○ 증시 침체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Community Fund (미국)
4/4 (WED)	○ 금년 1/4분기에 선전한 미국 채권형 펀드 (미국) ○ 잘못된 신용등급을 게재하여 문제가 된 FolioFN (미국)
4/5 (THU)	식 목 일
4/6 (FRI)	○ Dresdner Bank를 인수하는 Allianz (독일)
4/7 (SAT)	
4/8 (SUN)	
4/9 (MON)	○ 현재의 투자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 견해 제시 (미국)
4/10 (TUE)	○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Closed-End Country Fund (미국) ○ 새로운 연금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 독일 정부 (독일)

◆ 4월 해외 목차 (4/11-4/20)

4/11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BC에서 노령화된 사회를 겨냥한 새로운 펀드 설립 (홍콩) ○ 일본 세제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역외펀드 (일본)
4/12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sion Fund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영국 정부 (영국) ○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헤지펀드 (아시아)
4/13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F 제도 이행상 검토를 위해 MPFA의 운영위원회 개최 (홍콩)
4/14 (SAT)	
4/15 (SUN)	
4/16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와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 (미국) ○ 홍콩에 도입될 ETF (홍콩)
4/17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IPO 시장의 침체 속에서 돋보이는 소형주 (미국)
4/18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Guaranteed Fund (홍콩)
4/19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성향을 따르는 Islamic Fund (말레이시아)
4/20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Class B 펀드를 도입한 Citibank (홍콩) ○ 주식형 펀드의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유럽) ○ 중국은 폐쇄형 펀드에 대한 면세 정책 연장 (중국)

◆ 4월 해외 목차 (4/21-4/30)

4/21 (SAT)	
4/22 (SUN)	
4/23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감원 조치를 발표한 Janus (미국) ○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증가시키는 말레이시아 Pension Fund (말레이시아)
4/24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aranteed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는 태국 (태국)
4/25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인덱스 펀드 현황 (유럽)
4/26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F 감시 서비스의 소개 (홍콩)
4/27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유출을 기록한 독일 뮤추얼펀드 (독일)
4/28 (SAT)	
4/29 (SUN)	
4/30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추얼펀드 시장 발전을 기약하는 CSRC 부의장 (중국)

◆ 2001년 4월 2일 월요일

○ 인덱스펀드를 외면하기 시작한 투자자들 (미국)

- 90년대 후반 지속적인 증시 호황으로 인기가 높았던 인덱스펀드가 최근 증시 침체 이후 투자자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음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S&P500 인덱스 펀드의 경우 금년 들어 1월, 2월에 \$8억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7년만에 처음임
-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ICI)에 의하면 지난 3월 주식형 펀드 (인덱스펀드 포함)에서 \$30억7천만의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98년 8월의 순유출 기록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00년 2월에 \$536억8천만의 기록적인 순유입을 기록한 통계치와 비교됨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에 전부를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현금과 방어적인 주식에 투자하여 약세장에서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로의 이전을 권고하고 있음
 - 반면, 장기투자 성과의 측면에서 현재의 하락한 가격으로 인덱스펀드를 매입하여 강세장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지적도 함께 건의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3일 화요일

○ 증시 침체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Community Fund (미국)

- 인터넷 산업의 성황아래 새롭고 획기적인 투자 방법으로 알려졌던 Community Fund를 설립했던 인터넷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속속 도산하고 있음
 - Community Fund란 비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투자 정보를 교환하여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펀드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이런 Community Fund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인 StockJungle.com의 Community Intelligence Fund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51.3%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음
 - 또 다른 Community Fund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인 iExchange.com의 경우 금년 들어 도산했음
 - 그 이외 몇몇 Community Fund 제공 인터넷 기업의 경우 자금난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져 있어 매각 및 합병의 대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인터넷 상에서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공유하려 했으며, 수학적 모형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 했던 Community Fund의 이상이 현실 적용의 문제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대해 Community Fund 지지자들은 이를 투자 환경 즉, 기술주 등 주식시장 하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4일 수요일

○ 금년 1/4분기에 선전한 미국 채권형 펀드 (미국)

- 금년 1/4분기의 미국 채권형 펀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최고의 성과를 기록함
- Taxable Fixed-Income 펀드의 경우 지난 해 1/4분기에 1.3%의 수익률에 그쳤으나, 금년 1/4분기에 2.2%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정크 본드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금년 1/4분기 동안 3.9%의 수익율을 올려 최고의 성과를 나타냄
- 반면,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동기간 미국 혼합형은 -13%, 다우존스공업평균 인덱스는 -9.7%, S&P500인덱스는 -13.6%, Nasdaq인덱스는 -28.2%를 기록해 이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임
-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가 올해 들어 1.5%의 이자율 삭감이 미국 채권형 펀드 성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성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투자 매력으로 채권형 펀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될 전망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잘못된 신용등급을 게재하여 문제가 된 FolioFN (미국)

- 'folios'를 판매하는 인터넷 기업인 FolioFN이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형 펀드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오기한 채 인터넷 상에 게재한 것이 밝혀짐
 - FolioFN은 지난 9월에 28개의 폐쇄형·채권형 펀드 중 2개의 펀드가 펀드 등급이 잘못 지정되어 인터넷 상에 올려졌음
- 인터넷 상에서 투자자의 클릭만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folios' 상품의 특성상 인터넷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해 FolioFN의 관계자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 이미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ICI)는 'folios'를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SEC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임
- 그러나 FolioFN과 같은 'folios'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상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함에 따라 간접투자 상품인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자료: www.bloomberg.com)

◆ 2001년 4월 6일 금요일

○ Dresdner Bank를 인수하는 Allianz (독일)

- 생보사가 모회사이며 독일 뮤추얼펀드의 2%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Allianz가 독일 뮤추얼펀드의 14% 시장 점유율을 가진 Dresdner Bank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함
- 이로써, Allianz는 Dresdner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Euro 2,500억을 포함해 Euro 7,500억 (\$6,722억)의 수탁고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음
 - 99년 전세계 자산운용사의 수탁고 규모로 볼 때 \$1조700억의 Fidelity, \$1조600억의 UBS 다음으로 세 번째임
- Dresdner는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펀드 운용회사인 DIT를 소유하고 있으며, Allianz가 인수함에 따라 DIT의 판매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llianz의 대변인에 따르면, 두 기업간 인수 작업을 위해 소요될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기업에게는 향후 유럽이나 세계 펀드산업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9일 월요일

○ 현재의 투자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 견해 제시 (미국)

- 국제적 경기 하강 및 기술주의 하락을 이유로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펀드의 성과가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올 1/4분기 중 미국내 주식형 펀드가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주식형 펀드 중 단 8%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이런 펀드산업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투자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여유자금 중 일정 금액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자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장을 대비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주장
 - 증시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현금도 투자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투자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
 - 과거의 성장 주식형 펀드로의 투자관점에서 벗어나 채권형 펀드 및 가치주 위주의 투자패턴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투자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
 - 금리 하향 추세 및 안정된 투자를 위하여 채권형 펀드로의 투자를 권하는 견해로 저렴한 수수료 및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10일 화요일

○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Closed-End Country Fund (미국)

- 주요 주식시장 지수와 주식형 뮤추얼펀드 등이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Closed-End Country Fund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최근 1/4분기 동안 모든 Closed-End Country Fund는 평균 3.82% 수익률을 기록함
 - Closed-End Country Fund에 속하는 Taiwan Fund, Japan OTC Equity, Emerging Markets Income Fund 등의 경우 최근 1/4분기에 각각 17.76%, 17.74%, 17.73%를 기록함
- Closed-End Country Fund는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신흥국가의 주식과 채권을 사도록 되어있는 Investment Pool로써, 거래소에 등록돼 거래되는 펀드임
 - 대부분의 펀드는 포트폴리오상의 순자산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Closed-End Country Fund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유
 - 미국의 시장 경제가 침체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의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Closed-End Country Fund에게 유리한 환경이 설정됨
 - 투자자를 유인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줄이고 있음
 - 선진시장의 경우 경제의 파급 속도가 빠른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 선진시장과의 상관관계와 밀접하지 않아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최근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된 이후, Closed-End Country Fund의 순자산 가치 증가 및 거래 가격에 대해 적용되는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음
 - 샬로먼스미스바니에 따르면 3달 전 순자산가치에서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현재 16%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많은 Closed-End Country Fund는 순자산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펀드 주식을 되사는 한편,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편입된 주식, 채권 등)을 나눠주고 있음
 - 가령 순자산가치에서 19%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펀드의 주식을 펀드가 되사고 대신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현물을 나눠주게 되면 투자자는 약 19%의 이익을 보는 셈임
- Closed-End Country Fund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증시 침체시 개방형 펀드와는 달리 환매 압박을 받지 아니하여 펀드매니저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Closed-End Country Fund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개방형 펀드의 성과에 못 미치지 만, 침체된 투자 상황에서 투자 대안을 찾고 있는 투자자에게 보다 폭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새로운 연금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 독일 정부 (독일)

- 독일 정부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직역연금 제도 (이하 Pensionfonds)를 위한 연금 법안을 제기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직역연금 제도를 개정하려함
 - 이 법안의 일부는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 의해서는 거부되었고, 현재 의회 조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음
- 이 연금 법안에 의해 설계되는 Pensionfonds는 세금이 면제되며, 종업원은 급여의 4%까지 펀드에 적립할 수 있음
 - Pensionfonds는 뮤추얼펀드, 은행과 보험상품 세 곳에서 허용될 예정이며, 급부 방식은 연금 지급 방식과 일시금 지급 방식 모두 적용됨
 - 이 법안에서는 퇴직시 원금을 보장하고 수명 위험 (longevity risk)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음
- 아직까지 투자를 위한 세부적인 안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임 (자료: ICI)

◆ 2001년 4월 11일 수요일

○ HSBC에서 노령화된 사회를 겨냥한 새로운 펀드 설립 (홍콩)

- 전세계적으로 퇴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축적된 부의 관리 및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1995년 \$46조에서 2010년 \$144조로 증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인구 계층으로부터 금융서비스 수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미국의 경우 현재 한 사람당 보건비 지출액으로 약 \$4,000을 사용하는데 이는 3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음
 - 선진국 보건비 지출액의 경우도 1970년 \$1,150억에서 1998년 \$2조1,000억으로 증가됐음
- HSBC는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에 적합한 새로운 펀드인 Global Demographics Capital Guaranteed Fund를 설립했음
 - 이 펀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보건 및 금융 관련 주식 25개를 1개의 Basket으로 하여 투자됨
 - 이 펀드의 52%는 보건 관련 주식, 나머지는 금융 관련 주식에 투자하며, 국가별로는 유럽, 미국, 일본에 각각 40%, 32%, 28%를 투자할 계획임
- 이 펀드는 4월 17일에서 5월 25일까지 홍콩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며, 펀드 원금이 100% 보장되도록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짐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일본 세제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역외펀드 (일본)

- 일본 투자자들은 국내펀드와 동등하지 못한 세제상 조건 때문에 역외펀드로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일본 금융기관에 의해 설정된 일본 국내펀드의 경우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음
 - 사모펀드의 경우 납세신고서 제출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역외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납세신고서 제출시 의무적으로 모든 소득을 공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시 이런 종류의 펀드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15~50% 세율이 적용됨 (자료: www.iht.com)

◆ 2001년 4월 12일 목요일

○ Pension Fund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영국 정부 (영국)

- 영국 정부는 영국 Pension Fund의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음
- 이 보고서의 목적은 기관투자자나 영국의 Pension Fund가 투자 의사결정시 왜곡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임
 - 특히 이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꺼리도록 하는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Pension Fund 시스템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Pension Fund 자산관리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대안들을 추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영국의 펀드산업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들을 권고하고 있음
 - Pension Fund의 수탁회사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 기술, 자원 등을 갖춰야 함
 - 수탁회사는 펀드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펀드의 투자 목적을 설정해야 함
 - 수탁회사는 펀드매니저에게 명백히 문서화되고 강제된 투자 목적과 펀드평가 정보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함
 - 펀드매니저와 함께 그 펀드가 선택한 인덱스 벤치마크가 적절한지 확실한 판단이 필요함
-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Pension Fund가 반드시 채택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순응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대중에게 공시할 것을 권하고 있음 (자료: ICI)

○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헤지펀드 (아시아)

- 헤지펀드들은 97년 당시 주로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아시아 국가를 공격했으며, 동시에 주가의 변동성을 높임으로써 아시아 경제위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97년 이후 현재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어 헤지펀드로 인한 환위험이 거의 줄어든 상태임
-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한 헤지펀드들은 Convertible Arbitrage 전략 등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아시아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를 희망하고 있음
 - Convertible Arbitrage란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주식의 공매도를 통해 향후 주가 하락 및 주가와 채권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임
 -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투기성 요소도 있지만, M&A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헤지펀드의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적인 시장 관찰자들은 헤지펀드가 주가 하락과 시장 가격 변동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헤지펀드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헤지펀드는 시장 경제의 어두운 면에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향후 분산투자의 잇점을 살리는 또 다른 투자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현재 헤지펀드는 아시아에서 약 20개가 존재하며, 총 자산규모가 \$100억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13일 금요일

○ MPF 제도 이행상 검토를 위해 MPFA의 운영위원회 개최 (홍콩)

- 최근 홍콩의 MPF를 관장하는 당국인 MPFA는 현재 MPF의 이행 검토 및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음
- MPF 제도 실시 이후 MPFA로 접수된 불편 사항 중 60% 이상이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사됨
 - 불편 사항의 주장 중 67%는 근거가 없었으며, 15%는 스스로 접수를 취소했으며, 12%는 만족스럽게 해결했음
 - 나머지 6%는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에 계류 중임
- MPFA의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MPF Schemes Ordinance와 MPF Schemes Regulation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했음
 - 예를 들면, 수정안에는 18~65세 사이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MPF 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 MPF Benefits의 최소금액은 강제 각출금으로 간주되는 반면,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 (ORSO)로부터 이전된 Benefits는 자발적인 각출금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 3월 21일 현재 약 202,000명의 사용자, 1,650,000명의 종업원, 279,000명의 자영업자가 MPF 제도에 가입했음
 - 이것은 총 사용자의 82%, 총 종업원의 91%, 총 자영업자의 93%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홍콩 생산인구의 82%가 퇴직제도에 의해 수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냄
- 2월 28일 현재 퇴직제도와 관련하여 펀드의 총순자산 가치는 \$116억 (ORSO에서 MPF로 이전된 자산을 포함)임
 - \$116억 중 46%는 혼합형 펀드, 21%는 Guaranteed Fund, 15%는 Capital Preservation Fund, 2%는 MMF, 그리고, 1%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음 (자료: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 2001년 4월 16일 월요일

○ IRA와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 (미국)

-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상원의원 Charles Grassley와 Max Baucus는 2001년 4월 6일에 퇴직저축을 고무시키는 법안인 "Retirement Security and Savings Act of 2001"을 제출했음
- 주요 내용
 - 연간 IRA 각출금의 한도를 \$2,000에서 \$5,000으로 증가
 - 401(k), 403(k), 457 plans의 종업원 각출금 한도를 \$15,000으로 증가
 - 50세 이상의 사람이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IRA와 기업연금에 추가적으로 50%의 각출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금부의 이전성 제고
 - 퇴직 연금제도를 설립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실시
- 특히, 중·하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IRA와 기업연금에 각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하려고 함
 - 부부당 소득이 \$30,000 (개인은 \$15,000)까지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은 \$2,000의 각출금까지 50%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됨
 - 부부당 소득이 \$50,000 (개인은 \$25,000) 이상부터는 세액공제가 없음
- 하원에서 제출된 바 있는 Portman-Cardin Bill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원의 법안에는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자료: ICI)

○ 홍콩에 도입될 ETF (홍콩)

- Barclays Global Investors는 홍콩에서 항생지수에 연동하는 첫 ETF (Exchange-Traded Fund)인 Morgan Stanley Capital Index China iShare를 설립할 계획임
 - Barclays는 역시 홍콩 투자가들을 위해 한국, 대만,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6개국에 투자하는 ETF를 미국과 홍콩에서 상호 거래하도록 할 계획임
- 따라서, 홍콩 투자가들이 미국에 주소를 둔 MCSI Asian Country Fund를 홍콩 시간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분산투자의 효과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자료: www.iimagazine.com)

◆ 2001년 4월 17일 화요일

○ 미국 IPO 시장의 침체 속에서 돋보이는 소형주 (미국)

- 증시 침체로 인해 미국의 IPO (최초 기업공개) 시장의 활동이 저하되면서 비공개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음
 - 금년 들어 22개의 미국 기업들이 IPO를 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51개 기업에 비해 70%나 줄어든 셈
- 펀드매니저들은 저가인 공모가로 주식을 구입한 뒤, 공모가보다 높은 유통가격으로 매매를 하여 순쉬운 투자수단이 되었으나, 시장의 침체로 IPO 시장의 투자안을 기대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소형주 펀드매니저들은 입장이 다름
 - 여기에서 소형주란 시가총액이 \$15억 이하인 기업의 주식을 의미함
- 최근 IPO를 하는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소형주 기업이며, 이들의 IPO 시장을 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많지 않기 때문
 - 플로리다 대학의 IPO 전문가들은 1999년과 2000년에 미국에서 매달 37개 기업들이 IPO를 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형주 기업이라고 밝힘
- 따라서, 소형주의 IPO 시장을 투자수단으로 이용하는 소형주 펀드매니저들에게는 IPO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익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Guaranteed Fund (홍콩)

- Guaranteed Fund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2월 들어 홍콩의 펀드들 중 최고의 펀드 자금이 유입됨
- Hong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이 조사하고 있는 16개의 펀드들 중에서 지난 2월 동안의 총 유입액 중 Guaranteed Fund로의 총 유입액 비중이 21%를 기록
 - 2월 동안 언급된 16개 펀드의 총 유입액 \$6억2,920만 중 Guaranteed Fund는 \$1억3,130만이고, 순유입액 \$2억1,940만 중 Guaranteed Fund는 \$1억3,010만임
- 이는 증시 및 경제의 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된 투자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4월 19일 목요일

○ 종교적 성향을 따르는 Islamic Fund (말레이시아)

- 이슬람의 Syariah 법을 지키며, Islamic Fund를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펀드매니저들이 금융회사나 투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기시 하여왔음
 - 이슬람의 Syariah 법을 따르는 펀드매니저들은 투기적인 행위보다는 합리적 투자에 역점을 두며 무리한 펀드 운용을 자제하고 있음
-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현금흐름보다는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는 기술주 등에 노출이 덜 된 탓에 지난 해 주식시장 침체시에 타격이 작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물론, Islamic Fund의 펀드매니저들 중 일부는 기술주 등의 첨단 부문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 구경제 부문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 비중이 큼
 - 가령, 말레이시아에서 전세계 palm oil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단위 농장 (plantation)의 주식이 Syariah 법에 순응하며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며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음
- 이들 펀드매니저들은 수익률 문제가 펀드 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종교적 기호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 홍콩에서 Class B 펀드를 도입한 Citibank (홍콩)

- Citibank는 4월 19일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Class B 펀드를 홍콩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힘
 - Class A 펀드의 경우 선취 판매수수료가 3%에서 5.5%의 범위 내에서 부과됨
- Class A 펀드와 Class B 펀드의 비교
 - Class B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최고 4%에서 시작해서 펀드 보유 기간이 1년씩 경과할수록 1% 감소하게 됨
 - Class B 펀드는 연간 비용으로 2%가 부과되는 반면, Class A 펀드는 1%가 부과됨
 - Class B 펀드는 Class B 펀드간 이동이 무료인 반면, Class A 펀드는 펀드간 이동에 따른 1%의 전환수수료가 부과됨
- Citibank는 50개의 Class B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은 Class A 펀드와 유사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주식형 펀드의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유럽)**

- 금년 1/4분기 최악의 증시 상황을 맞이한 유럽 소매 투자자들은 유럽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뮤추얼펀드협회들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주식형 펀드로의 순유입이 지난 1월 \$83억, 2월 \$42억으로 감소했음
 - 2월의 순유입액은 1년 전 \$288억의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임
 - 3월 들어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펀드별 순유출의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투자자들은 유럽의 기술주 펀드를 팔고 미국의 기술주 펀드를 사는 등 유럽의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중국은 폐쇄형 펀드에 대한 면세 정책 연장 (중국)**

- 중국의 재경부 관계자는 4월 20일 중국 폐쇄형 펀드의 자본이득에 대한 면세 정책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폐쇄형 펀드에 대한 면세 정책은 지난 연말에 만료된 상태였음
 - 아울러 펀드 투자자들은 폐쇄형 펀드에 참가되는 인지를 1년 더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음
- 정부 당국은 이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중국의 펀드산업에 대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최근 발생한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6개월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4월 23일 월요일**

○ **25% 감원 조치를 발표한 Janus (미국)**

- Stilwell Financial Inc.의 자회사인 Janus Capital Corp.는 지난 4월 20일 금년 들어 세 번째이며 최대 규모의 인력감축을 단행한다고 발표
 -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콜센타 (직원 400명)를 폐쇄하고 덴버에 있는 146명의 영업직원을 해고할 방침임
 - 이 감원 조치를 통해 총 546명이 해고되며 이는 총 종업원의 25%에 해당됨
- 금년 들어 Janus는 1,000여명의 직원을 감원하여 현재 인원은 1,675명임
- 감원대상의 대부분은 콜센타의 고객 서비스 요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게다가 기술주 및 통신주에 주력한 Janus는 자산이 지난 해 \$1,000억, 금년 1/4분기 \$2,000억이 감소하여 순매도 상태에 있음

- Janus는 지난 해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6,500만을 사용했으며, 신규 고객의 62% 이상이 웹사이트를 경유하여 회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임
 - 총 계좌의 20%가 온라인상에 개설돼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증가시키는 말레이시아 Pension Fund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Bank Negara의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14개 Pension Fund 및 Provident Fund가 자국내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 회사채 및 국공채의 경우 1999년 각각 27.5%, 9.2%에서 2000년 각각 29.2%, 9.4%로 증가했음
 - 주식의 경우 1999년 23%에서 2000년 24.5%로 증가했음
 - 조사된 14개 펀드의 자산은 1999년 rm1,957억에서 rm2,176억 (US\$572억)으로 증가됨
- 그러나, 최근 EPF (Employees Provident Fund)의 경우 낮은 배당률로 인해 투자정책 및 목적에 관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해 EPF 배당률은 6%로 지난 20년 동안 최저 수치를 기록했음 (자료: April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4월 24일 화요일

○ Guaranteed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는 태국 (태국)

- 태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뮤추얼펀드 시장에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Guaranteed 뮤추얼펀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힘
 - 투자자들은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배제시켜 원금을 보장할 수 있음
- 이 계획은 태국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큼 여유자금이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라는 태국 SEC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 이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의 10~20%에 비해 낮은 수치임
- 태국 SEC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투자자들의 성향은 단기적이며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정부는 Guaranteed 뮤추얼펀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켜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성향을 전환하여 주식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인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태국 SEC 이사회는 우선 Guaranteed 뮤추얼펀드의 이행에 따른 규제 및 법률안을 설계할 방침임 (자료: www.bday.net)

◆ 2001년 4월 25일 수요일

○ 유럽의 인덱스 펀드 현황 (유럽)

- 유럽에서 80년대 처음으로 도입된 인덱스 펀드는 90년대 말 유럽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음
 - 25년 인덱스 펀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는 낮은 운용 수수료 및 분산 투자에 대한 잇점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미국과 같은 인덱스 펀드의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인덱스 펀드의 벤치마크가 되는 유럽 각국의 인덱스가 기술주, 통신주 등 인기종목 주식과 대형주 등에 편중되어 있어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가지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유럽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에 대한 인식 결여로 다른 펀드에 비해 인덱스 펀드의 투자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 유럽 국가 중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인덱스 펀드가 발달했음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태임
 - 대체로 국가로부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사적연금 및 직역연금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이 인덱스 펀드가 발달했음
 - 영국의 경우, 2001년 말까지 인덱스 펀드 자산이 전체 주식형 펀드 자산의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독일은 2%, 프랑스는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4월 26일 목요일

○ MPF 감시 서비스의 소개 (홍콩)

- Watson Wyatt와 William M. Mercer은 종업원 및 사용자에게 MPF (Mandatory Provident Fund)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와 심도 깊은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MPF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Watson Wyatt의 MPF Provider Watch의 경우 주로 MPF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
 - 주로 MPF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와 서비스의 질 및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설의 범위 등의 소식을 발표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MPF Performance Book에는 펀드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과 투자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위험 분산 및 자산 배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음
- Mercer의 Basic MPF Monitor의 경우 각 MPF 제공자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분기별 보고서에는 새로운 상품과 수수료, 시장 현황 및 MPF 제공자에 대한 투자 성과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음 (자료: April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 순유출을 기록한 독일 뮤추얼펀드 (독일)

- 독일 뮤추얼펀드협회인 Bundesverband Deutscher Investment-Gesellschaften에 따르면 지난 3월 euro 9억의 순유출을 기록
 - 이는 96년 12월 euro 2,500만만의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첫 순유출의 기록임
- 주식형 펀드의 경우 2000년 4/4분기시 euro 119억을 기록한 반면, 금년 1/4분기에는 euro 36억으로 감소했음
 - 작년 같은 1/4분기의 경우 euro 221억을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임
- 독일 한 펀드매니저는 이와 같은 시점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주장하며 장기 투자에 적기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4월 30일 월요일

○ 뮤추얼펀드 시장 발전을 기약하는 CSRC 부의장 (중국)

- 4월 28일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CSRC)의 부의장인 Laura Cha는 중국 뮤추얼펀드 시장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Laura Cha는 중국은 아직 펀드산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거대한 잠재력을 가졌으며, 점차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증권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녀는 외국인에 대해 합작투자 증권회사나 펀드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것이며, 기술적 제후를 통해 국내 산업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주장
 - 특히, 기관투자자의 양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CSRC는 중국 증권시장의 파수꾼으로써 펀드산업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이며 불법적인 시장 행위를 근절하고자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 2000년 말 현재 중국은 10개의 펀드운용사가 있으며, 562억좌의 수탁고에 순자산 가치가 847억 위안임 (자료: 중국 인민일보)



5월

May

10대 해외 기사

1. 하원의 두 위원회에서 승인된 Portman-Cardin bill
(미국, 2일)
2. "Social Security Commission"을 구성토록 지시한 부시 대통령
(미국, 4일)
3. 펀드에 대해 all-day pricing 적용을 고려하는 SEC
(미국, 22일)
4. TIPS의 소개
(미국, 28일)
5.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이 펀드 슈퍼마켓
(유럽, 7일)
6. Emerging Market에서 펀드의 폐쇄 속출
(유럽, 21일)
7. 적극적 운용으로 선회하는 영국 pension fund
(영국, 28일)
8. 소규모에 불과한 아시아 헤지펀드
(아시아, 7일)
9. 보험사 전용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
(중국, 11일)
10.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ETF
(싱가폴, 4일)

◆ 5월 해외 목차 (5/1-5/10)

<p>5/1 (TUE)</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처님 오신 날</p>
<p>5/2 (W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의 두 위원에서 승인된 Portman-Cardin bill (미국) ○ 재반등이 예상되는 European-region fund (미국)
<p>5/3 (TH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주식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 고조 (말레이시아)
<p>5/4 (F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Security Commission"을 구성토록 지시한 부시 대통령 (미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ETF (싱가폴)
<p>5/5 (SAT)</p>	
<p>5/6 (SUN)</p>	
<p>5/7 (M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에 불과한 아시아 헤지펀드 (아시아) ○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의 펀드 슈퍼마켓 (유럽)
<p>5/8 (T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약세장으로부터 교훈 (미국)
<p>5/9 (W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I, 2001년 3월의 Unit investment trust의 통계 발표 (미국)
<p>5/10 (TH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IF 연례회의에서 전 의장인 Mr. Ainswrth의 연설 (영국) ○ 개방형 펀드로 전환하게될 Greater China Fund (중국) ○ 일본에서 2개의 Sector Fund를 설정하는 Fidelity (일본)

◆ 5월 해외 목차 (5/11-5/20)

5/11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째 연속 자금이 유입되는 Junk Bond 뮤추얼펀드 (미국) ○ 보험사 전용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 (중국)
5/12 (SAT)	
5/23 (SUN)	
5/14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와 답변 (미국)
5/15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AMP (호주) ○ 세계 최고 부유층, 지난 해 주식시장 침체에 영향 적어 (영국)
5/16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주간 Global Equity Fund의 활약 (미국)
5/17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iwanese Mutual Fund House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게된 HSBC (대만) ○ 개방형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중국의 Ping An 보험사 (중국)
5/18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주의 비중을 대폭 줄인 Fidelity (미국)
5/19 (SAT)	
5/20 (SUN)	

◆ 5월 해외 목차 (5/21-5/31)

5/21 (MON)	○ Emerging Market에서 펀드의 폐쇄 속출 (유럽)
5/22 (TUE)	○ 펀드에 대해 all-day pricing 적용을 고려하는 SEC (미국)
5/23 (WED)	○ 아시아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는 Schroder (홍콩) ○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세계적 보관회사들의 노력 (아시아)
5/24 (THU)	○ 기술주의 비중을 줄인 Fidelity Magellan Fund (미국) ○ 올 1/4분기 \$690억 순유입을 기록한 헤지펀드 (미국)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한 ETF (미국)
5/25 (FRI)	○ 4월 이후 주식형 펀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미국 투자자들 (미국)
5/26 (SAT)	
5/27 (SUN)	
5/28 (MON)	○ TIPS의 소개 (미국) ○ Jakarta Fund와 합병하는 Indonesia Fund (인도네시아) ○ 적극적 운용으로 선회하는 영국 pension fund (영국)
5/29 (TUE)	○ Asahi Mutual 생보사 yen500억 차입 계획 (일본)
5/30 (WED)	○ 전자적 기록 보관 법률안을 채택한 SEC (미국) ○ 세계 혜택이 주어지는 뮤추얼펀드 순매출액 24% 하락 (영국)
5/31 (THU)	○ 투자자에게 음성 응답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인 T.Rowe (미국)

◆ 2001년 5월 2일 수요일

○ 하원의 두 위원회에서 승인된 Portman-Cardin bill (미국)

- IRA와 기업연금 등의 퇴직저축 제도를 고무시키는 초당적인 법안인 Portman-Cardin bill, 즉, "Comprehensive Retirement Security and Pension Reform Act of 2001"이 하원의 두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음
 -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는 4월 25일 35대 6으로 통과됨
 - the House 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에서는 4월 26일 구두 투표로 법안 내 ERISA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승인했음
- Portman-Cardin bill의 주요 내용
 - 직장의 이동에 따른 퇴직연금 혜택의 연계성 제고
 - 1981년에 정해진 IRA의 각출 한도 \$2,000에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감안한 금액인 \$5,000으로 높임
 - 401(k), 403(b), 457 plans의 각출 한도를 \$10,500에서 \$15,000으로 높임
 - 퇴직저축 제도를 일찍 가입할 수 없었던 50대 이상 노령층에 대한 기회 제공
- 지난 4월 6일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인 "Retirement Security and Savings Act of 2001"을 제출한 상태임
 - 이 법안은 중·하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IRA와 기업연금에 각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임 (자료: ICI)

○ 재반등이 예상되는 European-region fund (미국)

-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전망과 함께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인 European-region fund의 재반등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한 달 동안 180여개의 European-region fund는 5.76%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다른 region-fun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임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세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51%임
- 펀드매니저들은 안정된 유럽 통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유럽 기업들도 많아 European-region fund를 통한 펀드 수익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5월 3일 목요일

○ 말레이시아 주식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 고조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Securities Commission의 의장인 Ali Abdul Kodir는 최근 외국 펀드매니저들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Price-earning ratio의 분석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주식들은 1년 전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지난 3월 1일 표본 추출된 말레이시아 주식들의 P/E ratio는 1년 전에 비해 20%가 낮음
- 아울러, 정부가 1년내 자국으로 송환되는 펀드 수익에 대한 10% 과세 제도를 폐지한 이후 말레이시아 주가는 4.6% 상승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Dow Jones Newswire)

◆ 2001년 5월 4일 금요일

○ "Social Security Commission"을 구성토록 지시한 부시 대통령 (미국)

- 부시 대통령은 Social Security를 고무시키기 위해 16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주관 "Social Security Commission"을 설립토록 지시함
 -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의 원칙을 따르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함임
- 위원회가 준수하는 원칙
 - 퇴직자 및 퇴직자 주변인들에 대한 혜택의 불변
 - 원천징수 세금을 인상하지 않음
 - Social Security funds의 주식시장 투자는 없을 것임
 - 자발적이며 개별적인 계좌를 포함함
 - 장애 및 유족 혜택을 유지함 (자료: ICI)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ETF (싱가폴)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5월 4일 AMEX에 상장된 ETF (Exchange-Traded Fund) 중 9개 ETF에 대한 거래를 시작했음
- ETF는 인덱스펀드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동시에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ETF는 인덱스를 따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써, 일반 펀드에 비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적어 거래비용이 적음
 - ETF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현지 시각으로 거래되므로 유동성이 증가됨
- 기관투자자의 경우 ETF의 매매를 통해 재정거래 및 헤지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7일 월요일

○ 소규모에 불과한 아시아 헤지펀드 (아시아)

- Bank of Bermuda에 의하면 2000년 아시아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는 \$35억으로 전세계 헤지펀드 규모 (추정치)인 \$4,000억에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97명의 조사 대상 아시아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중 50~60명만이 총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투자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는 헤지전략을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전통적인 펀드들이거나 개인 자산을 운용해 주는 소규모 펀드로 나타났음
 - 헤지펀드는 전통적인 펀드들과 달리 주식의 공매도나 전환사채 차익거래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함
- 아시아에서 운용 중인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500만~\$2,000만 사이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George Soros나 Julian Robertson 등이 운용하는 펀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함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의 펀드 슈퍼마켓 (유럽)

- 유럽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1백여개 이상의 펀드 슈퍼마켓이 생겨났으며, 다양한 펀드 상품의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럽 펀드 슈퍼마켓의 총 자산은 Euro200억 (\$179억)이며 펀드 슈퍼마켓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2년 전에 비해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음
 - 유럽의 펀드 슈퍼마켓은 유럽 뮤추얼펀드 순유입액의 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국의 펀드 슈퍼마켓은 뮤추얼펀드 순유입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유럽 펀드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합병의 바람이 불고 있음
 - 이는 작은 규모의 펀드 슈퍼마켓은 투자자들을 위해 충분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추세임
 - 독일의 DAB 펀드 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가을 온라인 중개업체인 SelfTrade를 합병하여 자산이 Euro51억이 됨
- 1백여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럽의 펀드 슈퍼마켓 시장이지만 향후 합병 및 경쟁을 통해 다수의 회사가 사라질 것이며, 경쟁력있는 회사와 함께 빠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8일 화요일

○ 1970년대 약세장으로부터 교훈 (미국)

- Swquoa Fund의 현 이사회 의장인 Mr. Ruane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 상황은 과거 1970년대에 나타났던 약세장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과거 시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밝힘
- 1970년대 초반에도 이른바 'Nifty Fifty'라 불리는 인기 성장종목인 'Polaroid', 'Avon' 등의 주식이 부각되었으나, 이후, 장기간 약세장 (1972.12~1974.9)을 맞이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고통스런 시간을 갖게 되었음
 - 1990년대 후반 기술주의 인기와 함께 강세장을 이어 온 주식시장이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임
- Mr.Ruane은 당시를 회고하며 주식의 본질가치와 가격과의 관계가 오랜 투자 감각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경제 추세의 예측치 등이 주식시장의 반전을 충분히 암시할 수 없다고 강조
 - 그러나, 현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절대적 믿음이 있으며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임
 - Mr.Ruane은 미래 시장을 전망할 수 없지만, 현 시장은 수익을 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며,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수익률이면 만족하겠다고 밝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9일 수요일

○ 2001년 3월의 Unit investment trust의 통계를 발표한 ICI (미국)

-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금년 3월 Unit investment trust의 수탁고가 \$74억4천만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해 3월에 기록된 \$51억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주식형은 \$73억4천만의 수탁고를 기록했으며, Tax-free bond는 \$6,730만, Taxable bond는 \$2,650만을 기록
- 3월에 발행된 펀드의 수는 Tax-free bond 11개, Taxable bond 1개, 주식형은 52개임
- 3월에 제공된 장기 채권형의 경우 가중평균 만기가 대부분 15년 이상이며, \$6,720억의 수탁고를 기록 (자료: ICI)

◆ 2001년 5월 10일 목요일

○ AUTIF 연례회의에서 전 의장인 Mr. Ainswrth의 연설 (영국)

- AUTIF (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의 전 의장인 Mr.Ainsworth는 연례회의에서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
- Mr.Ainsworth는 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신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돕기 위해 펀드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투자자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투자에 대한 상담과 상담시 고객인 투자자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정의가 필요
 - 투자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표준화되고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펀드 성과 공시를 위해 표준화된 간단한 형식이 있어야 함 (자료: 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

○ 개방형 펀드로 전환하게 될 Greater China Fund (중국)

- 폐쇄형 펀드인 Greater China Fund는 5월 10일 개방형 펀드로 전환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펀드 투자자들은 5월 9일 개방형 펀드로의 전환을 승인했으며, 펀드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최근 중국의 폐쇄형 펀드들이 개방형 펀드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
 - Invesco Global Health Sciences Fund의 경우도 5월 8일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개방형 펀드로의 전환에 대해 승인을 받은 상태임
-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Greater China Fund는 순자산가치 (NAV)에서 약 21%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5월 4일 현재 Greater China Fund의 순자산가치는 좌수당 \$12.58이며, 거래 가격은 좌수당 \$10.11임 (자료: Reuters)

○ 일본에서 2개의 Sector Fund를 설정하는 Fidelity (일본)

- Fidelity Investment Japan은 5월에 2개의 주식형 Sector Fund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이들 펀드는 각각 통신산업과 소비재 제조업체의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일본에서 소비재 지출은 국가 경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비중이 높으며, 통신산업 역시 현재 부각되는 사업 영역으로 모두 전도유망한 중·장기적 투자영역임
- Fidelity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펀드를 설립했으며, 초기의 펀드 모집 기간내에 유입된 자금과 자사자금을 합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힘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5월 11일 금요일**

○ **3주째 연속 자금이 유입되는 Junk Bond 뮤추얼펀드 (미국)**

- AMG Data Services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지난 7일간 Junk Bond 뮤추얼펀드로 \$5억5,600만이 유입됐으며, 이는 최근 3개월 중 가장 큰 수치임
 - 이로써, 3주째 연속 Junk Bond 뮤추얼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Junk Bo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지난 4월 18일 연방준비이사회 (FRB)가 이자율을 내리면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위험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Merrill Lynch에 따르면 금년에 Junk Bond의 경우 5.93%의 수익률을 올려서 미국 재무성 증권 1.68%, 투자 적격 회사채 4.5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자료: Reuters)

○ **보험사 전용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 (중국)**

- China Securities Newspaper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투자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에게만 판매가 허용된 뮤추얼펀드가 곧 설립될 것임
- yuan60억 (\$7억2,490만) 규모의 개방형 펀드가 7월 이전에 설립되어 생보사들에게만 판매될 예정임
 - 중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보험사인 China Life Insurance Co.는 이 펀드에 yuan40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함
-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의 자금 운용에 대해 제한을 받아 온 중국 보험사들은 투자 채널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음
 - 중국 보험사의 경우 1999년 말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투자가 허용됐으나, 이 또한 투자 대상을 뮤추얼펀드에만 한정하고 있는 상태임 (자료: Reuters)

◆ 2001년 5월 14일 월요일

○ ETF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와 답변 (미국)

- 최근 분산투자 및 낮은 비용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ETF (Exchange-Traded Fund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소개함
- ETF는 실제 일반 펀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가
 -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만, 펀드 전략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및 추가 매입·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비용이 저렴함
 - 실제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주식형 인덱스펀드의 연간 평균 비용이 자산의 0.83%이며, Vanguard 500 펀드의 경우 0.18%인데 비해 ETF는 연간 평균 0.17%에 불과함
- ETF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가
 - ETF는 현물 주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ETF의 매매 및 인덱스상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변화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펀드와 동일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 모든 ETF가 동일한가
 - 가령, Nasdaq 100 Trust Shares의 경우 일일 거래량 규모가 5,000만주 이상이나, 대부분의 ETF의 경우 10만주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ETF는 현물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거래량 규모가 적은 ETF의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ETF 주식의 매도 및 매입시 수급량을 맞춰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ETF의 또 다른 유용성에 대해서
 - 일반 뮤추얼펀드의 경우 매도시 매매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인덱스를 따르는 ETF를 가정할 때 그 산업의 후퇴기가 예상되면, 즉시 매도로 투자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음
 -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기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음
 - 선물 및 옵션처럼 시장 방향에 따라 전략 설정이 가능하며, ETF의 경우 계약 만기가 없다는 점이 특징임
- ETF는 단기투자에만 유용한가
 - ETF는 Global 인덱스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및 특정 산업 분야의 인덱스를 따르므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기호에 따라 특정 지역 및 특정 산업분야의 인덱스를 따르는 ETF를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ETF는 폭 넓은 분산투자과 선택된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모두 가능함으로 단기투자 및 장기투자 전략에도 적합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15일 화요일

○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AMP (호주)

- 호주의 펀드운용회사이며 보험사인 AMP는 2003년까지 중국에서 생보사 인가를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AMP는 3주 전 중국에 A\$15억 (US\$7억8천만)을 투자함과 동시에 생보사 인가를 신청했음
 - 최근 중국은 WTO 가입이 임박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 회사에 대해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AMP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노령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보사 진출 비중이 낮아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AMP는 그 동안 12개의 아시아 국가에 A\$140억을 투자해 왔으며, 일본과 인도의 경우 생보사 및 펀드운용회사 설립을 계획 중임
 - 일본의 경우 AMP 일본 지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일본 NEC와 함께 A\$3,200만을 투자해 왔으며, 5년에 걸쳐 총 A\$2억을 투자할 방침임
 - 인도의 경우 AMP의 합작회사와 함께 향후 5년간 A\$6천만을 투자할 방침임
- 높은 저축 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 AMP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장기 계획을 통해 시장 선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세계 최고 부유층, 지난 해 주식시장 침체에 영향 적어 (영국)

- 지난 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부유층의 자산은 \$27조로 연간 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보유 자산에 대한 타격을 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Merrill Lynch와 컨설팅 회사인 Cap Gemini Ernst & Young이 작성한 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1백만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이 72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84,000명 증가했음
 - 1999년의 경우 1백만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순자산가치가 18% 증가한 것에 비해 둔화된 것임
 - Merrill Lynch 관계자는 이들 세계 최고 부유층들은 기술주를 신속하게 처분하고 현금이나 채권, 기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동했다고 언급
-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변동성 증대로 향후 5년간 이들 부유층의 순자산은 연 평균 8%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5년 후 자산은 총 \$39조7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지난 5년간 이들 부유층들의 순자산은 연 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여왔음 (자료: Financial Times)

◆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 지난 4주간 Global Equity Fund의 활약 (미국)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4주간 펀드 수익률 조사결과, 304개의 Global Equity Fund가 평균 4.8%를 달성하여 World Equity Fund의 4.4%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
 - Global Equity Fund의 경우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반면, World Equity Fund는 특정 지역의 주식시장에만 한정하여 투자하는 펀드임
- 올해 초반에는 미국 시장의 침체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초래하였음
 - 그러나,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아시아 및 유럽의 주식 지분을 늘리는 등 지역 시장별로 매입 투자전략을 펴 왔음
-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의 공격적인 이자율 삭감 정책과 세계적 기업들의 합병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통해 현재의 펀드 성과를 달성하게 됨 (자료: Reuters News Services)

◆ 2001년 5월 17일 목요일

○ Taiwanese Mutual Fund House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HSBC (대만)

- 5월 16일 HSBC Asset Management는 대만의 선도적 펀드인 Taiwanese Mutual Fund House의 지분 중 대부분을 US\$1억300만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힘
 - 이로 인해 HSBC는 China Development Industrial Bank (이하 CDIB)가 주요 주주로 있는 China Securities Investment Trust의 52.89% 지분을 매입하게 되는 셈임
- 대만의 CDIB 측은 이 협상을 통해 US\$8,640만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힘
- 동시에 이 협상에서 China Securities Investment Trust는 약 US\$2억으로 평가됨
 - China Securities Investment Trust는 현재 US\$30억의 자산을 운용 중임 (자료: <http://news.chinatimes.com>)

○ 개방형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중국의 Ping An 보험사 (중국)

- 중국 펀드시장에서 두 번째의 자산 규모를 가진 Ping An 보험사는 중국의 보험사가 개방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개방형 펀드를 처음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해야 될 보험사가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임
 - 또, 거래비용 및 관리수수료도 높아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중국의 보험사들은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펀드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증권시장의 펀드 시가총액은 약 yuan800억 (US\$96억)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펀드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에서는 3 보험사가 Unit-linked product를 통해 모든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도록 인가된 상태임
 - Unit-linked product란 고정된 수익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험료를 여러 투자수단을 통해 투자하여 다양한 수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보험상품임
 - Ping An 보험사는 기관 및 개인들이 투자한 보험금을 Unit-linked product를 통해 2002년까지 펀드에 총 yuan200억 (US\$24억)을 투자하도록 허가받은 상태임
- 지난 5월 10일 China Life Insurance Co.는 yuan60억 (US\$7억2,200만) 규모의 개방형 펀드와 유사한 상품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상품은 생보사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China Life Insurance Co.는 펀드에 yuan40억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다른 1~2개사가 yuan20억을 투자할 것으로 보임
- 현재 Ping An 보험사는 2000년 현재 총 자산이 yuan650억 (US\$78억3,000만)이며, 은행예금에 yuan300억 (US\$36억), 채권에 yuan200억 (US\$24억), 펀드에 yuan31억 (US\$3억7,300만)을 투자하고 있음
 - 지금까지 주 수익원은 채권이며, 채권 투자를 통해 1999년은 yuan5억 (US\$6,020만), 2000년은 yuan12억8천만 (US\$1억5,420만)의 수익을 내고 있음 (자료: <http://www1.chinadaily.com.cn>)

◆ 2001년 5월 18일 금요일

○ 기술주의 비중을 대폭 줄인 Fidelity (미국)

- Fidelity Investment는 금년 1/4 분기 때 가치가 급속히 하락한 high-technology 관련 주식들의 비중을 대폭 삭감했음
- 주로 Cisco Systems Inc., EMC Corp., Oracle Corp.으로 신경제와 관련되어 과거 몇 년간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이 되어왔던 기술주들임
 - Cisco의 경우 지난 연말 3억1,470만주에서 지난 3월31일 1억7,540만주로 줄어들었으며, EMC는 8,460만주에서 4,310만주로, Oracle은 1억6,080만주에서 8,840만주로 그 비중을 줄였음
- 이것은 약세장에서 Fidelity 운용자산의 불만족스런 성과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Fidelity사는 매년 \$75,000 이상을 지급해 왔던 상여금 지급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지난 2000년 8월 Fidelity의 총 자산은 \$1조100억이었으나, 올해 4월의 경우 \$9,072억으로 줄어들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21일 월요일

○ Emerging Market에서 펀드의 폐쇄 속출 (유럽)

- S&P's Fund Reseach의 유럽 Emerging Market 관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Emerging Market의 실적 부진으로 수많은 펀드가 폐쇄되고 있다고 밝힘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년간 -27%~-46%를 기록
 - 이는 주로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파급 효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펀드 폐쇄와 더불어 펀드간 합병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짐
 - Hungarian Investment Company Fund의 경우 Govett Emerging Europe Fund에 합병되었으며, 이는 투자 관심의 부족 때문이라고 조사됨
-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경제 침체가 단기에 그친다면 또 다시 목표 펀드 수익률을 자신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펀드의 폐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시점이 펀드 생존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 펀드에 대해 all-day pricing 적용을 고려하는 SEC (미국)

- 미국 SEC는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과 같이 거래일 내에 수시로 가격이 반영되는 all-day pricing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ETF (Exchange-Traded Funds)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펀드는 오후 4시 종가의 단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 인덱스펀드의 일종인 ETF의 경우 주식과 같이 all-day pricing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all-day pricing이 일발 펀드에 적용될 경우 급속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전략이 공개될 우려가 있음
 - 물론, 투자자들이 이런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정보를 공개한 펀드의 경우 수익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SEC는 현재 펀드회사가 투자에 대한 세전 및 세후 수익률 모두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특정 상황에 대해 배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펀드 주식 소유자들에게 펀드 회사에 의해 위탁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23일 수요일

○ 아시아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는 Schroder (홍콩)

- Schroder Group은 아시아 시장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홍콩, 대만, 한국에 대해 올 3/4분기까지 31개의 역외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Schroder의 투자전략을 반영하는 것임
- 펀드의 대부분은 U.S.dollar, yen, euro 등의 화폐로 투자할 수 있는 currency fund이며, biotechnology fund, technology fund, international-portfolio fund 및 european fund에 투자될 전망이다
- Schroder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산업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주요 중기 성장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아시아인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해 국외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Schroder는 지난 1월 한국에 투신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7월에 100% 자기자본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세계적 보관회사들의 노력 (아시아)

- 아시아 (특히, 중국) 펀드시장의 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적 보관회사들 (custodians)의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증가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State Street Corp.는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JP Morgan Investor Services는 Bank of Communications와 China Construction Bank와 업무 제휴를 진행 중임
 - Deutsche Bank의 경우 중국에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 그러나, 중국의 경우 향후 3년 내에 중국의 뮤추얼펀드가 해외 지역에 투자될 것 같지 않으며,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진출 희망 외국 기업과 자국내 기업의 업무 제휴 및 합작 등의 형태가 서로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자국 내 조직 및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이외에 외국의 세계적 보관회사들이 아시아 국가 진출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업무, 가치 평가, 성과 측정, 준법감시 업무 등 포괄적 서비스 기법들의 제공이 뒷따라야 함
 -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VAR (Value At Risk) 등 수익과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연금 (pension)이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정급부형 (DB)에서 확정각출형 (DC)으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회계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세계적 보관회사들의 경우도 최근 인터넷 이용의 급증에 따라 웹사이트 상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인터넷 고객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음 (자료: Ma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5월 24일 목요일

○ 기술주의 비중을 줄인 Fidelity Magellan Fund (미국)

- Fidelity Investment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Magellan Fund (\$870억)가 펀드 운용상 주가가 하락된 technology 및 internet 인기 종목 주식들의 비중을 줄여 왔다고 밝힘
 -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Fidelity Magellan Fund의 연차보고서를 미국 SE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월 말에 결산기를 맞이한 Magellan Fund의 경우 지난 해 24.2%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Magellan Fund는 IT주에 투자 비중을 6개월 전 28.5%에서 3월 말 현재 11.6%로 줄였으며, 향후 금융주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알려짐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올 1/4분기 \$690억 순유입을 기록한 헤지펀드 (미국)

- 최근 Tass Research report에 따르면, 헤지펀드가 2001년 1/4분기에 \$690억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1/4분기 이후 가장 큰 자금 유입 규모임
- 헤지펀드의 유형으로 Long/short equity fund, Event driven fund, Convertible arbitrage fund, Equity market neutral fund, Global macro fund가 있으며, 올 1/4분기에 각각 \$30억, \$14억, \$10억, \$9억4천만, \$3억3,200만이 유입됨
-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체 투자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한 ETF (미국)

- 1993년 최초의 설립 이후, ETF (Exchange-Traded Funds)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 ICI (미국 뮤추얼펀드협회)에 따르면, 1999년 말 US\$360억에서 2000년 말 US\$700억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으며, 지난 4월 US\$733억에 이룸
 - 84개의 ETF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수는 110여개가 넘을 것으로 알려짐
- 이런 ETF가 급성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
 - 종가의 단일 가격으로 거래되는 일반 펀드와 달리 거래소의 거래시간 내에 all-day pricing으로 거래되어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부터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보장됨
 - ETF는 인덱스 펀드이므로 거래비용 및 리서치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운용이 가능
 - ETF는 각 국가 및 각 산업 부문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가지게 되며, 기관투자자들은 경기변동 및 산업동향에 따라 전략을 신속하게 변경 가능
 -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약 조건이 있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같은 외국 시장에 투자가 용이함
 - 선물이나 다른 파생상품처럼 헤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선물의 경우와 달리 만기에 따른 포지션 청산 위험이 없음
- 현재 ETF의 대부분은 미국의 American Stock 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음
 -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영국, 홍콩 등의 일부 선진국 거래소에 서도 거래되고 있음 (자료: Ma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5월 25일 금요일

○ 4월 이후 주식형 펀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미국 투자자들 (미국)

- 펀드평가사인 Lipper Inc.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형 뮤추얼펀드로 \$210억의 대규모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투자자들은 4월 한 달 동안 성장형 펀드에 \$49억, Technology specialty 펀드에 \$6억의 새로운 자산이 유입됐음
 - 지난 3월에 주식형 뮤추얼펀드에서 \$206억의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임
 - S&P 500-stock Index의 경우, 3월에 6.4%가 하락한 반면, 4월에는 7.7%가 상승했음
- 여전히 자본시장에 투자 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나, 4월의 주가 반등으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 TIPS의 소개 (미국)

- 1997년에 미국 재무성에 의해서 도입된 TIPS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최근 높은 성과를 기록
 -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TIPS의 일종인 Pimco Return Bond Fund와 Vanguard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Fund의 경우 5월 23일 현재 1년간 각각 16%, 12%의 수익률을 기록
 - 동일 기간 S&P's 500-stock index의 경우 -7.9%임
- TIPS의 특징
 - TIPS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되는 수준으로 과세되지만, 주 정부 세금 및 지방 세금이 면제되며, 정부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 Treasury Bond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아울러, TIPS는 소비자 물가지수 (CIP) 등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지수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하락의 위험을 없앴
- TIPS는 가장 보수적인 투자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비보수적인 투자자들 조차도 그들 자산에 편입시키고 있음
 -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하락에 있으며,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써 TIPS가 부각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Jakarta Fund와 합병하는 Indonesia Fund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두 개 펀드가 오는 6월에 합병할 계획이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함
- 지난 5월 25일 Indonesia Fund가 Jakarta Fund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다는 계획이 두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펀드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됨
 - 두 펀드는 동일한 가치로 합병될 것이며, 펀드의 재조직 절차는 6월 1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 Indonesia Fund는 NYSE에 상장되어 있으며, 금년 들어 거의 8%의 상승이 있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두 펀드의 통합된 자산 규모가 총 \$1,270만에 불과해 NYSE 자산 규모 상장요건인 \$1,500만에 미치지 못함
 - Jakarta Stock Exchange는 지난 해 44%, 금년 들어 지금까지 5%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 펀드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임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적극적 운용으로 선회하는 영국 pension fund (영국)**

- 최근 영국의 pension fund들은 기존 형식대로 인덱스를 따르는 소극적 운용 방침을 즐기고 적극적 운용 방침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인덱스를 따르는 기업연금제도가 매년 10%씩 증가했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음
- 영국 pension fund 관계자는 지속되는 약세장 상황에서 지난 해의 경우 적극적 운용 펀드가 인덱스펀드보다 2%만큼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인덱스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인식하고 공격적 운용에 대해 호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 **Asahi Mutual 생보사 yen500억 차입 계획 (일본)**

- Asahi Mutual Life Insurance Co.는 yen1,000억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yen500억 (\$4억1,460만)을 차입할 것을 계획 중임
 - Asahi Mutual은 현재 우발성 준비금 (contingency reserves)으로 약 yen500억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 및 foundation fund로 대략 yen500억을 보유 중임
 - foundation fund의 상환 만기가 7월에 도래함에 따라 상환될 foundation fund 부분의 확충을 위한 것임
- Asahi Mutual의 관계자는 이 계획을 통해 자사의 지급 능력을 포함한 재정적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5월 30일 수요일

○ 전자적 기록 보관 법률안을 채택한 SEC (미국)

- 미국 SEC는 펀드와 펀드 운용사들이 전자적 저장 매개체에 그들의 기록이 보관, 유지되는 시스템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기록 보관 법률안 (recordkeeping rules)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5월 25일 발표했다
- 이 개정 법률안은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Rule 31a-2와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의 Rule 204-2임
- 기록 보관 법률안의 전제 조치
 - 손실, 변경, 파괴로부터 안전한 기록 유지
 - 권한이 주어진 위원회 및 직원, 그리고, 펀드 책임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도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
 - 원안에 대한 전자적 복사물이 완전하고 틀림이 없으며 적격임을 보장해야 함
- 개정안에서는 펀드나 펀드 운용사가 Rule 31a-2와 204-2에 의해 유지 및 보존될 필요가 있는 모든 기록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ICI)

○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뮤추얼펀드 순매출액 24% 하락 (영국)

- 영국의 Association of Unit Trust and Investment Funds (이하 AUTIF)에 따르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뮤추얼펀드의 4월 순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24% 하락했다고 밝힘
 - 이는 주식시장의 심한 변동성이 계속되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때문으로 보임
 -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s)의 순매출액도 1년 전 £18억4천에서 지난 4월은 £13억9천으로 감소
- 그러나, 전체적인 투자분위기가 우울한 것은 아님
 - Investment fund의 총 순매출액은 1년 전 £15억에서 지난 4월 £29억으로 93% 증가
 - 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Investment fund이 총 자산 규모가 지난 4월 £2,600억으로 전 월인 3월 \$2,448억에 비해 높은 반등을 기록하고 있음
- AUTIF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과 투자를 위해서 주목되는 신산업 부문의 감소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투자 유출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함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5월 31일 목요일

○ 투자자에게 음성 응답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인 T.Rowe (미국)

- T.Rowe Price Associates는 투자자들이 각자 계좌에 대한 정보를 원할 때 컴퓨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음성 응답 시스템 (voice-response system)을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음성 응답 시스템은 IBM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35,000개의 영어 문장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북미 대부분 지역의 언어 구사 패턴을 수용할 수 있음
 - T.Rowe는 연말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 제도의 모든 참가자 120만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현재 많은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음성 인식 및 응답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 인식과 컴퓨터 응답에 한계가 있었음
 - 반면, T.Rowe와 IBM은 보다 자연스런 언어 구사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도로 기획된 것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6월

June

10대 해외 기사

1. 최근 미국의 사적연금 개혁 내용 (\$1조3,500억의 감세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7일)
2. 펀드의 자본이득세 이연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ICI (미국, 11일)
3. 부유층에 대해 특별 고객 관리를 실시하는 Fidelity (미국, 21일)
4. Unit Trust 가격 결정 오류로 인해 £21만을 지불한 Gartmore (영국, 8일)
5. 4개의 ETF가 설정될 일본 (일본, 20일)
6. 펀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중국, 18일)
7.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연금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중국 (중국, 15일)
8. 외국 운용사에게 개방될 공적연금펀드 시장 (중국, 27일)
9. 공식적인 영업을 시작하게된 Morningstar Asia (홍콩, 14일)
10. Carry-forward trading 제도의 폐지로 인해 대출을 신청한 UTI (인도, 26일)

◆ 6월 해외 목차 (6/1-6/10)

6/1 (FRI)	○ 양원에서 통과된 IRA 및 연금 관련 법안 (미국)
6/2 (SAT)	
6/3 (SUN)	
6/4 (MON)	○ 카톨릭적인 종교관에 입각하여 운용되는 펀드 (미국)
6/5 (TUE)	○ \$1천만 규모의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Zurich Scudder (유럽) ○ 칠레에서 펀드 판매 승인을 얻은 Vanguard (칠레)
6/6 (WED)	현 중 일
6/7 (THU)	○ \$1조3,500억의 감세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6/8 (FRI)	○ Toyo Keizai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S&P (일본) ○ Unit Trust 가격 결정 오류로 인해 £21만을 지불한 Gartmore (영국)
6/9 (SAT)	
6/10 (SUN)	

◆ 6월 해외 목차 (6/11-6/20)

6/11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의 자본이득세 이연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ICI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의 현황 및 이해 자료 발표 (미국) ○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국 pension fund 수탁회사 (영국)
6/12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세장의 기대 속에서도 약세장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펀드매니저 (영국)
6/13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가들의 기대 (미국)
6/14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 Morningstar Asia (홍콩)
6/15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연금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중국 (중국)
6/16 (SAT)	
6/17 (SUN)	
6/18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중국) ○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활성화가 기대되는 529 plan (미국)
6/19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뮤추얼펀드 성공에 필수 요건인 인터넷 (유럽)
6/20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ETF가 설정될 일본 (일본)

◆ 6월 해외 목차 (6/21-6/30)

6/21 (THU)	○ 부유층에 대해 특별 고객 관리를 실시하는 Fidelity (미국)
6/22 (FRI)	○ Social Security Fund의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할 예정인 중국 (중국) ○ 아시아에서 기대되는 원금보장형 헤지펀드 (아시아)
6/23 (SAT)	
6/24 (SUN)	
6/25 (MON)	○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Junk Bond 뮤추얼펀드 (미국)
6/26 (TUE)	○ Carry-forward trading 제도의 폐지로 인해 대출을 신청한 UTI (인도) ○ 투자 전략을 변경한 Janus (미국)
6/27 (WED)	○ 외국 운용사에게 개방될 공적연금펀드 시장 (중국)
6/28 (THU)	○ 해외 투자 유치에 이루어지는 말레이시아 Venture Capital Fund (말레이시아)
6/29 (FRI)	○ 홍콩에서 Socially Responsible Fund 판매를 계획 중인 Henderson (홍콩)
6/30 (SAT)	

◆ 2001년 6월 1일 금요일

○ 양원에서 통과된 IRA 및 연금 관련 법안 (미국)

- 미국 의회는 5월 26일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하 H.R.1836)을 통과 시켰음
 - 상원과 하원의 법안들을 조정한 관련 회의 보고서가 하원에서는 240대 154, 상원에서는 58대 33으로 통과
 - 향후 대통령이 H.R.1836을 법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음
- IRA와 연금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법률안 Title VI는 하원에서는 Portman과 Cardin 하원 의원과 상원에서는 Grassley와 Barcus 상원 의원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법률안과 유사함
- 개정된 주요 법안 내용
 - 401(k), 403(b), 457, IRA 등에 대한 증가된 각출금 한도
 - 50세 이상인 자들을 위한 사용자 후원 종업원 퇴직 제도와 IRA에 대해 "catch-up" 각출을 허용
 - 401(k), 403(b)에 대해 세후 "Roth" 각출을 허용
 - 직장 이동에 따른 계정 이전성을 강화
 - 현재의 top-heavy rules의 개정
- Education IRA에 대한 각출금 한도를 증가하여 이 저축 제도에 대해 참여자의 참가 의욕을 고무시킴
 - 2002년부터 매년 Education IRA의 연간 각출금을 \$500에서 \$2,000으로 증가
 - 세금이 면제되는 적격 교육비용에 대한 범위를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
- 401(k), 403(b), 457, IRA 각출 한도의 증가 일정

연도	401(k), 403(b)	457	IRA	catch-up for 401(k), 403(b), 457	IRA catch-up
2001	\$10,500	\$8,500	\$2,000	-	-
2002	\$11,000	\$11,000	\$3,000	\$1,000	\$500
2003	\$12,000	\$12,000	\$3,000	\$2,000	\$500
2004	\$13,000	\$13,000	\$3,000	\$3,000	\$500
2005	\$14,000	\$14,000	\$4,000	\$4,000	\$500
2006	\$15,000	\$15,000	\$4,000	\$5,000	\$1,000
2007			\$4,000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은 없고, 그 이후는 계속 \$1,000
2008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씩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씩 증가	\$5,000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씩 증가	
2009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씩 증가		
2010					

(자료: ICI)

◆ 2001년 6월 4일 월요일

○ 카톨릭적인 종교관에 입각하여 운용되는 펀드 (미국)

- 카톨릭적인 종교관에 기초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펀드들이 있으며, 이들은 담배, 도박, 무기 생산 및 산아 제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회피함
- Schwartz Investment Council에 의해 운영되는 Ave Maria Catholic Values Fund의 경우 펀드 내 6명으로 구성된 카톨릭 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이 위원회에서는 펀드의 투자 운영 방침을 설정하게 됨
- Aquinas Group에서는 투자자에게 4가지 펀드를 제시하고 있음
 - Aquinas Fixed Fund는 미국 정부 채권이나 AAA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장기 펀드이며, 주로 Lehman Brothers, Coca-Cola Enterprises, Ford Motor Credit, MCI Worldcom에 투자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4.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Aquinas Growth Fund는 성장 주도형 대기업에 투자하며, 주 투자 부문은 금융, 보건 의료, 기술 부문임
 -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Aquinas Value Fund는 저평가된 대기업에 투자하며, 주 투자 부문은 금융, 기술 부문임
 -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7.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Aquinas Small Cap Fund는 저평가된 중소기업에 투자하며, 주 투자 부문은 금융, 보건 의료 부문임 (자료: www.bostonherald.com)

◆ 2001년 6월 5일 화요일

○ \$1천만 규모의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Zurich Scudder (유럽)

- Zurich Scudder Investments는 \$1천만 (euro1,200만)의 투자 규모로 영국 기업에 투자하게 될 헤지펀드인 Crescendo UK Fund를 설립했음
- 2000년 9월에 설립된 Crescendo European Fund 이후, Crescendo UK Fund는 Zurich Scudder의 두 번째 헤지펀드임
 - Crescendo European Fund의 경우 펀드 설립 이후 9.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1억6,500만의 자산을 운용 중임
- Crescendo UK Fund는 2002년 1월 1일까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신속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것이며, 이는 투자자에게 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Zurich Scudder Investments는 £470억 (euro780억)의 자산을 운용 중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칠레에서 펀드 판매 승인을 얻은 Vanguard (칠레)

- 칠레 당국은 칠레 연금펀드의 운용을 위해 세계적인 펀드 운용회사인 Vanguard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칠레 규제 당국은 18개의 Vanguard 뮤추얼펀드를 승인했으며, 이 펀드들은 칠레 자국 내 연금펀드인 "Administradores de Fondos de Pensiones"으로부터 투자 자금이 유입될 예정임
 - 칠레 연금펀드는 Vanguard 뮤추얼펀드로의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를 위한 비용을 4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함
- Vanguard는 미국에서 109개 펀드, 그 밖의 국가에서 29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총 \$5,750억의 자산을 운용 중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6월 7일 목요일

○ \$1조3,500억의 감세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요 경기 부양 효과 및 장기적인 세금 감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여 10년간 \$1조3,500억의 감세안에 서명했음
 -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26일 감세안인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하 H.R.1836)을 통과 시킨 바 있음
 - 양원에서 통과된 이 감세안이 발효되기 위해 대통령의 인준이 남아있던 상태였음 (자료: ICI, 매일경제)

◆ 2001년 6월 8일 금요일

○ Toyo Keizai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S&P (일본)

- 세계적인 금융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사인 Standard & Poor's는 일본의 금융기관 및 기업 금융 데이터 회사인 Toyo Keizai와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했음
 - 이 전략적 동맹을 통해 일본 시장에 선진 금융 정보 및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본에서 투자 활동을 고무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임
- S&P는 자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및 그 분석 기법과 함께 Toyo Keizai의 시장 데이터와 판매망 등을 전략적 동맹을 통해 결합할 것으로 전망함
 - 이 서비스는 주식시장, 펀드 및 신용시장 (Credit market) 관련 데이터 뿐만 아니라, 분석과 분석 기법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임
- 이 두 회사는 일본 내에 보다 섬세한 위험 관리 및 투자관리 기법을 원하는 중소 규모의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전략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Unit Trust 가격 결정 오류로 인해 £21만을 지불한 Gartmore (영국)

- 영국의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sation (이하 IMRO)은 펀드 운용사인 Gartmore Fund Managers Limited에게 가격 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5만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음
 - 동시에 IMRO는 Gartmore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11만을 보상하게 하고 IMRO의 조사 비용으로 £5만을 청구했음
- 1997년 9월에서 12월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8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 Gartmore사는 이를 스스로 발견하여 1998년 1월 IMRO에 보고하였음
 - 당시 극동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심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데이터의 입력 오류 및 외국 거래소 거래 공시의 지연 사태가 발생 하였기 때문임
- IMRO의 Gartmore의 규제 내역
 - Gartmore는 1988년 4월 26일부터 IMRO에 의해 규제되어 왔음
 - IMRO 규정의 chapter II Rule 7.6(1)는 규제되는 집합투자 제도들에 대해 적용되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IMR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1991의 Regulation 7.02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unit trust 매니저로 하여금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Due diligence를 준수하며, unit trust의 가격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Principle of the FSA Statement는 회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부 업무를 조직하고 통제해야 하며, 직원들은 충분히 직업 훈련을 받고 적절히 감시되도록 함을 제시하고 있음
 - 1997년 7월 IMRO 보고서에 따르면, IMRO는 업무량의 갑작스런 증가시 적절한 업무 할당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직원들의 충분한 자질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contingency plan을 설정하도록 권고했음
- IMRO는 Financial Services Act 1986에 의해 투자관리 규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대략 1,200개 기업과 22,000명의 개인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사, 은행, 펀드매니저들을 포함하고 있음
 - IMRO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자산은 £2조5,000억 규모이며, 대략 1,800만명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Gartmore의 대변인은 1997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의 강화로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힘 (자료: www.efinancialnews.com, www.fsa.gov.uk/im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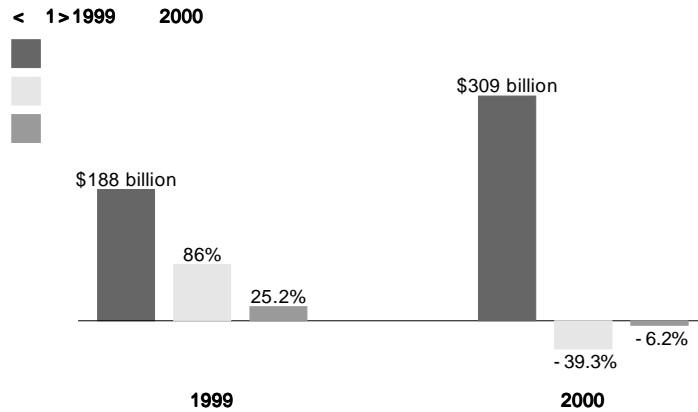
◆ 2001년 6월 11일 월요일

○ 펀드의 자본이득세 이연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ICI (미국)

- ICI의 회장인 Matthew P.Fink는 하원의원 Jim Saxton에 의해서 제기된 뮤추얼펀드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세 이연 관련 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 Saxton에 의해서 제기된 법안 (H.R.168, H.R.300)은 뮤추얼펀드 주주에게 자본이득 분배시 다른 펀드로 재투자되는 일정 한도액까지 세금을 이연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 결국 이연된 세금은 펀드가 최종 환매될 때 청구됨
- Matthew P.Fink는 재투자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법은 뮤추얼펀드 주주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저축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뮤추얼펀드가 중류층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 그들의 저축 투자를 장려하는 방편으로 자본이득세 이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
 - 아울러 이 법안을 통해 뮤추얼펀드 주주들의 장기 저축 투자를 고무시키게 되어 향후 펀드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자료: ICI)

○ 미국 뮤추얼펀드의 현황 및 이해 자료 발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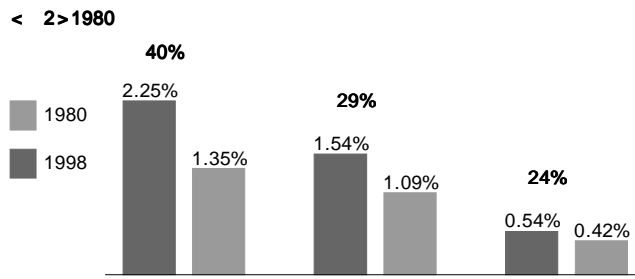
- 미국 뮤추얼펀드 협회 (이하 ICI)는 투자자들을 위해 뮤추얼펀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황을 전달하기 위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 첫째, 최근 FRB의 보고서에 따르면,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함
 - 동시에 주식형 펀드의 변동성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 역시 미흡하다고 설명
 - 가계, 연금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 내의 주식시장에서 80%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한 반면, 뮤추얼펀드의 주식 소유 비중은 20%임
 - 2000년의 경우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공업평균 지수가 각각 -39.3%, -6.2%를 기록하였지만, 뮤추얼펀드는 \$3,090억이 유입됨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01

- 둘째, ICI에 따르면,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제3자 혹은 중개자에 의한 판매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힘
 -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90년 23%에서 99년 18%로 감소한 반면, 동기간 제3자 혹은 중개자를 통한 펀드 판매는 77%에서 82%로 증가했음
 - 펀드회사 및 판매회사는 펀드 판매를 위해 새로운 경로를 개발했으며, 비전통적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제도, 뮤추얼펀드 슈퍼마켓, fee-based advisors, 뮤추얼펀드 랩어카운트 프로그램, 은행 신탁 부분 등에서 비전통적 제3자 판매 채널을 개발해 왔음
- 셋째, ICI에 따르면,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비율이 펀드 소유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1988년 2월에서 199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형 펀드를 소유한 가계의 82%가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2번 이상 환매를 한 경우는 9%에 불과함
 - 따라서, 빈번히 환매를 하는 소수의 뮤추얼펀드 투자자로 인해 전체 환매 비율이 좌우되며,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환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됨

- 넷째, 뮤추얼펀드 주주들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동조하지 않음
 -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에 대해 적절한 이해와 장기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음
 - 1944년 이후 몇몇 급락한 시장 상황에서 주식형 뮤추얼펀드로부터 대량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음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등 뮤추얼펀드 유형이 다양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이나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펀드 선택이 가능하게 됨
- 다섯째, 뮤추얼펀드의 투자 비용이 지난 20년 동안 대폭 감소해 왔음
 - 펀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펀드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게 됨에 따라 펀드 비용이 감소 추세임
 - 1980년 이후 펀드 비용에 있어서, 주식형은 40%, 채권형은 29%, MMF는 24%가 감소했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1999

- 여섯째, 뮤추얼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다 정확한 규제 기준과 공시 요건이 적용되어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음 (자료: ICI)

○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국 연금펀드 수탁회사 (영국)

- 영국 연금펀드의 수탁회사들은 업무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그 수가 심각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연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Europlan에 의해 영국의 715개 수탁회사를 조사한 결과, 수탁회사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탁회사 직무가 진지하고 도전적이긴 하지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및 책임량의 증가가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됨
 - 조사 대상자의 64%는 향후에도 책임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6%는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은 수탁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뜻이 없다고 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6월 12일 화요일

○ 강세장의 기대 속에서도 약세장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펀드매니저 (영국)

- 메릴린치에 의한 270여명의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펀드매니저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기업 이익의 성장을 전망했음
 - 그러나, 그들은 벤치마크 기준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며,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견지하고 있음
- 1년 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예상한 자들은 전체의 37%로 지난 5월의 11%에 비해 26% 상승했음
 - 6월의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는 지난 5월에 비해 25%가 증가한 46%임
- 그러나, 현금 보유를 주장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지난 5월에 비해 5%가 증가한 22%임
 - 즉, 향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으나,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추정됨
 - 동시에, 투자 전문가들은 현재의 투자 포지션에서 향후 3개월까지 10% 정도 포지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전체 펀드매니저들 중 약 51%는 고도의 기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을 예상하고 있음 (자료: www.ftmarketwatch.com)

◆ 2001년 6월 13일 수요일

○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기대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높은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었던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등의 아시아 시장들이 2001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
- 1998년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이자율 하락과 WTO 가입에 대한 진척, 순환적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음
 - 실제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6월 7일까지 1년 동안 중국 지역에 투자된 펀드의 수익률은 3.28%로 동 기간 전 세계 주식형 펀드의 -0.86%보다 높게 조사됨
 - 가령, 중국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인 Matthews International China Fund, Mainland China Fund는 6월 7일까지 1년 동안 각각 48.99%, 18.8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 Lipper에 의해 평가되는 중국 지역 투자 펀드는 25개로 자산 규모가 총 \$6억3,600만이며, 이들 펀드의 대부분은 \$1억 이상 펀드가 단 3개일 정도로 규모가 적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6월 14일 목요일

○ 공식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 Morningstar Asia (홍콩)

- 미국의 투자 정보 제공사인 Morningstar가 홍콩에 아시아 영업소를 설립했으며, 본격적인 영업과 더불어 향후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지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홍콩의 Morningstar Asia의 설립시기는 2000년 4월이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설명
 - 지난 3월 홍콩에서 승인된 뮤추얼펀드의 성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 Morningstar Asia는 증권회사 및 펀드 판매회사에 분석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독자 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난 해 도입된 MPF (Mandatory Provident Fund)로 인해 홍콩에서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는 Morningstar에게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Morningstar Asia는 미국 Morningstar, 홍콩 인터넷 회사인 Pacific Century Cyber Works, 일본 인터넷 회사인 Softbank의 금융 관련 지주회사 Softbank Finance와 합작 설립했음
 - Morningstar는 지난 해 한국과 유럽에 각각 지사를 설립한 적이 있으며, 일본에는 상장된 Morningstar Japan이 있음 (자료: www.forbe.com)

◆ 2001년 6월 15일 금요일

○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연금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중국 (중국)

-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방대한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고갈된 연금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
- 지난 6월 14일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IPO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연금펀드에 이전하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를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언급함
 - 대신에 해당 기업은 국가가 소유한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이 계획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모든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공포되는 즉시 발효됨
- 이 계획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중국의 연금산업을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50년 동안 중국의 국영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주택, 교육, 의료 등 많은 부문의 혜택을 지급했음
 -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경쟁력있는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했으며, 1명으로 자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음
 - 따라서, 현재의 pay-as-you-go 시스템 하에서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 연금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정확한 연금 부족액이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1억명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통해 \$1조에 달하는 국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정상 궤도에 올리려고 희망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복권을 판매한다든지 연금 수급연령을 5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계획을 고려 중임
- 이러한 민영화 방안을 통해 기업이 정부 관료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촉진하고자 함
 - 하지만, 대부분 주요 국영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지라도 대부분 정부 관료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어 민영화 이후, 시장경제 적응이 쉽지 않을 전망 (자료: <http://interactive.wsj.com>)

◆ 2001년 6월 18일 월요일

○ 펀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중국)

- 중국 당국은 6월 15일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한 펀드매니저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강령 (directive)을 발표했다
 -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기승하는 신생 펀드 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임
 - 이 강령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합법적인 거래 활동을 준수하며, 자기 규제 (self-discipline)를 약속하는 서한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됨
 - 그러나, 이 강령은 불법적인 거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강령이 새롭게 급성장하는 투자 영역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언급
- 동시에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은 좋은 신용을 가진 기관들이 증권회사나 신탁회사와 합작하여 펀드 운용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활성화가 기대되는 529 plan (미국)

- 6월 7일 부시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내년부터 고등교육 기관의 경비 (higher-education expense)로 지출되는 529 plan과 관련된 저축은 연방세를 면제받게 됨
 - IRC의 Section 529의 조항에 근거를 둔 529 plan은 College-Savings plan이라 일컬어짐
 - 529 plan의 qualified state tuition program 조항들을 사립 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IRC Section 529를 개정했음
- 현재 대형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529 plan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36개 주 정부에서는 529 plan을 실시하고 있음
 - College-Savings plans network에 따르면, 529 plan은 자산 규모가 현재 \$90억에서 2011년까지 \$700억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됨
- 지난 해 American Century Investment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비를 저축하고 있는 부모들 중 38%는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64%는 은행 계좌에, 42%는 채권에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뮤추얼펀드로의 편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음)
- 401(k) plan과의 최대 차이점은 529 plan은 투자 시점에서 투자된 투자 종목을 중간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임
 - 지난 2월 Merrill Lynch에 의해서 투자자들을 529 plan으로 유인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좀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529 plan의 개정을 위해 IRS에 서한을 제출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및 ICI)

◆ 2001년 6월 19일 화요일

○ 유럽 뮤추얼펀드 성공에 필수 요건인 인터넷 (유럽)

- 유럽의 펀드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각 운용사별로 인터넷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유럽에서 펀드운용사의 성공적인 e비즈니스 전략
 - 웹사이트를 필수적으로 완비
 - 유럽 뮤추얼펀드 판매회사의 80%가 은행 또는 보험사인데 이들 판매회사의 웹사이트를 잘 이용해야 함
 - 펀드매니저들은 운용사와 그들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e메일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에 익숙해질 것을 권고
 - 구축된 웹사이트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IFA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따르면, 유럽 펀드운용사들의 80%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는 그들 고객 중 25%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 유럽 국가들 중에서 고객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수준은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순으로 발달돼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 4개의 ETF가 설정될 일본 (일본)

- 일본 증권 규제법의 개정으로 머지 않아 일본 투자자들도 ETF (Exchange-Traded Fund)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에서 설정될 ETF는 동경증권거래소, 오사카증권거래소, American Stock Exchange, 나스닥 시장간의 업무적 제휴로 인해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거래망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동경 증권거래소는 ETF를 American Stock Exchange와 교차상장 하기 위해 상호간 업무 제휴 관계를 형성해 왔음
 - 나스닥 시장 관계자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도 이 일본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번에 설정될 4개의 ETF는 Topix index, Nikkei 225, Nikkei 300 및 S&P사에 의해서 개발된 S&P/Topix 150 index가 이용됨
 - 일본의 증권 규제당국은 Nasdaq 100 ETF의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미국 나스닥의 요청을 거절했음
 - 한편, Nasdaq 100-stock index를 따르는 Nasdaq 100 ETF (일명 QQQ)의 경우 자산 규모가 \$230억 (전체 ETF 자산 규모는 약 \$800억)에 이룸
- 세계화되고 분산투자 경향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에서 국가간 ETF의 거래를 통해 국제투자자 및 시장 관계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충족될 것으로 평가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6월 21일 목요일

○ 부유층에 대해 특별 고객 관리를 실시하는 Fidelity (미국)

- Fidelity Investment는 부유층에 속하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Fidelity 관계자는 부유층 고객 전담 직원을 350명 두었으며, 올해 안에 부유층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의 "investor centers"를 개설할 예정임
 - 뉴욕과 시카고에 개설된 첫 "investor centers"는 Fidelity에 \$500,000 이상의 위탁된 투자 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에게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Fidelity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보스톤에 있는 Cerulli Associates Inc.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북미의 부유층은 \$8조 8천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자산 규모가 \$13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Fidelity의 부유층 고객은 240,000명으로 전체 고객의 5%지만, Fidelity 개인투자자 투자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료: www.bostonherald.com)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 공적연금 펀드의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할 예정인 중국 (중국)

- 중국은 오는 10월까지 공적연금 펀드로 하여금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China Daily에 따르면, 중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그 규정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올해 안에 공적연금 펀드의 주식시장 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범적 프로그램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재무부 장관인 Xiang Huaicheng도 지난 주 공적연금 펀드가 전문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노동부, 공적연금 펀드, Boshi 펀드운용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연금펀드가 2년 내에 yuan1,000억 (US\$120억8천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연금펀드는 현재 지방 정부에 의해서 운용되며, 재무적인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낮은 정부 채권이나 은행예금에 투자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금펀드, 보험사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아시아에서 기대되는 원금보장형 헤지펀드 (아시아)

- 원금보장형 뮤추얼펀드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금 보장 기능을 갖춘 헤지펀드가 아시아 개인투자자들의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됨
 - 원금보장형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우량 신용등급의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위험이 높은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됨
 - 따라서, 보수적 성향이 짙은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높은 기대 수익을 제시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이 가미되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이 예상됨
- 지난 97년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이후 시장 급락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헤지펀드는 시장 회복과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그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음
 -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규제 당국은 지난 주에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음
- 한 펀드매니저는 펀드 구조를 잘 설계하고 적절히 분산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기능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으나,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과 과거 시장 변동성의 충격으로 최근 원금보장형 펀드가 출현하고 있다고 밝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Junk Bond 뮤추얼펀드 (미국)

- AMG Data Service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일주일간 \$6억3,320만 규모의 junk bond 뮤추얼펀드가 순유출되었음
 - 이는 지난 3월 21일 당시 일주일간 \$6억4,950만이 유출된 이후 최근 3개월 중 최고치임
- junk bond 뮤추얼펀드로부터 자금의 유출은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투자처로 자금을 이전하려는 투자심리에서 비롯됨
- 한 펀드매니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의 이자율 삭감 기대는 주식시장 및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
 - 금년 들어 6번째 연방준비이사회의 이자율 삭감 조치가 단행될 예정임 (자료: <http://cnfnf.cnn.com>)

◆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 Carry-forward trading 제도의 폐지로 인해 대출을 신청한 UTI (인도)

- rupee\$6,000억의 자산을 운용하는 인도 최대의 운용사인 UTI (Unit Trust of India)는 일시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State Bank of India에게 rupee150억 (US\$3억1,920만)의 대출을 요청했음
- 이는 심한 시장 변동성 및 투기자들의 전횡을 막고자 오는 7월 2일부터 Carry-forward trading 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것임
 - Carry-forward trading이란 신용거래의 일종으로 신용거래보증금만을 지급하여 거래가 성립되고, 결제 기간을 계속 이연시켜 거래 포지션이 청산될 때까지 거래를 유지시키는 것임
- 23개의 거래소가 존재하는 인도에서 거래의 90% 이상이 Carry-forward trading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음
 - 인도의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들이 제도 폐지를 권고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⅓까지 줄어들었음
 - 시장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거래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UTI가 운용하는 펀드 가치의 하락으로 환매가 증가되고 자사 내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배당을 삭감하게 될 수도 있음
 - 이를 감지한 고객들의 환매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UTI의 대출이 요청된 상태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투자 전략을 변경한 Janus (미국)

- Janus Capital Corp.의 펀드들은 투자자들을 위한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주식시장 침체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 전략을 변경했다고 밝힘
 - 지난 해 당시 성장주 종목이었던 기술주 및 통신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방어적인 주식으로 투자 부문을 이전했음
 - Janus는 Stilwell Financial Inc.의 자회사로써 현재 \$2,200억의 자산을 운용 중임
- 운용자산 중 현금과 채권 보유 비중이 2000년 4월에 5.9%, 동년 10월에 8.3%에서 지난 2001년 4월 30일은 22.1%로 대폭 증가
 - 공격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했으며, 기업 내 유동성 및 유보자금을 증가시킬 의도로 평가됨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Janus의 제일 규모가 큰 펀드인 Janus Fund가 6월 21일 현재 12개월간 -28%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해 동안 투자자들에게 부진한 성과를 제시했음
 - 좀 더 공격적인 펀드인 Janus Twenty Fund, Janus Worldwide Fund는 각각 -42%, -31%의 수익률을 기록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6월 27일 수요일

○ 외국 운용사에게 개방될 공적연금펀드 시장 (중국)

- 중국 당국은 외국 펀드운용사로 하여금 US\$60억 규모의 공적연금펀드의 일부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 재무부 관계자인 Liu Jiafu는 Business Weekly Magazine을 통해 외국 운용사가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자국 내의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적연금의 운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Liu는 현재 관련 규제 내용 초안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보내졌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전에 그 규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
 - 동시에 그 규정은 자본시장에서 외국 운용사와 관련된 세부 정책 사항들에 대한 윤곽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연금펀드의 대부분은 현재 수익률이 낮은 은행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재무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연금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금펀드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임 (자료: <http://english.peopledaily.com.cn> (중국 인민일보 웹사이트))

◆ 2001년 6월 28일 목요일

○ 해외투자 유치에 이루어지는 말레이시아 Venture Capital Fund (말레이시아)

- Deutsche Telecom AG에 의해서 운영되는 펀드인 Global Times Venture는 말레이시아 지역 venture capital fund인 Banyan Ventures One에 ringgit1,700만 (\$450만)을 투자했음
 - 현재 Banyan Ventures One은 향후 12개월 내 동남아시아의 통신, 인터넷, 교육, 멀티미디어 신생기업 등에 총 ringgit1억을 투자할 계획임
 - 아울러, 투자 자산의 70%는 자국 내에 투자할 것이며, 연말까지 기술주 및 고성장 구경제 주식 종목에 ringgit200만을 투자할 전망임
 - Banyan Ventures One은 말레이시아 자국 내에서 성장한 사적 venture capital fund임
- Global Times Venture는 euro4,750만 (\$4,100만) 규모의 자산이 운영되는 global fund이며, 지난 해 Banyan Ventures One과 싱가포르 지역 2개 venture capital fund에 euro850만을 투자했음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식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venture capital 산업이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지난 1996년에는 GDP 대비 venture capital 비율이 0.19%임에 비해 2000년에는 0.3%에 불과했음
 - 따라서, 2000년에 들어와서 정부는 ringgit 20억을 정부와 연관된 venture capital에 지원해 왔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6월 29일 금요일

○ 홍콩에서 Socially Responsible Fund 판매를 계획 중인 Henderson (홍콩)

-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AMP Ltd.의 자회사이며 영국에 본사가 있는 Henderson Global Investors가 6월 28일 공식적으로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했음
- Henderson은 현재 홍콩에서 10개의 인가된 펀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1개 펀드를 더 설립할 계획임
 - 설립될 펀드 중 Henderson이 특별히 판매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Socially Responsible Fund임
- Socially Responsible Fund는 종업원을 위해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훌륭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함
 - 일반적으로 이 펀드는 담배, 주류,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음
 - Social Investment Forum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약 \$2조 규모의 자금이 Socially responsible strategies 하에서 운용되고 있음
- Henderson은 기술주 투자 부문에서 전문화되어 있고, 특별한 투자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음
 - 가령, 시장이 침체 상황일 경우 가치주에 투자하고, 시장이 호황인 경우 성장주에 투자함
- Henderson은 아시아 지역 투자 부문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전세계적으로 \$1,610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나, 아시아에서는 단지 \$32억에 불과함
- 모회사인 AMP의 경우 전 세계 펀드운용사의 규모면에서 세계 20위권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펀드운용사의 인수 계획을 추진 중임
 - 최근에는 AMP가 영국 운용사인 Towry Law PLC를 인수하기 위해 \$1억800만을 제공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7월

July

10대 해외 기사

1. 추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사항을 제의한 NASDR
(미국, 12일)
2. SEC의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규제안에 대한 ICI의 견해
(미국, 18일)
3. 헤지펀드 매집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SEC
(미국, 25일)
4. 유럽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문 조사
(유럽, 30일)
5. RICs의 세금 환급 청구 소송을 받아들인 스위스
(스위스, 12일)
6. \$8,280만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한 일본 ETF
(일본, 16일)
7. 일본의 확정각출연금법 통과
(일본, 19일)
8. Sinopec의 IPO에 참가하게 될 중국 공적연금 펀드
(중국, 4일)
9. MPF 의무를 회피한 사용자에게 \$8,000의 벌금형 선고
(홍콩, 3일)
10. 불공정 거래 공모 혐의로 UTI 전 회장인 Subramanyam
(인도, 23일)

◆ 7월 해외 목차 (7/1-7/10)

7/1 (SUN)	
7/2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증시 회복의 방해 요소들 (아시아) ○ 통신산업 부문의 침체로 타격을 받은 유럽의 하이일드펀드 (유럽)
7/3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F 의무를 회피한 사용자에게 \$8,000의 벌금형 선고 (홍콩) ○ 상반기 성과 부진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중국 뮤추얼펀드 (중국)
7/4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opec의 IPO에 참가하게 될 중국 공적연금 펀드 (중국)
7/5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펀드운용사들의 대만 진출 (대만) ○ Deutsche Asset Management의 중국 진출 (중국)
7/6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운용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UTI 회장 (인도)
7/7 (SAT)	
7/8 (SUN)	
7/9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계정당 자산이 감소한 401(k) plan (미국)
7/10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자금 유입 규모가 가장 큰 원금보장형 펀드 (홍콩) ○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계속된 2/4분기 (미국)

◆ 7월 해외 목차 (7/11-7/20)

7/11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가 부진했던 상반기 중국 펀드산업 (중국) ○ 전체 보유주식 가치가 3.6% 하락한 아시아의 20대 기관투자자들 (싱가폴)
7/12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사항을 제의한 NASDR (미국) ○ RICs의 세금 환급 청구 소송을 받아들인 스위스 (스위스)
7/13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Huaan (중국) ○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는 ETFs (미국)
7/14 (SAT)	
7/15 (SUN)	
7/16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0만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한 일본 ETFs (일본)
7/17 (TUE)	제 헌 절
7/18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저축자산에 대한 투자조언 관련 법안의 확장을 주장하는 ICI (미국) ○ SEC의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규제안에 대한 ICI의 견해 (미국)
7/19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확정각출연금법 통과 (일본) ○ 기술주 비중을 높인 Fidelity Mid-cap Fund (미국)
7/20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I에게 대출 제공을 동의한 인도 국영은행들 (인도) ○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개방형 펀드에 대해 bridge loan 허용 검토 (중국)

◆ 7월 해외 목차 (7/21-7/31)

7/21 [SAT]	
7/22 [SUN]	
7/23 [MON]	○ 불공정 거래 공모 혐의로 UTI 전 회장인 Subramanyam 체포 (인도)
7/24 [TUE]	○ 기존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 Commerzbank (독일) ○ 아·태 지역에서 투자된 자산이 극히 미약한 SRI (아시아)
7/25 [WED]	○ Tracker Fund의 tap mechanism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홍콩 정부 (홍콩) ○ International Investment Trust와 업무 제휴를 맺은 Bank Sinopec (대만) ○ 헤지펀드 매집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SEC (미국)
7/26 [THU]	○ 종업원을 MPF에 비등록시킨 회사들에 대해 벌금형 선고 (홍콩)
7/27 [FRI]	○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펀드매니저 (남아프리카공화국)
7/28 [SAT]	
7/29 [SUN]	
7/30 [MON]	○ 유럽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문 조사 (유럽)
7/31 [TUE]	○ MPF 제도 참여 종업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홍콩)

◆ 2001년 7월 2일 월요일

○ 동남아 증시 회복의 방해 요소들 (아시아)

- 펀드운용사인 Amvescap PLC의 CEO인 Michael Benson은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
 - Mr.Benson은 정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경제 및 통화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투자 자금의 유입이 어렵다고 언급
 - 만약,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경우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일시적인 단기 상승장이 예상되나, 이것이 장기 상승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
- 동남아시아의 정치 및 사회 불안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신감과 투명성의 부족 등은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교적 장기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만족스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동남아 각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쉽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통신산업 부문의 침체로 타격을 받은 유럽의 하이일드펀드 (유럽)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지역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왔던 유럽의 하이일드펀드가 최근 통신산업 부문의 침체로 심각한 수익률 부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
 - 유럽의 하이일드채권 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으며, 동시에 통신산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유로화 및 파운드화 표시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그 시장 규모가 \$240억에 이른 반면,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펀드는 \$6,000억에 이룸
 - 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메릴린치에서 운영하는 유럽지역 Merrill Lynch European Currency High Yield Index의 경우 6월 15일 현재 1년간 -20.7%의 수익률을 기록
 - 반면, 동기간 미국 지역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ndex의 경우 1.14%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가 되고 있음
- Standard & Poor's에 따르면, 지난 해 유럽의 평균 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은 -8.8%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은 -3.7%임
 - 이는 유럽 지역의 하이일드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에서처럼 지역적인 특정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으며 투자 대상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분산 투자가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하이일드펀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유럽 지역의 펀드매니저들은 통신 산업에 투자를 줄이고 변동성이 적은 투자적격 등급의 채권이나 이머징마켓으로 투자를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7월 3일 화요일

○ MPF 의무를 회피한 사용자에게 \$8,000의 벌금형 선고 (홍콩)

- 홍콩 법원은 7월 3일 Ngai Lik Cleaning Company의 사용자인 Ng Yauhung이 MPF (Mandatory Provident Fund)의 의무 각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8,000의 벌금형을 선고했음
 - 피고인인 Ngai Lik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연속 3개월간 그의 종업원인 Fung Oi-lan으로부터 각각 \$105, \$105, \$48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MPF에 각출했음
 - Fung의 급여는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에 \$2,100, 2001년 2월에는 \$975임
- 그러나, MPFSO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에 따르면 종업원의 월 소득이 \$4,000 미만이면 종업원 급여에서 각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용자만이 종업원 급여의 5%를 각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MPFA (Mandatory Provident Fund Association)의 대변인은 MPFSO의 규정을 인용하며 사용자는 종업원을 위해 MPF 각출을 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 각출분은 종업원의 급여가 아닌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 (자료: www.mpfhk.org)

○ 상반기 성과 부진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중국 뮤추얼펀드 (중국)

- 금년 상반기 동안 뮤추얼펀드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열정적인 선호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Shanghai Securities news에 따르면, 중국의 33개 폐쇄형 펀드 중 5개만이 Shanghai와 Shenzhen 지수 성과를 능가한 것으로 조사됨
 - 게다가 13개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펀드 성과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열정이 여전히 식을 줄 모르며 하반기 동안 10%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
- Shanghai Securities news는 작은 규모의 펀드가 큰 규모의 펀드에 비해 실적이 좋았으며, 최고의 수익률을 낸 펀드는 분산투자를 한 펀드보다 수익성 있는 주식에 집중 투자한 펀드라고 언급
- 발행시장에서 공모주를 매입하는 것 역시 펀드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발행시장에서 매매된 공모주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뮤추얼펀드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공모주의 가격 상승 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 www.chinadaily.net)

◆ 2001년 7월 4일 수요일

○ Sinopec의 IPO에 참가하게 될 중국 공적연금 펀드 (중국)

- 중국 정부의 공적연금 펀드는 Sinopec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의 Class A 주식 IPO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임
 - 이로써, 처음으로 거대한 규모의 연금펀드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 Sinopec은 홍콩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으며, IPO를 통해 약 yuan100억 (\$12억)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는 중국 최대 규모임
 - Class A는 중국 국내 투자자 대상 주식임
 - 그러나, Sinopec의 IPO에 참가하게 될 공적연금 펀드는 발행시장에서 주식 매입 후 유통시장에서 8개월간 매각이 금지돼 있음
- 중국의 공적연금은 현재 yuan580억이 적립되어 있으며, 매년 재무부로부터 수백억 yuan을 받고 있는 상태임
 - 공적연금은 금년 들어 재무부로부터 yuan 40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음
 - 지난 6월 공적연금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IPO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연금펀드에 이전하도록 승인했음
 - 이로 인해 공적연금 펀드 중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기관투자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함
- Sinopec은 IPO 청약시 yuan3.9에서 yuan4.3 사이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19억6천주를 배분할 방침임
 - 개인투자자들의 청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공모가격이 yuan3.8에서 yuan4.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함
- Sinopec은 IPO 수익금으로 Sinopec의 모회사로부터 Sinopec National Star Petroleum 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임
 - Sinopec은 자국내 투자자에게 총 yuan28억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임
- 인수기관인 China International Capital은 Morgan Stanley Dean Witter & Co.와 China Construction Bank의 합작 투자은행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7월 5일 목요일

○ 세계 펀드운용사들의 대만 진출 (대만)

- 세계의 펀드운용사들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대만을 지정하고 대만의 펀드운용사 (Securities Investment Trust Enterprise, 이하 SITE)들을 인수·합병하려는 바람이 불고 있음
 -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부유한 투자 계층과 낮은 뮤추얼펀드 보급률 등이 세계 펀드운용사들을 매료시키고 있음
 - 지난 7월 5일 현재 지난 두 달 동안 HSBC Asset Management와 INVESCO는 각각 규모가 \$1억 이상인 2개의 대만 SITE와 합병을 위한 협상을 가져왔음
- 많은 세계의 펀드운용사들은 대만 부의 일부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음
 - 한 관계자는 5~7년 후 대만에서 펀드운용사의 굳건한 입지가 다져졌을 때 거대한 배당 지급이 예상된다고 전망
- 대만의 규제 당국은 지난 96년 3월 대만의 SITE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제거하여 외국 금융기관에 의해 합병 및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했음
- 대만의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대만은 305개의 펀드가 있으며, 그 펀드의 대부분은 개방형이며, 국내 시장에 투자되고 있음
 - 2000년말 현재 총 운용 중인 자산은 NT\$1조1천억 (US\$319억8천만)이며, 좀 더 최근 자료에 따르면 NT\$1조3천억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 Invesco는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대만의 SITE인 Grand Pacific 지분의 70%를 주당 NT\$70에 인수하는데 동의했음
 - Grand Pacific SITE는 14개의 펀드와 27명의 펀드매니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운용 중인 자산 규모는 US\$16억임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Invesco는 Grand Pacific의 운용 자산에 대해 7%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라고 언급
- 이 외에 많은 세계 펀드운용사들이 대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독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Deutsche Asset Management의 중국 진출 (중국)

- Deutsche Asset Management Ltd.는 중국 펀드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Dacheng Fund Management Co.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계약에 서명했음
 - Deutsche Asset Management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중국 펀드시장은 뮤추얼펀드 발전 및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 자국 내의 펀드산업을 외국에 개방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음
- 외국 펀드운용사들은 \$6,000억 규모의 자산운용 시장에 진출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자국의 운용사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7월 6일 금요일

○ 펀드 운용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UTI 회장 (인도)

- 인도의 가장 큰 뮤추얼펀드 운용사인 UTI (United Trust of India)의 회장인 PS Subramanyam은 UTI의 대표 상품인 US-64 scheme의 판매 및 환매 금지를 선언한 후 지난 7월 3일 사임했음
 - 사표는 재무부에 의해서 수리되었으며, 7월 6일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국영기업인 UTI는 최근 펀드 성과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압력에 시달려 왔으며, 이로 인해 7월 2일 UTI는 향후 6개월간 US-64 scheme의 판매 및 환매 금지를 발표
 - US-64 펀드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펀드로 2천만명의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돼 있으며, 약 \$100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임
 - 이들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가입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리거나 National Stock Exchange Debt Market에서 매각을 통해 가능
 - UTI는 인도 자국 내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이며, UTI가 운영하는 37년 역사의 US-64 펀드는 최근까지 가장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음
- 재무부 장관인 Yashwant Sinha는 6개월의 기간은 펀드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동 기간 고객 위탁재산의 원금 및 이자 수익은 보전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bday.net>, <http://news.bbc.co.uk>)

◆ 2001년 7월 9일 월요일

○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계정당 자산이 감소한 401(k) plan (미국)

- 20년의 역사를 지닌 401(k) plan이 연간 신규 각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처음으로 계정당 평균 자산이 감소했음
 - 컨설팅 회사인 Cerulli Associates의 보고서에 따르면, 401(k) plan의 평균 계정잔고가 1999년에는 \$46,740에서 2000년에는 \$41,919로 감소했음
 -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Cerulli 애널리스트들의 개략적 조사에 따르면, 최근 401(k) plan 평균 계정잔고가 약 \$41,300으로 2000년에 비해 \$600이 감소
- 시장 관계자들은 401(k) plan에 참여한 종업원들이 개별 투자안과 각출 규모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으며 이 점이 계정잔고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실제 종업원 개인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기업 이윤 감소시 사용자 각출금 감소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어 통제 불능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아울러 공적연금의 경우 각 미국 국민 개인별 계정 중 일부분을 국민 개인이 운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재무설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401(k) plan 참여자들은 주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재직기간 동안 충분한 각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
 - 특히, 많은 자금이 성장형 뮤추얼펀드나 자사주에 투자되고 있어 증시 상황 및 자사의 경영상태에 따른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가령, 미국의 두 번째로 큰 401(k) plan 제공자이며 Fortune지에서 500대 기업으로 알려진 Hewitt Associates의 401(k) plan 계정을 살펴보면 30%가 자사주로 구성돼 있음
 - 게다가 사용자의 대부분이 401(k) plan 참여 종업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다수 미국인들은 자신의 401(k) plan 계정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이 72%에 달함
 - 이러한 투자 패턴은 10년 전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 패턴과 상반된 것임
 - 전문적인 연금펀드 매니저들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 주식 60%에 채권 40%인 것을 보더라도 다소 공격적인 투자 패턴으로 보여짐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퇴직 자산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운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특별 위원회는 공적연금 급부의 일부분을 국민 스스로가 운용하도록 하는 안을 실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많은 주정부도 역시 종업원이 그들의 자금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401(k) plan과 유사한 퇴직 저축제도를 만들고 있음

- 반면, 401(k) plan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종업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Profit Sharing/401(k) Council에 따르면, 401(k) plan에 적격인 종업원들 중 1/5~1/4이 401(k) plan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재무설계사들은 퇴직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하며, 퇴직을 위한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부유층들의 경우에 보다 보수적인 투자 패턴이 요구된다고 역설
- 지난 해 기업 이윤이 감소된 몇몇 기업들은 사용자 각출분을 삭감했음
 - 401(k) plan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1/3이 기업 이윤과 사용자 각출분을 연계시켜 놓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 각출분을 각출하지 않아도 됨
- 사용자의 경우 투자 대안 선택시 관찰 및 감시와 투자 교육용 자료 제공 역할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음
 - 최근 몇몇 사용자들은 401(k) plan 참여 종업원들에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법을 고안하기 위해 Morningstar, Palo Alto, Calif 등의 기업과 접촉하기 시작했음 (자료: www.nytimes.com)

◆ 2001년 7월 10일 화요일

○ 홍콩에서 자금 유입 규모가 가장 큰 원금보장형 펀드 (홍콩)

- HKIFA (Hong Kong Investment Fund Association)에 따르면 홍콩의 펀드 영역에서 원금보장형 펀드에 가장 큰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힘
 - 지난 5월 US\$9억5,681만의 자금이 원금보장형 펀드에 유입돼 홍콩 전체 펀드 유입 자금인 US\$13억4천만의 71%를 차지
- HKIFA 관계자는 계속되는 이자율 감소로 인해 은행 이자율이 2%에 불과하는 등 은행권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게다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결합되어 원금보장형 펀드로 자금이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금보장형 펀드는 일방적으로 자산의 85~90%를 채권 등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대상에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자의 원금을 100% 보장하는 상품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계속된 2/4분기 (미국)

- 불확실한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세하면서 2/4분기 미국 투자자들의 채권형 펀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었음
- AMG Data Services에 따르면, 2/4분기 동안 투자적격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로 \$66억5천만의 신규 자금이 유입됨
 - 이 규모는 지난 1/4분기 동안 \$88억7천만에 비해 낮은 규모이지만, 지난 4월 이후 증시가 살아난 점을 전제한다면 여전히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견재함을 보여 주는 것임
- 펀드평가사인 Lipper사에 따르면 2/4분기 동안 과세형 채권펀드의 경우 평균 0.25%의 수익을 실현
 - 동 기간 A 등급 회사채를 편입하는 펀드의 경우 0.33%, BBB 등급의 회사채를 편입하는 펀드의 경우 0.44%임
 - 이는 투자적격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런 투자적격 등급 채권형 펀드의 적절한 수익률 성과로 인해 지난 3개월간 변동성이 심했던 채권시장의 진면목이 감춰진 것으로 보여짐
 - 채권시장 변동성의 주요인은 통신회사 채권 발행 규모의 증가에 있음
 - 지난 2000년 이후 통신산업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통신회사가 발행한 채권 대부분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아래로 떨어졌음
 - 아울러 통신회사의 채권은 테크놀로지산업 부문과 관련성이 커서 테크놀로지산업의 파급효과에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변동성의 소지가 큰 채권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Lehman Brothers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현 시장가치로 \$1,050억 규모의 통신회사 발행 채권이 시장으로 유입됨
 - 이는 위험이 큰 주식시장이나 낮은 예금 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투자자들이 그나마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7월 11일 수요일

○ 성과가 부진했던 상반기 중국 펀드산업 (중국)

- State media에 따르면 만연한 금융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엄격한 시장 조치가 단행된 이후, 상반기 펀드산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금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투기적인 성향이 확산돼 있는 자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 사건 등 시장의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사를 실시했음
- 이로 인해 조사기간 동안 펀드매니저들은 극도로 신중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등 중국 펀드산업이 부진한 성과를 내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
 - 지난 해까지 운영되던 33개의 펀드 중 불과 5개만이 시장수익률 5%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음
 - 나머지 펀드 중 13개의 펀드는 순자산이 감소했으며, 15개의 펀드는 시장수익률인 5% 미만의 성과를 기록했음
- 하지만, 조사 대상 중 중국의 사설펀드는 고려하지 않았음
 - 이들 사설펀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가받지 못했으나, 현재 사설펀드에 대한 투자법안이 준비 중에 있음
 - 현재 규제되지 않는 사설펀드가 yuan7,000억 (US\$845억6천만)에 이르며 이들이 증시 부양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6개월간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10개의 조사 대상 펀드운용사 중 8개사가 불법 거래 및 시세조작 등의 혐의가 밝혀졌음
 - 아울러 30개 이상의 펀드매니저가 해고, 강등 및 벌금형의 조치가 단행됐음
- 최근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펀드 감독부서의 책임자로 Hong Lei가 임명되었음
 - 전직 펀드운용사의 간부인 Mr. Hong은 서구적 스타일의 펀드 운용과 장기 투자 전략 및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자로 평가됨
 - 주가 조작이나 불법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인격의 소유자로 중국 규제 당국이 시장 감독을 현 수준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Mr. Hong의 인선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시장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s)

○ 전체 보유주식 가치가 3.6% 하락한 아시아의 20대 기관투자자들 (싱가폴)

- 펀드평가사인 Lipper Asia Ltd.는 아시아의 20대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아시아 국가 주식의 가치가 6월말 현재 \$1,950억으로 지난 5월에 비해 3.6% 감소했음
- 6월말 기준으로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가 \$289억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Capital Research & Management Co. (\$229억), Templeton/Franklin Investment (\$184억) 순임
- 이번 조사에서 20대 기관투자자의 명단에 일본계 펀드운용사인 Nomura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와 Nikko Global Management (Singapore) Ltd.가 새롭게 영입됐음
- 지역 투자 부문에서는 홍콩, 일본, 호주가 가장 큰 투자 지역으로 조사됨
- 6월말 현재 은행의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는 \$482억으로 지난 5월말에 비해 8.1% 하락했음
- 전체 펀드에 대한 통신주 편입 규모는 6월말 현재 \$467억으로 지난 5월말에 비해 3.5% 감소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7월 12일 목요일

○ 추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사항을 제의한 NASDR (미국)

- NASDR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Regulation)은 회원사들에게 NASD Rule 2210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음
 - 그 개정안은 NASD 회원사들이 문서화된 광고나 판매 전단에 투자 종목을 추천했을 때 요구되는 공시 사항들을 증가시키자는 것임
 - 동시에 공개선전 (public appearance) 기간 동안 관련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추천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공시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
 - 공개선전이란 각종 세미나, 포럼과 라디오, TV 인터뷰 등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 전달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함
- 광고 및 판매 전단 상의 개정 공시사항들
 - 종목 추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임의 계정들이 추천 종목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관심의 본질에 관한 내용
 - 회원사들이 추천한 추천 종목 중에서 회원사 자신이 특정 종목 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내용
- 현재의 Rule 2210은 회원사의 직원, 동업자, 혹은 회원사 자신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권리를 소유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사실을 공시하고 있음
 - 추천 회원사 자신의 추천 종목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었음
-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서 회원사들은 2001년 8월 15일까지 NASDR에 이와 관련한 논평을 제출해야 함 (자료: ICI)

○ RICs의 세금 환급 청구 소송을 받아들인 스위스 (스위스)

- 스위스 FTA (Federal Tax Administration)는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약상에 규제된 RICs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가 제기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동의했음
-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배당에 대한 스위스의 원천징수 세율 35%와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약에 따른 15%의 원천징수 세율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 RICs가 스위스 당국에게 세금을 환급하도록 청구한 것임
 -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항에 따른 세금 환급금 지급이 1998년 이후 중단되었음
 - 이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스위스 FTA의 동의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기간과 향후 미래의 기간에도 적용됨
- 이 동의안에 따르면 RICs의 직접 투자자들 95% 이상이 미국 시민 내지는 미국 거주자일 경우 원천징수 세금의 환급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음
 - 그러나, RICs의 직접 투자자들 중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 비중이 95%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세금의 환급금 중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의 비중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음
 -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에 대한 비중은 1998년과 2001년 현재 시점까지는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는 당해연도 3월 31일에 결정됨 (자료: ICI)

◆ 2001년 7월 13일 금요일

○ 개방형 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Huaan (중국)

- Huaan Fund Management Co.는 중국의 첫 개방형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의 제도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관계자는 Huaan의 개방형 펀드 설립에 대한 Huaan의 계획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힘
 - Huaan은 중국의 첫 개방형 펀드가 될 펀드의 초기 자금 규모가 yuan50억 (US\$6억4백만)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투자 선택이 한정되어 있던 중국의 투자자들은 개방형 펀드의 도입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음
 - 중국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펀드는 폐쇄형 펀드 뿐이며,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될 수 없음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개방형 펀드의 도입이 몇 달 내에 기대되며, 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중국 증시를 부양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는 ETFs (미국)

- ETFs (Exchange-Traded Funds)의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이용자는 헤지펀드들인 것으로 조사됨
 - 헤지펀드의 경우 다양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ETF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공매도 (short sale) 전략시 ETFs 활용 방법
 - 특정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그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후 그 주식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재매입하여 그 차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 전략임
 - 이 경우 주가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가 어긋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즉각적인 헤지 전략으로 인덱스 펀드인 ETFs를 공매도 대금으로 매입하여 헤지함
- 헤지펀드는 일반 뮤추얼펀드가 파생상품 투자시 규제되는 제약 상황에서 자유롭지만, 지수선물에 투자될 경우에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함
 - 그러나, ETFs는 인덱스 펀드이므로 지수선물을 통해 구사하는 전략과 유사한 전략에 이용할 수 있음
- ETFs는 자체 증서 (ETF share)로써 공매도 전략이 가능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7월 16일 월요일**

○ \$8,280만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한 일본 ETFs (일본)

-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된 5개의 ETFs (Exchange-Traded Funds)가 지난 7월 20일 금요일에 ¥102억9천만 (\$8,280만)의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했음
 - 이는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거래대금 규모 순위에서 15번째에 해당하는 것임
-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Nomura Asset Management의 ETF는 Nikkei 225 지수와 연계돼 있으며 7월 19일 현재 ¥744억7천만의 자산 규모를 기록
 - 자산 규모면에서 5개 신규 ETFs 중 가장 크며, 7월 20일에는 ¥32억1천만의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
-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Nikko Asset Management의 ETF 역시 Nikkei 225 지수와 연계돼 있으며 ¥611억9천만의 자산 규모를 기록
 - 규모 면에서 두 번째이며 7월 20일 현재 ¥26억9천만의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
-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Daiwa Asset Management의 ETF 역시 Nikkei 225 지수와 연계돼 있으며 7월 19일 현재 ¥380억5천만의 자산 규모를 기록
 - 규모 면에서 세 번째이며 7월 20일 현재 ¥18억7천만의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
-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7월 20일 거래대금 규모는 ETFs 거래가 개시된 이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 뿐이며, 향후 시간을 두고 거래 유동성을 살펴 본 뒤 ETFs 도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 퇴직 저축자산에 대한 투자조언 관련 법안의 확장을 주장하는 ICI (미국)

- ICI는 "The Retirement Security Advice Act of 2001" (이하 H.R. 2269)의 확장을 지지한다는 진술서를 하원의 The Subcommittee on employer-employee relations, Committee on Education, The Workforce에 제출했음
 - ICI는 퇴직 저축제도 참여자가 충분히 보호받도록 엄격한 요건이 유지되면서 다양한 적격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전한 투자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H.R. 2269 법안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퇴직 저축제도를 규제하는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는 투자조언을 얻는데 불필요한 제약 요건을 두고 있음
 - ERISA는 종업원이 투자대상 옵션 및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조언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퇴직자산의 증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투자대상 옵션의 증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종업원의 퇴직자산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는 다양한 투자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선택을 허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1999년말 현재 최소 근무기간 30년에 60대인 개인의 평균 계정잔고가 \$185,000을 넘어선 상태임
- ICI는 현행법 하에서는 투자조언을 제 3의 금융기관이 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advice gap"이 발생한다고 주장
 - 제도 관련 금융기관이 투자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으로 인해 사용자는 투자조언 서비스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찾기 위해 비용 및 시간이 소모됨
 -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조언을 비롯한 퇴직 저축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함
 - 종업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설고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제 3의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견해임
 - 현재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제 3의 금융기관은 대부분이 인터넷 회사로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조언을 얻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사고패턴과 배치됨
- 현재 비퇴직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다양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투자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이는 종업원 및 사용자들이 퇴직자산에 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됨
- 아울러 제공되는 투자조언이 신중하고 건전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함
 - 만약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종업원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충분한 구제법을 강구하도록 보증해야함 (자료: ICI)

○ SEC의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규제안에 대한 ICI의 견해 (미국)

- ICI는 연간 2번 실시되는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빈도를 현재보다 증가시킨다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SEC에게 제출했음
 -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빈도를 증가시킴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보다 적다는 의미로 해석됨
 - 최근 SEC는 뮤추얼펀드 주주보고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려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빈도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고려 중인 상태임
- 회원사에 대한 IC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공시 빈도를 증가시킨다면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역설
 - 공시 빈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투기자들로 하여금 펀드매니저들이 연구한 정보에 대해 더 많은 무임승차를 허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아울러 잦은 보유 내역 정보의 공시는 펀드매니저들간의 거래를 가로채는 "front running"을 유발하여 거래비용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현재의 공시 제도 하에서의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공시 빈도를 증가시킬 경우 오히려 펀드의 투자수익이 저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공시 빈도를 2번 이상 실시해 왔던 회원사들에 따르면 시장에서 공시 빈도를 증가하도록 요구되는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ICI는 공시 빈도 문제에 덧붙여 공시 정보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SEC에게 권고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 자산 정보에 대한 그래픽적인 표현 방법 및 펀드 규모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 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공시 내용에 추가할 것을 권고 (자료: ICI)

◆ 2001년 7월 19일 목요일

○ 일본의 확정각출연금법 통과 (일본)

- 일본은 지난 6월 22일 확정각출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 1일부터 '기업형'과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의 두 가지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DC plan)이 시행될 예정임
 - 이는 투자 수익에 따라 급부가 달라지는 미국의 401(k) plan을 모방한 것임
 - 확정각출연금법은 종업원에게 퇴직 저축제도 선택을 다양화하고 기업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 확정급부기업연금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 DC plan은 공무원과 급여를 받지 않는 기혼 여성을 제외한 60세 미만의 종업원에게 적용됨
 -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이 이직할 경우 각출금이 이전 가능함
 - 기업연금 제도 하에서 종업원의 최대 각출금은 연간 ¥432,000 (US\$3,500)이며, 종업원 각출금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216,000으로 정해짐
 - 사용자는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최소한 3가지 자산을 운용하되 안전 투자를 위해서 적어도 하나는 은행예금이나 금융채, 국채, 지방채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해야 함
- 컨설팅사인 Cerulli Associates에 따르면, 투자 위험을 부담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투자 문화에 비추어 볼 때, DC plan의 75%가 원금 보전형으로 투자될 것으로 추측됨
 - 아울러 자국내 은행과 보험사에 의해 연금시장의 대부분이 지배될 것이며 외국 펀드회사에게는 특별한 혜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전망
- 일본이 약 5년간의 논의 끝에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기업연금이 고용시장의 인력 이동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증시 침체와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연금 적립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 일본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동성이 촉진된다는 점 외에 새로운 연금 제도가 증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음 (자료: Jul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기술주 비중을 높인 Fidelity Mid-cap Fund (미국)

- Fidelity Investment가 운용하는 \$70억 규모의 Mid-cap stock fund가 변동성이 심한 기술주에 펀드 지분의 약 18%를 투자했음
 - Fidelity의 7월 Mutual Fund Guide에 따르면 이로 인해 Mid-cap fund의 기술주 비중이 4.5%에서 22.4%로 증가했음
 - 이로써 기술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펀드의 나머지 주요 10대 편입 자산의 비중에 대한 변동은 없음
- 펀드평가사인 Lipper사에 따르면 이 펀드는 최근 1년 동안 8.57% 하락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S&P mid-cap index가 2.3% 하락한 것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것임
 - 같은 기간에 mid-cap growth fund의 평균 수익률은 -16.34%로 Fidelity의 Mid-cap fund가 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
- Fidelity Mid-cap fund의 운용은 Fidelity의 주요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으로부터 나온 것임
 - 이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 중 기술주가 대체로 저평가 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자료: <http://cnfnf.retirement.printthis.clickability.com>)

◆ 2001년 7월 20일 금요일

○ UTI에게 대출 제공을 동의한 인도 국영은행들 (인도)

- 인도의 국영은행들은 유동성이 부족한 Unit Trust of India에게 대출을 제공하는데 동의했음
 -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UTI는 최근 시장 침체와 배당 감소를 이유로 5월과 6월에 대량 환매가 발생하여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짐
- 인도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인 State Bank of India에 의해서 UTI 대출 방안이 주도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 국영은행의 CEO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가졌음
 - State Bank of India의 경우 UTI가 소유한 정부 채권을 담보로 이미 rupee150억 (US\$3억1,820만) 규모의 자금을 UTI에게 대출했음
 - 한 국영은행 관계자는 UTI가 소유한 채권에 대해서 정부의 보증이 있는 한 UTI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 UTI는 인도 최대 펀드운용사로 현재 rupee5,750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운용 자산 규모는 인도 전체 펀드 자산의 2/3에 해당함
 - 약 4,100만명의 투자자들이 UTI가 운용하는 87개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 UTI의 주력 펀드인 US-64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펀드로 UTI 운용 자산의 1/5에 해당함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개방형 펀드에 대해 bridge loan 허용 검토 (중국)

- 중국의 중앙은행은 투자자들의 환매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개방형 펀드에 대해 bridge loan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bridge loan이란 전형적인 초단기 용자로서, 중기 및 장기 자금 조달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제도
 -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방형 펀드인 Huaan Innovation Fund의 설정에 대해 청신호를 보냈다고 전해짐
- 이는 투자자에게 일시적이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환매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Huaan Innovation Fund의 운용사인 JF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이 펀드는 주로 Class A 주식에 투자하고 위안화로 표기되며 자국민에게만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7월 23일 월요일

○ 불공정 거래 공모 혐의로 UTI 전 회장인 Subramanyam 체포 (인도)

- 인도의 연방 경찰인 CBI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펀드운용사인 Unit Trust of India의 전 회장인 Subramanyam을 비롯하여 고위 임원 3명을 공모 혐의로 7월 21일 체포했음
 - Mr. Subramanyam은 체포된 지 2주 전 UTI의 대표적 펀드인 US-64의 부진한 성과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임했음
- CBI는 지난 7월 20일 이들 4명의 집을 급습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rupee3억2,800만과 rupee700만 규모의 두 펀드 상에서 불공정 거래 공모 및 사기 혐의를 포착했음
 - Mr.Subramanyam과 고위 임원 혐의자들은 자사의 펀드로 하여금 자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Cyberspace Infosys의 주식을 주당 rupee930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했음
 -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은 시가로 rupee2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음
 - 아울러 이 공모에 참여한 주식 브로커인 Rakesh Mehta도 체포했음
- 정부는 US-46 펀드의 판매 및 환매 금지 조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
 - 7월 초순경 대규모 환매사태로 인해 UTI는 US-46에 대해 향후 6개월간 판매 및 환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수백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음
 - 이 조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 사건 일주일 전에 UTI로 하여금 개인투자자들이 US-46 펀드의 제한된 일부분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자료: www.nytimes.com)

◆ **2001년 7월 24일 화요일**

○ **기존 자산운용 전략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 Commerzbank (독일)**

- 독일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 Commerzbank AG는 기존의 자산운용 전략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 Commerzbank는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려던 기존 전략을 수정하여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목표를 수정했음
 - Commerzbank 관계자는 현재 유럽에서 자사가 관리하는 펀드의 규모가 euro4조 5천억이나 이러한 전략의 수정으로 인해 2005년까지 펀드의 가치가 연간 1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Commerzbank 관계자는 자산 운용면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미국에서 중간 규모 자산운용사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미국 지역의 전략적 동업자를 모색하고 있음
 - 이는 미국에서의 영업력과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자료: www.handelsblatt.com)

○ **아·태 지역에 투자된 자산이 극히 미약한 SRI (아시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수요로 인해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이하 SRI)로 투자된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임
 - SRI는 투자 결정에 있어 사회 또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금융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책임 투자임
- 대부분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아·태지역에 있는 SRI로의 투자 규모가 극히 미약하고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 투자회사들의 지역별 SRI 투자자산 실적 비교 (200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1백만)

회사명	SRI 투자 규모 (전 세계)	SRI 투자 규모 (아·태 지역)
PIMCO	7,251.00	149.00
Henderson	1,410.00	101.30
Morley Fund Management	96.87**	-
ABN AMRO Aseet Management	55.60	2.70
Principal Capital Management	76.88	0.38*

* 일본이 제외된 수치임

** 2001년 1월에 조사된 자료임

(자료: July 2001, Asia Asset Management)

◆ 2001년 7월 25일 수요일

○ Tracker Fund의 주식 대량 매도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홍콩 정부 (홍콩)

- 홍콩 정부는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경우, Tracker Fund에 편입된 자산을 대량 매도하는 tap mechanism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함
 - Tracker Fund는 홍콩 정부가 1998년 당시 증시 부양을 위해 인수한 주식들을 투자자들에게 재매도하고자 1999년 11월에 설립되었음
 - tap mechanism이란 Tracker Fund로 유입된 주식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재매입할 수 있도록 매도하는 기능을 지칭함
- 지난 7분기 동안 7차례에 걸쳐 Tracker Fund의 tap mechanism을 통해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 매도했음
 -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Tracker Fund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완전히 소진시키기 위해 4~5차례 이상의 tap mechanism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지난 4월말 현재 홍콩 정부는 Tracker Fund를 통해 HK\$1,130억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홍콩 정부는 약 HK\$600억 규모의 주식은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약 HK\$500억은 장기투자 관점에서 계속 보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Tracker Fund가 보유한 주식은 홍콩의 항셱지수를 구성하는 33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International Investment Trust와 업무 제휴를 맺은 Bank Sinopec (대만)

- 대만의 Bank Sinopec은 지난 7월 24일 대만 최대의 펀드운용사인 International Investment Trust Co.와 업무 제휴를 맺기로 했다고 밝힘
 - 업무적 제휴로 인해 두 금융기관 모두 뮤추얼펀드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입법부에서는 최근 단일의 지주회사 아래 은행, 보험, 금융 중개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운영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음
 - 이로 인해 홍콩의 금융기관들은 폭 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경쟁에 고무되어 있음
 - 정부는 연말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헤지펀드 매집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 SEC (미국)

- 미국 SEC의 자산운용산업 규제 관계자는 최근 연금펀드에서 헤지펀드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연금펀드 운용 관계자에게 \$2조5천억 퇴직자산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음
- SEC 관계자는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들도 일반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투자를 결정하므로 유사한 시장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강조
 - 아울러 펀드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파생상품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는 펀드 성과에 보다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일반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에 비해 펀드 정보 공시에 대해 규제를 적게 받으므로 투자자들이 펀드의 운용 내역을 감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많은 헤지펀드들은 투자자들이 일년에 불과 수 일에 한정하여 환매를 허용하므로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점들 때문에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금년 들어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상승해 왔음
 - TASS Research에 따르면 금년 1/4분기에 헤지펀드로 자금 유입이 \$69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해 동안의 헤지펀드 자금 유입과 맞먹는 정도임
 - 지난 해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경우 헤지펀드로 \$10억을 할당하기로 결정했음
- 헤지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하자 기관투자자들은 헤지펀드 자산운용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지난 1년 반 동안 선두를 달리는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들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산운용 내역에 대한 적절한 공시 수준에 대해서 토의해 왔음
-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인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헤지펀드 설립이 성황을 이루고 있음
 - 이로 인해 헤지펀드 운용에 관한 전략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펀드가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투자시 적절한 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위험이 큰 투자안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본질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7월 26일 목요일

○ 종업원을 MPF에 비등록시킨 회사들에 대해 벌금형 선고 (홍콩)

- 7월 23일 종업원을 MPF 제도에 등록시키지 않은 Camellia Beauty and Slimming Centre와 Waikwong Transport Company Limited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음
- Camellia Beauty and Slimming Centre의 경우 2000년 12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01년 2월 26일에 퇴직한 두 명의 종업원을 MPF 제도에 등록시키지 않았음
 - MPF 법에 따르면 사용자로 하여금 60일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MPF 제도에 등록하도록 요구됨
 - 회사측에서는 그들이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월에 퇴직하였으므로 MPF 제도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호소
 -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대해서 한 사람당 HK\$6,000씩 모두 HK\$12,000의 벌금형을 선고했음
 - 아울러 MPF 제도는 공공성이 있으며,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다면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의 Hotline에 요청해야 했었다고 밝힘
- Waikwong Transport Company Limited의 경우 1994년 이후 이 회사의 운전수로 재직한 종업원에 대해 MPF 제도에 등록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법원은 이 회사로 하여금 HK\$7,500의 벌금형을 선고했음 (자료: www.mpfhk.org)

◆ 2001년 7월 27일 금요일

○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펀드매니저 (남아프리카공화국)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퇴직금 펀드의 운용매니저들 모두가 지난 6월 30일까지 1년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음
 - 심지어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매니저들조차 지난 12개월 동안 4% 이상 수익률을 달성해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음
 - 이 조사는 rand1,000억을 초과하는 퇴직금 펀드에서 이 펀드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근거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 펀드매니저는 단기간의 펀드 운용 성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좋은 투자 성과를 위해 장기간 꾸준한 펀드 수익률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 www.bdfm.co.za)

◆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 유럽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유럽)

- European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Survey 2001에서는 유럽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에 대한 최근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지역 기관투자자들의 91%가 헤지펀드 같은 대체자산 (alternative asset class)을 성장성 있는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40% 이상이 대체자산을 편입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분산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언급
 - 그러나, 대체자산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함
- 지난 해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 운용자산이 증가한 기관투자자들은 전체 기관투자자들 중 38%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9년 6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임
-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외부에 펀드 운용을 위탁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1999년 외부 펀드운용사에게 자금을 위탁한 기관투자자들이 53%에 이르렀으나, 2000년 44%, 2001년 32%로 감소했음
- 기관투자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투자자산은 채권이며 전체 평균 투자자산 비중의 51%를 차지함
 - 주식의 경우 전체 평균 투자자산 비중이 24%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7월 31일 화요일

○ MPF 제도 참여 종업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홍콩)

- Hong Kong Investment Fund Associat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홍콩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서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로는 불충분하다고 믿고 있음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이 MPF 각출금을 올리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함
- 15~65세 사이의 MPF 참여 종업원 중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가 MPF 제도를 통해 퇴직 이후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조사됨
 - 아울러 조사 대상자 중 84%는 MPF 각출금을 올릴 계획이 없으며, 조사 대상자의 6%만이 최소 각출금 이상을 각출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음
- 현재 MPF 제도는 홍콩의 첫 강제 퇴직 저축제도이며, 사용자와 종업원이 종업원 급여의 5%를 펀드에 강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5% 이상 각출 비율에 대한 결정은 종업원에게 있음
 - 지난 해 12월에 MPF 제도가 시행되면서 규제 당국은 290개의 MPF 펀드를 승인했으며, 종업원들은 그들의 각출금이 투자되는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자의 53%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MPF에 투자하며, 30%는 펀드매니저, 6%는 직장 동료, 5%는 사용자, 4%는 친구와 친척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 대상자 중 58%는 그들이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6%는 그들이 MPF 제도 상에서 결정한 선택 사항들을 잊어버렸다고 응답함
- 이 조사 결과는 종업원들이 퇴직 이후 재무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MPF가 퇴직 이후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족할만한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8월

August

10대 해외 기사

1. RRB에 대한 투자 규정의 개정
(미국, 6일)
2. Scudder와 Fidelity에 자금 위탁을 연기한 CalPERS
(미국, 9일)
3. 불공정 거래 혐의로 체포된 펀드매니저
(미국, 10일)
4. 401(k) plan의 평균 계정잔고 추정이 \$55,774로 0.1% 감소
(미국, 13일)
5. Folios의 규제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SEC
(미국, 27일)
6. 저축 소득 과세 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기한 EU 위원회
(유럽, 2일)
7. UCITS 펀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킨 Bank of Italy
(이태리, 16일)
8. 자산운용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체코
(체코, 31일)
9. 펀드운용사 설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중국
(중국, 17일)
10. US-64 펀드의 최대 환매 좌수에 대한 증가 가능성 시사
(인도, 3일)

◆ 8월 해외 목차 (8/1-8/10)

8/1 (WED)	○ 헤지펀드에 원금 보장 기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 (미국)
8/2 (THU)	○ 저축 소득 과세 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기한 EU 위원회 (유럽)
8/3 (FRI)	○ 주식형 펀드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유럽 개인투자자들 (유럽) ○ US-64 펀드의 최대 환매 좌수에 대한 증가 가능성 시사 (인도)
8/4 (SAT)	
8/5 (SUN)	
8/6 (MON)	○ RRB에 대한 투자 규정의 개정 (미국) ○ 자본시장에 대한 발전 및 규제 완화를 공표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말레이시아)
8/7 (TUE)	○ 대만에 시기 적절한 투자 대안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지적한 Schroders (대만) ○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설립할 Deka (독일)
8/8 (WED)	○ 헤지펀드의 공시 규정에 관한 협의 내용 (미국)
8/9 (THU)	○ Scudder와 Fidelity에 자금 위탁을 연기한 Calpers (미국) ○ OPRA가 지적한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연금펀드 수탁자 (영국)
8/10 (FRI)	○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에 서명한 미국과 영국 (미국) ○ 불공정 거래 혐의로 체포된 펀드매니저 (미국)

◆ 8월 해외 목차 (8/11-8/20)

8/11 (SAT)	
8/12 (SUN)	
8/13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필리핀 SSS (필리핀) ○ 401(k) plan 참가자에 대한 평균 계정잔고 조사 (미국)
8/14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Socially Responsible Fund의 성장 (미국) ○ 지난 7월 소폭 손실을 기록한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미국)
8/15 (WED)	광 복 절
8/16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싱가포르 연금 (싱가폴) ○ UCITS 펀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킨 Bank of Italy (이태리)
8/17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펀드 비용 (홍콩) ○ 펀드운용사 설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중국 (중국)
8/18 (SAT)	
8/19 (SUN)	
8/20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중국의 개방형 펀드 (중국)

◆ 8월 해외 목차 (8/21-8/31)

8/21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BS와 합작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Yasuda (일본) ○ 영국의 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본 주식형 헤지펀드로 자금 유입 (영국) ○ 영국 연금펀드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관리비용 조사 (영국)
8/22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소규모 이탈 (미국) ○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의 편입을 증가시켜 온 DC plan (미국)
8/23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비해 상반기 이익이 하락한 SEB (스웨덴)
8/24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을 겪고 있는 유럽 펀드운용사들 (유럽)
8/25 (SAT)	
8/26 (SUN)	
8/27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lios의 규제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SEC (미국) ○ 상반기 순유입 자금이 경쟁사에 비해 2배를 능가한 Vanguard (미국)
8/28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회계연도에 euro2,300만의 손실을 기록한 Novestra (스웨덴)
8/29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는 FRM (호주) ○ 온라인 상에서 업무 제휴를 결성한 T.Rowe Price와 Morningstar (미국) ○ 2개의 원금보장형 펀드를 설립한 Hang Seng Bank (홍콩)
8/30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헤지펀드 인가 관련 지침서 발간 지연 (홍콩) ○ 유럽시장에서 SRI의 성장을 예견한 UBS Warburg (유럽)
8/31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업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체코 (체코)

◆ 2001년 8월 1일 수요일

○ 헤지펀드에 원금 보장 기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 (미국)

- 금년 들어 헤지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의 변동성이 심하고 규제 장치의 미비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투자자들은 헤지펀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5~7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금은 회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보장 기능을 갖추기를 원함
- 원금 보장 기능을 갖추게 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비중이 커짐
 - 가령 가장 일반적인 원금 보장 기능을 갖춘 헤지펀드의 경우 연간 신탁재산의 3%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아울러 헤지펀드에 투자 조언을 해주는 투자자문사의 경우 연간 1%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며,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수익의 10%를 요구하게 돼 있음
 - 다양한 투자 전략을 이용해 신탁재산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반 펀드에 비해 헤지펀드가 높은 수수료 비용 구조로 평가됨
 - 1998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 연 평균 총 비용은 순자산가치의 1.35% 정도임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8월 2일 목요일

○ 저축 소득 과세 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기한 EU 위원회 (유럽)

- EU 위원회는 2001년 7월 18일 1998년에 시행된 저축 소득 과세에 관한 강령에 대해 개정안을 제기했음
 - 1998년 법안의 경우 저축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에서 저축 상품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이 개정안에서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미국 뮤추얼펀드를 포함해서 EU 밖에서 설립된 UCITS 펀드에 의해 분배된 이자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있는 소득 (reportable payment)으로 간주하게 됨
 - 분배된 이자가 EU 내에 있는 지급 대리 기관 (paying agent)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지역에 상관없이 보고될 의무가 있는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 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펀드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펀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환매 또는 상환되는 개방형 펀드의 일종임
 -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이자"의 개념은 현금예금, 회사채 및 국채, 이와 유사한 채권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경과이자와 채권의 매매 및 환매 등을 통해 자본화된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 전체 자산에서 4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도 채권의 매매 및 환매 등을 통해 자본화된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 새롭게 제기된 개정안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기 위해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할 예정임
 - 아울러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Andora, San Marino 등과 같은 제3국과도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 이는 비거주자 저축 소득의 정보 교환을 위해 설계된 조치들에 대해서 제3국들이 채택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임
 - 이 Council은 제3국과 회원국들이 이 개정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이 개정안을 도입하도록 결정할 예정임
- 저축 소득 과세에 대한 새 강령의 기타 주요 내용
 - EU 회원국 내에 있는 지급 대리 기관이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이자 지급시 혹은 이자가 내재된 증권을 상환할 때마다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함
 -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회원국들은 원천징수로부터 발생한 금액의 75%를 투자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에 이전하도록 요구됨
 - 이 강령은 회원국에 설립된 지급 대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이자 지급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수익자에게 이루어진 경우만으로 제한됨
 - 법인이나 기업은 이 강령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됨
 - EU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자에만 적용되며,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

- 이 강령에는 지급 대리 기관이 자사가 속해 있는 회원국에게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최소 정보 규모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해 지급 대리 기관이 투자자 및 그들의 거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됨 (자료: ICI)

◆ 2001년 8월 3일 금요일

○ 주식형 펀드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유럽 개인투자자들 (유럽)

- 주식시장 침체로 위축된 유럽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지난 6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주식형 펀드가 순유출을 기록했음
 -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상승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보다 안전한 MMF로 자금을 이전했음
- 유럽의 뮤추얼펀드협회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지난 6월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 규모가 \$48억에 이룸
 - 금년 들어 첫 번째 순유출을 기록한 3월의 경우 순유출 규모가 \$7억6,000만이었으며, 이에 비해 6월의 순유출 규모는 대폭 증가한 셈임
 - 반면, 지난 5월의 경우 \$39억의 순유입을 기록했음
 - 영국의 경우 지난 6월 주식형 펀드로부터 \$28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음
 - 독일의 경우 금년 상반기 동안 euro62억 (US\$54억6,000만)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 해 순유입 규모의 1/6에 불과한 수준임
- 유럽의 개인투자자들은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도 신중한 투자를 했음
 -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지난 6월에 국내 및 해외 채권형 펀드로부터 순유출을 기록했음
- 아시아와 유럽이 이처럼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을 기록한 반면, 미국의 경우 주식형과 기술주 관련 펀드에 있어서 6월과 7월에 연이어 순유입을 기록했음
 - 이는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 중 전도유망한 영역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US-64 펀드의 최대 환매 좌수에 대한 증가 가능성 시사 (인도)

- 인도의 재무장관인 Yashwant Sinha는 8월 2일 UTI (Unit Trust of India)의 US-64 펀드의 환매 압력이 진정되면 최대 환매 좌수를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힘
 - 7월 초순경 대규모 환매사태로 인해 UTI는 US-64 펀드에 대해 향후 6개월간 판매 및 환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 인도 정부는 이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7월 중순경에 UTI로 하여금 개인투자자들이 US-64 펀드의 3,000좌까지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부분 환매는 8월 1일부터 실시돼 왔으며, 1좌당 환매 가격이 rupee10 (US\$0.21)임
 - 환매 첫 날인 8월 1일에는 자산 가치 rupee5,700만 규모에 해당하는 3,865건의 환매 요청이 쇄도했음
 - 2003년 5월까지 환매 가격을 1월당 paisa10 (rupee1/100)씩 올릴 예정임
- 현재 인도 의회에서는 US-64 펀드의 대규모 환매사태와 관련하여 Mr. Sinha로 하여금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8월 6일 월요일

○ RRB에 대한 투자 규정의 개정 (미국)

- Railroad Retirement Board (이하 RRB)가 처음으로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정의 개정이 예상됨
 - 이로 인해 국제 펀드운용사들은 RRB가 보유한 \$150억 자산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기회를 고대하고 있음
 - RRB의 펀드가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은 하원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상원 및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
- 1930년에 설립된 RRB는 경기 침체에 의해 미국의 연금펀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재무성에 의해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RRB는 총 \$200억의 자산 중 종업원들의 퇴직연금 각출분이 \$150억이며, 나머지 \$50억은 Social Security 각출분임
-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RRB의 자산이 국제적으로 투자될 것이며, 외부 펀드운용사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는 등 철도회사 종업원들의 급부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자본시장에 대한 발전 및 규제 완화를 공표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금년 초에 "Capital Markets Masterplan" (이하 CMM)을 공표했음
 - 이 CMM은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발전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6개의 핵심 목표와 152개의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펀드 운용과 관련한 권고안은 Recommendation 93, 100, 101 등 3개의 조항이 있음
- Recommendation 93은 펀드 운용시 국제적인 분산 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 말레이시아의 Unit Trust는 1997년 이후로 신탁재산의 일부분을 해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음
 - 이 권고안에서는 신탁재산의 일부분이 아닌 대부분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자국 내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 Recommendation 100은 외국 펀드운용사들에 의한 펀드 운용상의 규제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 Recommendation 100은 특별히 모든 외국 펀드운용사로 하여금 독립적이든 혹은 자국 내의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든 말레이시아의 종업원 퇴직 연금펀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임
 - 1999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의 종업원 퇴직 연금펀드 (employees pension fund)의 자산은 약 ringgit1,570억 (US\$413억2천만)임
 - 이와 관련해 1999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펀드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ringgit490억 (US\$129억)에 불과함
 -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합작 투자를 통해 들어 온 외국 펀드운용사들이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의 범위가 제한적임
- Recommendation 101은 자국 내의 펀드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임
 - 이 권고안에서는 외국인들이 2003년 이후부터 펀드운용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펀드운용사 지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자료: ICI)

◆ 2001년 8월 7일 화요일

○ 대만에 시기 적절한 투자 대안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지적한 Schroders (대만)

- 지난 8월 6일 Schroders 관계자는 대만의 활동적인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원금보장형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고 언급함
 - 이는 지난 2000년 4월 당시 대만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가 10,000 포인트를 상회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4,470포인트로 주식시장이 극도로 침체기에 있기 때문임
 - 아울러 기술주 비중이 높은 대만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의 경우 기술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펀드 성과에 대한 비관적인 투자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투자를 유도하며, 일부 자산에 대해서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펀드가 대만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Schroders는 현재 대만에서 펀드운용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든지 혹은 대만 펀드운용사의 인수를 추진 중임
 - 지금까지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으며, 대만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요건도 대만 진출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Schroders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한국과 대만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Schroders가 대만 펀드시장의 진출 요인이 되고 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설립할 Deka (독일)

- 독일에서 은행과 펀드운용사를 겸비한 Deka Group은 중·소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펀드를 설립할 계획임
 - Deka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펀드운용사로 euro1,350억 (US\$1,182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 시장 점유율의 20%에 달함
- 독일의 경우 기관투자자만을 위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이런 Spezialfonds는 투자자가 단지 1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최소 투자금액도 euro2,500만 이상인 것이 일반적임
 - Deka에서 새롭게 계획된 이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euro500,000이며, 연간 펀드 비용은 신탁재산의 0.2~0.5%임
 - Deka의 새로운 펀드는 공공적 성격의 펀드로 당국에 의해서 투자자 수나 투자자들의 유형에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Deka 관계자는 새로운 펀드를 통해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춤으로써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고무시켜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펀드 시장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힘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8일 수요일

○ 헤지펀드의 공시 규정에 관한 협의 내용 (미국)

- 지난 1년 6개월 동안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nancial Engineers' Investor Risk Committee (이하 Committee)의 후원아래 대규모 기관투자자들과 Soros Fund Management LLC, Moore Capital Management, Caxton Associates 등의 주요 헤지펀드 운용사간의 공시 규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최근 들어 Calpers, GM, Yale University 등 시장에서 비중이 큰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공시 규정의 개선 논의가 요구돼 왔음
 - 헤지펀드는 펀드 모집 형태가 대부분 사모이며, 투기적 투자 전략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반 펀드의 정보 공시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됨
- 최근 Committee의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펀드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조사됨
 -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정보 공시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규모가 큰 펀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
- 아울러 헤지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좀 더 유동성 있는 증권을 취급하며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여도 효과적일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공시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이로 인해 헤지펀드에 편입된 상위 10개의 종목에 대한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
 - 위 경우조차 투자자들에게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 20%를 초과하는 종목에 한해서 정보 공시를 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밝힘
- 펀드 성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약 통계 자료가 정보 보고 직후나 1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8월 9일 목요일

○ Scudder와 Fidelity에 자금 위탁을 연기한 CalPERS (미국)

- 세계 최대의 연기금 자산 규모 (\$1,580억)를 가지고 있는 CalPERS는 Zurich Scudder Investments와 Fidelity Management Trust Company에 대한 자금 위탁을 연기했음
- CalPERS 내부 자료에 따르면 Scudder의 경우 모회사가 자산운용 산업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공포했기 때문임
 - CalPERS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사의 투자자문사인 Wilshire Associates와 장기간 토의를 해 온 상태임
 - CalPERS는 Scudder의 자산운용 산업의 매각 문제가 완료된 이후 자금을 위탁할 것이며, 매각 이후 Scudder 새 경영진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계획임
- Fidelity의 경우 아직 CalPERS와 성과보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CalPERS 직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delity와 계속해서 접촉 중임
- CalPERS는 총 \$60억에서 \$110억의 자산 가치에 이르는 국제 주식 부분의 운용을 위해 14개 국내·외 펀드운용사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있음
 -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2개 운용사와 \$63억4천만 규모의 자산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CalPERS가 최근 국제 주식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위탁하는 운용사 및 그 위탁 규모 (자료: CalPERS, 단위: \$1백만)

펀드운용사 명	투자 지역	초기 투자 금액
Artisan Partners	비미국 지역 주식	481.7
Baillie Gifford Overseas	비미국 지역 주식	565.0
Fidelity Management Trust Company	비미국 지역 주식	n/a
GE Asset Management	비미국 지역 주식	594.5
Grantham, Mayo, Van Otterloo	비미국 지역 주식	555.4
Mastholm Asset Management LLC	비미국 지역 주식	524.0
Oechsle International Advisors (*)	비미국 지역 주식	789.6
Putnam Institutional Management	비미국 지역 주식	561.0
Robeco	비미국 지역 주식	447.6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비미국 지역 주식	686.8
Blackrock Internationa	태평양 지역	301.5
Newport Pacific Management (*)	태평양 지역	208.2
Nomura Asset Management USA (*)	태평양 지역	619.8
Zurich Scudder Investment (*)	일본 지역	n/a

(*)이 표시된 펀드운용사는 CalPERS와 7년 이상 자산 운용 계약을 맺어 온 회사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OPRA가 지적한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연금펀드 수탁자 (영국)

- 영국의 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 (이하 OPRA)는 연금제도 규정을 위반한 연금펀드 수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 수탁자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며 부인하고 있음
 - OPRA에 따르면 이 수탁자는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고 회원들이 지정한 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아울러 내부 분쟁 해결 기구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위탁재산 최소 보유 규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혐의가 지적됨
- 이와 달리 혐의를 받은 수탁자 본인은 그가 수탁자로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규정상의 위반된 점들을 고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함
 - 이 수탁자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펀드의 수탁을 위해 1997년 4월에서 2000년 9월까지 수탁자로서 수탁 업무를 수행했음
- 이에 대해 OPRA는 그가 주장하는 바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함
- 한편, OPRA가 조사한 최근 발생한 위반 사건의 58%가 펀드에 대한 각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사건임
 - OPRA는 금년 3월과 5월 사이 각출이 지연된 직역연금 대상자들에게 £5만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10일 금요일

○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에 서명한 미국과 영국 (미국)

- 미국과 영국 양국은 1980년 이후 상호 유지돼 오던 현행 소득세법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고 있음
 - 이 새로운 협정은 양국 사이에 발생한 투자와 국가간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문제를 근대화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의 주요 내용
 - 각 국에서 적립된 연금 각출금에 대해서 양국에서 상호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임
 - 적격 연금펀드를 통해 분배된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0%로 적용
 - 현행 협정 하에서는 미국에서 규제되고 있는 투자회사의 경우 영국에서 분배된 배당금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 협정은 영국에서 최근에 폐지된 법인세법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새로운 협정에서는 이들 조항들을 삭제하고 있음
-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은 양국의 상호 인준 절차를 마치는 이듬해부터 시행할 예정임
 - 원천징수세 관련 조항들이 실시되는 시기는 상호 인준 절차를 마치는 시점에서 두 번째 달의 첫 날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ICI)

○ 불공정 거래 혐의로 체포된 펀드매니저 (미국)

- 미국 연방법원에 따르면 6건의 불공정 증권 거래와 3건의 조작된 투자자문 혐의로 Alan B. Bond를 8월 9일 체포했다고 밝힘
 - Mr. Bond는 Albriond Capital Management사의 투자 부문 최고 책임자이며 회장임
 - 그는 1999년 12월에 PBS TV 프로그램인 "Wall Street Week With Louis Rukeyser"에 출연자로 나올 정도로 유명인임
-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수익성 있는 주식을 그의 계좌로 옮기는 한편, 수익성 없는 주식을 그가 운용해 주던 3명의 고객 계좌로 이전시키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
 -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었던 2000년 3월부터 2001년 7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그의 계좌는 \$263,360에서 \$650만으로 성장하였음
 - 이에 반해 그의 고객인 3명의 계좌에서는 총 \$5,600만의 손실을 기록했음
 - 아울러 그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연금펀드를 포함해서 고객을 통해 브로커 회사에 지급되던 수수료 등 \$600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 Mr. Bond는 이 소송의 변호를 위해 7월 2일에 그의 계좌로부터 \$500,000을 그가 지목한 법률회사로 이전했음
- 이 사건은 오는 11월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Mr. Bond는 8월 14일에 예정된 보석을 위한 심리를 앞두고 감옥에 수감 중임
 -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6건의 불공정 증권 거래에 대해 건당 최고 10년의 형과 3건의 조작된 투자자문에 대해 건당 최고 5년의 형이 집행될 수 있음 (자료: www.nytimes.com)

◆ 2001년 8월 13일 월요일

○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필리핀의 SSS (필리핀)

- 필리핀의 Social Security System (이하 SSS)은 2008년이 되면 연금의 급부가 각출금 및 연금의 투자 수익을 초과하는 재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각출금을 증가시키거나 SSS 참여자의 소득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2015년에 이르러 SSS의 재정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
- 이를 계기로 SSS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분산투자 및 위험관리를 위해 그들 펀드의 일부분을 해외에 투자하도록 고무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현재 peso1,750억 (US\$33억800만)의 SSS 자산 중 7.5%를 해외에 투자하도록 허용돼 있음
 - 1998년 말 SSS는 해외투자에 대한 계획을 무한정 연기시켜 놓았음
 - SSS는 Watson Wyatt사에게 투자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총 4개의 운용사에게 각각 US\$2,000만을 위탁하여 해외투자 운용을 실행할 예정임
- SSS는 지난 1991~2000년 동안 peso1,260억의 투자 수익과 peso1,780억의 각출을 기록했으며, peso1,810억의 급부 및 peso200억의 영업비용이 지출됐음
 - 동 기간 동안 각출은 연간 16.1%가 증가한 반면, 급부는 17.9%가 증가하여 급부의 증가 수준이 각출의 증가 수준을 앞질렀음
 - 2000년의 투자 수익은 1999년 수익에서 peso62억이 줄어든 peso109억7,000만을 기록했음
 -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필리핀 공무원의 퇴직연금 저축을 위한 제도인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이하 GSIS)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GSIS에 편입된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계획에 있음
 - SSS 및 GSIS 모두 지난 해 펀드 운용 중 55%가 주식 거래임
 - SSS는 펀드 내의 자산 중 주식 편입비가 높아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가 SSS 재정 위기 초래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SSS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축소하며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키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
 - SSS의 해외투자를 위한 제고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두된 것임 (자료: August 2001, Asian Asset Management)

○ 401(k) plan 참가자에 대한 평균 계정잔고 조사 (미국)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와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1999년과 2000년 양 연도에 걸쳐 401(k) plan에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계정잔고를 발표
 - 1999년에 이어 2000년에 들어와서도 401(k) 참가자의 평균 계정잔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함
- 연령별 401(k) 참가자의 평균 계정잔고 현황

	1999년	2000년	증감 비율 (%)
총 평균	\$58,850	\$58,774	-0.1
20대	\$8,219	\$10,431	26.9
30대	\$31,518	\$33,125	5.1
40대	\$62,059	\$62,694	1.0
50대	\$98,139	\$95,836	-2.3
60대	\$122,240	\$115,206	-5.8

- 2000년 말 현재 1999년과 2000년 두 해 동안 401(k) plan에 참가한 조사 대상 인원은 830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계정잔고는 1999년 말 \$58,850에서 2000년 말 \$58,774로 0.1% 감소했음
- 20대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0년 401(k) plan의 평균 계정잔고가 약 27% 증가한 반면, 60대의 경우 6% 감소하는 등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었음 (자료: ICI)

◆ 2001년 8월 14일 화요일

○ 미국의 Socially Responsible Fund의 성장 (미국)

- 1971년 최초의 Socially Responsible Fund인 Pax World Balanced Fund의 도입 이후 Socially Responsible Fund는 펀드의 규모나 수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음
 - Pax World Fund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Socially Responsible Fund의 자산 규모는 최근 \$1,030억을 기록했으며, 펀드의 수는 192개로 증가했음
 - Pax World에 의해서 의뢰된 Wiesenberger/Thomson Financial 보고서에 따르면 Socially Responsible Fund의 자산 규모는 일반 펀드에 비해 5배로 성장했으며 그 펀드의 수는 2배로 성장했다고 밝힘
- 이러한 성장 추세로 간다면 다음 10년간 Socially Responsible Fund의 자산 규모는 \$2,780억 이상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지난 7월 소폭 손실을 기록한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미국)

- 대부분의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지난 7월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소폭의 손실을 기록했음
- 미국 전체 헤지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나타내는 Hennessee Hedge Fund Index는 7월 한 달 동안 1.01% 하락했음
 - 이는 Standard & Poor's 500-Stock Index의 0.98% 하락과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의 0.19% 상승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것임
 - 기술주 편입 비중이 높은 Nasdaq Composite Index가 동 기간 동안 6.21% 하락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Hennessee Hedge Fund Index는 7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19%가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주식형 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8월 16일 목요일

○ 보험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싱가포르 연금 (싱가폴)

- Life Insurance Association (이하 LIA)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싱가포르 보험업계의 납입 보험료가 S\$7억7,700만 (US\$4억4,150만)으로 연 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음
 - 이는 올해 들어 싱가포르 국영 연금제도인 Central Provident Fund (이하 CPF)의 자금 운용이 자유화되어 보험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임
- 단기 보험인 일시납 보험 (single-premium)의 판매가 올 상반기 중 S\$60억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적에 비해 거의 4배에 가까운 성과를 올렸음
 - 이 중 45%는 투자 연동 보험상품이며, 판매의 78%에 해당하는 S\$47억이 CPF로부터 유입된 자금임
- 싱가폴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강제 연금제도로 인해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 연금 각출의 경우 종업원 급여의 16%에 이르며 이렇게 적립된 연금 재원은 뮤추얼펀드, 보험 상품 등 적절한 투자처로 운용되고 있음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UCITS 펀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킨 Bank of Italy (이태리)

- Bank of Italy는 이태리에서 UCITS 펀드의 판매를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음
- 간소화된 승인 절차의 주요 내용
 -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UCITS 펀드로 하여금 펀드 판매를 위해 Bank of Italy에 사전 통지 등으로 제출하던 구비 서류들을 Bank of Italy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변경
 - 새로운 UCITS 펀드의 이태리 지역 내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이미 판매 승인을 받은 기존의 UCITS 펀드가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음
 - 판매회사 및 판매 대행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추가 지정되는 것을 포함해서 UCITS 펀드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Bank of Italy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게 됨 (자료: ICI)

◆ 2001년 8월 17일 금요일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펀드 비용 (홍콩)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펀드평가사인 Fitzrovia International PLC에 따르면 홍콩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펀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1999년에는 연간 평균 펀드 관리비용이 1% 증가에 그쳤으나, 증시 침체로 인해 펀드운용사들의 성과 부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2000년에는 평균 10%가 증가했음
 - 전 세계적으로 25,000개 이상의 펀드를 감시하고 있는 Fitzrovia에 따르면 1999년 450개의 펀드가 펀드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530개의 펀드가 비용을 증가시켰음
- 홍콩을 비롯하여 중국 및 전세계 지역에 투자 가능하며 홍콩에서 승인된 펀드의 비용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신탁재산의 1.97%이며, 채권형 펀드의 경우 1.30%로 조사됨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의 비용이 각각 1.32%, 0.87%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펀드운용사 설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중국 (중국)

- WTO 가입이 임박한 중국 당국은 WTO 가입 이후 새롭게 진출하게 될 외국 펀드운용사를 위해서 펀드운용사 설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했음
 - 이는 중국에 설립될 운용사들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가령, 규제 당국은 진출하게 될 기업이 펀드산업에 적격인가를 평가하도록 운용사 설립 이전에 독립적인 신분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될 것임
 - 새롭게 설립될 운용사들은 자기 규제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설립 전에 내부 관리운영 규정을 설정해야 함
- 이 규정에는 개방형 펀드 (뮤추얼펀드) 설립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음
 - Huaan Fund Management Co.는 중국의 첫 개방형 펀드를 곧 설립할 계획이며, 규제 당국의 마지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WTO 가입시 중국은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자국 내 펀드운용사의 지분을 33%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임
 - 3년 후에 49%까지 지분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8월 20일 월요일

○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중국의 개방형 펀드 (중국)

- Huaan Fund Management Co.는 지난 8월 17일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사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하게 될 개방형 펀드의 승인을 허락 받았다고 밝힘
- 이 개방형 펀드의 명칭은 Huaan Innovation Fund이며 오는 9월에 설립될 예정임
 - 설립 초기 자본금은 \$6억이고, 자국 내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Class A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 Huaan에 따르면 펀드의 60%는 개인투자자에게,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예정임
 - 개인투자자 구매의 경우 yuan300,000 (US\$36,0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경우 yuan300,000에서 yuan5억 (US\$6,000만)까지 투자할 수 있음
 - yuan1,000만 (US\$120만) 이하인 경우 수수료가 신탁재산의 15%이고, yuan1,000만 이상인 경우 1.2%임
 - Huaan은 이 펀드를 국영은행인 Bank of Communication의 각 지점 창구를 통해 판매할 계획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8/20), <http://www1.chinadaily.com.cn> (8/21))

◆ 2001년 8월 21일 화요일

○ UBS와 합작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Yasuda (일본)

- Yasuda Mutual Life Insurance Co.는 자사가 보유한 yen7,000억 (\$58억) 규모의 해외증권 자산의 UBS AG 위탁을 고려하고 있음
 - Yasuda는 이를 통해 양사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UBS의 전세계 네트워크와 투자관리 및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투자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Yasuda와 UBS는 합작 투자 방식을 통해 내년 3월쯤 홍콩에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계획임
 - 이는 Yasuda가 UBS와 함께 그들 간의 사업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아시아에서 자산운용 부문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영국의 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본 주식형 헤지펀드로 자금 유입 (영국)

- 영국의 4개 펀드운용사가 1년 전에 설립하여 운용하는 일본 주식형 헤지펀드로 약 \$2억 (euro2억1,900만) 이상의 자금이 유입됨
 - 지난 해 7월에 설립된 Henderson Global Investor의 Henderson Japan Absolute Return Fund와 Martin Currie Absolute Return Fund는 설립 이후 각각 \$5,600만, \$3,500만의 자금이 유입됨
 - 지난 해 10월에 설립된 Gartmore Investment Management의 AlphaGen Hokuto Fund는 \$8,300만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지난 해 11월에 설립된 Odey Asset Management의 Odey Japan&General Fund의 경우 \$4,100만이 유입됨
- Henderson이 운용하는 Henderson Japan Absolute Return Fund의 경우 설립 이후 27.4%, Martin Currie의 Martin Currie Absolute Return Fund의 경우 17.7%의 수익률을 기록
 - 이에 반해 동 기간 동안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에서의 주가지수는 33.3%가 감소했음
- 이들 펀드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일본 시장이 해외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장·단기 주식형 헤지펀드를 운용하기에 보다 보편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됨 (자료: www.efinacialnews.com)

○ 영국 연금펀드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관리비용 조사 (영국)

- 컨설팅사인 Watson Wyat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연금펀드의 경우 내부에서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외부에 외주를 주어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4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직역연금과 관련된 "Pension Scheme Administration Cost Survey 2001" 보고서에서 규모가 다양한 195개의 연금펀드 중 외부 관리 연금펀드 (48%)와 내부 관리 연금펀드 (52%)의 비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임
- Watson Wyatt 관계자는 전체 조사 결과에서는 연금펀드에 대한 내부 관리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모든 연금펀드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40%만큼의 비용 절감을 가질 수는 없다고 언급
 - 이는 펀드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며 펀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 대체로 확정각출형 연금 제도 보다는 확정급부형 연금 제도가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아울러 펀드의 규모가 클 경우 내부 관리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외주를 통한 외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언급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22일 수요일

○ 7월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소규모 이탈 (미국)

- 펀드평가사인 Lipper Inc.에 따르면 지난 7월 채권형 펀드 및 MMF로 자금이 유입된 반면,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소액 유출됐다고 밝힘
 - 지난 7월 주식형 펀드의 성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지속되는 증시 침체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15억의 순유출이 발생했음
 - 전체 미국 투자자들은 지난 7월 뮤추얼펀드에 \$138억을 투자했음
 - 지난 해의 경우 주식형 펀드만으로 월 평균 \$230억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미국 최대의 펀드운용사인 Fidelity Investment의 경우 역시 주식형 펀드는 \$1억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됐으며, 채권형 펀드로 \$10억, MMF로 \$34억의 자금이 순유입됐음
 - 반면, 자산 규모면에서 2위의 펀드운용사인 Vanguard Group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MMF로 각각 \$12억, \$22억, \$9억8,800만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혼합형 펀드는 \$1,900만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됐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의 편입을 증가시켜 온 DC plan (미국)

- 펀드 및 연금관련 조사기관인 Cerulli Associates에 따르면 확정각출형 연금제도 (이하 DC plan)가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에 대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 내의 DC plan 자산이 1996년에 \$210억에서 2000년에 \$1,410억으로 증가했음
 -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가 401(k) plan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에 2%에서 2000년에 8%로 상승했으며, 2006년까지는 13% (\$4,32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소매 뮤추얼펀드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함과 달리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의 경우 연금펀드, 기부금 및 재단 기금과 같은 대규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함
 -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의 경우 가입 금액은 대개 최소 \$100,000 이상임
 - 아울러 일반 소매 뮤추얼펀드에 비해 펀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관투자가 전용 뮤추얼펀드가 성장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8월 23일 목요일

○ 전년도에 비해 상반기 이익이 하락한 SEB (스웨덴)

- 스웨덴의 금융서비스사 (financial services provider)인 SEB는 자사의 자산운용 및 생명보험 부문에서 2001년 상반기의 이익이 지난 해 동기간에 비해 38% 하락했음
 - 2000년 상반기의 경우 Skr3억2,000만 (euro3,390만)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금년 상반기는 Skr1억9,900만에 불과함
 - 수입의 경우 2000년 상반기 Skr15억6,000만에서 금년 상반기는 Skr15억1,000만으로 감소했으며, 비용은 Skr12억3,000만에서 Skr13억1,000만으로 6% 증가했음
-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부문에서 지난 해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수입이 Skr7억7,600만에서 Skr7억8,300만으로 소폭 상승했음
 - 이는 SEB의 기관 고객들로부터 위탁 자금이 증가한 때문임
-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직역연금 상품에 대한 매출이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음
 - 일시납 보험은 금년 상반기 실적이 지난 해 동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음
-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SEB는 자사의 자산운용과 생명보험 부문에 대해 경쟁사인 Swedbank와 합병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에 접어들면서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아울러 올해 초 스웨덴 금융 지주회사가 SEB 지분을 증가시키면서 SEB 소유 지분 구조가 변경되었음
 - 스웨덴 금융 지주회사의 소유 지분이 전체 SEB의 10%에서 19.2%로 확대됨에 따라 의결권 역시 10.5%에서 20%로 증가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24일 금요일

○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을 겪고 있는 유럽 펀드운용사들 (유럽)

- PricewaterhouseCooper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펀드 비용이 상승하고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동안 영국 펀드운용사의 평균 수익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밝힘
 - 1999년과 2000년 평균 수익은 각각 29%, 28%이나 2001년의 경우 15%로 감소했음
 - 수익이란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다시 총 수입으로 나누어서 산출함
-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23개 펀드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는 1999년 이후 펀드 비용이 연 평균 10%씩 증가해 왔다고 보고
 - 유럽 지역 펀드운용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펀드에 대한 판매 및 관리비용에 대한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비용 증가 부분은 종업원 급여, 고객센터, 판매 비용 등이 주된 요인임
- 아울러 National Mutualfund Associations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들어 유럽지역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대폭 감소했음
 - 지난 해 상반기의 경우 유럽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로 \$1,172억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162억의 순유입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유럽지역 펀드운용사들 사이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운용사 스스로 재조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펀드운용사인 Henderson의 경우 이미 수탁 부분, 관리 및 기타 운영 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고 있음
 - 아울러 고객과의 의사 교류를 위해 직접적인 서신 교환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메일을 이용하도록 고무되고 있음
 - Merrill Lynch Investment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전 직원의 20%에 달하는 3,600명을 감원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8월 27일 월요일

○ Folios의 규제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SEC (미국)

- 미국 SEC는 미국 뮤추얼펀드협회 (이하 ICI)에 의해 Folios가 뮤추얼펀드로서 규제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
 - Folios는 투자자가 스스로 그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이미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살 수 있는 신형 펀드 상품임
 -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음
 - ICI는 지난 3월 Folios가 1940년 투자회사법과 1933년 증권법 하에 등록 및 규제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SEC는 일반적인 뮤추얼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종목 구성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
 - 이와 달리 Folios의 경우 투자자 자신의 욕구와 목적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어 일반적인 뮤추얼펀드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
- SEC는 ICI가 제기한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을 회피했음
 - SEC는 포트폴리오 투자 프로그램의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방 증권법 하에 규제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음
 - 아울러 후원자는 투자자에게 유해한 증권 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중개매매업자 (brokerdealer)로 등록돼 있어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임
- ICI는 SEC의 답변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Folios 등과 같은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상반기 순유입 자금이 경쟁사에 비해 2배를 능가한 Vanguard (미국)

- Vanguard 500 Index Fund를 운용하며 Fidelity에 이어 미국에서 제2위의 펀드운용사인 Vanguard는 상반기 순유입 자금이 타 경쟁사에 비해 2배를 능가했음
 - Financial Research Corp.에 따르면 Vanguard는 올 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총 \$214억의 자금이 순유입됐음
 -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88억6,000만의 자금 순유입에 비해 2배가 넘는 기록임
 - Capital Research & Management Co.에 의해 운용되는 American Fund의 경우 \$123억, Fidelity의 경우 \$78억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과 비교됨
 - 이 자료는 MMF의 자금 유입분은 포함되지 않았음
- Vanguard는 주로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인덱스펀드로 유명하며, 실제로 Vanguard가 운용 중인 전체 자산 \$5,700억 중 1/3 이상이 인덱스펀드임
 - 인덱스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
-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총 자산이 \$870억에 달하는 Vanguard 500 Index Fund의 주당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1.3%가 하락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Vanguard측은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가 계속 약세장으로 머물러 있는 한 Vanguard의 소극적 운용 펀드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밝힘 (자료: Reuters News Services)

◆ 2001년 8월 28일 화요일

○ 2000 회계연도에 euro2,300만의 손실을 기록한 Novestra (스웨덴)

- 스웨덴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Novestra는 지난 2000 회계연도 (2000.7.1~2001.6.30) 동안 Skr2억1,500만 (euro2,300만)의 손실을 기록
 - 이는 1999 회계연도에 Skr8,800만의 이익을 기록한 것과 상반된 결과임
 - Novestra의 주당 가치는 1년 전 Skr28.5에서 최근 Skr19.2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Novestra에 의해 투자되고 있는 수 많은 기업들이 산업에서 탈퇴하거나 계획된 IPO (최초 기업공개)가 지연 및 취소되고 있기 때문
- 이에 대해 Novestra 관계자는 현재의 암울한 시장에서 선전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의 시장에선 자산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낮은 관리비용 유지와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역설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는 FRM (호주)

- Financial Risk Management Ltd. (이하 FRM)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호주의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FRM은 국제적 헤지펀드 컨설팅 회사이며, hedge fund of funds의 운용사임
 - FRM은 최근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지역 연금펀드에 편입돼 있는 헤지펀드를 관리하기 위해 시드니에 지사를 설립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자들은 최근까지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헤지펀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 들면서 일반 펀드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신속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헤지펀드에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예상한 차입 거래 및 단기 매매 등의 융통성 있는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가 단조로운 운용 전략에 의지하는 일반 펀드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안으로 간주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온라인 상에서 업무 제휴를 결성한 T. Rowe Price와 Morningstar (미국)

- T. Rowe Price Associates Inc.은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와 업무 제휴를 통해 투자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투자 안내 및 금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음
 - 이 서비스는 개인투자자 및 T. Rowe Price의 401(k) plan의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될 예정임
- 이러한 업무 제휴로 인해 T. Rowe Price 투자자는 T. Rowe Price의 금융기법뿐만 아니라 Morningstar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 서비스는 T. Rowe Price의 웹사이트인 www.troweprice.com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시장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의 업무 제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에 대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개의 원금보장형 펀드를 설립한 Hang Seng Bank (홍콩)

- Hang Seng Bank Ltd.는 홍콩의 항생지수와 연계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2개의 원금보장형 펀드를 설립했음
 - 첫 번째 상품은 만기가 3년이며 수익률 6%를 포함하여 원금의 106%를 보장하고, 두 번째 상품은 만기가 4년이며 수익률 10%를 포함하여 원금의 110%를 보장
 - 두 펀드 모두 9월 28일까지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가입수수료가 없으나, 중도 환매수수료 및 연간 1%까지 관리수수료가 부과됨
-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홍콩에서 원금보장형 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swires)

◆ 2001년 8월 30일 목요일

○ 홍콩 헤지펀드 인가 관련 지침서 발간 지연 (홍콩)

- 홍콩의 금융 규제기관인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이하 SFC)에 따르면 10월쯤 계획했던 헤지펀드 인가 관련 지침서의 발간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힘
 - SFC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한 두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 SFC는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의 하나로 헤지펀드를 주목해 왔으며, 1997년 이후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헤지펀드의 활동을 통제하는 규제를 강화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신속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고수익을 제공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당국이 관련 지침서를 준비하게 된 것임
 - 지침서의 발간으로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가 자제되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유럽 시장에서 SRI의 성장을 예견한 UBS Warburg (유럽)

- UBS Warburg의 리서치팀은 유럽에서 운용 중인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가 향후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
 - UBS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투자 인식 변화와 투자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법 적용 등이 SRI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유럽에서 SRI 시장이 가장 앞선 영국의 경우 £33억 (euro53억) 정도임
- SRI 펀드에 대한 투자가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SRI 펀드에 의해 투자되지 않는 주식도 많음
 - UBS 관계자는 SRI 펀드의 성장이 자칫 SRI가 투자하지 않는 주식 영역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방하기도 함
- UBS 리서치팀은 SRI의 투자로 인해 장기적으로 만족스런 성과를 기대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부진한 성과를 기대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 따라서, 투자자들은 SRI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특별한 재정적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인 투자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에 대체로 만족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 자산운용업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체코 (체코)

- 펀드평가 기관인 Moody's Investors Service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체코의 자산운용업에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힘
 - 적절히 규제된 상품에 투자되도록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1998년 이후 최근까지 자산운용업의 규모가 세 배로 증가했음
 - 올해 들어 체코는 자국 내에서 외국 펀드운용사로 하여금 자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3~4년 내에 EU에 가입할 예정인 체코는 사전에 자산운용 산업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감독 규제를 강화해 왔음
 - Czech Securities Commission은 자산운용 산업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음
- 체코의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운용사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음
 - 1997년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117개에 달했던 것이 올해 1/4분기에는 66개로 대폭 감소했음
 - 이는 체코 정부가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제시한 이후 30~40개의 자산운용사가 합병을 단행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체코의 자산운용 산업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자산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자료: www.efinancialnews.com)



9월

September

10대 해외 기사

1. 펀드 성과 자료에 대한 공개를 중단하는 CalPERS
(미국, 7일)
2.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사용과 관련된 pilot program의
시행 연장을 승인한 SEC (미국, 11일, 24일)
3. 테러 사건으로 투자회사법에 대한 완화 조치를 승인한
SEC (미국, 14일, 21일)
4. 미국-스위스간 세금 환급 청구 소송에서 새로운 절차를
공표한 스위스 (미국, 25일)
5. 기존 펀드 광고 방식을 새롭게 변경할 예정인 FSA
(영국, 26일)
6. Fidelity를 제치고 업계 1위가 된 UBS
(스위스, 5일)
7. 일본 은행들의 구제 방안으로 활용될 ETF
(일본, 18일)
8. CSFB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
(중국, 6일)
9. 홍콩에서 'Tracker Fund'의 이름으로 ETF 설립을
추진 중인 BGI (홍콩, 17일)
10.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하게 될 싱가포르 연금 저축
(싱가폴, 28일)

◆ 9월 해외 목차 (9/1-9/10)

9/1 (SAT)	
9/2 (SUN)	
9/3 (MON)	○ 각출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MPF (홍콩)
9/4 (TUE)	○ 두 번째 개방형 펀드를 설립하게 될 중국 (중국)
9/5 (WED)	○ Fidelity를 제치고 업계 1위가 된 UBS (스위스) ○ \$10억 규모의 해외채권 중 일부를 증권화할 계획인 Danaharta (말레이시아)
9/6 (THU)	○ CSFB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 (중국)
9/7 (FRI)	○ 펀드 성과자료에 대한 공개를 중단하는 CalPERS (미국)
9/8 (SAT)	
9/9 (SUN)	
9/10 (MON)	○ 헤지펀드 운용 사업을 위해 Citi group으로부터 인력을 유치한 Allianz (독일)

◆ 9월 해외 목차 (9/11-9/20)

9/11 (TUE)	○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사용과 관련된 pilot program의 시행 연장을 승인한 SEC (미국)
9/12 (WED)	○ 크게 인기를 모은 중국의 첫 뮤추얼펀드 (중국)
9/13 (THU)	○ 미국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아시아 펀드 (아시아)
9/14 (FRI)	○ 투자회사법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한 SEC (미국) ○ 미국 주식 거래의 정지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펀드 투자자들 (미국)
9/15 (SAT)	
9/16 (SUN)	
9/17 (MON)	○ 홍콩에서 'Tracker Fund'의 이름으로 ETF 설립을 추진 중인 BGI (홍콩) ○ 자본이득세 완화 조치를 건의한 하원의원 Saxton (미국)
9/18 (TUE)	○ 일본 은행들의 구제 방안으로 활용될 ETF (일본) ○ 3번째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한 중국 당국 (중국)
9/19 (WED)	○ 신중한 투자 행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 펀드 투자자들 (미국)
9/20 (THU)	○ Zurich Scudder의 자산운용업을 인수하게 된 Deutsche (유럽)

◆ 9월 해외 목차 (9/21-9/30)

9/21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는 한국 (한국) ○ 투자회사에 대한 완화 조치를 5영업일간 연장한 SEC (미국)
9/22 (SAT)	
9/23 (SUN)	
9/24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 사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ICI (미국) ○ 테러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거래를 봉쇄한 부시 미 대통령 (미국)
9/25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스위스간 세금 환급 청구 소송에서 새로운 절차를 공표한 스위스 (미국) ○ 뮤추얼펀드 광고에 대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준수일 연기 (미국)
9/26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펀드 광고 방식을 새롭게 변경할 계획을 추진 중인 FSA (영국)
9/27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IRA 소유 현황 (미국)
9/28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하게될 싱가포르 연금 저축 (싱가폴) ○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주식 투자를 회피하는 유럽 투자자들 (유럽)
9/29 (SAT)	
9/30 (SUN)	

◆ 2001년 9월 3일 월요일

- 각출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MPF (홍콩)
 - MPF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회사 Smartly Hong Kong Limited는 종업원 월 급여의 5%를 공제한 이후 MPF 수탁회사에 적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 이 사건은 MPF Schemes Ordinance의 section 7A(8)의 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한 사건으로 총 HK\$18,000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 Smartly는 2001년 1월, 2월, 3월 연속으로 3번 종업원 각출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며, 각 경우마다 \$6,000씩 벌금이 부과되었음
 - Midland Transportation Co. Ltd.의 경우 한 종업원을 MPF 제도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되어 HK\$8,000의 벌금이 부과됨
 - MPF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 월 급여의 5%를 각출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도 종업원에 대해 같은 금액만큼 대응 각출을 해야 함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번 \$5,000씩, 총 \$2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 www.mpfhk.org)

◆ 2001년 9월 4일 화요일

- 두 번째 개방형 펀드를 설립하게 될 중국 (중국)
 - China Southern Fund Management Co.는 Huaan의 Innovation Fund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개방형 펀드를 설립하게 되었음
 - China Southern Fund Management Co.의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 설립을 위해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 yuan80억 (\$9억6,640만) 규모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며,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으로부터 마지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개방형 펀드의 도입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중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는 중국 당국이 현재 은행 예금이나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
 - 아울러 시장 관계자들은 개방형 펀드의 도입으로 인해 침체된 중국의 주식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잇따른 IPO (기업공개) 및 추가 증자 등으로 인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 조치로 최근 중국 증시가 대폭 추락한 상태임
 - Huaan의 최초 개방형 펀드인 Innovation Fund의 경우 개인투자자 9월 11~18일, 기관투자자가 9월 19~20일까지 모집 기간이 설정되었음
 - 한편, UBS Asset Management는 중국의 Guotai Fund Management Co.와 개방형 펀드의 설립을 포함해서 업무제휴를 체결했음
 - 업무제휴 협정 하에 UBS는 Guotai에게 상품 개발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Guotai는 중국에서 UBS의 브랜드네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9월 5일 수요일

○ Fidelity를 제치고 업계 1위가 된 UBS (스위스)

- UBS Group은 지난 해 PaineWebber의 인수로 인해 올해 \$1조5,000억 (euro1조 7,000억)의 수탁고를 기록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 수위를 차지했음
 - Pension & Investment와 Watson Wyatt에 따르면 UBS는 PaineWebber의 인수로 수탁고가 4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UBS는 PaineWebber를 지난 해 7월 \$120억에 인수했으며 당시 PaineWebber는 270만명의 고객에 \$4,520억의 자산을 보유했음
- 지난 해까지 수위를 차지했던 Fidelity의 경우 수탁고가 3% 감소하여 \$1조를 기록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 2위로 전락했음
 - Credit Suisse Group의 경우 지난 해 DLJ Asset Management Group의 인수로 수탁고가 55% 증가하여 자산운영업계에서 3위를 차지했음
- 자산운영업계에서도 합병과 인수 활동을 통해 업계 순위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령, JP Morgan의 경우도 Robert Flemming의 인수와 Chase Mahattan과의 합병을 통해 업계 순위 20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음
- 침체된 시장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란에 봉착한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M&A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해 유럽의 경우 펀드운용사의 25% 이상이 M&A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10억 규모의 해외채권 중 일부를 증권화할 계획인 Danaharta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자산운용 은행인 Pengurusan Danaharta Nasional Bhd.는 \$10억 규모에 이르는 해외채권 중 일부에 대해 증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Danaharta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외채권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었으며, 회수율도 좋은 편이라고 언급
 - 그 외 태국과 브루나이 발행도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행된 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으로 처리되기도 했음
- Danaharta 관계자는 지난 5월 말경에 부실채권을 제외한 해외채권의 일부를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채권)로 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올 4/4분기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
 - ABS를 통한 수입은 Danaharta Bond를 상환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알려짐
 - Danaharta Bond는 액면가 ringgit10억2,000만 (\$26억8,400만)으로 2003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함
- 지난 9월 4일 Danaharta 관계자는 6월 30일 현재 총 ringgit89억 규모의 부실채권이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6월 30일 현재 ringgit187억의 부실채권 규모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임
 - 따라서, Danaharta는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ringgit89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9월 6일 목요일

○ CSFB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 (중국)

- 중국 당국은 8월 마지막 주에 대만과 분리되지 못한 투자 관계를 이유로 Credit Suisse First Boston (이하 CSFB)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했음
 - CSFB는 대만 정부 관료가 포함된 대만인들에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로드쇼를 후원함으로써 중국 당국을 당황하게 했음
 -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 제 2위 통신회사인 China Unicom으로 하여금 투자 공모시 인수단으로부터 CSFB를 배제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했음
- 이러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는 대만과 동시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펀드산업 관련 해외 기업들의 영업위험과 은행 모기업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감소를 조명하게 해 줌
- 해외 펀드운용사나 투자은행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그들의 산업을 국가별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중국은 당국의 CSFB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음
- 펀드운용사 및 투자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조차 중국 당국과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솔직한 논평을 꺼리고 있음
 - 이는 중국 시장이 올해만 해도 \$10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임
- 어떤 해외 펀드운용사들은 대만 정부가 중국에 배치돼 있는 대만 직원들의 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일부 해외 펀드운용사들은 지금까지 기술을 전수해 온 대만인들로 하여금 중국 본토에 배치하면서 인력자원을 활용해 왔음
-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CSFB 사건으로 인해 중국 금융산업 판도가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
 - 이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높여 펀드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해외 펀드운용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9월 7일 금요일

○ 펀드 성과 자료에 대한 공개를 중단하는 CalPERS (미국)

- 세계 최대의 연금펀드인 CalPERS는 더 이상 자사의 웹사이트 상에서 사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성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임
 - 이는 CalPERS가 다시 한 번 사모 주식형 펀드로 하여금 펀드 운용 내역을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임
 - 지난 2001년 7월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과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는 CalPERS에 의한 자료 공개에 대해 환영한 바 있음
- 분기별로 평가되어 웹사이트 상에 공개되는 이러한 투자 성과 자료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인해 CalPERS의 연금펀드 투자자들에게 불편한 문제를 야기해 왔음
 - 이러한 CalPERS의 자료는 \$140억(euro156억) 이상의 대규모의 장기 사모 주식형 펀드에 관한 사항으로 사모 주식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되어 왔음
 - 아울러 성과 평가 자료는 펀드별, 연령별, 투자 내역 및 IRR (내부수익률), 현금으로 표현된 절대수익률 등을 파악하게 되어 펀드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함
- CalPERS의 성과 자료 공개 폐지는 자사의 사모 주식형 연금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긴밀한 이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펀드 투명성을 멀리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CalPERS의 사모 주식형 펀드는 지난 2001년 6월 30일 현재 지난 1년간 -11%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9월 10일 월요일

○ 헤지펀드 운용 사업을 위해 Citi group으로부터 인력을 유치한 Allianz (독일)

- Allianz와 Dresdner가 합병한 펀드운용사인 Allianz Dresdner Asset Management는 Allianz Hedge Fund Partners를 구축하기 위해 Citi group으로부터 인력을 유치했음
 - 이러한 Allianz Hedge Fund Partners의 움직임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funds of funds의 판매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 최근 들어 funds of hedge funds는 헤지펀드 운용의 전략상 분산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유치되는 인력들은 주로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Allianz Hedge Fund Partners의 펀드 매니저가 될 예정임
 - Allianz Hedge Fund Partners는 우선 유럽을 겨냥해서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사용과 관련된 pilot program의 시행 연장을 승인한 SEC (미국)
 - 지난 8월 31일까지 만료되었던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사용과 관련된 pilot program을 2003년 8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 위해 NASDR에 의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SEC는 9월 7일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 이 pilot program은 NASD의 회원들로 하여금 보조 판매전단에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에 대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NASDR에 의한 개정안은 Interpretive Material 2210-5와 NASD Rule 2210(c)(3)의 규정에 관련된 것임
 - Interpretive Material 2210-5는 보조 판매전단에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에 대한 평가등급 사용을 허용한다는 규정임
 - NASD Rule 2210(c)(3)은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에 대한 평가등급을 사용하는 판매전단에 대한 제출요건과 절차를 검토하는 규정임
 - NASDR은 이 pilot program에 대한 SEC의 승인을 통해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NASDR은 2001년 7월까지 이 pilot program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단지 6건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이는 채권형 펀드 변동성 정보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에 불충분하였다고 함 (자료: ICI)

◆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 크게 인기를 모은 중국의 첫 뮤추얼펀드 (중국)
 - 지난 9월 11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시작된 중국의 첫 뮤추얼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펀드의 명칭은 Huaan Innovation Fund로 발행 규모가 yuan50억 (\$6억390만)이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9월20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할당분은 각각 yuan30억과 yuan20억으로 정해져 있으며,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환매될 수 없음
 - 독점적인 판매사인 Bank of Communications는 중국 주요 13개 도시에서 130여 개의 지점 창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들은 10,000좌에서 300,000좌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1좌의 가치는 yuan1임
 - 이 펀드의 선취수수료는 신탁재산의 1.5%, 후취수수료는 0.5%이며, 9월21일부터 Class A 주식과 자국내 채권에 투자하게 될 예정임
 -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9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판매되며, 최소 300,000좌에서 최대 5억좌까지 판매가 가능함
 - 첫 뮤추얼펀드의 도입으로 중국은 그 동안 주식, 채권,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보험상품 등에 한정되었던 투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음
 - 아울러 뮤추얼펀드의 집중된 인기로 인해 단기적이며 투기적인 투자 성향의 중국 자본시장이 보다 장기적이며 안정된 자본시장으로 유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9월 13일 목요일

○ 미국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아시아 펀드 (아시아)

- 미국의 대참사 테러 사건으로 인해 충격에 빠져드는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펀드매니저들은 그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 구성에 대해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아시아 지역 펀드매니저들은 미국의 복구 상황을 긴밀히 살피고 있으며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한 아시아 지역 펀드매니저는 펀드의 자산 구성 내역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사건 이후 장기적인 세계 경제의 충격을 평가하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일반적인 펀드매니저들은 전통적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하며 시장의 충격에 대해 펀드 자산 구성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나선형의 완만한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
- 미국의 고객이 주류를 이루면 홍콩에 투자되고 있는 펀드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환매가 발행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현재 거래가 중지되어있기 때문이며,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할 경우 어느 정도 환매가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펀드매니저들이 있으며, 향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9월 14일 금요일

○ 투자회사법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한 SEC (미국)

- SEC는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것을 감안하여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시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음
- 투자회사법상 완화되는 부분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허용됨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실체로부터 자금 차입이 허용
 - 펀드간 대출 약정 등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가 그 펀드의 투자 정책을 벗어나는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용인해 줌 (자료: ICI)

○ 미국 주식 거래 정지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펀드 투자자들 (미국)

- 9월 11일 미국 대참사 테러 사건으로 인해 미국 당국은 주식시장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펀드의 경우 그 날의 종가로 하루에 한 번만 매매가 이루어짐
 - 따라서, 9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요청된 주문의 경우 거래가 재개될 경우 그 날에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재개일의 종가 산정 후에 매매가 성립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각 유명 펀드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처 방안을 강구 중임
 - T. Rowe Price Associates는 지난 9월 11일 직원을 통해 9월 10일 오후 4시 이후에 주문을 낸 모든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의 유지 및 취소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음
 - Strong Capital Management의 경우 일시적으로 인터넷이나 자동 전화 주문 시스템을 중단하고 대표전화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있음
 - 미국 최대 뮤추얼펀드 슈퍼마켓의 하나인 Charles Schwab Corp.의 경우 온라인 펀드 거래시스템을 중단시켰으며, 역시 대표 전화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있음
 - Vanguard Group의 경우는 일반 펀드운용사와는 달리, 9월 10일 오후 4시 이후에 요청한 주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많은 펀드운용사 직원과 펀드매니저들은 이러한 테러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주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
 - Vanguard Group의 회장인 John J. Brennan은 투자자들이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그는 또 투자자들이 그들의 개별적 경제 환경과 목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번 테러 사건 이면의 흐름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9월 17일 월요일

○ 홍콩에서 'Tracker Fund'의 이름으로 ETF 설립을 추진 중인 BGI (홍콩)

- Barclays Global Investors (이하 BGI)는 홍콩에서 MSCI China Free Index를 따르는 ETF 설립을 준비 중이며 그 ETF의 명칭에 'Tracker'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BGI 관계자는 홍콩의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관계자가 BGI의 트레이드마크인 'iShare' 명칭과 SSGA의 트레이드마크인 'Tracker'의 명칭 사용을 동시에 제안했다고 언급
 - 먼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SSGA Tracker Fund of Hong Kong (이하 TraHK)의 'Tracker'를 인용하게 되면 홍콩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성공적이었던 TraHK의 대표적 명칭을 인용함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홍콩 규제 당국의 관계자가 BGI에게 'Tracker'의 명칭을 권유하게 된 이유는 BGI가 설립 준비 중인 ETF의 MSCI 지수가 홍콩 지역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지수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는 BGI의 라이벌이며, TraHK를 운영하는 SSGA (State Street Global Advisers)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SSGA 관계자는 BGI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종의 모방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SSAG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SSGA가 운용 중인 TraHK는 1998년 경제위기시 홍콩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매입한 주식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BGI의 ETF 설립은 오는 10월 중국의 WTO 가입과 때를 같이 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WTO 가입이 연기되었음
 - 아울러 ETF 증서의 발행과 환매를 담당하는 중개회사인 Saloman Smith Barney와 Morgan Stanley 등이 테러 사건의 충격으로 ETF 설립시 준비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BGI는 자사의 ETF가 SSGA의 TraHK처럼 홍콩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음
 - BGI 관계자는 새 ETF가 성공한다면 홍콩 지역 투자자들에게 S&P500과 같은 미국 주요 지수를 따르는 자사의 iShare ETF를 본격적으로 홍콩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함 (자료: www.financeasia.com)

○ 자본이득세 완화 조치를 건의한 하원의원 Saxton (미국)

- Joint Economic Committee의 의장이며, 하원의원인 Jim Saxton은 9월 10일 서한을 통해 Bush 대통령에게 뮤추얼펀드 소유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음
 - Saxton은 한 뮤추얼펀드 소유자들의 자본이득 중 재투자되는 부분은 \$5,000까지 세금이 이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기해 왔음
 - 이에 대해 미국 뮤추얼펀드협회인 ICI 역시 뮤추얼펀드의 자본이득세 이연에 대한 Saxton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ICI)

◆ 2001년 9월 18일 화요일

○ 일본 은행들의 구제 방안으로 활용될 ETF (일본)

-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세계 증시는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일본 역시 큰 주가 폭락에 시달려야 했음
 - Nikkei 225의 경우 10,000포인트 아래로 폭락하면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 특히, 이번 재난은 일본 은행들의 생존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발생했음
 - 4월 1일에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일본은 9월 말에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되는 시점에 임박했음
- 일본 경제가 거품 경제로 일컬어지던 1980년대 당시 증시를 지탱하기 위해 일본 은행들은 대규모 주식을 매입했음
 - 일본 은행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현재 동경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약 45%를 차지함
 - 따라서, 대규모 주식을 보유한 은행들이 9월 말 반기 재무제표 작성시 최근 폭락장의 시세대로 하락한 주식의 가치가 반영된다면 일본 은행들은 악화된 재무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게 될 것임
 - 아울러 시장 관계자들은 악성 대출을 비롯해 낮은 수익성 구조, 낮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은행들이 결국 지급불능의 사태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
- 고이즈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ETF를 떠올린 것임
 - ETF는 대표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며, 상장 주식과 뮤추얼펀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펀드임
 - 홍콩의 경우 1998년 설립된 ETF인 Tracker Fund of Hong Kong (이하 TraHK)으로 증시부양을 위해 보유했던 정부 소유 주식을 적절히 소화하여 성공적인 평을 듣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Financial Supervision Agency (이하 FSA)는 일본의 경우 홍콩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고이즈미 행정부의 ETF 이용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
 - 홍콩의 TraHK은 항셱지수를 따르며 이 펀드의 기초자산은 우량주로 구성되어 유동성이 뛰어남
 - 이에 비해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은 우량주 뿐만 아니라 비우량주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기 위한 ETF의 설립은 홍콩의 경우와 차이가 남
 - 아울러 일본 국민성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투기성을 띤 주식처럼 운용될 ETF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게 될 지 우려를 표명
- FSA는 은행 보유 주식의 처분을 돕기 위해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 자사주 매입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Stock Purchasing Agency를 2002년 1월에 설립할 예정임
 - 일본 민자당은 지난 3월 ETF를 비롯하여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설립 및 Employee Stock Ownership의 허용 등 경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자료: www.financeasia.com)

○ **3번째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한 중국 당국 (중국)**

- 지난 9월 17일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은 China Fund Management Ltd.로 하여금 3번째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 China Fund Management Ltd.는 현재 5개의 폐쇄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총 yuan65억의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음
- 이번에 설립될 뮤추얼펀드는 주로 고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yuan80억 (\$9억6,640만)의 자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됨
 - 수수료 체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0월 말에 모집이 이루어질 전망
- 중국의 2번째 뮤추얼펀드인 China Southern Stable Growth Fund의 경우 9월 19일 판매가 시작될 예정임
 - 중국은 이러한 장기 펀드를 투기적인 자국내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8월 말 현재 은행 예금으로 잔존하고 있을 개인들의 약 yuan7조의 자금 중 이들 펀드로 일정 부분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 Dow Jones Newwires)

◆ **2001년 9월 19일 수요일**

○ **신중한 투자 행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펀드 투자자들 (미국)**

-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9월 17일 주식 시장이 개장됨과 동시에 시장 관계자 및 투자자들에 의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의외로 시장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음
 -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자들 대부분은 매도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미래에 대해 조금은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나타냈음
 - 401(k) 및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참여자들 역시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 퇴직연금 자산에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
- T. Rowe Price Associate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참여자들의 문의 전화가 예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했으며, 펀드 개인투자자도 역시 문의 전화량이 평소보다 10~15% 증가했음
 - 그러나, 문의 전화의 내용은 강한 매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
 - 고객 중 주식형 펀드를 매도하고 채권형 펀드 및 MMF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이 시점을 좋은 투자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투자 관점을 지닌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음
- Fidelity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는 투자자들의 활동에 대한 특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들 역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
 - 오히려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시장 상황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지난 1987년과 비교해서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투자행위로 인해 보다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 투자자 및 시장 관계자는 향후 정치적 상황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9월 20일 목요일

○ Zurich Scudder의 자산운용업을 인수하게 된 Deutsche (유럽)

- 관계회사에 측근에 따르면 Deutsche Bank와 Zurich Financial Services는 9월 22일과 23일의 주말 양일 동안 Deutsche Bank의 Zurich Scudder 자산운용업 인수에 대해서 양사가 동의할 것이라고 밝힘
 - 양사는 공식적으로 협상의 진행 상태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있지만, 다음 주 공식적 발표를 앞두고 협상 조건을 검토하는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9월 22일과 23일 동안은 인수되어 통합될 회사의 CEO와 CIO등의 인물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합의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해 Deutsche Asset Management는 Zurich Scudder를 인수하게 되어 북미지역의 영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반해 Deutsche는 영국 지역의 Zurich Scudder는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영국에 있는 Deutsche Asset Management는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을 확보하는데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880억 (euro1, 400억)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아울러 Deutsche의 영국 지역 자산운용업은 자체적으로 훌륭한 명성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9월 21일 금요일

○ ETF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는 한국 (한국)

-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증권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음
 - 한국의 재경부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증권시장 안정화의 한 일환으로 내년부터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를 통해 ETF (일명 상장지수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관련 법규들은 다음 정기국회 때 상정할 예정임
- 미국과 홍콩에서는 ETF가 투자자들의 환매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음
 - 이는 현물과 ETF를 교환하는 in-kind creation과 redemption 과정의 효율성에 기인함
- 시장 전문가들은 신탁은행이 ETF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함
 - 은행이 주로 하는 수탁자의 역할은 모호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in-kind creation과 redemption 과정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수탁자들은 ETF 펀드매니저, 중개업자, 보관회사, 청산소 및 지수 제공 회사간 효율적인 상호 조정작용을 하게 됨
 - 서울의 한 펀드매니저는 효율적인 in-kind creation과 redemption 과정이 없이 ETF는 단순히 인덱스펀드에 불과하다고 지적
- 해외시장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ETF 도입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ETF는 훌륭한 금융상품이지만,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ETF가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
- 아울러 한 펀드매니저는 ETF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ETF를 위한 근본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로 인해 서둘러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 (자료: www.financeasia.com)

○ 투자회사에 대한 완화 조치를 5영업일간 연장한 SEC (미국)

- SEC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적 완화 조치를 9월 28일까지 5영업일간 연장했다고 밝힘
- 투자회사법상 완화되는 부분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허용됨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실체로부터 자금 차입이 허용
 - 펀드간 대출 약정 등
 - 등록된 개방형 투자회사가 그 펀드의 투자 정책을 벗어나는 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용인해 줌 (자료: ICI)

◆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 사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ICI (미국)
 - 9월 21일 ICI는 최근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 사용을 허용하는 pilot program의 연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서한을 SEC에 제출했음
 - NASDR에 의해 제출된 pilot program의 연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9월 7일 현재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SEC에 의해 승인된 상태임
 - SEC에 제출된 ICI의 서한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을 나타내는 수치나 기호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 서한에서는 NASDR로 하여금 pilot program의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고 (자료: ICI)

- 테러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거래를 봉쇄한 부시 미 대통령 (미국)
 - 9월 2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테러 사건과 관련된 27개의 개인 및 단체들을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s)의 Treasury Department's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이하 OFAC) 목록에 추가하는 executive order에 서명했음
 - OFAC 규정은 투자회사를 포함한 미 국민들로 하여금 SDNs의 모든 계정과 자산을 봉쇄하도록 명하고 있음
 - 이로 인해 9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27개의 명시된 개인 및 단체들의 거래가 금지됨
 - executive order에 의해 지정된 27개의 개인 및 단체 중 일부
 - Al Qaida/Islamic Army, Abu Sayyaf Group, Armed Islamic Group (GIA),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Al-Itihaad al-Islamiya (AIAI), Usama bin Laden 등 27개의 개인 및 단체
 - 이 명령은 또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로 하여금 위에 언급된 27개의 개인 및 단체들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허용했음 (자료: ICI)

◆ 2001년 9월 25일 화요일

○ 미국-스위스간 세금 환급 청구 소송에서 새로운 절차를 공표한 스위스 (미국)

- 스위스 FTA (Federal Tax Administration)는 RICs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가 제기한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약상에 새로운 절차를 공표했음
 - 이는 지난 7월 스위스 FTA가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약상에 규제된 RICs에 의해 제기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동의한 것에서 비롯됨
- 새로운 FTA 절차에 따르면 RICs는 2001년 3월 31일 현재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를 증명하는 신고서 양식 (declaration form, Attachment RIC)을 이행해야 됨
 - RIC에 의해 발행된 주식 증서 (share certificates)의 수
 - 투자자들이 직접 소유한 주식 증서의 수와 비율
 - 미국 거주자들이 직접 소유한 주식 증서의 수와 비율
- 만약 한 RIC에 직접 소유한 주주들이 없다면 그 RIC는 다음을 증명 및 이행해야 함
 - 그 RIC에 의해 발행된 주식 증서의 수
 - 미국 거주자들이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 증서의 수와 비율
 - 간접적으로 주식 증서를 소유한 주주들이 미국 거주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명서 첨가
- RIC는 전체 투자자들 중 미국 거주자들의 비율을 산정해야 함
 - 지난 7월에 결정된 동의안에 따르면 RICs의 직접 투자자들 95% 이상이 미국 국민 내지는 미국 거주자일 경우 원천징수 세金的 환급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음
 - 만약 이 비율이 95%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세金的 환급금 중 미국 국민이나 미국 거주자의 비중에 비례해서 받게 됨
-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배당에 대한 스위스의 원천징수 세율 35%와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약에 따른 15%의 원천징수 세율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 RICs가 스위스 당국에게 세금을 환급하도록 청구한 것임
 - 미국-스위스간 소득세제 조항에 따른 세금 환급금 지급이 1998년 이후 중단되었음
 - FTA는 2002년에 발생할 RICs의 세금 환급 청구 소송의 처리를 위해 언급된 내용과 별도로 그 절차를 공표할 예정임 (자료: ICI)

○ 뮤추얼펀드 광고에 대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준수일 연기 (미국)

- SEC는 뮤추얼펀드의 광고 및 판매 전단에 대해 세후 수익률 공시 준수일을 2001년 10월 1일에서 동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힘
 - SEC는 지난 1월 뮤추얼펀드의 1년, 5년, 10년의 단위 기간 동안 세후 수익률을 공시하자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4월 16일에 발효되었음
 - 당시 뮤추얼펀드 투자설명서의 경우 2002년 2월 15일, 광고 및 판매 전단의 경우 2001년 10월 1일 이후에 이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었음 (자료: ICI)

◆ 2001년 9월 26일 수요일

○ 기존 펀드 광고 방식을 새롭게 변경할 예정인 FSA (영국)

- 영국 금융 규제 당국인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FSA)는 펀드의 기존 광고 방식을 새롭게 변경할 계획에 있다고 밝힘
 - FSA는 펀드 광고 내의 과거 성과 자료, 위험, 가격 정보들을 표준화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줄이고 좀 더 객관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이는 FSA가 과거 펀드 성과 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평가됨
- 이와 관련하여 FSA는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9월 27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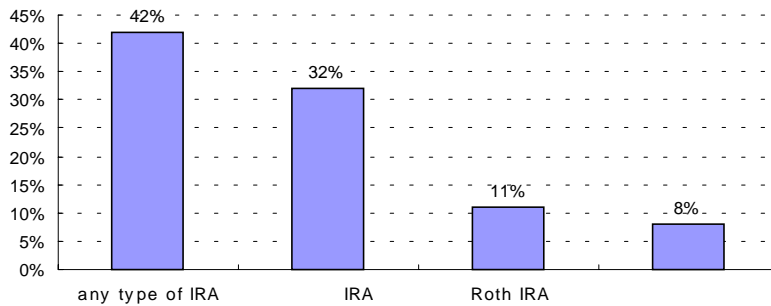
○ 2001년 IRA 소유 현황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협회인 ICI는 2001년 5월 현재 미국 가계를 대표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3,019명을 조사하여 IRA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의 소유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음

- IRA 소유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재무적 특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6월 현재 IRA를 소유한 가계 524곳에 대해 별도로 조사되었음

— 2001년 미국 전 가계 중 IRA 형태별 소유 비중 현황

- 미국 전체 가계 중 42%에 달하는 4,430만 가구가 어떤 형태로든 IRA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통적 IRA는 3,410만 가구, Roth IRA는 1,190만 가구가 소유하고 있음



※ 기타는 SIMPLE IRA, SEP-IRA, SAR-SEP IRA를 포함한 것이고, 백분율은 중복 보유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는 않음

— 미국 가계의 IRA 형태별 소유 특징

구 분	전통적 IRA 가계	Roth IRA 가계	기타
가장의 평균 나이	50세	43세	45세
가계 평균 수입	\$62,500	\$70,000	\$70,000
가계의 재정적 평균 자산 규모	\$180,000	\$150,000	\$150,000
IRA의 평균 자산 규모	\$32,000	\$14,000	\$48,200

— 각 형태의 IRA를 보유한 미국 가계의 금융기관 비중

기관 종류	전통적 IRA (%)	Roth IRA (%)
Full-service brokerage	35	31
Mutual fund company	33	30
은행 및 저축기관	29	13
Independent financial planning firm	27	26
Discount brokerage (net)	16	20
Discount brokerage with walk-in offices	15	19
Discount brokerage firm that is only available online	2	3
보험회사	14	6
기타	1	0

※ 중복 보유로 인해 합계가 100%를 초과함

－ 미국 가계의 전통적 IRA 소유 특징

전통적 IRA 평균 자산 규모	\$30,000
2000년 회계연도 전통적 IRA에 각출된 가계 평균 금액	\$2,000
2000년 회계연도 전통적 IRA로부터 인출된 가계 평균 금액	\$5,000
가계가 전통적 IRA를 소유한 평균 계정 수	2

－ IRA 형태별 소유된 자산의 종류

	전통적 IRA (%)	Roth IRA (%)	기타 IRA (%)
뮤추얼펀드	68	67	73
주식형	58	53	56
채권형	23	11	16
혼합형	19	13	16
MMF	25	21	23
개별 주식	37	28	35
은행 예금 등	28	13	20
변액 연금	18	17	14
연금	16	7	12
채권	13	3	16
기타	3	2	5

※ 중복 보유로 인해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ICI)

◆ 2001년 9월 28일 금요일

○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하게 될 싱가포르 연금 저축 (싱가폴)

- － 싱가포르의 국가 연금당국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이하 CPF Board)는 연금 저축으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상장된 ETF (Exchanged-Traded Fund)에 100%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로 인해 CPF (Central Provident Fund) 회원들은 CPF Investment Scheme (이하 CPFIS) 하에서 그들 CPF 저축의 100%를 ETF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CPFIS에서 투자될 ETF는 반드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달러로 표기되어야 함
 - 동시에 CPF Board의 통제하에 ETF가 적절히 평가되어야 함
- － 이와 관련하여 CPF Board 관계자는 CPF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어 그 활용도가 증대되었으나, 그만큼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 (자료: Reuters, www.cpf.gov.sg)

○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주식 투자를 회피하는 유럽 투자자들 (유럽)

- 미국의 테러 사건 이후 유럽의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들이나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미국 주식에서 현금이나 유럽 주식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시장의 불황이 조심스럽게 예견되어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 사건의 발발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투자 심리를 가속화시켰음
- Invesco Asset Management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는 지난 주 미국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들이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밝힘
 - 회사 차원에서도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으며 유럽 주식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고 언급
- Deutsche Asset Management 관계자는 미국의 공격적인 이자율 삭감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주장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 보호 심리로 인해 미국 주식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이 예상된다고 지적
- 이로 인해 미국 자산에 집중 투자하던 기존 투자패턴이 변화되어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전망
 - 주식형 펀드로의 일방적 투자가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0월

October

10대 해외 기사

1. 생보사를 통해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헤지펀드 (미국, 3일)
2. 퇴직저축 제도에 대한 조언 규정을 승인한 하원 (미국, 4일)
3.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반테러법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29일)
4. 인덱스펀드의 수수료에 대한 이해 (유럽, 8일)
5. 보관인 역할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한 Gartmore (영국, 10일)
6. 합병을 추진 중인 AUTIF와 FMA (영국, 30일)
7. MLIM이 당시 제시한 포트폴리오 세부 자료에 대해 인정한 Unilever (MLIM을 상대로 한 Unilever 소송 사건) (영국, 30일)
8. 10월부터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제도가 실시된 일본 (일본, 2일)
9. Amex에 동시 상장을 추진 중인 일본 ETF (일본, 24일)
10. 헤지펀드의 상품 인가 허용에 대해 고심 중인 홍콩 SFC (홍콩, 30일)

◆ 10월 해외 목차 (10/1-10/10)

10/1 (MON)	○ SIMPLE IRA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ICI (미국)
10/2 (TUE)	○ 10월부터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된 일본 (일본)
10/3 (WED)	○ 과반수 이상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미국 가게 (미국) ○ 생보사를 통해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헤지펀드 (미국) ○ 14년만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3분기 미국 뮤추얼펀드 (미국)
10/4 (THU)	○ 퇴직저축 제도에 대한 조언 규정을 승인한 하원 (미국)
10/5 (FRI)	○ 인수 청약 수요가 부진했던 중국의 두 번째 뮤추얼펀드 (중국)
10/6 (SAT)	
10/7 (SUN)	
10/8 (MON)	○ 인덱스펀드의 펀드수수료에 대한 이해 (유럽) ○ MPF에 편입된 포트폴리오 중 69%가 하락 (홍콩)
10/9 (TUE)	○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의 첫 부동산 투자회사 (중국) ○ 호주 연금펀드의 3/4분기 성과가 20년만에 최악을 기록 (호주)
10/10 (WED)	○ 보관인 역할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한 Gartmore (영국)

◆ 10월 해외 목차 (10/11-10/20)

10/11 (THU)	○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없음을 공언한 Jardine Fleming 회장인 Pickerell (아시아)
10/12 (FRI)	○ 아시아 시장에 대한 Citigroup의 운용 전략 (아시아)
10/13 (SAT)	
10/14 (SUN)	
10/15 (MON)	○ 일본에서 Call Center 설립 계획을 취소한 Fidelity (일본) ○ 최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한 헤지펀드 (미국) ○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한 수요의 증가 (홍콩)
10/16 (TUE)	○ 국영 연금펀드와 연계된 주식형 펀드 설립을 계획 중인 태국 (태국) ○ 퇴직저축제도 및 IRAs 저축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인 Announcement 2001-106을 발표한 IRS (미국) ○ 매력적인 투자처로 한국을 지목하는 Investec (아시아)
10/17 (WED)	○ 중국에서 합작 펀드운용사 설립 동의안에 서명한 ING (중국)
10/18 (THU)	○ 정리 해고를 단행할 계획인 Merrill Lynch (미국) ○ Unilever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을 시작한 Merrill Lynch (영국)
10/19 (FRI)	○ 유럽 펀드운용 업계에서 1위로 선정된 Fidelity (유럽)
10/20 (SAT)	

◆ 10월 해외 목차 (10/21-10/31)

10/21 (SUN)	
10/22 (MON)	○ 대체 투자상품을 검토 중인 홍콩 연금펀드 (홍콩)
10/23 (TUE)	○ 기업 유동성 지원 위해 펀드를 설립한 태국 정부 (태국) ○ 아시아 시장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Henderson (아시아) ○ \$2억8,700만 자금을 모집한 Schroder의 4번째 원금보장형 펀드 (홍콩)
10/24 (WED)	○ Amex에 동시 상장을 추진 중인 일본 ETF (일본) ○ 주식 및 채권형 펀드의 성과를 물리친 헤지펀드 (호주)
10/25 (THU)	○ 사모펀드 판매를 계획 중인 온라인 정보 제공사 HedgeWorld의 소개 (미국) ○ Merrill Lynch와의 소송에서 첫 번째 증인을 내세운 Unilever (영국)
10/26 (FRI)	○ 금년 3/4분기 수익이 31% 감소한 Amvescap (캐나다)
10/27 (SAT)	
10/28 (SUN)	
10/29 (MON)	○ 중국 시장에서 적극 권고되는 인덱스펀드 (중국) ○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반테러법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10/30 (TUE)	○ 헤지펀드의 상품 인가 허용에 대해 고심 중인 홍콩 SFC (홍콩) ○ 합병을 진행 중인 AUTIF와 FMA (영국) ○ MLIM이 당시 제시한 포트폴리오 세부 자료에 대해 인정한 Unilever (영국)
10/31 (WED)	○ 태국 유동성 지원 주식형 펀드에 \$7,500만을 위탁한 CalPERS (태국)

◆ 2001년 10월 1일 월요일

○ SIMPLE IRA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ICI (미국)

- ICI는 9월 28일 SIMPLE IRA 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특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음
 - SIMPLE IRA는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종업원 퇴직 연금제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SIMPLE IRA 참가자는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 소속이 대부분임
- ICI에 의한 SIMPLE IRA의 특별 조사 내용

비교 기간	SIMPLE IRA의 수	SIMPLE IRA 참가자 수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SIMPLE IRA의 자산 규모
2000년 상반기	17% 증가	21% 증가	35% 증가
2000년	34% 증가	36% 증가	47% 증가
2001년 상반기	11% 증가	15% 증가	12% 증가

- 조사 응답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아 조사 결과 중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SIMPLE IRA 자산의 전형적인 특징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함
 - 조사 결과는 2000년 말 현재 뮤추얼펀드에 투자된 \$80억의 SIMPLE IRA 중 70%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ICI)

◆ 2001년 10월 2일 화요일

○ 10월부터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된 일본 (일본)

- 일본 정부는 미국의 퇴직제도인 401(k) plan을 본떠서 만든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했음
 - 이는 국가적으로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시점에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됨
- 이 제도가 미국의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에 비해 규모나 사용자의 친숙함이 부족한 편이지만, 일본 금융산업은 자본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를 예견하면서 떠들썩한 분위기임
 -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부채 계정인 연금 적립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종업원들의 퇴직 저축제도의 선택을 다양화하며, 전직시 급부에 불이익이 없음
 - 반면, 소득 공제 한도가 ¥216,000 (\$1,674)으로 미국의 \$10,50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임을 감안할 때 투자수익률에서 연간 수수료 비중이 큼
- Sumitomo Trust & Banking Co.에 의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상장기업 700개사 중 25%가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됨
 - 200개 상장사의 18%는 이미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로 교체할 계획을 추진 중임
- 레스토랑 전문 체인점인 Skylark Co.는 자사 4,000명의 종업원을 위해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11월에 80개의 투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Skylark 관계자는 이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가 단기적인 비용 절감 제도가 아니며, 장기적인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자료: Reuters News Service)

◆ 2001년 10월 3일 수요일

○ 과반수 이상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미국 가계 (미국)

- ICI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미국 가계의 수가 전체의 52%인 5,480만까지 증가했음
 - 지난 해의 경우 5,170만 가계로 전체 가구 비중의 49%를 기록했었음
 -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수는 2000년 8,970만명에서 2001년 9,330만명으로 증가했음
 - 이는 ICI가 2001년 5월에 무작위로 선정한 3,019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ICI의 사장인 Matthew P.Fink는 미국 가계의 뮤추얼펀드 소유 비중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확정각출형 퇴직 연금제도를 통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는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제도가 중요한 투자 채널이 되고 있음을 나타냄
 - 이 자료에서는 IRA를 포함해서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제도를 통하지 않고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투자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1년 5월 현재 미국 가계의 1/3인 33%가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음
 - 반면, 미국 가계의 38%가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제도를 통하지 않고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음
- 추가적인 조사 자료 내용
 - 뮤추얼펀드 소유는 소득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 2001년 5월 현재 \$5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계는 38%, \$50,0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계는 74%가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음
 -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가계는 주로 35~54세 사이의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짐
- Fink는 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가 제공하는 자산의 전문적 운용, 분산투자, 엄격한 규제 등의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 뮤추얼펀드는 교육 및 퇴직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중요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 (자료: ICI)

○ **생보사를 통해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헤지펀드 (미국)**

- 보험사를 통해 규제되지 않는 펀드들의 판매가 늘어가면서 헤지펀드가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투자자들이 보험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주요 세제상의 혜택
 - 보험상품은 그 계약이 사망시까지 유지되고, 상품이 적절히 구성된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 보험 계약자는 세금이 없는 인출이나 대출의 형식으로 분배받을 수 있음
- \$100만~\$500만을 보험료로 지급할 수 있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는 보험 상품을 통해 헤지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세제 혜택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 부유한 계층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 투자 자산의 일부를 헤지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 제고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함
- 부유한 계층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 헤지펀드는 비유동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의 하나로 간주되지 못했음
 - 보험업자들은 사모 변액보험 (private-placement variable life insurance)이라고 불리워지며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보험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모 변액보험은 전통적인 보험 급부인 사망보험금과 다양한 투자수단에 투자할 수 있는 저축계정이 혼합된 상품임
 - 부유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모 변액보험의 저축계정을 통해 헤지펀드 같은 대체 투자안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 보험상품의 경우 일단 발행되면 분산투자 및 투자자 통제와 관련된 Internal Revenue Service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산은 적어도 다섯 가지 투자안에 분산 투자해야 하며, 보험업자들은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유지해야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14년만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3/4분기 미국 뮤추얼펀드 (미국)

- 펀드평가사인 Lipper Inc.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동안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99%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14년만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음
 - Lipper사가 추적하는 총 8,627개의 주식형 펀드는 지난 3/4분기 동안 18%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87년 4/4분기에 21%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낙폭이 큰 장은 처음임
 - 모든 주식형 펀드의 1/3를 차지하는 U.S. diversified stock fund의 경우 -18%, world stock fund는 -17%를 기록했음
 -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001년 초부터 현재까지 평균 24%의 손실을 기록했음
-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문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식시장 지수에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음
 - 같은 기간 배당을 포함해서 Dow 지수는 -16%, S&P500 지수는 -15%를 기록
 - -31%를 기록한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나은 성과를 기록한 것임
- 일반적으로 같은 기간 대형주나 가치주에 투자한 펀드들이 소형주 펀드나 성장형 펀드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가령, 대형 가치주 펀드의 성과는 -12%의 손실에 그쳤으나, 소형주 및 성장형 펀드는 -20%의 손실을 기록했음
-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sector fund의 경우 3분기 성과가 다양함
 - 건강 및 인체공학 펀드의 경우 11%까지 감소했으며, 부동산 펀드의 경우 3.6% 감소에 그쳤음
 - 유일하게 양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gold fund는 2.3%의 수익률을 기록
- 3/4분기 동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주의 판매가 강화됐음
 - 하지만, Lipper사의 과학과 기술 영역 부문에서의 펀드 성과는 -39%로 수직 하락했으며, 통신주 펀드의 경우도 -27%의 수익률을 기록
- Lipper사가 관리하고 있는 펀드들 중에서 가장 잘 운용된 펀드 25개 가운데 압도적인 성과를 올린 것은 bear fund라 불리는 공매도 펀드 (short-selling fund)임
 - 이들의 수익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므로 최근 급락한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 가령, Rydex Venture 100 Fund, ProFunds UltraShort OTC Fund는 이번 3/4분기 동안 거의 두 배의 성과를 기록했음
- 채권형 펀드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투자자들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음
 - 과세 채권형 펀드의 경우 올해 초부터 4.1%, 3/4분기 동안 1.6%의 수익률을 기록
- 세계 초대형 펀드 25개 중 주식에 노출되지 않은 채권형 펀드인 Pimco의 Total Return Fund만이 6.5%의 수익률을 올려 최고의 성과를 기록
 - Janus Fund와 Fidelity Growth Company Fund는 둘 다 -26%, 세계 최대 규모 펀드인 Fidelity Magellan Fund의 경우 -15%의 수익률을 기록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4일 목요일

○ 퇴직저축 제도에 대한 조안 규정을 승인한 하원 (미국)

- 10월 3일 하원의 Education and Workforce Committee는 "Retirement Security Advice Act of 2001" (이하 H.R. 2269)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하원에 제출했음
 - 하원은 제출된 H.R. 2269에 대해 29대17의 투표 차로 승인했음
 - 8월 2일 사용자 및 종업원 관련 사항을 다루는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H.R. 2269를 승인한 바 있음
- 하원 의장인 John Boehner는 퇴직저축 제도를 위해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함이 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저축 제도 참여자들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H.R. 2269를 제기했음
 - 이를 위해 H.R. 2269는 ERISA의 금지된 규정으로부터 법적인 면제 조항을 제공함 (자료: ICI)

◆ 2001년 10월 5일 금요일

○ 청약 수요가 부진했던 중국의 두 번째 뮤추얼펀드 (중국)

-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 중국의 두 번째 뮤추얼펀드 청약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짐
 - the official Securities Times에 따르면 China Southern Fund Management Co.는 1좌당 yuan1로 yuan8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자사의 뮤추얼펀드가 청약 기간에 불과 yuan35억 (\$4억2,280만)만을 매출했음
 - 매입 주체별로 구분하면 개인투자자들이 yuan13억, 기관투자자들이 yuan22억을 매입했으며, 청약 기간은 9월 26일에 마감되었음
 - 9월에 있었던 중국의 첫 뮤추얼펀드인 Innovation Fund 역시 청약 수요가 부진했었음
- 중국 뮤추얼펀드의 등장은 시장에 자본을 유인할 대책으로써 기대되었으나, 중국 투자자들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
 - 중국 시장 관계자들은 이 뮤추얼펀드가 좀 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자리잡아가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8일 월요일

○ 인덱스펀드의 수수료에 대한 이해 (유럽)

- 최근 혼란스런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인덱스펀드들이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인덱스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의 성과만큼이나 수수료에 관심을 갖게 됨
 - 주식시장이 침체일 경우 인덱스펀드가 추종 지수의 나쁜 성과를 따를 뿐더러, 펀드의 운용 및 거래수수료로 인해 나쁜 펀드 성과를 더 악화시켜 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
 - 가령, 영국의 Sovereign FTSE 100 Fund의 경우 9월 24일 현재 1년간 -29.15%를 기록했으나, 이 펀드의 추종 지수인 FTSE 100은 -26.82%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대개의 인덱스펀드는 이러한 추적 오차가 발생함
- 경기 침체시 인덱스펀드의 성과가 추종 기준 지수의 성과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이유
 - 인덱스펀드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연간 운용 수수료와 함께 추종 인덱스의 구성이 바뀌면서 펀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한 거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유럽 국가마다 펀드 내 개별 주식 편입 한도 (스위스: 10%, 독일: 5%)가 정해져 있어 추종 인덱스의 구성 비율에 정확히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 펀드의 규모가 작거나 새롭게 설립된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펀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펀드로의 자금 유입 및 환매로 인한 유출시 펀드 주식의 매입 및 환매가 펀드 유·출입 자금과 일치할 수 없음
 - 인덱스펀드는 주식 배당을 자동적으로 펀드에 재투자하지 않음
 - 스위스의 경우 펀드 가격 결정 시점이 정오인 반면, 지수는 그 날의 종가로 결정되어 가격 결정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가 포함될 수 있음
- 펀드 리서치 회사인 Fitzrovin International PLC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의 주식형 인덱스펀드의 경우 평균 연간 운용수수료가 자산의 0.85%이나, 여러 비용을 합쳐 연간 비용이 1.15%까지 높아질 수 있음
 - 문제는 그러한 비용이 펀드 성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한 비용들이 펀드의 자본 계정 상에 전체적인 수익과 손실의 기록으로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
- 이는 경기 침체시 추적오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며 인덱스펀드 투자시 수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MPF에 편입된 포트폴리오 중 69%가 하락 (홍콩)

- Honk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 (이에 HKIFA)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올 초와 비교해서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를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69%가 순자산가치의 하락을 경험했다고 밝힘
 - MPF의 성과와 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HKIFA는 271개의 MPF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고 있음
- 가치가 하락한 펀드의 대부분은 주식형임
 - 반면, 해외 채권, 홍콩 달러화 채권, 홍콩 MMF, U.S. MMF를 편입하는 펀드 및 원금보장형 펀드의 경우 그 가치가 상승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9일 화요일

○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의 첫 부동산 투자회사 (중국)

- 중국은 상하이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Company)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상업은행의 비수익 자산 중 부동산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회사는 주택 자산의 매입·운용·처분의 역할을 맡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상하이 시의 주택 부문 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
 - 전체적인 주택 및 은행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매각되지 못한 주택 자산을 평가하고, 매매·대체·재건축·부채 및 자본의 스왑 (debt-to-equity swaps) 등을 통해 고객의 위험을 줄이게 될 것임
- 상하이 시는 1984년 이후 거주용 및 상업용 주택에 대한 재고가 1,20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yuan580억 (US\$70억)임
 -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 인해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 확인했음 (자료: <http://english.peopledaily.com>)

○ 호주 연금펀드의 3/4분기 성과가 20년만에 최악을 기록 (호주)

- Intech Financial Services에 따르면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으로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후, 3/4분기 호주의 연금펀드는 20년만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음
 - 성장형 펀드의 평균 성과는 7월 -1.8%, 8월 -1.3%, 9월 -3%를 기록했으며, 3개월 합산한 지난 3/4분기 평균 성과는 총 -5.8%를 기록했음
 - 펀드운용사들 역시 같은 기간 평균 -6.4%의 손실을 기록했음
- Intech 관계자는 3/4분기의 좋지 않은 실적으로 인해 2001년 전체 회계연도 동안 연금펀드가 정 (+)의 수익률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이 전개되면서 향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 유력하므로 단기적 펀드 성과의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추정
- 연금펀드 운용사는 9월 한 달 동안 주식 평균 편입 비율을 6.4%까지 줄인 반면, 채권의 경우 편입 비율을 1.1%까지 증가시켰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10일 수요일

○ 보관인 역할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한 Gartmore (영국)

- Gartmore Investment Management는 고객에 대한 자사의 보관인 역할을 따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시장 관계자들은 multi-manager products의 도입 이후, 최근 이러한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
 - Gartmore 관계자는 회사의 최고 가치 추구 (best value approach)를 위한 것이며 운용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미국의 경우 고객인 연금펀드가 직접 보관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인정됨
- Gartmore의 고객 중 하나인 the East Sussex County Council Pension Scheme의 경우 Gartmore의 이러한 결정 이후 £11억4천만 (euro18억) 규모의 자금을 해외 보관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음
 - Bank of New York의 경우 Gartmore를 대신하여 East Sussex County Council Pension Scheme 자산의 30%에 대해서 보관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East Sussex County Council Pension 펀드의 경우 모든 펀드 자산을 해외 보관회사로 보관 기능을 위탁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
- Bank of New York의 대변인은 보관회사로서 고객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언급
 - Bank of New York의 경우 영국 연금시장의 약 25%에 대한 보관인 기능 역할을 제공하고 있음
 - Bank of New York에 따르면, multi-manager products의 도입 이후, 더 나은 보고 시스템을 위해 연금펀드 제도로 하여금 보관인 기능을 분리시켜 보관회사 기능을 촉진시켜왔다고 언급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0월 11일 목요일

○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없음을 공인한 Jardine Fleming 회장인 Pickerell (아시아)

- Jardine Fleming Asset Management 회장인 Blair Pickerell은 미국 테러 사건 및 아프리카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전략적 행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시장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원래의 전략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Jardine Fleming은 중국의 첫 개방형 펀드인 Innovation fund 설립시 운용사인 Huaan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했으며, 판매 및 운용의 기술을 제공했음
 - 중국의 첫 개방형 펀드인 Innovation Fund는 10일간의 모집 기간 동안 총 yuan50억 (\$6억400만)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듣고 있음
 - Innovation Fund의 경우 투자 계약시 3개월간의 환매 금지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3개월간의 펀드 성과에 따라 환매 규모 및 새로운 자금의 추가 유입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아프리카니스탄에 대한 미국 보복 조치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Innovation Fund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 Pickerell을 비롯한 시장 관계자들은 지정학적으로 증시 상황이 투명해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개방형 펀드의 설립은 중단되거나 미뤄질 것으로 전망
 - Pickerell은 이번 첫 뮤추얼펀드 설립에 일조한 것이 중국 규제 당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자사의 친근감을 확인했음을 입증한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Jardine Fleming의 이러한 도전적인 산업 전략은 보다 대규모인 국제적 운용회사들인 Fidelity와 Janus 등과 차이점이 있음
 - Fidelity나 Janus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대신, 시장의 규제, 시장 기능, 고객 인지도 등이 그들이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
 - 즉, 이들 대형 운용사들은 경쟁회사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든지에 상관하지 않음
- Jardine Fleming은 현재 홍콩에서 36개의 offshore fund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21개의 offshore fund와 13개의 onshore fund를 운용하고 있음
 - Jardine Fleming은 부분적으로 J.P. Morgan Fleming Asset Management로 합병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6,000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임
- Pickerell은 최근 지정학적인 문제 및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신상품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 아시아 시장에 대한 Citigroup의 운용 전략 (아시아)

- Citigroup Asset Management는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펀드 자산의 자금 할당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이전시키도록 권고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 조치 이후 이 권고안을 철회하면서 더 이상 펀드 자산의 구성이 현금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힘
 - 이는 미국의 보복 조치가 시장에서 공평하게 평가되어 주가에 반영되는 등 시장 기능의 회복에 대한 믿음 때문
- Citigroup은 중국과 한국에 투자 비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와 인도 등에도 투자 비중을 약간 더 높일 계획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으로는 현재 투자 비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언급
 -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투자 비중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3/4분기 동안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중국에 대해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임
 - Citigroup 관계자는 중국의 주식이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 그 가치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투자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힘
 - 지난 2월 외국인에 대해서만 거래되던 Class B 주식을 자국내 국민들에게 허용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증폭되었음
 - 중국의 WTO 가입 역시 Class B 주식의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강한 자국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
- 이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상태가 계속되자 대부분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에 따라 세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 Citigroup은 미국이 금년 3/4분기 1%, 4/4분기 3%, 내년 1/4분기에 1%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지난 2/4분기의 GDP가 0.2% 증가했다고 밝힘
- Citigroup은 강한 국내 경제, 잘 분산된 주식들, 적절히 평가된 주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 투자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를 피력했음
 - 특히, 통신, 은행, 가전 등의 기업들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
- 미국 경제 침체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대규모 자국내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와 적정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호주 등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적되고 있음
 - 단,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 등은 세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 조심스런 경계 표시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 일본에서 Call Center 설립 계획을 취소한 Fidelity (일본)

- Fidelity Investment는 도쿄 근처에 Call Center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힘
 - Call Center 설립 계획은 개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Fidelity 자사의 판매 채널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 Call Center는 일본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산업에 대한 장부기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Call Center 설립 계획의 취소는 도쿄에서 영업하는 다른 외국 금융기업들이 일본의 불투명한 산업 전망으로 인해 그 사업 규모를 줄여가는 추세 가운데 발생한 것임
- Fidelity 관계자는 일본이 뮤추얼펀드 산업 규모와 기관투자자들 영업 등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사업을 여전히 확장시킬 것이라고 언급
 - Fidelity는 대신에 자사의 Call Center 서비스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도록 결정했음 (자료: Reuters New Service)

○ 최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한 헤지펀드 (미국)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심한 혼란 상태를 경험했던 시장 상황에서 헤지펀드 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수인 Credit Suisse First-Boston/Tremont index (이하 CSFB/Tremont index)가 9월 한 달 동안 -0.8%의 성과를 기록했음
 - 같은 기간 S&P 500 지수 -8.2%, 다우 지수가 -11.1%를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금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18%, -21.2%의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 CSFB/Tremont index는 2.2%를 기록했음
- CSFB/Tremont hedge fund index는 데이터 베이스화된 2,600개의 헤지펀드 중 선정된 375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 CSFB/Tremont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과 Tremont Advisors의 합작 기업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한 수요의 증가 (홍콩)

- 미국 테러 사건 발생 이후 홍콩에서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 9월 말까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쯤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원금보장형 펀드의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음
 - 그러나, 미국 테러 사건과 계속되는 미국의 군사적 보복 조치는 홍콩 투자자들 사이에 위험을 부담하려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 자연히 수익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는 투자 패턴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금보장형 펀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올해 들어와서 8월까지 홍콩에서는 US\$23억9,000억 규모의 원금보장형 펀드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체 펀드 매출액 US\$61억3,000억 중 39%에 이룸
 - 9월의 자료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 국영 연금펀드와 연계된 주식형 펀드 설립을 계획 중인 태국 (태국)

- 태국의 재무부 장관인 Somkid Jatusripitak은 정부 차원에서 국영 연금펀드와 연계된 주식형 펀드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
 - 이 펀드는 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인 공기업의 주식과 저평가 되어 있는 우량 주식에 투자될 계획임
 - 아직까지 투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영 연금펀드에서 약 baht20억 (\$4,470만)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투자분은 국영 연금펀드 투자 규모의 대략 2배가 될 것으로 알려짐
 - Somkid는 아직 펀드 설립에 대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설립될 것이라고 언급
- Somkid는 태국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지역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초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 Somkid는 동시에 거래소가 거래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투자를 고무시키도록 개선하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했음
 - 태국 증권거래소는 이런 정부 조치 이행과 병행하여 증시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분할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금융상품 설립을 추진 중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퇴직저축 제도 및 IRAs 저축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인 Announcement 2001-106을 발표한 IRS (미국)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는 10월 12일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하 H.R.1836) 하에서 계획되었던 세액공제 제도인 Announcement 2001-106을 발표했음
 - Announcement 2001-106은 2001년 12월 31일 이후 2007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연도에서 퇴직저축 제도나 IRAs 등에 각축하고 있는 적격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저축자들의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이 Announcement는 적용 대상 저축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7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H.R.1836 감세안의 실무 적용 자료임 (자료: ICI)

○ 매력적인 투자처로 한국을 지목하는 Investec (아시아)

- Investec Asset Management Asia는 자사의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다른 아시아 시장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고 밝힘
 - Investec은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투자 중립적이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
 - Investec 관계자는 아시아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 소비 지출이 약화되면 아시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
- Investec은 한국의 경우 강한 국내 경제와 저평가된 주가를 이유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함
 - 특히, 한국의 은행주와 통신주를 지목했으며, 은행주는 다른 아시아 은행들에 비해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17일 수요일

○ 중국에서 합작 펀드운용사 설립 동의안에 서명한 ING (중국)

- ING Asia/Pacific Ltd.와 China Communications Securities Co. Ltd.는 중국에서 펀드운용사인 ING Groep NV를 합작으로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기술적 협력 동의안에 서명했음
 - 새로 설립될 펀드운용사인 ING Groep NV는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으로부터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2002년 초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동의안에서 ING는 새로 설립될 펀드운용사에게 기술적 지원 및 회사 운영에 대한 훈련과 관련하여 지원할 것이며 중국측은 리서치 및 판매망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ING의 한 관계자는 이번의 합작 펀드운용사 설립은 ING group의 사업 전략에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11월 중국의 WTO 가입 시점에 맞추어 최근 해외 투자회사들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본토 기업과 합작기업 형태의 회사 설립을 가속해 왔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18일 목요일

○ 정리 해고를 단행할 계획인 Merrill Lynch (미국)

- Merrill Lynch는 지난 해 3/4분기와 비교해서 올 3/4분기 수익이 52%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종업원에 대한 정리 해고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적 하락의 큰 요인은 주로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 감소와 자산운용 부문에서 편입된 주식 가치의 하락에 기인함
 - Merrill Lynch는 올 3/4분기에 \$4억2,200만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이는 수익률이 10% 아래로 하락한 것임
 - 이는 수익률이 1년 전의 21.5%, 올 2/4분기 10.7%에 비해 저조한 실적임
 -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Merrill Lynch의 EPS가 \$0.50이며 이는 기대한 만큼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음
- Merrill Lynch의 CEO인 David Komansky는 최근 회의에서 사업 환경상 회사의 규모가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며, 정리 해고 단행의 의지를 내비쳤음
 - 그는 또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언급
 - Merrill Lynch는 지난 1년 동안 6,1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여 현재 총 종업원이 65,000여명에 이룸 (자료: www.efinancialnew.com)

○ Unilever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을 시작한 Merrill Lynch (영국)

-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이하 MLIM)의 변호사들은 영국의 Unilever Superannuation Fund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 최근 Unilever는 1997년 1월 1일과 1998년 3월 31일 사이 MLIM에 위탁한 £10억에 대해 MLIM이 무모할 만큼 지나친 위험을 떠안게 했다며 이에 대해 £1억 3,000만 (US\$2억730만)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음
 - Unilever의 수탁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MLIM이 운용한 Unilever 위탁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이 경쟁력 있는 구성 내역이었는지에 대해 이미 파악했다고 밝힘
- MLIM의 변호사인 Lan Glick은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MLIM의 펀드 운용 접근에 대한 사실을 Unilever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 특히, 편입 자산 중 큰 손실이 발생한 영국의 주식 포트폴리오 등에 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Unilever에 설명했으며, Unilever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언급
- 재판은 일단 휴정했으며, 10월 25일 목요일에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 유럽 펀드운용 업계에서 1위로 선정된 Fidelity (유럽)

- 자산운용 업계의 리서치 기관인 Sector Analysis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Fidelity가 유럽의 펀드운용 업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회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Fidelity는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네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19.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으며, JP Morgan Fleming이 9.9%, Deutsche와 Invesco가 각각 5.7% 순임
 - Fidelity는 업계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10.7%의 지지를 얻어 역시 1위를 기록했으며, JP Morgan Fleming이 7.1%, Invesco, Deutsche 등이 각각 4.9%, 4.5%를 기록
 - Fidelity는 또 가장 높이 평가되는 기업으로써 12.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JP Morgan Fleming이 8.2%, Deutsche 4.9%, Invesco 4.1%를 기록
- Sector Analysis는 전 유럽에서 총 306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그 조사 대상 기관은 연금펀드, 은행, 보험사 및 펀드운용사들 중 대표성을 띤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0월 22일 월요일

○ 대체 투자상품을 검토 중인 홍콩 연금펀드 (홍콩)

- 최근 Hong Kong Retirement Schemes Association (이하 HKRSA)이 주최한 회의에서 연금펀드 운용기관들은 대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현재의 약세장에서 양 (+)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투자전략에 대해서 경청했음
 - 이날 회의에서 Bank of Bermuda의 global fund services 책임자인 Paul Smith가 연사로 초청되어 침체된 전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손실 보전 차원에서 헤지펀드, 사모 주식형 펀드 등의 대체 투자상품에 대해 강연했음
- Smith는 연금펀드 운용기관들이 이러한 대체 투자안을 투자전략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체 투자상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 연금펀드 운용기관들이 전통적인 투자안을 고집함으로써 올해 들어 종업원들 저축 자산의 30%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종업원들은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연금제도가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각출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대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
 - 가령, 지난 9월 미국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헤지펀드 관련 지수인 TASS/Tremont index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2%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Smith는 대체 투자상품에 대한 연금펀드의 투자는 Wastson Wyatt, WM Mercer, Towers Perrin과 같은 투자컨설팅 회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지금까지는 대체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적었지만,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해 부진한 펀드 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컨설팅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자료: www.financeasia.com)

◆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 **기업 유동성 지원 위해 펀드를 설립한 태국 정부 (태국)**

- 태국 정부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자국내 대형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억5,000만 규모의 주식형 펀드 설립을 승인했음
 - 조성될 펀드는 각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지분 소유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방침임
- 태국 정부는 10월 22일 World Bank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 (이하 IFC) 주도로 구성된 여러 투자자들과 협의안에 서명할 예정임
 - 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내·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조성된 자금이 \$2억3,750만이라고 밝힘
 - 해외 기관투자자로는 IFC, Asian Development Bank, CalPERS 등이 각각 \$3,750만, \$2,500만, \$7,500만을 투자할 계획임
 - 국내 투자자로는 태국 정부 \$3,000만, 태국 연금펀드, 태국정부 저축은행 (Government Savings Bank) 등이 각각 \$500만, IFC의 태국 지사 \$1,000만, 태국 은행협회가 \$5,000만을 각출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1년내 \$2억5,000만의 목표 자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아시아 시장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Henderson (아시아)**

- 호주의 펀드운용사인 Henderson Global Investors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아시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언급
 -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과의 대담에서 Henderson의 투자전략 분석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 시장에 조기 투자할 만큼 성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아시아 시장은 서구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서구시장의 등락에 따라 그 변동성이 훨씬 큰 경향이 있다고 평가
 - 이로 인해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보복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슬람 원시점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 Henderson 관계자는 2002년 3/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
 - 그는 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 data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 경제 지표들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바닥을 찍고 선회할 것이라고 추정함
 - 동시에 미국 경기 지표가 선회할 시점이 아시아 시장에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6월 30일 현재 US\$1,480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Henderson은 최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아시아 시장에 대해 투자 비중을 증가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음
 - 한편, 유럽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 늘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 줄였음
 - Henderson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이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있으며 유동성이 풍부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억8,700만 자금을 모집한 Schroder의 4번째 원금보장형 펀드 (홍콩)

-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td.는 자사의 4번째 원금보장형 펀드인 Guaranteed Return Fund IV에서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US\$2억8,700만 자금을 모집했다고 밝힘
 - 4번째 원금보장형 펀드의 경우 9월 10일 최초로 자금을 모집한 이후 수요가 급증하여 모집 기간 종료일을 1주일 연기하여 10월 19일까지 자금을 모집했음
 - 이 펀드는 원금 보장의 기능에다 만기일인 2005년 10월 18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적어도 10%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고 있음
- Schroder 관계자는 홍콩 투자자들이 지난 9월 테러 사건 이후로 주식시장의 실적 하락에 대해 크게 실망한 이후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언급
 -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 조치 및 미국의 탄저병 소동 등으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했으며, 위험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려는 투자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상태임
- Schroder는 지난 4월 이후 4개의 원금보장형 펀드를 시리즈형으로 홍콩 투자자들에게 계속 제공해 왔으며 현재 총 4개 펀드에 US\$8억6,100만의 수탁고를 기록
 - Schroder는 11월 초에 같은 시리즈형 펀드로 5번째 원금보장형 펀드를 설립할 계획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 Amex에 동시 상장을 추진 중인 일본 ETF (일본)

- 영국의 펀드운용사인 Barclays Global Investors (이하 BGI)가 일본에서 운용 중인 ETFs 중 하나를 11월 경에 American Stock Exchange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S&P/TOPIX150 지수를 따르고 있는 BGI의 이 iShares S&P/TOPIX150은 일본의 첫 ETF이며, 현재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음
- BGI Investment Trust Japan Co.의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 거래소에 동시 상장시킴으로써 보다 더 많은 수의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알려 ETF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일본은 지난 7월에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동시에 첫 거래가 발생했음
 - BGI는 현재까지 일본에서 ETF 펀드운용사로서 유일한 기업임
- ICI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9월 테러 사건으로 인해 증시가 침체 국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ETF로는 \$17억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음
 - 펀드평가사인 Lipper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불안한 증권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320억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음
 - Morgan Stanley Dean Witter의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국의 몇몇 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에서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ETF로 이전하고 있다고 언급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주식 및 채권형 펀드의 성과를 물리친 헤지펀드 (호주)

- Deutsche Asset Management 성과전략팀의 David Zobel은 헤지펀드의 성과 실적이 주식 및 채권형 펀드의 성과를 앞질렀다고 밝힘
 - 그는 과거 1년 동안 Hedge Fund Research Inc.의 Fund Weighted Composite Index를 인용하며 헤지펀드 성과가 평균 S&P500지수보다 1.1%, J.P.Morgan Global Bond 지수보다 10% 이상 높다고 언급
 - 그는 헤지펀드가 경제 위기 상황시 전통적 자산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며, 강세장에도 경쟁력있는 성과 수익을 제시해 왔다고 주장
- 헤지펀드 산업이 미국과 유럽시장에 잘 발달되어 있지만, 현재 호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 시장이 크지 않음
 - 하지만, 최근에 헤지펀드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헤지펀드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호주의 투자자들 역시 최근 전세계적으로 악화된 주식시장 성과로 인해 헤지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0월 25일 목요일

○ 사모펀드 판매를 계획 중인 온라인 정보 제공사 HedgeWorld의 소개 (미국)

- 헤지펀드 온라인 정보 제공회사인 HedgeWorld는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 (unregistered private-investment partnerships) 판매를 계획 중에 있음
 - HedgeWorld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Charles Schwab이나 Fidelity 같은 온라인 뮤추얼펀드 슈퍼마켓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알려짐
- HedgeWorld는 자사의 회원으로 등록된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상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자사의 정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HedgeWorld의 적격 투자자들은 사전에 자사가 선정한 헤지펀드의 목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투자 과정이나 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를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음
 - 투자자들이 거래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나, HedgeWorld는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금이 유입된 펀드운용사들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
- HedgeWorld의 서비스는 2002년 1/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며, 처음에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궁극적으로는 기금,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자료: Dow Jones Newswires)

○ Merrill Lynch와의 소송에서 첫 번째 증인을 내세운 Unilever (영국)

- Merrill Lynch와 Unilever의 소송에서 Unilever Superannuation Fund의 수탁회사 전 회장인 Hugh Stirk이 Unilever의 첫 증인으로 재판에 출두했음
 - Stirk은 1994년부터 1998년 6월까지 Unilever 수탁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했음
 -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소속해 있던 수탁회사가 운용사인 Merrill Lynch (합병 전 Mercury Asset Management)와 운용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 Merrill Lynch의 변호를 맡은 Lan Glick은 수탁회사와 운용사가 당시 펀드를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험스럽다고 Unilever에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음
 - Glick은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위험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Merrill Lynch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음
 - Glick은 만약 위험스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수탁회사의 투자위원회가 운용사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언급
 - 투자위원회의 지적이 없었음은 Merrill Lynch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Stirk은 당시 Mercury가 그렇게 어리석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언급
 - 수탁회사의 투자위원회는 운용사의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성과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
 - 과거 Mercury가 펀드를 잘 운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운용을 신뢰했으며, 포트폴리오의 특별한 구성 내역이 있더라도 단순히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 금년 3/4분기 수익이 31% 감소한 Amvescap (캐나다)

-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뮤추얼펀드회사인 Amvescap PLC는 침체된 증시 및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3/4분기 동안 당기순이익이 31%나 감소했다고 밝힘
 - 지난 해 3/4분기 동안 £7,600만 (\$1억7,100만)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 3/4분기의 경우 69%가 감소한 £2,400만 (\$5,400만)을 기록했음
 - Amvescap이 운용 중인 자산은 지난 3/4분기 동안 전 분기에 비해 12%가 감소한 £2,460억이며, \$40억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했음
- Amvescap은 침체된 증시에서 수수료가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 4/4분기에는 영업비용을 4.7% 줄였으며, 최근 10월 한 달 동안 150명의 직원을 정리하고 했음
 - Amvescap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는 단기간에 비용절감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현재의 극심한 시장 변동성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이번 4/4분기에는 더 이상의 강제적 정리하고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 www.nationalpost.com, www.thetimes.co.uk)

◆ **2001년 10월 29일 월요일**

○ **중국 시장에서 적극 권고되는 인덱스펀드 (중국)**

- 중국 펀드산업의 한 전문가인 Stuart Leckie는 자국내 주식 인덱스펀드의 도입이 중국 시장에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향후 1~3년 이내에 인덱스펀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
 - Leckie는 이러한 인덱스펀드가 국영기업의 정부 소유 지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자국내 펀드운용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
 - 그는 World Bank에 의하면 2030년까지 약 \$1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연금자산의 안전한 투자처로 인덱스펀드를 권고하고 있음
- Leckie는 홍콩의 인덱스펀드 범주에 속하는 Hong Kong Tracker Fund (ETF)를 예로 들면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시 홍콩 정부가 소유한 주식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공로를 지적했음
 - Leckie는 중국 본토인 자국 내에서 거래되는 Class A 주식 50~200개를 구성하는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
- 조만간 중국 정부는 중국의 연금펀드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그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중국의 연금펀드 운용사들이 Class A 주식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반테러법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미국)**

- 10월 26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반테러법에 대해 서명했음
 - "USA PATRIOT Act of 2001" (이하 H.R.3162)인 이 반테러법은 10월 24일 하원에서 357대 66, 다음 날인 25일 상원에서는 98대 1의 투표 차로 각각 승인됨
 - 이에 따라 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 GAO)는 반테러법과 관련하여 증권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H.R.3162에서 자금세탁 방지 조항은 3장부터 시작되며, 투자회사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 재무성에 자금세탁에 의심이 가는 지역 및 해외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
 - 재무성은 규제 당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제정된 법안을 120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재무성은 SEC 및 다른 특별 연방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신 계정 설립시 그 계정 고객의 신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안을 채택하도록 요청했음 (자료: ICI)

◆ 2001년 10월 30일 화요일

○ 헤지펀드의 상품 인가 허용에 대해 고심 중인 홍콩 SFC (홍콩)

- 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이하 SFC)은 홍콩 지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상품 인가 허용에 대해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SFC는 홍콩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펀드운용사의 견해를 요청했음
- 헤지펀드를 제한된 투자 집단에만 허용되어야 할 지 아니면 제한없이 모든 대중에게 허용되어야 할 지에 대한 선택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SFC는 홍콩에서 헤지펀드가 금융상품으로 인가되어야 한다는 점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히 규제되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왔다고 언급
 - SFC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7일까지 각 펀드운용사의 논평을 받을 예정임
- 현재 Unit Trust와 뮤추얼펀드에 관한 SFC의 규정 중에 헤지펀드 상품 인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태임
 - Hong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에 따르면 다른 해외시장에서 인가된 헤지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나 부유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한해서 투자가 가능함
- SFC는 헤지펀드 상품 인가 및 헤지펀드 도입에 관해 개방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헤지펀드 투자자를 제한할 예정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합병을 진행 중인 AUTIF와 FMA (영국)

- The 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 (이하 AUTIF)와 The Fund Manager's Association (이하 FMA)은 두 기관간 합병 문제를 위해 회담을 진행 중임
 - 두 기관간 제의된 합병 논의는 많은 회원사들이 두 기관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음
 - FMA의 회장인 Lindsay Tomlinson은 두 기관의 합병을 통해 펀드운용사들에 대한 정책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
 - 합병 진행 기간 중 회원사들과의 만남도 가져 합병에 따른 주위 견해를 참고할 계획이며, 2002년 초에 합병이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짐
- AUTIF는 영국에서 인가된 Unit Trust와 개방형 펀드에 대한 펀드운용사들을 대표하며 AUTIF의 회원사들은 총 £2,130억의 수탁고를 보유
 - FMA는 AUTIF의 회원사를 포함하여 £2조2,000억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는 영국 주재 주요 펀드운용사 70개사 이상을 대표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www.investmentfunds.org.uk)

○ MLIM이 당시 제시한 포트폴리오 세부 자료에 대해 인정한 Unilever (영국)

- Unilever의 CIO인 Wendy Mayall은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이하 MLIM, 합병 전 Mercury Asset Management)에 의해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했음
- MLIM의 변론을 맡은 Lan Glick은 1996년 하반기에 Unilever를 위해 준비되었던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했음
 - 그 보고서는 MLIM이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상세한 내역이 기록돼 있으며, 당시 이를 Unilever에 제출했었음
- Glick은 MLIM이 구성한 포트폴리오 내역이 당시 FTSE All Share 지수의 구성 비율과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했었다고 함
 - Mayall도 이에 대해 인정했으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당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
 - MLIM은 당시 포트폴리오의 47%를 단지 10개의 주식에 편중해서 투자했으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
- MLIM측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구성 내역에 대해 Unilever에게 충분히 알렸음을 입증한 셈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

○ 태국 유동성 지원 주식형 펀드에 \$7,500만을 위탁한 CalPERS (태국)

- The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이하 CalPERS)은 태국의 자국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립한 주식형 펀드에 \$7,500만을 위탁하기로 결정했음
 - 태국 정부 주도로 구성된 \$2억5,000만 규모의 이 주식형 펀드는 10월 29일 태국 경제 개혁 및 자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다른 해외 기관투자자들인 IFC, Asian Development Bank의 경우도 이 펀드에 각각 \$3,750만, \$2,500만을 위탁하기로 결정했음
- CalPERS에 의해 합병된 Lombard Investment Inc.는 이 펀드를 운용할 태국 자국내 운용사인 MFC Asset Management를 지원할 예정임
 - Lombard의 관계자는 이 펀드 자산 중 \$1,500만~\$2,000만을 서비스업, 호텔, 통신, 비은행 금융서비스, 소비자재 생산 등에 있는 상장·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11월

November

10대 해외 기사

1.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의 상품 설계에 대해 공개적 의견을 구하는 SEC (미국, 13일)
2.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 발행 중지와 관련된 시장 반응 (미국, 14일)
3. 1998년 소송 해결을 위해 \$650만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Franklin (미국, 22일)
4. Unilever 소송 사건 전개 과정 (영국, 13일, 21일, 29일, 30일)
5. 영국 연금펀드 운용사에게 적절한 성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경고하는 S&P (영국, 16일)
6. 각출금 감소에 대한 경고를 한 ACA (영국, 23일)
7. 중국에서 ETF 상품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BGI (중국, 19일)
8. FTSE 지수로 벤치마크를 교체한 홍콩 SSPF (홍콩, 6일)
9. 펀드 운용사의 환매 의무를 강조한 HKSF (홍콩, 27일)
10. 12월 3일부터 Free-Floating 지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MSCI (홍콩, 28일)

◆ 11월 해외 목차 (11/1-11/10)

11/1 (THU)	○ Unilever에 대해 적극적인 위험 감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MLIM (영국)
11/2 (FRI)	○ 탈출구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아시아 Venture Capital Funds (아시아)
11/3 (SAT)	
11/4 (SUN)	
11/5 (MON)	○ 스페인에서 펀드 판매망을 구축한 Nomura (일본) ○ Unilever 소송에서 MLIM측의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Galley (영국)
11/6 (TU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펀드 운용을 확대하려는 Pimco (미국) ○ FTSE 지수로 벤치마크를 교체한 홍콩 SSPF (홍콩)
11/7 (WED)	○ 프랑스에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한 Allianz-Dresdner (프랑스)
11/8 (THU)	○ 이태리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려는 Gartmore (이태리) ○ 퇴직저축 제도의 투자 조언을 승인한 하원의 The Way and Means Committee (미국) ○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Mercer (영국)
11/9 (FRI)	○ 투자자로부터 인기가 증가되고 있는 ETF (영국)
11/10 (SAT)	

◆ 11월 해외 목차 (11/11-11/20)

11/11 (SUN)	
11/12 (MON)	○ 장기 투자 성향을 띄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미국)
11/13 (TUE)	○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의 상품 설계에 대해 공개적 의견을 구하는 SEC (미국) ○ MLIM측의 변론을 위해 법정에 나선 전 펀드매니저 Lennard (영국) ○ 펀드 합병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SEC (미국)
11/14 (WED)	○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 발행 중지와 관련된 시장 반응 (미국)
11/15 (THU)	○ 세 번째 뮤추얼펀드 설립을 승인한 중국 (중국) ○ 준비금 요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연금관리 기관 (덴마크) ○ 경제 회생을 예견하는 Magellan Fund의 펀드매니저 Stansky (미국) ○ 테러 충격이 심한 퇴직저축제도에 대해 보고 기한을 연장한 IRS (미국) ○ 판매전략을 수정한 American Century Investment (미국)
11/16 (FRI)	○ 영국 연금 펀드운용사에게 적절한 성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경고하는 S&P (영국) ○ 비상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간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산업 (미국)
11/17 (SAT)	
11/18 (SUN)	
11/19 (MON)	○ 중국에서 ETFs 상품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BGI (중국) ○ 2000년 401(k) plan의 자산 배분, 계정잔고, 및 대출 현황 (미국)
11/20 (TUE)	○ 침체된 세계 경제에 비해 경제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미국)

◆ 11월 해외 목차 (11/21-11/30)

11/21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nard의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증언한 Harwood (영국) ○ 중국 본토와 연계된 홍콩 주식으로 구성된 BGI의 ETFs (중국) ○ 하향 허용수익률을 목표수익률과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증언한 Richards(영국)
11/22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소송 해결을 위해 \$650만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Franklin (미국) ○ 투자 컨설팅사의 잘못을 지적한 MLIM측의 마지막 증인인 Stanyer (영국) ○ Thomson사 인수를 계기로 영국 IFA 시장에 진입한 독일 AWD사 (영국) ○ 동경증권거래소에 Reits 주식의 상장을 연기한 Goldman Sachs (일본)
11/23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출금 감소에 대한 경고를 한 ACA (영국) ○ 중국 지역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 설립을 계획 중인 Allianz (중국)
11/24 (SAT)	
11/25 (SUN)	
11/26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 투자회사법 중 Rule 17f-4의 개정안을 제의한 SEC (미국)
11/27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운용사의 환매 의무를 강조한 HKSCFC (홍콩) ○ 펀드 주권에 대한 해석을 승인한 IASB (미국)
11/28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3일부터 Free-Floating 지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MSCI (홍콩)
11/29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구성 내역을 변경한다고 밝힌 말레이시아 연금 펀드 (말레이시아) ○ 1년 동안의 MPF 성과를 발표한 MPFSAC (홍콩) ○ MLIM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두한 Stanyer (영국)
11/30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IM이 부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Bagot (영국) ○ 투자자에 대한 세금 완화 조치를 의회에 요청한 미 펀드 업계 (미국) ○ Enron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일본 자산운용사 (일본)

◆ 2001년 11월 1일 목요일

- Unilever에 대해 적극적인 위험 감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MLIM (영국)
-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이하 MLIM, 합병 전 Mercury Asset Management)는 Unilever와의 재판 과정에서 Unilever가 포트폴리오 위험의 감시·감독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
 - 1997년 5월경 MLIM이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자 Unilever는 이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표시했음
 - MLIM은 즉시 담당 펀드매니저를 교체하고 성과 회복 계획을 Unilever에게 제출했음
 - 이 계획안은 급진적인 포트폴리오 위험 해소 방안이 아니라, 점진적인 위험 해소 방안임
 - MLIM의 변호를 맡은 Lam Glick은 Unilever가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당시 이 계획안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임을 Unilever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 Unilever는 MLIM과 소극적인 방관자의 관계가 아니며, 이러한 투자 행위에 무지할 만한 기관도 아니라고 강조
 - 반면, Unilever의 당시 투자 담당 책임자인 Wendy Mayall은 Unilever는 MLIM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는 MLIM의 주업무라고 지적
 - MLIM은 그 동안 위험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Unilever가 굳이 MLIM의 투자활동 사항을 검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 Mayall은 고객이 운용사의 투자 시스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언급
 - Unilever와 MLIM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2일 금요일

○ 탈출구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아시아 Venture Capital Funds (아시아)

- 최근 급진적인 전환기 시점에서 아시아의 신생기업 및 최초기업공개 (IPO)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Venture Capital Fund들은 그들이 쉽게 투자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탈출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함
- Venture Capital Fund의 주요 투자 고려 요인
 - 첫째, 높은 수준의 경영진
 - 둘째,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업활동
 - 셋째, 투자된 기업으로부터 투자에서 손을 뗄 수 있는 탈출 가능성
- Morgan Stanley Dean Witter Asia의 주식시장 부사장인 Taylor Wright는 Venture Capital Fund의 투자 조건으로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규제,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을 꼽고 있다고 언급
 - 그는 가령, 중국의 경우 큰 기회를 가진 국가이지만, 규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투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이는 Venture Capital Fund의 투자 탈출구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도 불안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Venture Capital Fund의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1월 5일 월요일

○ 스페인에서 펀드 판매망을 구축한 Nomura (일본)

- Nomura Asset Management는 스페인에서 뮤추얼펀드 판매회사로 특화된 Allfunds Bank와 첫 번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음
 - 이로써 Allfunds는 Luxembourg에 주소를 두고 있는 Nomura에 의해 운용되는 뮤추얼펀드를 스페인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될 예정임
 - Nomura가 운용하는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그 운용 범위는 일본, 동유럽, 아태 지역과 Asian Infrastructure, 미국 high-yield fixed income 펀드 등임
- 연초에 Nomura는 스웨덴에서 7번째로 큰 규모 (Skr150억)의 연금 펀드인 A-P Fonden의 일본 주식 부문 적극적 펀드운용사로 지정된 바 있음
 - 당시 A-P Fonden 자산의 7%인 Skr10억 (euro1억500만)의 운용을 맡게 되었으며, 그 위탁 규모가 향후 Skr15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Nomura Asset Management 그룹은 \$1,780억 (euro1,990억)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Unilever 소송에서 MLIM측의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Galley (영국)

-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이하 MLIM)의 공동사장인 Carol Galley는 Unilever 대 MLIM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반대 심문을 가졌음
 - MLIM의 핵심 증인인 Galley는 심문 과정에서 동정어린 태도로 재판 과정을 성의껏 돕겠다고 호소했음
- Unilever측의 변호사인 Jonathan Sumption은 1993년에 Unilever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업무를 Galley로부터 인계받은 Alistair Lennard를 주목했음
 - 업무 인계 당시 Galley가 40대 후반인 반면, Lennard는 단지 27세에 불과했음
 - Sumption은 Lennard가 일을 맡은 이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이 배가되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Galley는 당시 MLIM은 펀드매니저들이 27~35세 사이의 나이에서 가장 최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
 - Galley는 MLIM에서는 Lennard가 업무 수행시 자기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현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으며, 업무 팀 내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어 독단적인 업무 행태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
 - Galley는 펀드 내의 포트폴리오 위험 증가는 Lennard 자신의 책임보다는 전체적인 펀드 운용을 주도하는 MLIM 회사 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언급
 -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영국 연금산업과 펀드산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됨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6일 화요일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펀드 운용을 확대하려는 Pimco (미국)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펀드 운용 그룹 Pimco는 향후 개선될 운용 전략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는 3/4분기 당시 Pimco의 우수한 자산운용 성과 이후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채권 운용을 강화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
- Pimco의 부회장인 Douglas Hodge는 직접 동경으로 거처를 옮기고 Pimco의 공동회장인 Brent Harris와 James Muzzy에게 운용 현황을 보고할 예정임
 - Pimco는 Hodge의 진두지휘 하에 일본 시장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엔화 자산의 운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Pimco는 현재 \$110억 (euro123억) 규모의 아시아 지역 자산을 운용 중이며, 이중 일본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가 \$50억에 이릅니다
 - Pimco는 1998년 1월 이후 최근까지 Goldman Sachs의 동경 지사장을 역임한 Makoto Takano를 일본의 새 지사장으로 선정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FTSE 지수로 벤치마크를 교체한 홍콩 SSPF (홍콩)

- Hong Kong Subsidized Schools Provident Fund (이하 SSPF) 관계자는 펀드 내 벤치마크로 이용돼 왔던 MSCI 지수를 FTSE 지수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 이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 (MSCI 지수 제공)에 의해 시장이 장기 지배돼 왔던 벤치마크 서비스업계에서 일대 혁명으로 간주됨
- FTSE의 CEO인 Mark Makepeace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SSPF의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벤치마크를 변경하도록 설득시키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라고 역설
 - 그는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도 지난 해 말부터 벤치마크로 FTSE All-World Index를 사용해 왔다고 언급
- FTSE 지수는 MSCI 지수에 비해 투자자 및 펀드운용사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free-float 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임
 - free-float 조정 방법이란 주식이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는 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수 산정 방식으로 정부가 장기 보유한 주식이나 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비유동적인 주식은 전체 주식수에서 차감하여 계산됨
- SSPF는 FTSE All-World Index를 홍콩 주식시장을 위한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선진시장 지수로 사용할 계획임
 - SSPF는 MSCI의 모호한 지수 종목 선택에 반대했으며, FTSE의 보다 폭 넓은 지수 대표성과 규정에 근거한 운영 방법론 등이 FTSE 채택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밝힘
- London Stock Exchange PLC와 Financial Times Ltd.의 합작회사인 FTSE는 현재 MSCI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MSCI의 웹사이트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기관투자가 주식 보유분의 90% 이상이 MSCI 지수를 벤치마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시장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1월 7일 수요일

○ 프랑스에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한 Allianz-Dresdner (프랑스)

- Dresdner Bank와 보험회사인 Allianz는 AGF Asset Management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프랑스에서 펀드운용업을 시작할 계획임
 - AGF Asset Management는 Allianz가 소유한 세계 금융 서비스 그룹인 AGF와 Dresdner의 프랑스 투자기관인 Dresdner RCM Gestion이 합병하여 탄생된 회사임
 - AGF Asset Management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현재 euro540억 (\$490억) 자산을 운용 중이며, 프랑스에서 가장 큰 펀드운용회사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AGF Asset Management는 현재 종업원 215명과 60명의 펀드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연초에 Allianz와 Dresdner와의 합병 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며, 지난 6월 양사간의 세계 펀드운용업을 합병하면서 Allianz Dresdner Asset Management가 설립되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8일 목요일

○ 이태리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려는 Gartmore (이태리)

- Gartmore Investment Management는 이태리에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Milan에 영업 지점을 개설했음
 - 지점장으로 ING Investment Management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Nicola Meotti를 임명했음
- Gartmore는 기존 이태리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 상품에 비해 색다른 투자 스타일의 상품들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Gartmore의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로부터 대체상품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의 범위가 다양함
- Gartmore는 현재 £440억 (euro718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임
 - Gartmore는 자사 지분의 90%가 미국 주재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회사의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퇴직저축 제도의 투자 조언을 승인한 하원의 The Way and Means Committee (미국)

- 11월 7일 하원의 The Way and Means Committee는 "Retirement Security Advice Act of 2001" (이하 H.R.2269)을 25대 15의 투표 차로 승인했음
 - The Way and Means Committee는 H.R.2269의 내국세법 조항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
 - 지난 10월 The House Education and Workforce Committee에서 H.R.2269가 승인된 바 있음
 - H.R.2269는 내국세법의 Section 4975에서 금지된 거래 규정에 대한 법적인 면제 조항을 제공하고 있음
- The Way and Means Committee는 H.R.2269의 내국세법 조항에서 요구된 정보 공시의 빈도에 대한 사항을 수정했음
 - 특히, 이 위원회는 최초 투자 조언 규정과 함께 한 번에 합리적이며 동시적인 공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조언자 (fiduciary adviser)는 특별한 수수료 없이 매년 투자 조언을 받는 자에게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수탁조언자는 투자 조언을 구하는 자의 요청에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중대한 변화 발생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음 (자료: ICI)

○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Mercer (영국)

- 펀드 컨설팅 회사인 William M. Mercer는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에게 one-stop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운용사인 Attica Asset Management와 업무제휴를 했다고 밝힘
 - 이 투자 서비스의 명칭은 Mercer 360으로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Mercer의 정보 제공 능력과 연금 펀드를 운용해 왔던 Attica의 적절한 펀드 운용 전략의 기술력을 합친 것임
- Mercer 360의 서비스에서 고려 대상인 펀드의 규모는 £5,000만 (euro8,160만) 이하이며, 이미 Mercer에 의해 2,000개 이상의 펀드가 투자 서비스를 제공 받았음
 - Mercer 360은 시간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위탁받은 자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구조임
- 한 시장 관계자는 Mercer가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는 연금 펀드의 수탁회사들이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9일 금요일

○ 투자자로부터 인기가 증가되고 있는 ETF (영국)

- 지난 해 Exchange Traded Funds (ETFs)가 London Stock Exchange (이하 LSE)에 도입된 이후 투자자로부터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
 - LSE에 따르면 현재 LS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ETF는 총 13개이며, 지난 10월의 경우 3,000번의 거래에 거래대금 £8억 (euro13억)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음
 - 미국의 경우 American Stock Exchange에서 미국 전체 ETFs 거래의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 규모가 1995년 말 \$10억 (euro11억)에서 2001년 6월 말 \$860억으로 급속히 성장했음
- ETF는 거래소에서 NAV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ETF 주식 시가와와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ETF 주식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음
- ETF의 가장 큰 운용사 중의 하나인 BGI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ETF의 간편성, 분산투자, 낮은 비용, 투명성 등의 장점을 이해한다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
 - 영국 ETF 상품 중의 하나이며 BGI의 상품인 iFTSE 100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80%의 성장을 기록할 만큼 투자자들의 ETF 상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12일 월요일

○ 장기 투자 성향을 띄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미국)

- ICI에서 발표한 보고서 "2001 Profile of Mutual Fund Shareholders"에 따르면 미국의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단기 시장 변동에 연연하지 않으며, 퇴직 이후 노후 설계 같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ICI는 이 보고서를 위해 2001년 5~6월 사이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가계의 투자 의사결정자 2,5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음
- ICI의 사장인 Matthew P. Fink는 교육 및 퇴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인들이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데 뮤추얼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
 - 뮤추얼펀드의 이점인 전문적 투자 운용, 분산투자, 다양한 투자안 선택, 유동성, 엄격한 규제와 효과적인 공시 시스템 등이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의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역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97%는 뮤추얼펀드가 장기적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2%는 그들의 첫 번째 뮤추얼펀드 투자 목적은 퇴직 후 노후 설계를 위한 것으로 조사됨
 -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82%는 단기 시장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뮤추얼펀드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47%는 그들의 첫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가 1990년 이전이었으며, 39%는 1990~1997년 사이, 나머지 14%는 1998년 이후라고 보고됨
 -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의사결정자들은 평균 46세로 ⅓가 기혼이며, 50% 이상이 대학 졸업자이고, 직장인이 78%로 연 평균 소득이 \$62,100임
 -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전형적인 미국 가계는 뮤추얼펀드에 약 \$40,000을 투자하며, 4개의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 중 뮤추얼펀드 비중이 40%를 차지함
 -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미국 가계는 십중 팔구 주식형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미국 가계가 소유한 전체 뮤추얼펀드에서 주식형 펀드가 65%를 차지함
 -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57%가 그들의 첫 뮤추얼펀드 주식 구입은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 (이하 DC plan)를 통해서였다고 조사됨
 -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31%는 그들의 뮤추얼펀드가 DC plan을 통해서, 38%는 DC plan과 상관없이 소유되고 있으며, 31%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의해서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됨 (자료: ICI)



◆ 2001년 11월 13일 화요일

-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의 상품 설계에 대해 공개적 의견을 구하는 SEC (미국)
 - SEC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 (actively managed Exchange Traded Funds)의 상품 설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Concept Release를 발표
 - SEC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 상품 설계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밝힘
 -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는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와 유사한 점이 있을지라도 두 상품간 중대한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투명하지 못해 Creation Unit의 설정과 환매 과정을 어렵게 한다던지 차익거래자들에게 보다 큰 투자 위험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음
 - 이는 비효율적인 차익거래 시스템을 초래하여 거래소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ETF 증서가 거래될 수 있음 (자료: ICI)

- MLIM측의 변론을 위해 법정에 나선 전 펀드매니저 Lennard (영국)
 -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 (이하 MLIM)의 펀드매니저 역할을 담당했던 Alistair Lennard가 Unilever 대 MLIM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반대 심문에 대한 증언을 했음
 - Lennard는 MLIM 영국 영업소의 공동 사장인 Carol Galley의 후임으로 와서 1993년부터 1997년 5월까지 Unilever Superannuation Fund의 펀드매니저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3년 당시 27세였음
 - Lennard는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벤치마크되는 지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
 - 그러나, 펀드매니저인 자신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포트폴리오에 반영되었다고 언급
 - Unilever의 변론을 맡은 Jonathan Sumption은 이러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Lennard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성이 전제되어 있는 지를 질문했음
 - Lennard는 펀드매니저들이 판단하는 상황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이 때 자신의 판단력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 이러한 것이 펀드매니저인 자신에게 있어 합리성이라고 진술했음
 -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펀드 합병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SEC (미국)

- SEC는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하에 있는 Rule 17a-8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음
 - Rule 17a-8은 계열 투자회사 사이의 합병과 기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의 허용과 관련된 규정임
- 수정안은 사전에 SEC의 면제 규정에서 제시되었던 완화 내용들을 주로 법령화하고 Rule 17a-8 규정에 의해 규제가 면제된 기업결합 유형을 확대하는 것임
 - 수정안 내용 중에 등록된 투자회사와 등록되지 않은 투자회사간 합병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Rule 17a-8의 수정안은 이사회 결정, 주주 투표, Echo Voting, 장부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이 수반됨
- SEC는 Rule 17a-8의 수정안과 관련된 논평을 2002년 1월 18일까지 받을 예정임 (자료: ICI)



◆ 2001년 11월 14일 수요일

○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 발행 중지와 관련된 시장 반응 (미국)

- 채권 펀드매니저들의 경우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발행 중지와 관련하여 그들의 운용 전략 및 위탁 계약 등을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시장에 채권형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난 10월 31일 미국 재무성은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발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재무성 채권은 미국 정부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채권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미국 정부의 완전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은 펀드 투자가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지 못했음
 -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의 데이터에 기록돼 있는 총 1,034개의 과세 채권형 펀드 중 재무성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불과 50개에도 미치지 못했음
 - 10월 31일 현재 \$8,740억 규모인 전체 채권형 펀드에 비해 재무성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는 \$160억 규모에 불과한 실정임
 - 이로 인해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조치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실제로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은 회사채, MBS, 만기가 30년 보다 짧은 재무성 채권을 혼합한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1977년에 도입된 이후 전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로 이용돼 왔음
 - 재무성에서 발행이 중지되기는 했지만 유통시장에서는 약 \$3,200억 이상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는 3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의 기능을 가름할 만한 채권들이 있어 펀드 내에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Fannie Mae, Freddie Mac과 같은 준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MBS와 Agency Bond 등이 있으며, 이들 또한 재무성 채권만큼 안전한 것으로 판단돼 왔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1월 15일 목요일

○ 세 번째 뮤추얼펀드 설립을 승인한 중국 (중국)

- China Asset Management Co.는 중국의 세 번째 뮤추얼펀드 설립에 대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 이 펀드의 명칭은 China AMC Growth Fund이며, 세부 사항은 11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임
- 중국 당국은 변동성이 심한 중국 주식시장에서 전문적인 운용 및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뮤추얼펀드를 도입했음
 - 동시에 은행 예금에 예치돼 있는 유휴 자금의 운용을 돕기 위한 배려도 포함돼 있음
- 지난 9월에 설립된 첫 두 개의 뮤추얼펀드는 자국 내 시장이 아주 가혹한 침체 상태시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지 못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두 펀드의 성과가 고르지 않음
 - 11월 9일 현재 첫 번째 뮤추얼펀드인 Huaan Innovation Fund는 1좌당 NAV가 yuan1.002인 반면, 두 번째 뮤추얼펀드인 China Southern Stable Growth Fund는 yuan 0.9989임
 - 두 펀드 모두 설립시 1좌당 yuan1로 판매되었음
- China Asset Management Co.는 이들 펀드들이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펀드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상기시켜 왔다고 언급
 - 현재 China Asset Management Co.는 5개의 폐쇄형 펀드를 운용 중이며, 그 자산 규모는 yuan65억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준비금 요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연금관리 기관 (덴마크)

- 덴마크의 연금관리 기관들은 안정적인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준비금 요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음
 - 덴마크의 보험 및 연금산업협회 (Insurance and Pension Industry Association)는 준비금 요건이 안정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 시장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보유 상태를 시장에 알려야 하며, 규제당국이 철저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임
 - 시장 침체에 따라 최대규모인 PFA Pension을 포함한 많은 덴마크 연금 관리기관들이 장부상의 손실을 경험했으며, 규제당국은 이들 연금 관리기관에 긴급 구제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경제 회생을 예견하는 Magellan Fund의 펀드매니저 Stansky (미국)

- Fidelity Magellan Fund의 펀드매니저인 Robert Stansky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향후 경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경제적 반등을 대비하여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연방금리 인하와 떨어진 주가 및 에너지 (원유 등) 가격 인하 등을 들고 있음
- 일반적으로 Stansky의 견해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는 그가 운용하는 Magellan Fund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 (\$733억)의 펀드이기 때문
 - Vanguard 500 Index Fund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펀드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인덱스 펀드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로서는 Magellan Fund가 최대 규모임
- Stansky는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빈약한 기업 수익, 역사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는 많은 주식들, 테러 사태의 충격 등으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
 - Stansky는 금융 및 소매업 같이 개선될 경제 상황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식에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취해 왔다고 언급
- 11월 12일 Magellan Fund는 금년 들어 14.2%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S&P 500 지수와 대략 비슷한 성과임
 -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동급 부류의 펀드들 중에서 3번째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Fidelity는 3년간의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S&P 500 지수의 성과를 능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운용수수료를 확보하게 되었음
 - 지난 3년에 걸쳐 Stansky의 운용 성과는 S&P 500에 비해 약 1%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한편, 지난 9월 30일까지 6개월간 Magellan Fund는 S&P 500 지수를 능가한 것에 따른 추가분 \$6,900만을 포함하여 \$3억880만의 운용수수료를 받았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테러 충격이 심한 퇴직저축 제도에 대해 보고 기한을 연장한 IRS (미국)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는 2002년 2월 28일까지로 마감되었던 적격 퇴직저축 제도 (이하 제도)에 대한 GUST 수정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Revenue Procedure 2001-55를 발표했다
 - GUST는 영문으로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GATT), Uniform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USERRA),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SBJPA), Taxpayer Relief Act of 1997 (TRA '97)를 지칭함
 - GUST란 1994년 이후 적격 퇴직저축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규정들이며 적격 퇴직저축 제도들이 추가 및 변화돼 왔던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GUST 요건을 갖춘 서류를 IRS에 제출해야 함
- 수익 보고 절차의 경우 9월 11일 테러 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도를 위해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출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됨
 - 수익 보고 절차는 IRS의 재량껏 하되 테러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경우 IRS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음
- 다음의 사항들이 맨하탄 북쪽 14번가에서 테러 공격을 받았다면 테러 공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도로 간주함
 - 제도를 두고 있는 사용자의 주요 영업 장소
 - 제도나 제도 관리자들의 사무실
 - 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주요 장부 기록 사무실
 - 제도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 등록된 보험 계리인, 공인회계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무실 (자료: ICI)

○ 판매전략을 수정한 American Century Investment (미국)

- 주식시장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American Century Investment사는 제3자에 의한 펀드 판매로 판매 전략을 수정하였음
 - American Century Investment사는 뮤추얼펀드를 직접판매하였으나, 투자자문사 등 제3자를 통한 펀드 판매로 전략을 수정하였음
 - 전문적인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듣고 펀드를 구입하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문사 등 제3자를 통한 펀드 판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투자자들의 구매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펀드를 직접판매하는 기업들이 제3자를 통한 펀드 판매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최근 판매된 American Century Investment사 펀드의 70%가 투자자문사 등 제3자를 통해 판매되었음
- 판매 전략의 수정과 함께 채권형 뮤추얼펀드의 통합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12월내로 38개의 뮤추얼펀드를 32개의 펀드로 통합할 계획이며, 펀드의 통합에 따라 3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포함한 6명이 해고될 것임
 - American Century Investment사는 200명의 종업원에게 이직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64명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1월 16일 금요일

○ 영국 연금펀드 운용사에게 적절한 성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경고하는 S&P (영국)

-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영국의 펀드운용사들이 Stakeholder Pensions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성과 표준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펀드가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만약 보편적인 성과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판매 광고를 통해 미래의 Stakeholders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 10월까지 5명 이상의 적격 종업원이 있는 영국 기업들은 Stakeholder scheme에 대한 계획을 펀드운용사에게 제공해야 함
- Stakeholder Pensions는 Unit Trust와 연계된 기초자산의 구성이 운용사마다 다양하며, 기존의 펀드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음
 - 과도했던 연간 운용보수의 경우도 1% 이하로 줄었음
- 모든 Stakeholder scheme들은 수수료 체계나 각출 수준에 관한 규정 등이 대부분 유사한 편임
 - 따라서, Stakeholder scheme 제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의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펀드 성과 통계량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임
 - 채택된 성과 표준이 없다면 새로운 Stakeholder scheme이 실시된 4월 이후 다른 연금상품과 성과가 어떻게 비교될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비상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간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산업 (미국)

- 9·11 테러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62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켜 정부 차원에서의 규칙 및 규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McKinsey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통신망은 일반적으로 테러 공격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안적인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
 - 규제당국은 테러 등 재앙에 대비하여 예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금융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테스트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Mckinsey는 보고서에서 기업간 시스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산업 전반에 걸친 테스트가 규제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기업들은 자사의 예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경쟁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에는 주저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산업은 일상적인 정보통신 수단이 사용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네트워크 망의 구축이 필수적임
- SEC 의장 Harvey Pitt는 기업의 규모가 상이하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규제당국차원의 규칙 및 규정의 제정은 불가능하며, 금융산업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자료: Financial Times)

◆ **2001년 11월 19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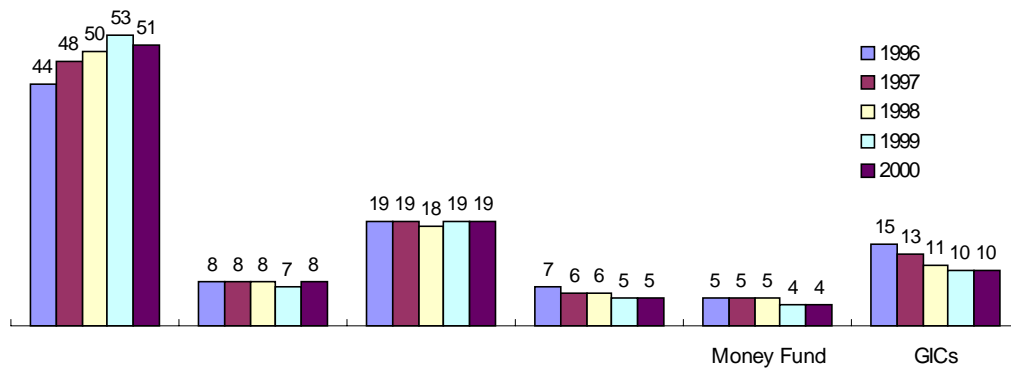
○ 중국에서 ETFs 상품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BGI (중국)

- ETFs (Exchange Traded Funds) 전문 자산운용사인 Barclays Global Investors (이하 BGI)는 11월 내에 중국에서 ETFs 상품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 펀드의 명칭은 iShare MSCI China Tracker이며, MSCI China Free index를 추정할 것으로 알려짐
 - 이 펀드는 중국 본토 주식과 연계된 첫 ETFs 상품이며, 지정된 지수에 2개의 펀드가 설립될 예정임
- MSCI China Free index는 31개의 중국 관련 주식으로 구성돼 있으나, 중국 본토 주식은 단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임
 - 중국의 2개 주식은 심천의 Class B 주식시장에 상장된 Guangdong Electric Power Development와 상하이 Class B 주식시장에 상장된 Eastern Communications Co.임
 - Class B 주식은 외국인들에게 거래가 허용된 주식임
- BGI의 동북 아시아 책임자인 Joseph Ho는 11월 내에 중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Ho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상품 승인을 획득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은 거절했으며, 상품 승인을 위한 지원서는 제출했다고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0년 401(k) plan의 자산 배분, 계정잔고, 및 대출 현황 (미국)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이하 ICI)와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이하 EBRI)는 2000년 401(k) plan 참여자들의 자산 배분, 계정잔고 및 대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표본은 1999년 EBRI/ICI 데이터베이스의 401(k) plan 참여자 1,7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음
- 2000년 동안 401(k) plan 참여자의 평균적인 자산 배분은 상당한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9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401(k) plan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51%, 자사주에 19%, GICs에 10%, 혼합형 펀드에 8%, 채권형 펀드에 5%, Money Fund에 4%를 투자하고 있음
 - 여기서 펀드란 뮤추얼펀드, 은행의 collective trusts, 생명보험사의 분리계정 및 모든 집합투자 자산을 의미함
 - 401(k) plan 참가자들은 젊은층일수록 주식형 펀드를 선호하고 노년층일수록 GICs나 채권형 펀드에 좀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401(k) plan이 자사주 혹은 GICs를 투자 옵션으로 제공할 경우 참가자들의 주식형 펀드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401(k) plan의 평균 자산 배분 (1996~2000, 단위: %)



* 비중이 작은 투자 옵션의 경우 고려되지 않아 자료의 합계가 100%가 안될 수 있음

— 1999년과 2000년 양 연도에 걸쳐 401(k) plan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평균 계정잔고는 1999년에 비해 0.1% 감소했음

- 20대는 평균 계정잔고가 27% 증가한 반면, 60대는 경우 6% 감소

— 양 연도 모두 가입된 참여자의 연령별 평균 계정잔고

	평균 계정 잔고		변화율 (%)
	1999	2000	
평균	\$58,850	\$58,774	-0.1
20대	\$8,219	\$10,431	26.9
30대	\$31,518	\$33,125	5.1
40대	\$62,059	\$62,694	1.0
50대	\$98,139	\$95,836	-2.3
60대	\$122,240	\$115,206	-5.8

※ 1999년과 2000년 말 현재 양 연도에 401(k) plan의 계정잔고를 보유한 830만명의 선택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2000년에 금융시장이 심한 변동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1(k) plan 참여자의 대출 행태에 큰 변화가 없었음

- 2000년 말 현재 대출에 적합한 401(k) plan 참여자들 중 18%만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신청 비중이 많지는 않음 (자료: ICI)

◆ 2001년 11월 20일 화요일

○ 침체된 세계 경제에 비해 경제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시장 등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반면, 러시아의 경우 1998년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최근 들어 경제적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다년간의 러시아 경제적 개혁 이후, 소비가 10% 상승했으며, 예전 Soviet Union의 GDP가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 따르면 지난 해 말 ING Groep NV에 의해 매입된 Pilgrim Russia Fund의 경우 최근까지 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지역 펀드가 되었음
 -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경우 거의 14% 하락했음
 - Pilgrim Russia Fund의 경우 러시아 주식에 90~9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에 투자함
 -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2/3는 석유와 가스회사인데, 이들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유동적인 주식이며 러시아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음
 - 러시아에는 빈약한 은행시스템, 계약법 (contract laws)을 강화하기에 부적절한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근대적인 기업 통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거의 없는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
 - 특히, 러시아의 모호한 금융보고 기준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의 주요 장애 중의 하나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미국)

-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형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Lipper사에 따르면 9월에는 주식형 뮤추얼펀드로부터 \$295억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10월에는 \$16억의 순유입이 이루어졌음
- 주식형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위험이 적은 펀드나 분산투자가 잘 이루어진 펀드를 선호하고 있음
 - 주식형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17억을 순유입한 기관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거의 없었음
 - 일반투자자의 경우 과거 2년 동안의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입은 손해에 집착하여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꺼리고 있음
 - Lipper가 발표한 현금흐름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주식형 펀드의 환매규모는 \$320억 이었지만 혼합형 펀드의 환매는 \$250억에 불과하였음
-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꺼리고 있지만 결국은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리라 예상됨
 -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MMF로 몰림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MMF 수탁고는 올 1월 이후 최고인 73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많은 투자전문가들은 MMF 수탁고의 상당부분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11월 한달 동안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Baltimore Fund사는 9월 이후 주식형 및 채권형 뮤추얼펀드로 MMF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

○ Lennard의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증언한 Harwood (영국)

- Paul Harwood는 1997년 5월 Unilever 펀드의 포트폴리오 운용을 이어받은 Lennard의 위험관리에 대한 논평을 위해 MLIM 대 Unilever 재판에 출두했음
 - Harwood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MLIM 특별팀의 팀장이었음
- Harwood에 따르면 1997년 5월에 인도 받은 Unilever의 포트폴리오는 FTSE All Share index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시 general industrial sector에 25%만큼 과중한 투자를 했다고 밝힘
 - 이는 Unilever가 목표로 삼고 있는 벤치마크 대비 1% 수익률 달성을 고려하면 Lennard의 운용이 펀드매니저의 신중한 위험관리 측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
 - Harwood는 펀드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 제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중국 본토와 연계된 홍콩 주식으로 구성된 BGI의 ETFs (중국)

- ETFs 전문 운용사인 Barclays Global Investors (이하 BGI)는 11월 28일 중국에서 설립 계획 중에 있는 ETFs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BGI의 동북 아시아 책임자인 Joseph Ho는 이와 관련하여 추종 지수인 MSCI China Free index에 최대한 가깝게 상품 설계를 할 것이라고 언급
- Ho는 이와 더불어 중국 본토 주식인 Guangdong Electric Power Development와 Eastern Communications Co.가 지수 구성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MSCI China Free index는 31개의 중국 관련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본토 주식은 위에서 언급된 2개 주식 뿐임
 - 이 2개 주식은 추종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81%, 0.37%에 불과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홍콩과 상이한 결제 제도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 MSCI China Free index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China Mobile로 지수 비중의 54.89%를 차지함
 - MSCI China Tracker Fund의 1 creation unit은 200개의 주권으로 분배되며, 각 주권당 지수의 1/100 비율로 가격이 표시됨
- Ho는 이 펀드를 통해 WTO 이후 경제적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본토에 대해 ETFs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하방 허용 수익률을 목표수익률과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증언한 Richards (영국)

- MLIM 재직 중 부진한 성과를 달성한 Unilever Superannuation Fund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감시·감독했던 John Richards가 MLIM 대 Unilever 소송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두했음
- Richards는 벤치마크 대비 목표수익률 달성과 함께 벤치마크 대비 하방 허용 (downside tolerance) 수익률의 준수도 펀드매니저 역할의 하나라고 언급
 - Unilever Superannuation Fund의 목표 수익률은 최소 펀드 평가 기간인 3년간 펀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간 벤치마크 대비 1%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임
 - 동시에 이 목표수익률과 함께 벤치마크 대비 하방 허용 수익률은 매년 -3%임
 - Richards는 -3% 하방 허용 수익률이 1%의 목표수익률과 함께 동등한 비중으로 부가적 펀드 운용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용 방침 아래 펀드매니저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주장
- 그러나, 이는 지난 주에 법정에 섰던 MLIM의 런던 지사장인 Carol Galley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견해임
 - Galley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펀드매니저가 동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22일 목요일

○ 1998년 소송 해결을 위해 \$650만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Franklin (미국)

- Franklin Resources Inc.는 1998년 펀드 성과 손실에 대한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650만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힘
 - Franklin의 Templeton Vietnam and Southeast Asia Fund 현·전 주주들은 1998년 펀드매니저 Mark Mobius가 주주 승인 없이 베트남 지역 외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펀드 손실의 책임을 물어 펀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음
 - 현재 수탁자가 \$3,400만인 이 펀드는 당시 Templeton Vietnam Fund로 불리워졌으며, 폐쇄형 펀드로 주로 베트남 지역의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음
 - 만약 이 소송이 미국 지역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펀드에 대한 문제를 펀드 이사회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몇 안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Franklin은 이 소송의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된 펀드에 적어도 \$200만을 지급하는데 동의했으며, 이는 펀드 자산 및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됨
 -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위한 여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997년 10월 1일과 1998년 1월 19일 사이에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 이 소송은 베트남 지역 전문 펀드가 베트남 기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펀드 이사회가 펀드를 청산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탁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건임
 - 이 펀드는 베트남 지역 대신 태국 지역 주식에 투자하여 1997년 태국 바트화 가치 붕괴 이후 \$4,000만의 손실을 기록했음
- 원고측은 이사회의 임원들은 많은 펀드의 감독을 담당하면서 수천 달러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 소송의 책임을 펀드 이사회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음
 - 이사회가 투자자보다 Franklin 회사에 보다 높은 충성을 보였다는 것임
 - 원고측은 이를 이유로 이사회를 피고로 하는 파생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 미국 연방 자료에 따르면 몇몇 펀드 이사회 임원들은 40개 이상의 펀드를 감독~하면서 1년에 \$300,00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Franklin측이 소송을 무마한 의도는 향후 소송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자사의 잘못을 계속 부인했음
- 첫 번째 소송은 플로리다에서 제기되었으며, 펀드 업계에서 많은 로비 활동이 진행중이었음
 - 이 와중에 메릴랜드에서 소동이 발생했으며, 메릴랜드 주의회는 투자자들이 펀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러한 파생적인 소송이 소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음
- 시장 관계자는 만약 이 소송이 Franklin에 의해 중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어 펀드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투자 컨설팅사의 잘못을 지적한 MLIM측의 마지막 증인인 Stanyer (영국)

- MLIM 대 Unilever의 소송에서 MLIM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두한 Peter Stanyer는 투자 컨설팅사들이 펀드 성과 수치와 관련하여 너무 쉽게 동요되고 있음을 지적
 - Stanyer는 Unilever의 변호사인 Jonathan Sumption의 반대 심문시 투자 컨설팅사의 견해가 펀드 성과 수치에 과장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문제가 된 Unilever의 펀드는 1997년 1/4분기 이후 부진한 성과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 이에 대해 MLIM측은 1997년 가을 분야별 분산투자를 위해 MLIM의 개별 펀드매니저들이 회사 입장의 중앙 지침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적 서류를 발표했었음
- Sumption은 이러한 펀드의 부진한 성과는 1996년과 1997년에 위험 통제력이 지나치게 완화된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Stanyer에게 질의했으나, 그는 Sumption의 주장을 부인했음
- Stanyer는 펀드 성과가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자, 우려를 표명한 투자 컨설팅사의 견해로 인해 펀드 성과에 더욱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
 - 그는 일반적으로 투자 컨설팅사는 펀드 성과가 좋을 때는 펀드의 운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표현하는 반면, 부진한 펀드 성과시 이를 비난하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 등 변덕이 심하다고 언급
 -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Thomson사 인수를 계기로 영국 IFA 시장에 진입한 독일 AWD사 (영국)

- 독일 최대의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인 AWD는 영국의 Thomson사를 인수하여 영국 투자자문업 시장에 진출하였음
- AWD사는 Thomson사가 지니고 있는 채널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는 영국 IFA 시장에서 3대 IFA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영국의 IFA 시장은 독일 IFA 시장보다 성숙된 시장이지만,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직접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비용 상승과 규제강화로 영국에서는 IFA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Thomson사는 수입에 있어 영국 IFA 시장에서 10위에 속하며 21개 지점에 140명의 투자자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주 고객이 대규모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임 (자료: *The Financial Times*)

○ 동경증권거래소에 Reits 주식의 상장을 연기한 Goldman Sachs (일본)

- Goldman Sachs사는 자산시장 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여 Reits를 설립하여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연기하였음
 - Reits는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를 통해 임대소득 및 자본이득을 획득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융상품임
 - Goldman Sachs사는 자사, AIG 보험, GMAC, GM이 보유하고 있는 36개 건물을 기초로 하여 총 yen1,000억 규모의 Reits를 설립하여 11월 21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었음
 - Goldman Sachs의 대변인은 일본 자산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연기하였으며 언제 상장을 재추진할 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상장 취소는 일본 자산시장의 기초가 불안정하며,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건물 임대율의 하락 등 자산시장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개의 Reits 주식의 가격도 폭락하고 있음
- 시장은 Goldman Sachs사의 Reits 상장 포기과 이미 상장된 Reits 주가가격의 폭락을 계기로 Reits 투자가 일본의 자산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동산 산업과 일본 정부는 Reits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이 평가를 내리고 있음
 - Reits가 자산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및 The Financial Times)

◆ 2001년 11월 23일 금요일

○ 각출금 감소에 대해 경고를 한 ACA (영국)

- 영국의 Association of Consulting Actuaries (이하 ACA)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에 각출금을 적게 낼 경우 연금 생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소규모 기업의 연금 경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확정급부형 연금과 비교할 때 확정각출형 연금에 가입한 기업이나 종업원이 더 적은 각출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영국 기업들이 확정급부형 대신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을 채택하고 있음
 - ACA는 적은 각출금 납입이 계속될 경우, 많은 기업연금에서 연금지급액이 부족하여 연금 생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ACA는 또한 자본소득세의 부과, 낮은 투자수익률, 평균수명의 연장, 조기퇴직 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중국 지역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 설립을 계획 중인 Allianz (중국)

- 독일의 Allianz는 중국 지역 증권 중개회사인 Guotai Junan Securities와 합작투자 기업에 의해 중국의 최대 규모가 될 펀드운용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있다고 밝힘
 - 두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22일 양사의 공식적인 계약 체결식을 가졌음
- Guotai Junan은 지난 1월 합병으로 Allianz의 자회사가 된 Dresdner Bank와 기술적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는 중국이 WTO 가입 전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음
- 최근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펀드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모여 들고 있음
 - 중국은 높은 저축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 하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펀드운용사로 하여금 지역 펀드 운용사 지분의 33%까지 인수를 허용하며, 3년까지 49% 지분 확보 가능
 - 이는 중국 당국이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중국으로 많은 외국 자본의 참여를 희망하나, 중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넘겨 주지 않을 전망으로 풀이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1월 26일 월요일

○ 1940년 투자회사법 중 Rule 17f-4의 개정안을 제의한 SEC (미국)

- SEC는 최근 증권 수탁자들의 투자회사 사용을 규제하는 1940년 투자회사법 Rule 17f-4의 개정안을 제안했음
 -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년간 발생해 온 상법과 증권 예탁 실무의 발전을 반영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갱신 내지는 간소화할 예정임
- 특히, 이 개정안은 예탁되는 투자회사의 형태와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탁자 이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갱신했음
 - 불필요한 자산 보관상 준법 요건을 철폐하도록 하고 있음
 - 펀드 이사들의 펀드 보관 계약에 대한 승인 요건 및 보관인의 예탁 계약에 대한 펀드 승인 요건도 철폐하고 있음
- 이 개정안에 대한 논평 기간은 2002년 1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 주제는 다음과 같음
 - Transfer Agents를 포함하도록 Rule 17f-4의 확대
 - Management Companies가 아닌 투자회사 (ex. Unit Investment Trust, Face-Amount Certificate)를 포함하는 Rule 17f-4의 확대
 - 준법 요건 및 이사회 승인 요건의 철폐에 대한 내용
 - 외국계 보관인과의 계약에 대한 Rule 17f-4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 SEC는 이러한 개정안 내용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논평과 현재의 규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의 제의를 요청했음
 - SEC는 특히, 국내 예탁 자산에 대한 Rule 17f-5와 Rule 17f-7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미국내 예탁기관과 해외 펀드 보관회사간 경쟁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인지에 대한 논평도 요구하고 있음 (자료: ICI)

◆ 2001년 11월 27일 화요일

○ 펀드 운용사의 환매 의무를 강조한 HKSF (홍콩)

- Hong Kong's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이하 HKSF)은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펀드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음을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 HKSF는 덧붙여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이는 펀드 거래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펀드 업계에 펀드 거래 중지에 대한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됨
- 홍콩의 몇몇 뮤추얼펀드는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미국 거래소의 거래 중단을 이유로 거래를 중지했음
 - 이에 대해 HKSF는 미국 테러 사건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펀드 거래의 정지 요건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HKSF는 일반적으로 펀드 거래 중지는 펀드 포트폴리오의 가치 평가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상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
 - 따라서, 잠재적으로 과도한 환매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펀드 운용사가 펀드의 거래를 중지시킬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HKSF의 규정에 따르면 펀드의 총액 중 10%를 초과하는 환매가 발생했을 경우, 환매 절차를 다음 영업일로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HKSF는 펀드 운용사들이 펀드 거래 중지의 기간에도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환매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이는 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중요한 요인이 뮤추얼펀드가 어떠한 영업일에도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상기시켰음
- HKSF는 문제가 된 시장에 대해 펀드의 노출이 적을 경우 그 시장 거래소의 폐쇄가 펀드 거래를 중지시킬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힘
 - 펀드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이 문제가 된 시장에 노출될 경우 일반적으로 펀드의 거래 중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
- HKSF는 만약 펀드 거래가 중지될 경우 펀드 운용사는 즉시 HKSF에 알려야 한다고 언급
 - 거래 중지에 대한 결정은 결정된 시점에서 1일 내에, 거래 중지 기간 동안 적어도 1개월에 1번은 신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밝힘
 - HKSF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중지에 대한 사실을 빨리 알리기 위해 펀드 운용사들이 HKSF로부터 거래 중지 발표를 승인 받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힘
 - HKSF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거래 중지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펀드 주권에 대한 해석을 승인한 IASB (미국)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의 The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는 Interpretation SIC-34 (이하 해석)를 승인했음
 - 이 해석은 Unit Trust, 뮤추얼펀드, 또는 다른 투자회사 등에 의해 발생된 주권에 대해 재무상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음
 - 이 해석은 펀드 소유권자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주권을 환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펀드 주권은 부채라고 결론을 내렸음
 - 따라서, 환매 가능한 주권을 발행하는 주체들은 재무 회계 목적을 위해 순자산가치나 자기자본을 보고할 수 없음
- 이 해석은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규제된 투자회사 (Registered Investment Companies)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European Commission은 최근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국제적 회계기준의 채택을 요구하는 제안을 발표했음
 - 몇몇 유럽 국가들은 최근 국제적 회계기준의 채택을 허용했으나 강요하지 않고 있음 (자료: ICI)

◆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 12월 3일부터 Free-Floating 지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MSCI (홍콩)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 지수가 12월 3일부터 지수 산정 방식이 Free-Floating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MSCI 지수는 1969년부터 제공돼 왔으며, 지난 해 12월 지수 산정 방식을 시가 총액 기준 방식에서 Free-Floating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공언했었음
 - Free-Floating 방식이란 정부, 회사 및 회사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외국인 보유 제한이 있는 주식 등 전략적 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된 주식이 지수 구성에서 제외되어 실제 유통되는 주식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임
 - 많은 펀드매니저들은 MSCI 지수 산정 방식의 변경이 주가와 거래량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홍콩의 규제 당국은 MSCI 지수 산정 방식의 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해 주의를 요망하는 내용을 알렸음
- MSCI 지수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전 세계 51개 시장에 걸쳐 있는 총 11,000개의 MSCI 지수에서 약 490개 기업이 신규로 지수에 포함되고 약 39개 기업이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임
 - MSCI AC Asia Pacific Free ex-Japan 지수의 경우 130개 기업이 지수 구성에 포함되고 102개 기업이 제외되며, MSCI Japan Free 지수의 경우 71개 기업이 포함되고 23개 기업이 제외됨
 - MSCI는 11월 30일의 증가를 기준으로 12월 3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Free-Floating 방식을 50% 반영하며,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이 새로운 지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게 됨
 - 이로 인해 MSCI 지수의 산업 대표성 즉, 벤치마크 이용률이 기존의 60%에서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MSCI All Countries World Index Free에 따르면 미국이 지수 구성비의 53%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다음이 영국으로 1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 MSCI의 내부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Global Fund의 경우 직접적으로 MSCI 지수와 연계된 펀드 규모가 \$5,000억이며, 전 세계적으로 \$3조 규모의 펀드가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제 3자를 통해 검증된 자료는 아님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2001년 11월 29일 목요일**

○ **자산 구성 내역을 변경한다고 밝힌 말레이시아 연금 펀드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인 Employees Provident Fund (이하 EPF)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주식시장이 회복된다면 도박 및 양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힘
 - 재무부 장관인 Chan Kong Choy는 의회 발언에서 EPF가 도박 및 양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현재 EPF는 담배 제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Bhd.에 ringgit5억7,110만 (\$1억5,030만), 양조업 관련 기업에 ringgit430만, 카지노 운영회사인 Resorts World Bhd.에 ringgit1,680만, Genting Bhd.에 ringgit3,800만을 투자하고 있음
 - Chan은 초기 연금 펀드는 장기 성장 잠재력과 신뢰할 만한 수익률 등 회사의 높은 내재가치에 근거해서 투자했다고 밝힘
- Kuala Lumpur 증권거래소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1년 동안의 MPF 성과를 발표한 MPFSAC (홍콩)**

- 11월 29일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dvisory Committee (이하 MPFSAC)는 설립 이후 만 1년이 된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이하 MPF 제도)의 성과를 발표했음
 - MPFSAC의 위원장인 Nelson Chow Wing-sun은 지난 해 12월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의 도입 이후 홍콩 전역에 급속히 보급된 점과 이에 대한 호응 등으로 볼 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힘
 - 10월 말 현재 209,000명의 사용자, 1,743,000명의 종업원, 301,000명의 자영업자들이 MPF 제도에 등록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들 중 각각 88%, 95%, 91%를 차지함
- 9월 말 현재 MPF의 총 순자산가치는 자발적인 직역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산을 포함하여 HK\$282억8,200만임
 - 이 중 45%는 혼합형 펀드, 22%는 원금보장형 펀드, 16%는 MMF, 16%는 주식형 펀드, 1%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음
- MPF 규제기관인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이하 MPFA)는 20개의 승인된 수탁회사들이 MPF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감독을 해 왔다고 밝힘
 - 감시 대상으로 등록된 MPF 제도는 총 51개이고, 300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 MPFA는 매달 평균 700건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 중 85%는 사용자, 13%는 MPF 서비스 제공자 관련 사건이며, 사용자 관련 사건 중 80%는 사용자의 각종 불이행에 관한 내용임
- MPFSAC의 위원장인 Chow는 MPFSAC 구성원들의 1년 동안 MPF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노력에 대체로 만족하며 향후 효과적인 MPF 제도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언급
 - 그는 또 MPFA가 투자자 교육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 (자료: www.mpfahk.org)

○ MLIM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두한 Stanyer (영국)

- MLIM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두한 Stanyer는 Unilever 소송에서 MLIM은 1997년 당시 거품 현상이 두드러졌던 주식시장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 Stanyer는 MLIM의 위험 및 성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MLIM측의 변호사인 Lan Glick에 의해 이루어진 반대 심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답변했음
- Stanyer는 당시 포트폴리오 운용의 책임을 맡은 Alistair Lennard가 벤치마크 대비 양의 수익률이 아닌 절대적인 양의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했었다고 언급
 - 이는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다른 펀드매니저들의 성향과는 대조적인 것임
 - 당시 시장은 거품 현상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Lennard는 고객의 자산을 이러한 하락 장세에서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1월 30일 금요일

○ MLIM이 부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Bagot (영국)

- Unilever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듣기 위해 첫 번째로 재판에 출두한 Gordon Bagot는 MLIM측의 위험관리 통제 구조 및 보고 시스템에서 실패가 있었다고 주장
 - Bagot는 투자성과 분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험 계리인임
- Bagot는 그의 보고서에서 MLIM은 벤치마크 대비 1% 수익률과 하방 허용 수익률 -3%의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주장
 - 이는 MLIM측이 위험을 적절히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한 것에 따른 부주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벤치마크 대비 목표수익률이 크게 벗어난 것은 보다 높은 포트폴리오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이는 general industrials sector 부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45%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벤치마크 지수의 비중 1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펀드의 영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중 특정 대형주인 10개 주식의 비중이 16%를 차지하는데 비해 벤치마크 지수인 FTSE All Share Index에서는 동일한 10개 주식 비중이 0.5%에 불과함
- Bagot는 1996년 문제가 된 펀드의 총 수익률은 벤치마크 대비 -3.6%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음
 - 사실이 이와 같다면 MLIM측은 1996년 말에 이를 인식하고 1997년부터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했어야 한다고 주장
 - MLIM측은 1996년의 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도 전혀 없었다고 언급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투자자에 대한 세금 완화 조치를 의회에 요청한 미 펀드 업계 (미국)

- 미국 뮤추얼펀드 산업의 대표들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미국 펀드 투자자들이 재투자 되는 장기 자본이득 배당금에 대해서 펀드 주권이 매각될 때까지 세금이 연기되는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음
 - 70개 이상되는 펀드 회사들이 그 서한에 서명했음
 - 이 서한은 미국 의회가 중류층을 돕고 경제를 고무시키기 위해 요구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보내졌음
- 이 서한은 2002년 1/4분기에 자본이득세의 연기가 얼마나 빨리 수백만 명의 중산 소득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서한은 세금 연기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만약 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 미국 뮤추얼펀드협회인 ICI와 그 회원사들이 이 제안을 고려하는 의회 의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안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자료: ICI)

○ Enron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일본 자산운용사 (일본)

- 일본의 5개 자산운용사들은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투자신탁 상품에 최근 신용등급이 급락한 Enron Corp.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Enron은 합병 과정에 있던 미국 에너지 회사인 Dynegy Inc.와의 불안한 관계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어려운 기업 사정 등으로 11월 29일 신용평가사인 S&P사에 의해 신용등급이 BBB-에서 B-로 무려 6 단계나 강등되었음
 - 이후 신용평가사인 Moody's Investors Service와 Fitch도 S&P의 견해를 따랐으며, Enron과 합병을 논의하던 Dynegy가 합병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
- Nikko Asset의 경우 자사의 MMF와 Chance Fund 등에 ¥310억 (\$2억5,180만) 규모의 Enron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255억 규모의 Enron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Nikko Asset의 MMF는 펀드에서 차지하는 Enron의 비중이 0.94%임
 - Nikko Asset은 Enron 채권에 대해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펀드 가격에 산입할 것이라고 밝힘
 - Daiwa Asset의 경우 자사의 펀드에서 Enron 채권을 총 ¥174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Sumisei의 경우 자사의 MMF에 총 ¥3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Enron사의 신용등급 급락으로 인해 Enron사의 채권을 보유한 일본 자산운용사의 투신상품 중 특히 MMF에 큰 타격이 예상됨
 - 일본의 MMF는 1992년에 도입된 이후 높은 수익률과 현금으로 환금성이 뛰어나 인기를 모으는 투신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일본 투신 수탁고의 약 1/3에 해당함
 - 그러나, 일본 규제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펀드 운용 규제가 부족하여 시장관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온 상태였음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2월

December

10대 해외 기사

1. 철도 부문 연금제도 개혁안을 승인한 미 의회
(미국, 11일)
2. 증권 사기혐의를 인정한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
(미국, 12일)
3. 기업연금 자산의 자사주 투자를 억제하려는 움직임
(미국, 20일)
4.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의 주식형
펀드 (미국, 26일)
5. Unilever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MLIM
(영국, 6일)
6. 자산운용 계약에 대해 재고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
(영국, 14일)
7. 기대보다 낮은 자산 증가율을 보인 피인수 자산운용사
(영국, 17일)
8. 정부 보유 주식의 재매각을 요구한 사회보장 펀드
(중국, 19일)
9. 합작 자산운용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중국
규제당국 (중국, 24일)
10. 매칭펀드를 판매할 예정인 태국
(태국, 17일)

◆ 12월 해외 목차 (12/1-12/10)

12/1 [SAT]	
12/2 [SUN]	
12/3 [MON]	○ 금리하락으로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MMF (미국)
12/4 [TUE]	○ 기업연금 펀드의 수익률 조정에 대해 경고한 Milliman USA (미국) ○ 확정 판결이 임박한 Merrill Lynch와 Unilever간 소송 (영국)
12/5 [WED]	○ 미국에서 자산운용업을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Deutsch Bank (미국) ○ 기술주에 관한 다양한 전망을 보이고 있는 펀드매니저 (미국)
12/6 [THU]	○ 새로운 회계기준인 FRS 17의 완화를 요구한 NAPF (영국) ○ Unilever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MLIM (영국)
12/7 [FRI]	○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AEB (미국) ○ AMP에 대한 조사를 마친 ASIC (호주)
12/8 [SAT]	
12/9 [SUN]	
12/10 [MON]	○ 자산 보관회사로 BNY를 선임한 ABC (중국) ○ 환경 관련 Investment Trust를 설정할 예정인 Impax (영국)

◆ 12월 해외 목차 (12/11-12/20)

12/11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펀드의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지적한 Vanguard (미국) ○ 철도 부문 연금제도 개혁안을 승인한 미 의회 (미국)
12/12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사기혐의를 인정한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 (미국) ○ 영국 시장에 multi-manager product를 판매하려는 Frank Russell (영국) ○ 환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헤지펀드 (영국)
12/13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업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Morgan Stanley Quilter (영국) ○ 기업연금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한 IRS (미국)
12/14 (F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계약에 대해 재고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 (영국) ○ Tracker Fund의 추가 설정을 계획하고 있는 홍콩 정부 (홍콩)
12/15 (SAT)	
12/16 (SUN)	
12/17 (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보다 낮은 자산 증가율을 보인 피인수 자산운용사 (영국) ○ 매칭펀드를 판매할 예정인 태국 (태국) ○ 폐쇄형 펀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NYSE (미국)
12/18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초부터 새로운 ETF를 판매할 예정인 나스닥 (미국)
12/19 (W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유 주식의 재매각을 요구한 사회보장 펀드 (중국) ○ 헤지펀드 모집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펀드 산업 (홍콩)
12/20 (T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을 마감한 중국의 3번째 뮤추얼펀드 (중국) ○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할 예정인 Morningstar (미국) ○ 기업연금 자산의 자사주 투자를 억제하려는 움직임 (미국)

◆ 12월 해외 목차 (12/21-12/31)

12/21 (FRI)	○ 4/4 분기 수입 감소를 발표한 Goldman Sachs (미국)
12/22 (SAT)	
12/23 (SUN)	
12/24 (MON)	○ MBS를 발행할 예정인 HKMC (홍콩) ○ 합작 자산운용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중국 규제당국 (중국)
12/25 (TUE)	성 탄 절
12/26 (WED)	○ 합작 자산운용사의 해체를 결정한 Kokusai Securities (일본) ○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의 주식형 펀드 (미국)
12/27 (THU)	○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리스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ING (그리스) ○ 2001년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한 Dealogic (미국)
12/28 (FRI)	○ 펀드 운용수수료가 상승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펀드 산업 (독일)
12/29 (SAT)	
12/30 (SUN)	
12/31 (MON)	○ 부적절한 펀드매니저 교체를 지적한 WM (영국) ○ 펀드운용사인 Azimut를 인수한 Apax (이태리)

◆ 2001년 12월 3일 월요일

○ 금리 하락으로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MMF (미국)

- 금리 하락으로 MMF는 허용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FRB의 10차례 금리 하락으로 인해 만기가 13개월 이하인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MMF의 수익률이 하락하였음
 - iMoneyNet Inc.에 따르면, 과세형 MMF의 7일 수익률은 2000년 말 5.96%에서 11월 28일 현재 1.86%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105개 소매용 MMF는 0.99%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음
 - MMF 7일 수익률은 $[(\text{최근 7일간 수익률} + 1)^{365/7} - 1]$ 로 계산되어짐
 - MMF의 수익률이 1% 이하로 하락한 것은 MMF가 허용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임
- MMF의 보수가 수익률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수율에 따라 상이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펀드 수익률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1%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는 MMF의 7일 수익률이 1% 이하인데 반해, 1% 미만의 보수를 받는 MMF의 7일 수익률은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MMF는 브로커 및 투자자문 전문가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설계된 Class B 또는 Class C 주식이며, 이러한 주식의 경우 다른 Class의 주식보다 대략 1% 높은 보수율을 보임
-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MMF가 증가하고 있음
 - iMoneyNet에 따르면, 9월 이후 56.1%의 MMF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다고 SEC에 보고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4일 화요일

○ 기업연금 펀드의 수익률 조정에 대해 경고한 Milliman USA (미국)

- 미국의 50개 거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펀드들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법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음
 - 연금수리 컨설팅 기업인 Milliman USA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50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펀드들이 2000년 총 \$382억의 자산 손실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준비금에 있어 25%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 펀드들은 smoothing이란 회계 기법을 이용하여 총 \$87억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smoothing은 이익 및 손실을 5년 이상의 회계연도로 분산시키는 회계 기법으로 1987년 FAS 87을 통해 도입되었음
 - 연금펀드의 경우 30년 이상의 장기 유기증권에 투자되므로 smoothing 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 적은 거의 없음
- Milliman USA는 낮은 투자수익, 낮은 이자율,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급부 수준의 상향 등으로 인해 연금펀드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2001년에도 연금펀드에서 대규모의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Milliman USA는 투자수익이 계속하여 하락할 경우 연금펀드의 재무제표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종업원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항상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2000년 말 기준으로 기업연금 펀드들의 재무제표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25%로 여전히 자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1999년 말 동 비율은 135%였음
- 연금펀드의 smoothing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smoothing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연금펀드가 실제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 smoothing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기업 자체의 이익보다 과다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Milliman USA는 smoothing 기법을 폐지하거나 실제 수익을 사용하는 방안보다는 연금부채로 손실을 발표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확정 판결이 임박한 Merrill Lynch와 Unilever간 소송 (영국)

- Unilever Superannuation pension fund (이하 Unilever)가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 (이하 MLIM)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금년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됨
 - Unilever는 위험관리의 태만, 불충분한 분산투자, 주가 하락에 대한 적절한 대비의 실패 등을 이유로 MLIM을 고소하고 £1억3천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법원은 양 사가 증인으로 지정한 8명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지금은 전문가 6명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음
 - 증언 청취가 끝나면 재판부는 늦어도 12월까지의 판결을 확정할 예정임
- 펀드 성과가 벤치마크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펀드가 £6억 규모의 영국 주식을 편입했기 때문임
 -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영국 주식의 수익률은 1997년에 9.8%, 1998년에는 13.8%로 Financial Times가 제공하는 Stock Exchange All-Share Index의 수익률 23.6%와 16.3% 보다 낮았음
 - Unilever는 포트폴리오에 제조업을 과다하게 편입하고 은행을 적게 편입함으로써,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Mayall은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1998년 1월 MLIM 측이 운용보수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더 많은 환불을 요구하며 MLIM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증언하였음
- Unilever의 CIO인 Wendy Mayall은 펀드운용사인 MLIM이 연금펀드인 Unilever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 스타일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고집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MLIM의 사장이었던 Carol Galley는 펀드매니저를 바꾼 사실을 Unilever측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펀드매니저의 교체는 Unilever의 수익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하였음
 - Galley는 1993년부터 Unilever 연금펀드의 운용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펀드매니저에게 전담시키고 자신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난 1995년 4월 Unilever에 알렸음
 - Galley는 Unilever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운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펀드매니저를 교체했으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펀드 운용에 대해 계속하여 점검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소송의 결과가 연금 및 펀드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Unilever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불만을 가진 연금펀드에 의한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법률회사인 Evershed의 연금담당자인 Ellison은 MLIM에 유리한 판결은 펀드매니저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판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 미국에서 자산운용업을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Deusch Bank (미국)**

- Deusch Bank (이하 DB)는 Zurich Scudder Investment (이하 ZSI)에 대한 인수와 인력 감축을 통해 미국에서 자산운용업 분야를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DB는 ZSI를 인수하면서 1,5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할 예정임
 - 인력 감축은 ZS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Deutsche Asset Management (이하 DAM)와 ZSI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400여명의 투자 전문인력도 포함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 ZSI에 대한 인수와 별도로 DAM은 수익 감소로 2년 동안 3,3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음
 - DAM의 ZSI 인수로 탄생할 기업은 \$9천억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자산운용사가 될 것임
- 2001년 주식시장의 침체로 DAM과 ZSI의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음
 - ZSI의 뮤추얼펀드는 2001년 동안 환매 증가로 순자산이 \$23억 감소하였으며, DAM의 펀드도 순자산이 \$38억 감소하였음
 - ZSI는 자산운용업 평균인 20%보다 낮은 한 자리 수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나 인력 감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용의 절감으로 수익이 업계 평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술 및 투자 업무에 있어서 중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 감축은 이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해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고객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지역 사업소의 폐쇄를 통한 업무의 집중화가 가능하며 부동산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Zurich Financial Services (이하 ZFS)에 의한 ZSI 매각은 2002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임
 - ZFS는 ZSI의 모회사임
 - DB는 ZFS로부터 ZSI에 대한 지분 뿐 아니라 이태리 및 독일에서의 자산운용업까지 인수하고, 인수 대금으로 ZFS에 \$20억을 지급할 예정임
 - ZFS는 인수 대금 중 \$7억은 현금으로 받고 \$13억으로는 DB의 유럽지역 보험회사 및 독일의 투자자문회사인 Bonnfinanz를 인수하기로 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및 The Financial Times)

○ 기술주에 관한 다양한 전망을 보이고 있는 펀드매니저 (미국)

- 9·11 테러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미국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음
 - 9월 11일 이후 미국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10% 이상 상승하였으며, 기술주 펀드는 2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Lipper에 따르면 9월 17일~11월 29일 동안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9.5%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10개의 펀드 중 7개 펀드는 기술주 펀드였음
- 기술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기술주에 대한 상이한 전망에 따라 기술주의 편입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주식시장이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와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으며 기술주가 다시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로 양분됨
-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기술주의 편입비중을 줄이거나 과소평가된 주식을 매입하고 있음
 -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을 경기 반등의 징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기술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Fidelity의 Magellan Fund는 9월 30일 기술주 편입 비중을 11.1%로 낮추는 등 더욱 신중하게 주식을 선정하고 있음
 -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는 2001년 동안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지만 상당수 주식의 가격이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일부는 주식시장이 현 시점을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관련 주식이 강세장을 선도할 것이라 믿고 있음
 - TCW Galileo 성장형 펀드의 펀드매니저인 Doug Foreman은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국면이라고 파악하여 최근 3개월 동안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음
 - Foreman은 기술 관련 주식이 경기 곡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술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믿고 있음
 - Legg Mason Value Trust의 펀드매니저인 William Miller 역시 2001년 동안 주가가 많이 급락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6일 목요일**

○ 새로운 회계기준인 FRS 17의 완화를 요구한 NAPF (영국)

-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이하 NAPF)는 새로운 회계 기준인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FRS) 17을 완화해 줄 것을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ASB)에 요구하였음
 - 대표적인 800개 기업연금을 대상으로 NAPF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연금의 77% 이상이 FRS 17로 인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새로운 회계기준인 FRS 17은 기업이 연금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시가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NAPF는 기업이 펀드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FRS 17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FRS 17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연금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0년 도입되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FRS 17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내년 초 기업들이 결산을 발표할 경우 FRS 17의 적용에 따른 충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NAPF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추가적인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가입을 금하거나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을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Lloyds TSB, Sainsbury, British Telecommunications 등 46개 기업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종업원의 추가적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 13개 기업은 확정급부형 대신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을 채택하였음
 - 투자 수익 전망의 불확실성, 평균수명의 연장, 비용 및 규제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포기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및 The Financial Times)

○ Unilever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MLIM (영국)

- 펀드운용사인 MLIM이 Unilever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펀드 성과와 관련하여 2년 2개월을 끌어온 두 기업간의 문제가 일단락 되었음
 - MLIM은 운용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Unilever에 £7천만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12월 5일 MLIM은 대법원에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며 Unilever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하였고, Unilever가 협상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음
 - MLIM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협상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였음
- 협상을 통해 사태가 종료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재판으로 인해 두 기업은 시간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 재판과 관련한 비용 외에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일련의 소송과 협상으로 운용 성과에 불만을 가진 많은 연금펀드가 MLIM 등 펀드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음
 - £30억을 위탁한 J Sainsbury, AstraZeneca 등 연금펀드 운용사가 MLIM을 대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The Financial News 및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2월 7일 금요일

○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AEB (미국)

- American Express Bank (이하 AEB)는 Global Market Neutral Conservative Fund of Fund (이하 Market Neutral)라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였음
 - Market Neutral은 8%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음
 - 1%의 운용보수 및 5%의 성과보수 등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낮은 보수 체계를 지니고 있음
 - Market Neutral은 펀드 자산의 최대 10%까지 개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스타일의 헤지펀드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Market Neutral은 12월 1일부터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17개의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AMP에 대한 조사를 마친 ASIC (호주)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ASIC)은 AMP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AMP의 공시 자료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
 - AMP는 호주에서 가장 큰 펀드운용사임
 - 호주증권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내부거래 혐의로 AMP를 ASIC에 고발하였음
 - 호주증권거래소는 애널리스트들의 AMP 요약 보고 오류 수정 과정에서, 수정된 예상 수익을 애널리스트들에게만 제공하고 거래소 공시는 하지 않은 혐의로 AMP를 고발하였음
 - ASIC는 설명회에서 회사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수정된 예상 수익을 발표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음
- ASIC는 AMP가 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반이 의도적이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발표하였음
 - AMP는 설명회에서 제공된 예상 수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애널리스트에게만 통보하고 거래소에 알리지 않았음
- AMP 사건을 계기로 복잡한 공시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Melbourne 대학의 연구에서는 호주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계속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 자산 보관회사로 BNY를 선임한 ABC (중국)

- Agricultural Bank of China (이하 ABC)는 자사의 국제 채권 자산의 보관을 담당할 보관회사로 Bank of New York (이하 BNY)을 선임하였음
 - ABC는 €2천980억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상업은행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ABC는 중국에 대략 5만개에 달하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해외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 BNY는 €7조2천억에 달하는 자산을 보관하고 있음
-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자산운용업 등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작년 State Street Corporation (이하 SSC)은 중국 최대의 국영 은행인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이하 ICBC)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하였음
 - 전략적 제휴는 SSC가 ICBC의 자산을 운용해 주고, ICBC는 SSC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SSC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자산보관 업무를 담당하기를 원하는 ICBC를 대상으로 보관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환경 관련 Investment Trust를 설정할 예정인 Impax (영국)

- 자산운용사인 Impax Group (이하 Impax)은 특정 환경 관련 사업에 특화된 기업에 투자하는 Investment Trust를 설정할 예정임
 - Impax는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로 인해 환경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수자원의 관리나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다양한 환경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Waste Recycling Group과 같이 특정 환경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 Impax의 사장인 Ian Simm은 전세계적으로 특정 환경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대략 200개 정도이며, 이 중 40~50개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 밝혔음
 - 이 Trust는 내년 2월에 상장될 예정임 (자료: The Financial Times)

◆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 자사 펀드의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지적한 Vanguard (미국)

- Vanguard는 웹사이트 및 무료 전화를 통해 자사의 GNMA 펀드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Vanguard GNMA 펀드는 자산의 80% 이상을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이하 Ginnie Mae)의 저당증권 (mortgage securities)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설정잔고가 \$190억에 달함
 - Ginnie Mae의 저당증권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저당 대출들로 pool을 구성하고, 해당 pool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증권임
 - Vanguard는 최근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GNMA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이자율이 하락하면 높은 이자로 저당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선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펀드는 이자율이 낮은 새로운 저당증권에 투자해야만 하므로 펀드의 수익률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음
 - Vanguard는 일반투자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GNMA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자사의 웹사이트 및 무료 전화를 통해 수익률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
- Vanguard의 GNMA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펀드 중의 하나임
 - 10월말 Vanguard GNMA 펀드의 수익률은 5.91%로 저당증권에 투자하는 경쟁사 펀드의 수익률 평균인 5% 보다 0.91% 높았으며, 12월 첫 번째 주의 수익률은 6.09%에 달했음
 - Financial Research의 조사에 의하면, 올 한 해 동안 Vanguard GNMA 펀드에 총 \$39억이 추가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뮤추얼펀드 중에서 4번째로 많이 매각된 것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철도 부문 연금제도 개혁안을 승인한 미 의회 (미국)

- 미국 양원은 철도 부문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여 행정부로 이첩하였음
 - 철도산업은 낙후된 연금제도의 개선과 철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의회를 통과한 연금제도 개혁안은 연금자산 중 일부인 \$156억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허용과 철도 기업에 대한 급료부 세금 (payroll tax)의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 받아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0세로 단축하였고,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급부금을 \$300로 상향 조정하였음
 - 현재 철도 부문 기업연금으로부터 급부금을 받고 있는 급부 수령자는 대략 67만 5천명에 달함
- 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식 등 사적 부문에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연금펀드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종업원 및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주식 및 채권 투자에 따라 연금펀드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종업원 급부가 향상될 수 있음
 - 연금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급료부 세금을 지불하여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금펀드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적은 급료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세금 절약분을 철도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펀드의 수익이 2% 증가할 경우 종업원이 지불하여야 하는 급료부 세금은 현행대로 4.9%로 유지되지만, 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급료부 세금은 2003년까지 16.1%에서 14.2%로 하락하게 됨
-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연금 중 일부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업연금 자산을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시킨다는 점과, 급료부 세금 인하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12일 수요일

○ 증권 사기혐의를 인정한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 (미국)

- 증권 사기혐의로 기소된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유죄를 시인하였음
 - Ashbury Capital Partners의 펀드매니저 Mark Yagalla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되었음
 - SEC에 따르면 Mark Yagalla는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펀드가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였음
 - Mark Yagalla는 법정에서 투자자의 자금을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자금 전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는 위조된 계좌 증명서를 보냈다고 증언하였음
 - 2002년 2월 14일 확정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며, 연방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4년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 Mark Yagalla는 1997년 Ashbury Capital Partners를 설립하였으며, 인터넷 및 기술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펀드를 운용해 왔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영국 시장에 multi-manager product를 판매하려는 Frank Russell (영국)

- multi-manager인 Frank Russell (이하 FR)은 영국 펀드 소매시장에 multi-manager product를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보험회사인 Scottish Widows (이하 SW)와 제휴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새롭게 판매될 multi-manager programme의 펀드 운용사 pool에는 Fidelity, JP Morgan, Schroders, Putnam 등 50개 이상의 펀드 운용사가 포함될 예정임
 - multi-manager programme은 독립된 투자자문 전문가, corporate banking, unit trusts, individual savings accounts 등의 SW 판매망을 통해 판매될 것임
 - multi-manager product는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 운용사를 소개해 주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자산 관리형 상품으로, 고객은 다수의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FR은 multi-manager product를 판매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의 현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제휴를 통해 3년 동안 \$72억의 수익을 올렸음
 - FR은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프랑스, 이태리 등의 회사와 제휴를 통해 multi-manager product를 판매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환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헤지펀드 (영국)

- 5년 후에는 현재 설정된 헤지펀드의 2/5 이상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음
 - 1994년~2001년 동안 헤지펀드의 해지와 생존에 대한 연구를 통해 University of Reading의 Harry Kat과 Gaurav Amin은 향후 5년간 헤지펀드의 생존율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 연구에 따르면 5년 전에 설정되었던 헤지펀드의 59.5%가 지금도 운용되고 있지만 헤지펀드에 대한 환매율 (attrition rate)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환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 펀드는 George Soros의 세계 거시경제형 펀드로 1998년 아시아 및 러시아의 경제위기 동안 입은 손실에 따른 것으로 보임
 - 5년 전 헤지펀드의 생존율은 93.8%였으나, 2000년 헤지펀드의 생존율은 87.7%로 하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낮은 수익률과 소규모 헤지펀드의 증가를 생존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convertible-arbitrage 전략 및 event-driven 투자 전략을 채택한 펀드의 환매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convertible-arbitrage 전략은 가장 보수적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전환사채 등을 사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주식은 팔아 양 증권의 가격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전략임
 - event-driven 투자 전략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형성된 가격 변동 및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부실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형태임 (자료: The Financial Times)

◆ 2001년 12월 13일 목요일

○ 자산운용업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Morgan Stanley Quilter (영국)

- 사모 중심의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Morgan Stanley Quilter (이하 MSQ)는 유럽에서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
 - Morgan Stanley는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영국 보험회사인 CGNU로부터 Quilter를 인수하였음
 - Quilter는 15년 동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중심의 자산운용업을 영위한 회사로, 고객의 예탁자산이 £46억이며 90% 이상의 자산이 일임 운용되고 있음
 - MSQ는 스코틀랜드의 Glasgow에 새로운 지점을 여는 것을 계기로 영국 및 유럽에서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고 함
 - 영국에 비해 스코틀랜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errill Lynch 등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SQ는 스코틀랜드에 지사를 설립하였음
- MSQ는 인력 확충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재개할 예정임
 - MSQ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자료: The Financial News 및 www.eFinancialNews.com)

○ 기업연금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한 IRS (미국)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는 2002년부터 변경되는 기업연금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이하 EGTRRA)의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과 EGTRRA의 시행과는 관계없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02년부터 변경되는 기업연금 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EGTRRA 제611조에 따라,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서 매년 지급되는 급부금 상한이 \$140,000에서 \$160,000으로, 그리고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에서 각출금의 상한이 \$35,000에서 \$40,000으로 상향 조정됨
 - 또한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의 선택적 각출 상한이 \$10,500에서 \$11,000으로 상향 조정됨
 - Internal Revenue Code 414(q)(1)(B)에서 정의하는 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상한이 \$85,000에서 \$90,000으로 변경됨 (자료: ICI)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 자산운용 계약에 대해 재고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 (영국)

- SEI Investment의 조사에 따르면, Merrill Lynch (이하 MLIM)와 Unilever간의 소송과 타협을 목격한 많은 영국의 연금펀드가 자산운용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SEI Investment는 미국의 multi-manager임
 - 연금펀드가 양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지만 계약을 통해 약속했던 수익률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MLIM은 Unilever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조사 대상인 영국 30개 거대 기업의 재정담당 이사 및 연금펀드 매니저 중 47%가 연금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조사 대상의 73%는 이번 사건에서 연금펀드의 수탁기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펀드 운용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Tracker Fund의 추가 설정을 계획하고 있는 홍콩 정부 (홍콩)

- 2002년 1/4분기에 HK\$30억에 달하는 Tracker Fund of Honk Kong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Exchange Fund Investment (이하 EFI)는 밝혔음
 - Tracker Fund of Honk Kong (이하 Tracker Fund)은 1999년 11월 최초로 설정된 이후 매 분기마다 추가로 설정되고 있으며, 2001년 4/4분기에는 HK\$10억 규모로 1억 유닛이 설정되었음
 - EFI는 Tracker Fund의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 정부의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산하 기관으로, 내년 1/4분기에 최대 2억6천 유닛 추가 설정을 예상하고 있음
 - 유닛당 기준가격은 블루칩 항셱 지수를 추적하는 Tracker Fund의 목요일 종가에 기초하여 결정됨
 - Tracker Fund는 State Street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

○ 기대보다 낮은 자산 증가율을 보인 피인수 자산운용사 (영국)

-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던 기간 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국제간 M&A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일반적인 경우 기대했던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1990년대 은행 및 보험회사들은 연금 및 기타 금융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인수하였고, 300건 이상의 M&A가 이루어졌음
 - 런던 주재 컨설팅 회사인 Cerulli Associates (이하 CA)에 따르면, 인수·합병된 자산운용사의 1/2 이상이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Fleet Boston Financial 및 Legg Mason 등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후 자산운용사의 자산 증가율이 감소하여 산업 평균 이하로 하락하였음
 - CA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1990년대 자산운용사를 인수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운용사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CA에 따르면 2000년 자산운용사에 대한 국제간 인수·합병은 \$14억 규모로 63건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에는 \$7억4천에 33건으로 감소하였음
- 기업 조직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M&A 실시 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자산 성장을 보였음
 - 미국에 있어 자산운용 산업의 평균 자산 증가율이 15%였지만 조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산 증가율은 20%였음
 - 1995년 Baring Asset Management를 인수한 네덜란드의 보험회사인 ING Greop 및 1998년 Weiss, Peck & Greer를 인수한 Robeco Greop의 경우, 조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자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M&A 되었지만 자산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함
 - 1998년 Mellon Bank에 인수된 영국의 Newton Management의 경우, 인수 당시 자산이 £125억 이었으나 현재 £227억으로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1997년 Amvescap PLC에 인수된 AIM의 경우, \$571억에서 \$1,612억으로 자산 규모가 3배 가량 커졌음
- M&A에 따른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컨설팅 기업은 현재를 M&A의 적기로 보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권유하고 있음
 - 스위스의 컨설팅 기업인 Millenium Associates AG의 창업자 Ray Soudah는 자산운용사의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M&A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음
 - Ray Soudah는 자산운용사의 자산이 20% 이상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대한 가격은 30~40% 하락하였으므로, 현재가 낮은 가격으로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및 The Financial Times)

○ 매칭펀드를 판매할 예정인 태국 (태국)

- 태국 정부와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Cerberus Capital Management (이하 Cerberus)는 \$5억 규모의 주식형 매칭펀드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설정될 주식형 매칭펀드는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칭펀드 프로그램의 첫 번째 펀드로 태국에서 설정되는 최초의 매칭펀드임
 - 매칭펀드 프로그램은 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설정되는 각 펀드의 75%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고 25%는 태국 정부가 인수하게 됨
 -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사업 전망이 밝은 태국 기업의 주식 및 정부기관의 감시 하에서 구조조정을 마친 태국 기업의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총 \$5억에서 Cerberus가 \$4억을 인수하고 남은 \$1억은 Krung Thai 은행이 주도하는 태국 금융기관들이 인수하기로 하였음
- 태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협력 합의서 교환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폐쇄형 펀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NYSE (미국)

- SEC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폐쇄형 펀드의 수수료에 대해 NYSE가 신고한 규정 변경안이 즉각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 NYSE는 변경안에서 폐쇄형 펀드가 거래소에 최초 상장될 경우 적용되던 최초 상장 수수료 최저액 및 \$36,8000의 일시적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발행되는 주식 수에 기초하여 최초 상장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NYSE는 현재 적용되는 상장 수수료 부과 체계와 변경안에 따라, 2002년부터 적용될 수수료 부과 체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통해 차액을 보전해줄 것이라 밝혔음
 - 또한 NYSE는 폐쇄형 펀드를 상장하는 자산운용사별로 상장 수수료의 연간 상한을 \$1백만로 제한한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NYSE에는 380개 이상의 폐쇄형 펀드가 상장되어 있으며, 이 펀드들의 대부분은 Nuveen, Morgan Stanley Van Kampen, Merrill Lynch 등 자산운용사가 설정하여 상장한 펀드임
- NYSE가 제안한 규정 변경안은 2002년 1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됨 (자료: ICI)

◆ 2001년 12월 18일 화요일

○ 내년 초부터 새로운 ETF를 판매할 예정인 나스닥 (미국)

- Nasdaq Composite Index를 추적하는 ETF가 내년부터 거래될 예정임
 - 나스닥은 Nasdaq Composite Index에 편입된 4,000개의 주식을 추적하는 ETF를 내년 봄에 설정하여 판매할 예정임
 - 일반적인 ETF의 경우 편입 주식의 수가 수백개에 불과하지만, 나스닥의 새로운 ETF (이하 나스닥 종합 ETF)는 나스닥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4,000개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음
 -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는 QQQ ETF 처럼 나스닥 주식의 일부를 추적하는 ETF 및 뮤추얼펀드는 있었지만 Nasdaq Composite Index 전체를 추적하는 ETF는 처음임
 - QQQ ETF는 Amex에 의해 1999년 3월 처음 소개되었으며, 현재 Amex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편입 주식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나스닥 종합 ETF가 QQQ ETF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QQQ ETF 대신 나스닥 종합 ETF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 현재 QQQ ETF는 규모가 큰 주식들이 대거 이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스닥 종합 ETF에는 4,000여개에 달하는 주식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과 small-cap 주식, IPO 주식, 금융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주식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QQQ ETF에 비해 비교우 위에 있음
 - 나스닥 종합 ETF에는 편입된 주식이 다양하므로, 기술 관련 주식 등 특정 분야 주식의 급락이나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나스닥 시장은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IPO 감소로 상장 수수료 등 수익이 감소하였지만, 내년 초에 ETF 상장을 통해 이러한 수익 감소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ETFs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나스닥 종합 ETF의 성공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 S&P 500을 추적하는 Vanguard 500 Index Fund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ETFs로의 자금 유입은 3년 동안 수십억 달러에서 \$700억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시장의 침체로 나스닥 종합 ETF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반응이 냉담할 가능성도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19일 수요일

○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요구한 사회보장 펀드 (중국)

- 중국 거대 연금펀드인 사회보장 펀드는 준비금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재개를 중국 정부에 요청하였음
 - 2000년에 설정된 사회보장 펀드는 현재 자산 규모가 yuan617억에 달하며, 은행 예금과 국공채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자산을 투자하여 왔음
 - China Daily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펀드의 요청에 따라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 펀드로의 보유 주식 직접 이전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의 매각 방법 및 시점은 사회보장 펀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임
- 연금 수령자의 증가 및 실업률의 증가로 사회보장 펀드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준비금을 확충하려는 사회보장 펀드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연금 수령자는 1억명 정도이지만, 20년에 걸친 산아 제한 노력의 결과 머지 않아 경제활동 인구 증가 비율이 연금 수령자 증가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됨
 - WTO 가입은 기업들에게 비용 절감을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장 펀드의 준비금 확충 시도가 안정된 주식시장을 조성하려는 증권 당국의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보장 펀드가 손실을 볼 경우, 펀드는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6월 정부의 보유 주식 매각에 따라 주식 가격이 급락하였으며, 10월 정부가 주식 매각을 중단하자 주식 가격이 반등하였음
 -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2 이상을 정부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2월 18일 정부 보유 주식을 연금펀드 자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연금펀드의 주식시장 참여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펀드는 자산의 4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 자산의 10%까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음
 - 펀드 자산 50% 이상을 은행예금 및 국공채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 중 10%는 반드시 은행예금에 투자하여야 함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헤지펀드 모집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펀드 산업 (홍콩)

- 홍콩의 뮤추얼펀드 산업을 규제하는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이하 SFC)은 내년부터 헤지펀드의 설정을 허용할 계획임
 -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헤지펀드는 투자 대상 및 투자 지역이 자유로운 펀드임
 - 홍콩 정부는 헤지펀드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투자자 및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헤지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지난 10월 SFC는 헤지펀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헤지펀드의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뮤추얼펀드 업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음
- Hong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 (이하 IFA)은 지난 11월 SFC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뮤추얼펀드 업계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뮤추얼펀드 업계는 헤지펀드의 모집 방법, 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과 같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
 - 조사 대상 기업의 1/2 이상이 헤지펀드의 모집에 있어, 펀드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각 펀드에 상이한 최소 투자 요건을 부과하는 시장 분할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음
 - 조사 대상 기업의 20%는 헤지펀드의 모집에 있어 어떠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IFA에 등록된 45개 자산운용사 중 33개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20일 목요일

○ 청약을 마감한 중국의 3번째 뮤추얼펀드 (중국)

- 중국의 3번째 뮤추얼펀드에 대한 청약이 마감되었음
 - China AMC Growth Fund (이하 AMC 펀드)의 자산운용사는 현재까지 청약자금으로 yuan32억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앞선 두 번의 뮤추얼펀드 청약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음
 - 첫 번째 뮤추얼펀드인 Huaan Innovation Fund의 경우 yuan24억, 두 번째 뮤추얼펀드인 China Southern Fund의 경우 yuan35억 이었음
 - AMC 펀드에 대한 청약은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2월 14일 마감되었음
- 지난 9월에 설립된 두 개의 뮤추얼펀드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리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 시장의 침체에 따라 청약이 미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할 예정인 Morningstar (미국)**

- 뮤추얼펀드 평가기관인 Morningstar Inc는 주식 시장 지수 공급업에 진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Morningstar는 내년 1/4분기에 전체 시장 지수, 시가총액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분리된 시장별 지수 등 16개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지수를 발표할 예정임
 - 내년에 발표될 지수는 우선 미국 및 유럽의 주식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임
- Morningstar는 펀드 평가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지수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임
 - Morningstar는 지난 8월 펀드 평가업 외에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등 종합적인 투자은행 업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Morningstar는 자사의 운용 전문인력이 직접 운용하는 Morningstar Managed Portfolios를 내년 1월에 설정할 예정임
- 주식시장 지수 공급업은 이미 포화상태지만 Morningstar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수 공급 시장에는 Standard & Poor's,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Frank Russell unit of 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Dow Jones & Co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지수를 공급하고 있음
 - Morningstar는 일반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시장 지수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기업연금 자산의 자사주 투자를 억제하려는 움직임 (미국)**

- 뉴저지주의 상원의원이자 Goldman Sachs의 전 회장이었던 Jon Corzine은 Enron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기업연금의 기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음
 - Jon Corzine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Barbara Boxer와 함께 기업연금 자산의 자사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Corzine은 연금의 기본이자 유일한 투자 전략은 분산투자이며 특정 종목에 자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401(k) plan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자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종업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 McDonald's, Coca-Cola, GE 등 401(k) plan을 채택한 거대 미국 기업의 종업원들은 401(k) plan 계정 자산의 70% 이상을 자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 미국의 에너지 회사인 Enron의 종업원들은 자신들 연금 자산의 67%를 자사의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기업의 파산 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음
- Corzine과 Boxer가 제출한 법안은 종업원이 자신의 계정 자산의 20% 이상을 단일 종목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 4/4 분기 수입 감소를 발표한 Goldman Sachs (미국)

-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는 투자은행 사업에서의 수익 구조가 4/4분기에 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음
 - 10월, 11월 Goldman Sachs의 수입은 \$4억8,700만으로 작년 동 기간의 \$6억에 비해 20%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투자자문업과 공모주선업의 수입은 각각 39%, 30% 감소하였음
 - 2001년 Goldman Sachs의 순이익은 \$23억으로 작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 Goldman Sachs의 CFO인 David Viniar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해 비관적이며 따라서 많은 사업 영역에 있어 내년도 전망 역시 비관적이라 밝히고 있음
- 10월 이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은행의 수입은 하락하였음
 - 투자은행인 Lehman Brothers는 10월 11월 동안 자본시장 부문에서 수입은 \$5억 7,700로 3/4분기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동사의 전체 수입은 1/3 가량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 반대로 Morgan Stanley, Bear Stearns 등은 동 기간 투자은행 분야에서의 수입이 3/4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Goldman Sachs는 비용의 감소를 통해 수익구조의 악화를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시장 환경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은행들이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용의 감소 밖에 없음
 - Goldman Sachs 등 투자은행은 인력 감축과 비용 구조의 조정을 통해 수익구조의 악화에 대응하고 있음
- 대부분 사업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권·재화의 유통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수입이 증가하였음
 - 채권·재화 유통 부문의 수입은 \$8억6,700만으로 작년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자산운용 부문의 수입은 \$3억6,800만으로 작년 대비 3% 증가하였음 (자료: The Financial Times 및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12월 24일 월요일

○ MBS를 발행할 예정인 HKMC (홍콩)

- Hong Kong Mortgage Corp. (이하 HKMC)은 2002년에 HK\$30억 규모로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하 MBS)를 발행할 예정임
 - HKMC는 2001년 상반기 American Express Bank를 주간사로 하여 HK\$6억 3,300만의 MBS를 발행하는 등 1999년 이후 지금까지 pass-through 방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US\$2억9,490만 규모의 MBS를 발행하였음
 - pass-through는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하고 중개기관은 이 자산들을 집합화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신탁에 대한 지분권을 매각하는 방식임
- HKMC는 부도의 위험이 전혀 없는 Bauhinia MBS Ltd.라는 유동화 기업을 설립하여 각 주택저당을 debt paper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2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총 HK\$30~40억 규모의 MBS를 발행할 계획임
 - HKMC는 2002년 1/4분기에 HK\$20억 규모의 MBS를 발행할 계획임
 - HKMC는 자산 보유자이자 자산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Merrill Lynch International이 주간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홍콩은 다양한 통화로 MBS를 발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MBS를 발행하는 등 다채롭고 세련된 MBS 발행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아시아 MBS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HKMC는 발전 단계인 홍콩 MB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홍콩 달러로만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보장되는 단순한 상품만을 판매하여 왔음
 - 2002년 1/4분기까지는 홍콩의 일반투자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홍콩 달러로만 발행되는 보장형 MBS를 발행할 계획임
 - 1/4분기 이후 발행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들 및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US 달러 및 유러화로 MBS를 발행할 계획임
 - HKMC는 차별적인 신용 보강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을 가지지만 수익은 낮은 senior class MBS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을 가지지만 수익은 높은 junior class MBS를 발행할 계획임
- MBS를 판매하고 있는 dealer group은 홍콩 주택저당의 채무 불이행율이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등 주택저당 자체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MBS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Barclays Capital, Dao Heng Bank, Deutsche Bank, HSBC, JP Morgan, Merrill Lynch International, Salomon Smith Barney and UBS Warburg가 MBS를 판매하고 있음
 - MBS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수단을 찾는 일반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MB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합작 자산운용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중국 규제당국 (중국)**

-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CSRC)은 지난 21일 합작 자산운용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음
 -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중국에서 자산운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중국 자산운용사와의 합작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야 함
 -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신설될 합작 자산운용사에 yuan3억 이상의 자본을 출자하여야 함
 - 규정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증권투자업 및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의 증권 규제당국은 반드시 중국 규제당국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함
 - CSRC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음
-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는 자산운용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작 자산운용사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26일 수요일**

○ **합작 자산운용사의 해체를 결정한 Kokusai Securities (일본)**

- Kokusai Securities Co. (이하 KSC)는 계열 관계에 있는 증권회사와의 합병에 앞서, Deutsche Bank AG (이하 DB)와의 자산운용업 분야 전략적 제휴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
 - 일본에서 5번째로 큰 증권회사인 KSC는 자사의 자산운용업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DB와 합작하여 설립하였던 자산운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 KSC와 DB는 1998년부터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일본과 아일랜드에 합작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였음
 - DB가 1999년 Bankers Trust를 인수하고 KSC가 Mitsubishi Tokyo Financial Group (이하 MTFG)으로 인수됨에 따라 양사의 협력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했음
 - KSC는 MTFG의 자회사인 Tokyo-Mitsubishi Securities Co. 및 Tokyo-Mitsubishi Personal Securities Co.를 합병하여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증권회사가 될 계획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의 주식형 펀드 (미국)

- 10년에 달하는 장기 경기침체와 최근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세계 주식형 뮤추얼펀드들이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있음
 - 2001년 들어 전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침체와 유러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세계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성과가 좋지 않았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출하였음
 - 일본 경제 사정의 악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뮤추얼펀드 성과 하락에 대비하여, 펀드매니저들은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통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Pioneer International Equity Fund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Pavlos Alexandrakis는 펀드 자산에서 일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11%로 줄였다고 밝혔음
 - Julius Baer International Equity Fund의 매니저인 Richard Pell은 펀드에서 일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25%에서 10%로 줄였으며, 은행주의 편입 비중을 줄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고 밝혔음
 - Morningstar에 따르면, Morgan Stanley의 EAFE 지수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설정된 주식형 펀드의 일본 주식 편입 비중은 12월 현재 16.3%에 불과함
-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한 소비의 진작이 장기 경기침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따라서 엔화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함
 - 10년에 걸친 장기 침체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으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자본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엔화 가치의 하락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성과를 하락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엔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일본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고 펀드의 투자 성과가 하락할 수 있음
 - 펀드매니저들이 엔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헤지할 수는 있지만, 일본 경제 사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헤지는 제한적임
 - 유일한 헤지 수단은 일본 주식의 편입 비중을 줄임으로써 엔화 가치의 하락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임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27일 목요일

○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리스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ING (그리스)

- 네덜란드의 bancassurer인 ING는 그리스의 Piraeus Bank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리스 자본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음
 - bancassurer는 은행과 보험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 회사를 말함
 - ING와 Piraeus는 2002년 1월말 그리스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합작회사는 방카슈랑스 업무, 자산운용업,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운용 등 금융업무를 실시할 예정임
 - 최근 그리스에서는 금융회사간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자료: The Financial Times)

○ 2001년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한 Dealogic (미국)

- 경기 침체에 따른 이자율 인하와 주식시장의 약세로 인해 2001년 채권 발행 규모가 2000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 시장 데이터를 공급하는 Dealogic에 따르면, 2001년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채권 규모는 \$1조6,800억으로 2000년 \$1조4,600억에 비해 15% 증가하였음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채권 발행 규모가 \$8,400억으로 전세계 채권 발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6,800억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음
- 9·11 테러, Enron의 도산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
 -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4분기에 \$3,830억 규모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4/4분기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임
- 채권 발행의 증가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였음
 - 2000년 미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00억이었으나, 올 한 해 동안 Ford Motor, WorldCom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2,000억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였음
 - 11차례에 걸친 FRB의 이자율 하향화와 주식시장의 침체가 미국 기업 회사채 발행 증가의 주 원인임
-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감소하겠지만, 유럽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내년에도 계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The Financial Times)

◆ 2001년 12월 28일 금요일

○ 펀드 운용수수료가 상승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펀드 산업 (독일)

- 독일과 프랑스의 펀드운용사들은 자사 펀드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3자를 통한 판매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의 펀드운용사들은 자사 펀드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 은행 대신, 펀드 슈퍼마켓이나 비계열 금융기관 등 제3자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펀드 판매망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펀드 관련 수수료는 오히려 상승하였음
 - 펀드운용사들은 자사 펀드를 판매하는 제3자인 판매회사가 경쟁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수수료의 일정 수준을 판매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용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음
 - 더 많은 판매 채널을 확충하려는 펀드운용사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판매회사를 확보하기 위해 펀드운용사는 운용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
- 펀드 판매망의 확충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임
 - 판매망을 확충하려는 운용사들의 경쟁으로 운용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운용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적정 수수료 수준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펀드 판매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임
- 펀드산업의 투명성이 증가하면 판매망 확충 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하락할 수 있음
 - 1980년대 후반부터 독립적인 투자자문사 등 제3자를 통한 펀드 판매가 증가한 영국의 경우 펀드의 운용수수료가 증가하였으나, 펀드 수수료의 산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결과 수수료가 하락하였음 (자료: Dow Jones Newswires)

◆ 2001년 12월 31일 월요일

○ 부적절한 펀드매니저 교체를 지적한 WM (영국)

- 성과평가 기업인 WM은 영국 기업연금 수탁회사들의 펀드매니저 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 WM은 17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를 교체한 90개의 연금펀드 수탁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WM은 지난 3년간 낮은 성과를 보였던 펀드매니저를 높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매니저로 대체한 연금펀드들의 행위가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해고된 펀드매니저는 해고 이후 3년 동안 벤치마크보다 0.6%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
- WM은 오히려 높은 성과를 보였던 펀드매니저를 낮은 성과를 기록했던 펀드매니저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WM은 1%의 교체 비용을 고려하여도 낮은 성과의 펀드매니저로 교체할 경우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연 평균 1% 이상 높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펀드운용사인 Azimut를 인수한 Apax (이태리)

- private equity house인 Apax Partners (이하 Apax)는 이태리 은행인 Bipop-Carire (이하 Bipop)로부터 €3억7,100만에 펀드운용사인 Azimut을 인수함으로써 이태리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하였음
 - Apax는 €4,700만에 달하는 Azimut의 부채까지 인수하기로 하였음
 - Apax는 Azimut 인수를 통해 이태리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Bipop는 매각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대부분의 이태리 펀드운용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회사이며, Apax는 이태리 최초의 독립된 펀드운용사임 (자료: www.efinancialnews.com)

◀ 2001년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자료 모음 ▶

1월	16일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 UCITS 약관 제안에 동의
	18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거래법 규정 (Commodity Exchange Act Rule) 1.25의 수정안을 채택
	22일	ICI에서 확정각출형 연금 상품의 퇴직시 지급 선호 방식 및 사용 실태 조사
	26일	SEC 뮤추얼펀드 세후 수익률 공시 규정 채택
	29일	ICI는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요청으로 미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개선안 제공
2월	7일	ICI 및 EBRI의 401(k)의 통계자료 조사
	8일	ETF (Exchange-Traded Fund)의 통계량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ICI
	13일	ICI, 미국 의회에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촉구
	14일	「2001 경쟁력있는 시장 감시 법 (S.143)」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ICI
3월	8일	뮤추얼펀드 소유자의 환매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일	ICI, 2000년 12월 31일 현재 SIMPLE IRA plans의 자료 공시
	21일	Unit Investment Trusts의 1999년 말 및 2001년 2월 통계 현황
	28일	ICI,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게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지지
4월	10일	새로운 연금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인 독일 정부
	12일	Pension Fund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영국 정부
	16일	IRA와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
5월	2일	하원의 두 위원에서 승인된 Portman-Cardin bill
	4일	"Social Security Commission"을 구성토록 지시한 부시 대통령
	9일	ICI, 2001년 3월의 Unit investment trust의 통계 발표
	30일	전자적 기록 보관 법률안을 채택한 SEC
6월	6일	양원에서 통과된 IRA 및 연금 관련 법안
	7일	\$1조3,500억의 감세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11일	펀드의 자본이득세 이연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ICI
	11일	미국 뮤추얼펀드의 현황 및 이해 자료 발표
	18일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활성화가 기대되는 529 plan
7월	12일	추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사항을 제의한 NASDR
	12일	RICs의 세금 환급 청구 소송을 받아들인 스위스
	18일	퇴직 저축자산에 대한 투자조언 관련 법안의 확장을 주장하는 ICI
	18일	SEC의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공시 규제안에 대한 ICI의 견해

8월	2일	저축 소득 과세 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기한 EU 위원회
	6일	자본시장에 대한 발전 및 규제 완화를 공표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10일	새로운 소득세법 협정에 서명한 미국과 영국
	13일	401(k) plan 참가자에 대한 평균 계정잔고 조사
	16일	UCITS 펀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킨 Bank of Italy

9월	11일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사용과 관련된 pilot program의 시행 연장을 승인한 SEC
	14일	투자회사법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한 SEC
	17일	자본이득세 완화 조치를 건의한 하원의원 Saxton
	21일	투자회사에 대한 완화 조치를 5영업일간 연장한 SEC
	24일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 사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ICI
	24일	테러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거래를 봉쇄한 부시 미 대통령
	25일	미국-스위스간 세금 환급 청구 소송에서 새로운 절차를 공표한 스위스
	25일	뮤추얼펀드 광고에 대한 세후수익률 공시 규정 준수일 연기
27일	2001년 IRA 소유 현황	

10월	1일	SIMPLE IRA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ICI
	3일	과반수 이상 뮤추얼펀드를 소유한 미국 가계
	4일	퇴직저축 제도에 대한 조언 규정을 승인한 하원
	16일	퇴직저축제도 및 IRAs 저축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인 Announcement 2001-106을 발표한 IRS
	29일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반테러법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

11월	8일	퇴직저축 제도의 투자 조언을 승인한 하원의 The Way and Means Committee
	12일	장기 투자 성향을 띠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13일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ETFs의 상품 설계에 대해 공개적 의견을 구하는 SEC
	13일	펀드 합병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SEC
	15일	테러 충격이 심한 퇴직저축제도에 대해 보고 기한을 연장한 IRS
	19일	2000년 401(k) plan의 자산 배분, 계정잔고, 및 대출 현황
	26일	1940년 투자회사법 중 Rule 17f-4의 개정안을 제의한 SEC
	27일	펀드 주권에 대한 해석을 승인한 IASB
30일	투자자에 대한 세금 완화 조치를 의회에 요청한 미 펀드 업계	

12월	13일	기업연금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한 IRS
	17일	폐쇄형 펀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NYSE